

창의와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 연구·현장 지원

경북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이 동 욱

창의와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 연구·현장 지원

경북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이 동 욱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의견 또는 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자체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목 차/CONTENTS】

제 I 장 조사개요

-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 조사 모형 10
- ◆ 조사 문항 12
- ◆ 패널 설계 17
- ◆ 조사 대상 패널 학교 및 학생 구성 현황 19
- ◆ 1차년도 조사 대상 및 최종 분석 대상자 20
- ◆ 조사 방식 21
- ◆ 분석 방법 22

제 II 장 학생 조사결과

- ◆ 학생생활 영역 27
- ◆ 컴퓨터/스마트기기 영역 35
- ◆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 43
- ◆ 학교 수업(학습일반) 영역 57
- ◆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영역 65
- ◆ 학교 및 사회생활 영역 84
- ◆ 부모자녀관계 영역 94
- ◆ 사교육 영역 100
- ◆ 학교선택/진로 영역 103
- ◆ 학업성취도 영역 108
- ◆ 성취도 진단 영역 110

제 III 장 성별에 따른 학생 조사결과 비교 분석

- ◆ 성별 집단 간 비교 분석 방법 125
- ◆ 학생생활 영역 125
- ◆ 컴퓨터/스마트기기 영역 127
- ◆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 131
- ◆ 학교 수업(학습일반) 영역 139
- ◆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영역 144
- ◆ 학교 및 사회생활 영역 154
- ◆ 부모자녀관계 영역 158
- ◆ 학교선택/진로 영역 162



제Ⅳ장
학부모 조사결과

- ◆ 인구학적 배경 167
- ◆ 사교육 및 교육비 영역 170
- ◆ 보호자의 지원 영역 175
- ◆ 부모자녀관계 영역 178
- ◆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영역 180
- ◆ 학부모 참여 및 학교만족 영역 184
- ◆ 보호자 및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 영역 ··· 188
- ◆ 교육 현안 영역 192

제Ⅴ장
교사 조사결과

- ◆ 인구학적 배경 197
- ◆ 교수자 특성 영역 199
- ◆ 학교운영 일반 영역 206
- ◆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 영역 214
- ◆ 교육 현안 영역 219

제Ⅵ장
학교장 조사결과

- ◆ 인구학적 배경 223
- ◆ 학교경영 일반 영역 224
- ◆ 교육 현안 영역 232

제Ⅶ장
심화 분석: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 서론 237
-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39
- ◆ 연구방법 및 내용 246
- ◆ 연구결과 248
- ◆ 결론 및 논의 254



제Ⅷ장
요약 및 제언

- ◆ 연구 개요 요약 261
- ◆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265
 - 학생 조사결과 265
 - 학부모 조사결과 274
 - 교사 조사결과 278
 - 학교장 조사결과 280
 - 심화 분석 결과(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것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281

[부록]
경북교육종단연구를
위한 설문지

- ◆ 초등학생용 설문지 287
- ◆ 학부모용 설문지 298
- ◆ 교사용 설문지 303
- ◆ 학교장 설문지 308



【표 목차】

◆ [표 1-1] 학생 대상 설문 영역 및 문항	13
◆ [표 1-2] 학부모 대상 설문 영역 및 문항	15
◆ [표 1-3] 교사 대상 설문 영역 및 문항	16
◆ [표 1-4] 학교장 대상 설문 영역 및 문항	17
◆ [표 1-5] 경북교육종단연구 패널 설계	19
◆ [표 1-6] 초등학교 4학년(패널) 학교 및 학생 현황	20
◆ [표 1-7] 1차년도 최종 분석 대상자	21
◆ [표 2-1] 초등학생_자발적 학습활동 시간 빈도분석	27
◆ [표 2-2] 초등학생_여가시간 빈도분석	28
◆ [표 2-3]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여부 빈도분석	29
◆ [표 2-4]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경험 기술통계 및 신뢰도	29
◆ [표 2-5]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경험 빈도분석	30
◆ [표 2-6] 초등학생_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빈도분석	31
◆ [표 2-7] 초등학생_비행활동 경험 기술통계 및 신뢰도	31
◆ [표 2-8] 초등학생_비행활동 경험 빈도분석	32
◆ [표 2-9] 초등학생_독서활동 빈도분석	33
◆ [표 2-10] 초등학생_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기술통계 및 신뢰도	35
◆ [표 2-11] 초등학생_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빈도분석	37
◆ [표 2-12] 초등학생_디지털 기기 의존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38
◆ [표 2-13] 초등학생_디지털 기기 의존도 빈도분석	39
◆ [표 2-14] 초등학생_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시간 빈도분석	40
◆ [표 2-15] 초등학생_게임활동 기술통계 및 신뢰도	41
◆ [표 2-16] 초등학생_게임활동 빈도분석	42
◆ [표 2-17] 초등학생_건강 기술통계 및 신뢰도	43
◆ [표 2-18] 초등학생_건강 빈도분석	44
◆ [표 2-19] 초등학생_자아존중감 기술통계 및 신뢰도	44
◆ [표 2-20] 초등학생_자아존중감 빈도분석	45
◆ [표 2-21] 초등학생_자기효능감 기술통계 및 신뢰도	46
◆ [표 2-22] 초등학생_자기효능감 빈도분석	47
◆ [표 2-23] 초등학생_성장신념 기술통계 및 신뢰도	48



◆ [표 2-24] 초등학생_성장신념 빈도분석	49
◆ [표 2-25] 초등학생_끈기 기술통계 및 신뢰도	50
◆ [표 2-26] 초등학생_끈기 빈도분석	50
◆ [표 2-27] 초등학생_다문화수용성 기술통계 및 신뢰도	51
◆ [표 2-28] 초등학생_다문화수용성 빈도분석	52
◆ [표 2-29] 초등학생_우울 기술통계 및 신뢰도	53
◆ [표 2-30] 초등학생_우울 빈도분석	54
◆ [표 2-31] 초등학생_행복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54
◆ [표 2-32] 초등학생_행복도 빈도분석	55
◆ [표 2-33] 초등학생_학습동기 기술통계 및 신뢰도	57
◆ [표 2-34] 초등학생_학습동기 빈도분석	58
◆ [표 2-35] 초등학생_자기주도학습 기술통계 및 신뢰도	59
◆ [표 2-36] 초등학생_자기주도학습 빈도분석	60
◆ [표 2-37] 초등학생_학업 스트레스 기술통계 및 신뢰도	61
◆ [표 2-38] 초등학생_학업 스트레스 빈도분석	62
◆ [표 2-39] 초등학생_교사의 사기 및 열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63
◆ [표 2-40] 초등학생_교사의 사기 및 열의 빈도분석	63
◆ [표 2-41] 초등학생_수업이해도 빈도분석	65
◆ [표 2-42] 초등학생_수업집중도 빈도분석	66
◆ [표 2-43] 초등학생_수강태도_국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67
◆ [표 2-44] 초등학생_수강태도_국어 빈도분석	68
◆ [표 2-45] 초등학생_수강태도_영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68
◆ [표 2-46] 초등학생_수강태도_영어 빈도분석	69
◆ [표 2-47] 초등학생_수강태도_수학 기술통계 및 신뢰도	70
◆ [표 2-48] 초등학생_수강태도_수학 빈도분석	71
◆ [표 2-49] 초등학생_수업방식_국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72
◆ [표 2-50] 초등학생_수업방식_국어 빈도분석	73
◆ [표 2-51] 초등학생_수업방식_영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73
◆ [표 2-52] 초등학생_수업방식_영어 빈도분석	74
◆ [표 2-53] 초등학생_수업방식_수학 기술통계 및 신뢰도	75
◆ [표 2-54] 초등학생_수업방식_수학 빈도분석	76
◆ [표 2-55]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77



◆ [표 2-56]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빈도분석	78
◆ [표 2-57]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79
◆ [표 2-58]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빈도분석	80
◆ [표 2-59]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기술통계 및 신뢰도	81
◆ [표 2-60]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빈도분석	81
◆ [표 2-61] 초등학생_학교내 평가활동 기술통계 및 신뢰도	82
◆ [표 2-62] 초등학생_학교내 평가활동 빈도분석	83
◆ [표 2-63] 초등학생_학교 만족도 빈도분석	84
◆ [표 2-64] 초등학생_학교에 관한 인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85
◆ [표 2-65] 초등학생_학교에 관한 인식 빈도분석	86
◆ [표 2-66] 초등학생_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87
◆ [표 2-67] 초등학생_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빈도분석	88
◆ [표 2-68] 초등학생_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89
◆ [표 2-69] 초등학생_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빈도분석	90
◆ [표 2-70]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빈도분석	90
◆ [표 2-71]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참여시간 빈도분석	91
◆ [표 2-72]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만족도 빈도분석	92
◆ [표 2-73] 초등학생_부모애착관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94
◆ [표 2-74] 초등학생_부모애착관계 빈도분석	95
◆ [표 2-75] 초등학생_부모의사소통 기술통계 및 신뢰도	96
◆ [표 2-76] 초등학생_부모의사소통 빈도분석	96
◆ [표 2-77] 초등학생_부모자녀관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97
◆ [표 2-78] 초등학생_부모자녀관계 빈도분석	98
◆ [표 2-79] 초등학생_부모와의 대화시간 빈도분석	99
◆ [표 2-80] 초등학생_사교육 참여 여부 빈도분석	100
◆ [표 2-81] 초등학생_사교육 참여 시간 빈도분석	102
◆ [표 2-82] 초등학생_교육포부 빈도분석	103
◆ [표 2-83] 초등학생_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기술통계 및 신뢰도	104
◆ [표 2-84] 초등학생_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빈도분석	105
◆ [표 2-85] 초등학생_진로성숙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105
◆ [표 2-86] 초등학생_진로성숙도 빈도분석	106
◆ [표 2-87] 초등학생_학업성취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108



◆ [표 2-88] 초등학생_학업성취도 빈도분석	109
◆ [표 2-89] 국어 문항 정보	111
◆ [표 2-90]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응답 비율	114
◆ [표 2-91] 국어의 고전검사이론 및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 결과	116
◆ [표 2-92] 국어 고전검사이론 문항 난이도 결과	116
◆ [표 2-93] 국어 고전검사이론 문항 변별도 결과	116
◆ [표 2-94] 국어 문항반응이론 문항 난이도 결과	116
◆ [표 2-95] 국어 문항반응이론 문항 변별도 결과	117
◆ [표 2-96] 수학 문항 정보	118
◆ [표 2-97]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응답 비율	120
◆ [표 2-98] 수학의 고전검사이론 및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 결과	121
◆ [표 2-99] 수학 고전검사이론 문항 난이도 결과	122
◆ [표 2-100] 수학 고전검사이론 문항 변별도 결과	122
◆ [표 2-101] 수학 문항반응이론 문항 난이도 결과	122
◆ [표 2-102] 수학 문항반응이론 문항 변별도 결과	122
◆ [표 3-1] 성별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 경험 비교 분석	125
◆ [표 3-2] 성별에 따른 비행활동 경험 비교 분석	126
◆ [표 3-3] 성별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비교 분석	128
◆ [표 3-4] 성별에 따른 디지털 기기 의존도 비교 분석	129
◆ [표 3-5] 성별에 따른 게임활동 비교 분석	130
◆ [표 3-6] 성별에 따른 건강 비교 분석	131
◆ [표 3-7]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분석	132
◆ [표 3-8]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비교 분석	134
◆ [표 3-9] 성별에 따른 성장신념 비교 분석	135
◆ [표 3-10] 성별에 따른 끈기 비교 분석	136
◆ [표 3-11] 성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비교 분석	137
◆ [표 3-12] 성별에 따른 우울 비교 분석	138
◆ [표 3-13] 성별에 따른 행복도 비교 분석	139
◆ [표 3-14]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 비교 분석	140
◆ [표 3-15]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비교 분석	141
◆ [표 3-16] 성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비교 분석	143
◆ [표 3-17] 성별에 따른 교사의 사기 및 열의 비교 분석	144

◆ [표 3-18]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국어 비교 분석	145
◆ [표 3-19]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영어 비교 분석	146
◆ [표 3-20]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수학 비교 분석	147
◆ [표 3-21]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국어 비교 분석	148
◆ [표 3-22]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영어 비교 분석	149
◆ [표 3-23]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수학 비교 분석	150
◆ [표 3-24]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비교 분석	151
◆ [표 3-25]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비교 분석	152
◆ [표 3-26]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수준	153
◆ [표 3-27] 성별에 따른 학교내 평가활동 비교 분석	154
◆ [표 3-28] 성별에 따른 학교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155
◆ [표 3-29] 성별에 따른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156
◆ [표 3-30]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157
◆ [표 3-31]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관계 비교 분석	159
◆ [표 3-32] 성별에 따른 부모의사소통 수준	160
◆ [표 3-33]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참여 경험 비교 분석	161
◆ [표 3-34] 성별에 따른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비교 분석	162
◆ [표 3-35]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163
◆ [표 4-1] 학부모_응답자 구성	167
◆ [표 4-2] 학부모_성별	168
◆ [표 4-3] 학부모_직업	168
◆ [표 4-4] 학부모_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	170
◆ [표 4-5] 학부모_과목별 사교육 참여 유형	172
◆ [표 4-6] 학부모_총 교육비 지출	173
◆ [표 4-7] 학부모_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173
◆ [표 4-8] 학부모_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174
◆ [표 4-9] 학부모_자녀의 교육지원	175
◆ [표 4-10] 학부모_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177
◆ [표 4-11] 학부모_양육행동	178
◆ [표 4-12] 학부모_자녀 희망 교육 수준	180
◆ [표 4-13] 학부모_희망 대학 지역	181
◆ [표 4-14] 학부모_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	182



◆ [표 4-15] 학부모_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에 따른 만족도	183
◆ [표 4-16] 학부모_학교 참여 경험 여부	184
◆ [표 4-17] 학부모_학교교육 만족도	185
◆ [표 4-18] 학부모_학교안전 만족도	186
◆ [표 4-19] 학부모_보호자 심리특성 - 자아존중감	188
◆ [표 4-20]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자아존중감)	189
◆ [표 4-21]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회복탄력성)	190
◆ [표 4-22]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끈기)	191
◆ [표 4-23] 학부모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192
◆ [표 5-1] 교사_성별	197
◆ [표 5-2] 교사_교직 경력	198
◆ [표 5-3] 교사_교사효능감	199
◆ [표 5-4] 교사_교사의 사기/열의	201
◆ [표 5-5] 교사_교직만족도	202
◆ [표 5-6] 교사_교사소진	203
◆ [표 5-7] 교사_수업개선활동	204
◆ [표 5-8] 교사_연수시간	205
◆ [표 5-9] 교사_학교 내 주당 유형별 업무시간	206
◆ [표 5-10] 교사_의사결정권한(민주성)	207
◆ [표 5-11] 교사_교장의 리더십	209
◆ [표 5-12] 교사_학교풍토	211
◆ [표 5-13] 교사_지역사회 관계	212
◆ [표 5-14] 교사_학생의 수업이해도	214
◆ [표 5-15] 교사_과제에 대한 피드백	215
◆ [표 5-16] 교사_수업활동: 교수자 중심	216
◆ [표 5-17] 교사_수업활동: 학습자 중심	217
◆ [표 5-18] 교사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219
◆ [표 6-1] 학교장_성별	223
◆ [표 6-2] 학교장_학교 교육 목표	224
◆ [표 6-3] 학교장_의사결정권한(민주성)	225
◆ [표 6-4] 학교장_학교장 리더십	227
◆ [표 6-5] 학교장_학교풍토	229

◆ [표 6-6] 학교장_지역사회 관계	230
◆ [표 6-7] 학교장_업무비중	231
◆ [표 6-8] 학교장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232
◆ [표 7-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449)	249
◆ [표 7-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N=2,449)	249
◆ [표 7-3] 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확인	251
◆ [표 7-4] Fornell-Larcker 판별타당도 검증	251
◆ [표 7-5] HTMT _{.90} 판별타당도 검증	252
◆ [표 7-6] 구조모형의 가설 검증결과	253



【그림 목차】

◆ [그림 1-1] 경북교육종단연구 조사 모형	11
◆ [그림 2-1] 초등학생_자발적 학습활동 시간 비율	28
◆ [그림 2-2] 초등학생_여가시간 비율	28
◆ [그림 2-3]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여부 비율	29
◆ [그림 2-4]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경험 평균	30
◆ [그림 2-5]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경험 비율	30
◆ [그림 2-6] 초등학생_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비율	31
◆ [그림 2-7] 초등학생_비행활동 경험 평균	32
◆ [그림 2-8] 초등학생_비행활동 경험 비율	33
◆ [그림 2-9] 초등학생_독서활동 비율	34
◆ [그림 2-10] 초등학생_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평균	36
◆ [그림 2-11] 초등학생_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비율	37
◆ [그림 2-12] 초등학생_디지털 기기 의존도 평균	38
◆ [그림 2-13] 초등학생_디지털 기기 의존도 비율	39
◆ [그림 2-14] 초등학생_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시간 비율	40
◆ [그림 2-15] 초등학생_게임활동 평균	41
◆ [그림 2-16] 초등학생_게임활동 비율	42
◆ [그림 2-17] 초등학생_건강 평균	43
◆ [그림 2-18] 초등학생_건강 비율	44
◆ [그림 2-19] 초등학생_자아존중감 평균	45
◆ [그림 2-20] 초등학생_자아존중감 비율	46
◆ [그림 2-21] 초등학생_자기효능감 평균	47
◆ [그림 2-22] 초등학생_자기효능감 비율	48
◆ [그림 2-23] 초등학생_성장신념 평균	48
◆ [그림 2-24] 초등학생_성장신념 비율	49
◆ [그림 2-25] 초등학생_끈기 평균	50
◆ [그림 2-26] 초등학생_끈기 비율	51
◆ [그림 2-27] 초등학생_다문화수용성 평균	52
◆ [그림 2-28] 초등학생_다문화수용성 비율	52



◆ [그림 2-29] 초등학생_우울 평균	53
◆ [그림 2-30] 초등학생_우울 비율	54
◆ [그림 2-31] 초등학생_행복도 평균	55
◆ [그림 2-32] 초등학생_행복도 비율	56
◆ [그림 2-33] 초등학생_학습동기 평균	57
◆ [그림 2-34] 초등학생_학습동기 비율	58
◆ [그림 2-35] 초등학생_자기주도학습 평균	59
◆ [그림 2-36] 초등학생_자기주도학습 비율	60
◆ [그림 2-37] 초등학생_학업 스트레스 평균	61
◆ [그림 2-38] 초등학생_학업 스트레스 비율	62
◆ [그림 2-39] 초등학생_교사의 사기 및 열의 평균	63
◆ [그림 2-40] 초등학생_교사의 사기 및 열의 비율	64
◆ [그림 2-41] 초등학생_수업이해도 비율	66
◆ [그림 2-42] 초등학생_수업집중도 비율	66
◆ [그림 2-43] 초등학생_수강태도_국어 평균	67
◆ [그림 2-44] 초등학생_수강태도_국어 비율	68
◆ [그림 2-45] 초등학생_수강태도_영어 평균	69
◆ [그림 2-46] 초등학생_수강태도_영어 비율	70
◆ [그림 2-47] 초등학생_수강태도_수학 평균	71
◆ [그림 2-48] 초등학생_수강태도_수학 비율	71
◆ [그림 2-49] 초등학생_수업방식_국어 평균	72
◆ [그림 2-50] 초등학생_수업방식_국어 비율	73
◆ [그림 2-51] 초등학생_수업방식_영어 평균	74
◆ [그림 2-52] 초등학생_수업방식_영어 비율	75
◆ [그림 2-53] 초등학생_수업방식_수학 평균	76
◆ [그림 2-54] 초등학생_수업방식_수학 비율	76
◆ [그림 2-55]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평균	77
◆ [그림 2-56]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비율	78
◆ [그림 2-57]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평균	79
◆ [그림 2-58]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비율	80
◆ [그림 2-59]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평균	81
◆ [그림 2-60]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비율	82

◆ [그림 2-61] 초등학생_학교내 평가활동 평균	83
◆ [그림 2-62] 초등학생_학교내 평가활동 비율	83
◆ [그림 2-63] 초등학생_학교 만족도 비율	84
◆ [그림 2-64] 초등학생_학교에 관한 인식 평균	85
◆ [그림 2-65] 초등학생_학교에 관한 인식 비율	86
◆ [그림 2-66] 초등학생_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평균	87
◆ [그림 2-67] 초등학생_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비율	88
◆ [그림 2-68] 초등학생_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평균	89
◆ [그림 2-69] 초등학생_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비율	90
◆ [그림 2-70]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비율	91
◆ [그림 2-71]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참여시간 비율	92
◆ [그림 2-72]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만족도 비율	93
◆ [그림 2-73] 초등학생_부모애착관계 평균	94
◆ [그림 2-74] 초등학생_부모애착관계 비율	95
◆ [그림 2-75] 초등학생_부모의사소통 평균	96
◆ [그림 2-76] 초등학생_부모의사소통 비율	97
◆ [그림 2-77] 초등학생_부모자녀관계 평균	97
◆ [그림 2-78] 초등학생_부모자녀관계 비율	98
◆ [그림 2-79] 초등학생_부모와의 대화시간 비율	99
◆ [그림 2-80] 초등학생_사교육 참여 여부 비율	101
◆ [그림 2-81] 초등학생_사교육 참여 시간 비율	102
◆ [그림 2-82] 초등학생_교육포부 비율	103
◆ [그림 2-83] 초등학생_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평균	104
◆ [그림 2-84] 초등학생_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비율	105
◆ [그림 2-85] 초등학생_진로성숙도 평균	106
◆ [그림 2-86] 초등학생_진로성숙도 비율	107
◆ [그림 2-87] 초등학생_학업성취도 평균	108
◆ [그림 2-88] 초등학생_학업성취도 비율	109
◆ [그림 3-1] 성별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 경험 수준	126
◆ [그림 3-2] 성별에 따른 비행활동 경험 수준	127
◆ [그림 3-3] 성별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128
◆ [그림 3-4] 성별에 따른 디지털 기기 의존도 수준	130



◆ [그림 3-5] 성별에 따른 게임활동 수준	131
◆ [그림 3-6] 성별에 따른 건강 수준	132
◆ [그림 3-7]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	133
◆ [그림 3-8]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	134
◆ [그림 3-9] 성별에 따른 성장신념 수준	135
◆ [그림 3-10] 성별에 따른 끈기 수준	136
◆ [그림 3-11] 성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	137
◆ [그림 3-12] 성별에 따른 우울 수준	138
◆ [그림 3-13] 성별에 따른 행복도 수준	139
◆ [그림 3-14]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 수준	140
◆ [그림 3-15]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수준	142
◆ [그림 3-16] 성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수준	143
◆ [그림 3-17] 성별에 따른 교사의 사기 및 열의 수준	144
◆ [그림 3-18]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국어 수준	145
◆ [그림 3-19]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영어 수준	146
◆ [그림 3-20]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수학 수준	147
◆ [그림 3-21]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국어 수준	148
◆ [그림 3-22]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영어 수준	149
◆ [그림 3-23]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수학 수준	150
◆ [그림 3-24]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수준	151
◆ [그림 3-25]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수준	152
◆ [그림 3-26]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수준	153
◆ [그림 3-27] 성별에 따른 학교내 평가활동 수준	154
◆ [그림 3-28] 성별에 따른 학교에 관한 인식 수준	156
◆ [그림 3-29] 성별에 따른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수준	157
◆ [그림 3-30]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수준	158
◆ [그림 3-31]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관계 수준	159
◆ [그림 3-32] 성별에 따른 부모의사소통 수준	160
◆ [그림 3-33]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수준	161
◆ [그림 3-34] 성별에 따른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수준	163
◆ [그림 3-35]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164
◆ [그림 4-1] 학부모_응답자 구성 비율	167

◆ [그림 4-2] 학부모_성별 비율	168
◆ [그림 4-3] 학부모_직업 비율	169
◆ [그림 4-4] 학부모_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	171
◆ [그림 4-5] 학부모_과목별 사교육 참여 유형 비율	172
◆ [그림 4-6] 학부모_총 교육비 지출 비율	173
◆ [그림 4-7] 학부모_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비율	173
◆ [그림 4-8] 학부모_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174
◆ [그림 4-9] 학부모_자녀의 교육지원 평균	176
◆ [그림 4-10] 학부모_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비율	177
◆ [그림 4-11] 학부모_양육행동 평균	179
◆ [그림 4-12] 학부모_자녀 희망 교육 수준 비율	180
◆ [그림 4-13] 학부모_희망 대학 지역 비율	181
◆ [그림 4-14] 학부모_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	182
◆ [그림 4-15] 학부모_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에 따른 만족도 평균	183
◆ [그림 4-16] 학부모_학교 참여 경험 여부	185
◆ [그림 4-17] 학부모_학교교육 만족도 평균	186
◆ [그림 4-18] 학부모_학교안전 만족도 평균	187
◆ [그림 4-19] 학부모_보호자 심리특성 - 자아존중감 평균	189
◆ [그림 4-20]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자아존중감) 평균	190
◆ [그림 4-21]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회복탄력성) 평균	190
◆ [그림 4-22]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끈기) 평균	191
◆ [그림 4-23] 학부모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평균	193
◆ [그림 5-1] 교사_성별 비율	197
◆ [그림 5-2] 교사_교직 경력 평균	198
◆ [그림 5-3] 교사_교사효능감 평균	200
◆ [그림 5-4] 교사_교사의 사기/열의 평균	201
◆ [그림 5-5] 교사_교직만족도 평균	202
◆ [그림 5-6] 교사_교사소진 평균	203
◆ [그림 5-7] 교사_수업개선활동	204
◆ [그림 5-8] 교사_연수시간 비율	205
◆ [그림 5-9] 교사_학교 내 주당 유형별 업무시간 비율	207
◆ [그림 5-10] 교사_의사결정권한(민주성) 평균	208



- ◆ [그림 5-11] 교사_교장의 리더십 평균 210
- ◆ [그림 5-12] 교사_학교풍토 평균 211
- ◆ [그림 5-13] 교사_지역사회 관계 평균 213
- ◆ [그림 5-14] 교사_학생의 수업이해도 비율 214
- ◆ [그림 5-15] 교사_과제에 대한 피드백 평균 215
- ◆ [그림 5-16] 교사_수업활동: 교수자 중심 평균 216
- ◆ [그림 5-17] 교사_수업활동: 학습자 중심 평균 218
- ◆ [그림 5-18] 교사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평균 220
- ◆ [그림 6-1] 학교장_성별 비율 223
- ◆ [그림 6-2] 학교장_학교 교육 목표 비율 225
- ◆ [그림 6-3] 학교장_의사결정권한(민주성) 평균 226
- ◆ [그림 6-4] 학교장_학교장 리더십 평균 228
- ◆ [그림 6-5] 학교장_학교풍토 평균 229
- ◆ [그림 6-6] 학교장_지역사회 관계 평균 230
- ◆ [그림 6-7] 학교장_업무비중 비율 231
- ◆ [그림 6-8] 학교장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평균 233
- ◆ [그림 7-1] 연구모형 245
- ◆ [그림 7-2] 구조모델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 254

I

조사개요



제 I 장

조사개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교육 과정과 결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주요 교육 주체들의 성장과 변화를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적 개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경북 지역은 4차 산업혁명, 학령 인구 감소, 다문화 학생 증가와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교육중단연구는 지역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

- 종단적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횡단면 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는 데 강력한 도구이다(Demakova, 2023; Bennett et al., 2020).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학업, 행동 변화는 짧은 기간 내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더 뚜렷한 패턴과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Kutscher et al., 2024; Bhattacharya, 2022). 이는 교육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Balmer et al., 2021). 경북교육중단연구는 이러한 장기적 관점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학생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교육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요구

- 오늘날의 교육 환경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의 발전,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 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내용과 방법,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조한국, 2017; 이광성, 2022; 김효선 외, 2017; Vonitsanos et al., 2024). 예를 들어, 기술 기반 학습 도구의 활용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한다. 경북교육중단연구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 학교, 지역 사회 간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종단 연구

-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종단적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은 복잡한 데이터의 패턴을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박정, 2020; Fu et al., 2024; Dhawas et al., 2024).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경북교육종단연구가 학생들의 학업, 정의적 발달, 사회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적 결정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Sakız et al., 2021; Hutt, 2018; Mertens et al., 2016).

■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변화 반영

- 경북 지역은 인구 감소,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 열악화, 다문화 가정 증가와 같은 독특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안성조 외, 2019; 최경화 외, 2021; 박종순 외, 2011). 이러한 변화는 경북 지역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교육 정책에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자원 부족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정의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북교육종단연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생 집단의 요구를 충족하고, 경북 지역의 교육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정의적 발달 및 학업 성취의 지속적 이해

-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 및 학업 성취는 단기간의 연구로는 그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Mertens et al., 2016; Bennett et al., 2020; Demakova, 2023; Kutscher et al., 2024; Bhattacharya, 2022; Hutt, 2018).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습 태도와 사회적 관계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종단적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학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Bhattacharya, 2022; Balmer et al., 2021; Kutscher et al., 2024). 이는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Balmer et al., 2021; Demakova, 2023; Dormann et al., 2018).

■ 교육 정책의 효과 평가와 지속 가능성

- 종단적 연구는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Kutscher et al., 2024; Balmer et al., 2021; Hutt, 2018). 예컨대, 교육지원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나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경북교육종단연구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Mertens et al., 2016).

❖ 경북교육종단연구의 목적

- 경북교육종단연구는 경북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주요 교육 주체들의 성장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과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정의적), 사회적 변화와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교육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 학생 성장과 발달의 체계적 이해

- 학생들의 학업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Demakova, 2023; Mertens et al., 2016; Hutt, 2018; Bennett et al., 2020; Kutscher et al., 2024; Bhattacharya, 2022; Özbağcı et al., 2023; Pretsch et al., 2016). 이를 통해 학습 경험, 행동 변화,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학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Özbağcı et al., 2023; Laird, 2022; Demakova, 2023; Devonald et al., 2023;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b). 학업적 발달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능력 발휘에 직결된다(김양분 외, 2016; 김아영, 2008; Iqbal, 2012; Rao et al., 2016). 정의적 발달은 학생들의 정서, 태도, 가치관 형성을 포함하며, 이는 학습 동기와 전반적인 학업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재분, 2000; 조철기, 2013). 또한, 사회적 발달은 학생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 협력적 관계 형성, 사회적 규범의 습득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춘재 외, 1994; 김병년, 2013).
- 경북교육종단연구는 이러한 발달 과정을 단기간의 관찰로 파악하기 어려운 장기적 변화와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정의적 발달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영향을 받아 더욱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진다(Deng, 2024; Scholes, 2019). 예를 들어, 학업 성취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김민성, 2010). 반면, 정의적 발달이 부족하면 학습 동기가 저하될 수 있으며(이미옥, 2009; 조철기, 2013; 이재분, 2000),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협력적 학습이나 집단 활동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최명구 외, 2012; 노수림 외, 2017; 손수경, 2022).

- 학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가정 환경, 학교 환경, 또래 관계,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최지은 외, 2003; 박혜원 외, 2005; 김민성 외, 2012). 경북교육중단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적 지원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업 성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의 원인이 학습 방법, 정서적 지원 부족, 혹은 부적절한 또래 관계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서 기인할 수 있다(강순화 외, 2000; 이동욱, 2024a; 정병삼, 2012). 이러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 더 나아가, 경북교육중단연구는 단순히 학생의 발달 과정만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 패턴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 어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또한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이 효과적일지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발달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교육적 대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Mertens et al., 2016; Sak ı z et al., 2021; Balmer et al., 2021).
- 결론적으로, 학생 성장과 발달의 체계적 이해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경북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를 통해 학습 경험, 행동 변화,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학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북교육중단연구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경북 지역 학생들의 변화 양상과 교육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북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 과정, 교육지원, 학업 등은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Demakova, 2023; Balmer et al., 2021; Mertens et al., 2016).
- 경북 지역을 포함한 한국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 학생 증가 등의 교육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교육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은비 외, 2019; 조현국, 2017; Vonitsanos et al., 2024; 이광성, 2022; 김효선 외, 2017). 예를 들어,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운영 및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이미숙 외, 2021; 김지윤 외, 2021),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같은 현상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적응과 학습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장인실 외, 2022; 오성배 외, 2018).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 종단연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북 지역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예컨대, 특정 시점에서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수준이 감소하거나 부정적인 변화가 발견될 경우, 이를 통해 해당 시점에서 필요한 교육 개입과 자원 배분 전략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 또한, 경북교육종단연구는 단순히 현재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발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2024b). 예를 들어,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 및 학업 성취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변화 패턴을 분석하면, 특정 연령대나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교육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Bennett et al., 2020; Mertens et al., 2016; Demakova, 2023).
- 뿐만 아니라, 종단연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지역 및 학생 간 교육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학생 간의 학생 성장 및 발달 격차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교육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결론적으로, 경북교육종단연구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경북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 학교 교육의 효과성 평가

- 경북교육종단연구는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지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학교 교육은 단순히 학업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협력 능력을 발전시키고,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우채영, 2016; 한우진 외, 2019)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Dias et al., 2024; 강정삼, 1995).
- 학생들의 인지적 성장은 학문적 지식과 사고력의 발달로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 이들의 학업 성취를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를 점검하는 데 중요하다(손영주 외, 2012; Tezer et al., 2024). 정의적 성장은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학습 동기를 포함하며, 학교에서의 긍정적

인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백예은 외, 2020; 우채영, 2016; 이동욱, 2024b). 또한, 사회적 성장은 학생들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최지은 외, 2003; 송연주 외, 2015).

- 학교 교육의 효과성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발달 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활동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장상호, 2004; 광병선, 1998). 예를 들어, 학생들이 주요 교과에서 어떤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루었는지, 또는 학교 내에서 정의적 발달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학교 교육이 목표로 하는 학문적, 정의적, 사회적 성장의 균형을 확인하고,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Gustiani et al., 2023; Septiani et al., 2023).
- 또한, 학교 교육 활동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장상호, 2004; 광병선, 1998; Septiani et al., 2023; Gustiani et al., 2023). 예를 들어, 학습지원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반대로, 학생들의 사회적 협력 능력을 강화하는 활동이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면, 이를 확대하거나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의 효과성 평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Thomas et al., 2013; Kyriakides et al., 2008; 광병선, 1998; Thomas, 2001). 경북 지역의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 학교 간 교육 환경과 자원의 차이는 학생들의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별,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하면, 특정 지역과 학교의 요구에 맞춘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Aderet-German et al., 2020; Kenny, 2014; Kobylnyk, 2024).
- 결론적으로, 경북교육중단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은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경북 지역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단순히 학생 지원 수준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 학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 분석

- 학생 발달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학생 개인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학업 성취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 궤적을 형성한다(윤수경 외, 2018; 정지나 외, 2020; 정근혜 외, 2020; Hill et al., 2009). 중단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가정은 학생 발달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환경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용, 심리적 안정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학업 동기를 강화하며,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정근혜 외, 2020; Pinguart, 2017; Pomerantz et al., 2007; 윤수경 외, 2018). 반면, 가정 내 어려움이나 갈등은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연주 외, 2014; 황매향, 2006; Evans et al., 2002). 종단연구는 이러한 가정 환경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가정 요인이 학생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요 학습 환경으로, 교사의 지도력, 교육 프로그램,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학생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남희 외, 2011; 이숙정, 2006; 임지현, 2009; 선미정 외, 2018; 김종백 외, 2014; Wentzel et al., 1997).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효과적인 교수법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촉진하고, 정의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김소영 외, 2013; 김난옥 외, 2018; Hattie et al., 2007; Shute et al., 2008).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과 협력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임지현, 2009; Wentzel et al., 1997; 선미정 외, 2018). 종단연구는 학교 환경의 특성과 학생 발달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사회적 요인은 학생들이 속한 지역사회, 문화적 배경, 정책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 사회의 자원과 지원 체계는 학생들의 발달 및 학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김영희 외, 2007; 정민희, 2020; Leventhal et al., 2000; Ainsworth et al., 2002). 예를 들어,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간의 자원 격차는 학생들의 학업적, 정의적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박주호 외, 2019; 정민희, 2020). 다문화 학생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요구한다(이병철 외, 2011; 전경숙, 2008; 양계민 외, 2009). 따라서, 종단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 나아가, 종단연구의 기초연구 및 향후의 심화연구 등을 통해,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예컨대, 종단연구를 통해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원, 학교에서의 교육 지원 또는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학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종단연구는 학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김지현 외, 2022; Grammer et al., 2013).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환경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교육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이다.

■ 경북교육의 중장기 정책 수립 지원

- 종단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북교육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현대 교육 환경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 학생 증가 등 다양한 변화 요인에 직면해 있다(김경애, 2015; 김현미 외, 2024; Schwab, 2017; Bilyalova et al., 2020; 김갑성, 2008). 이러한 변화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교육 방법과 학습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김현진 외, 2020; Holmes et al., 2019; Cardona et al., 2023). 경북교육중단연구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기반 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주요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진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적 도구와 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경북교육중단연구는 경북 지역의 교육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돕고자 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은 단기적인 변화와 성과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요구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영희 외, 2018; Bo, 2024; Unesco, 2020). 중단 연구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에서 필요한 지원과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경우, 해당 시기에 적합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경북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적 특수성과 글로벌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 교육 형평성과 격차 해소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학생 집단 간 발생하는 발달 격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형평성은 모든 학생이 공정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의 기본적 목표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김신일, 2000; 안병영, 2010).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 집단 간의 학업 성취와 발달 수준에서 다양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교육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특히, 경북 지역은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교육 환경 차이가 크고, 다문화 학생과 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교육청, 2022, 2024; 경북일보,

2024).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은 도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정의적 발달과 사회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학습 자료와 기술적 지원 부족,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의 한계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반면, 도시 지역 학생들은 학업 경쟁이 치열하여 정서적 스트레스와 학업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박주호 외, 2019; 김경근, 2005; 추경모, 2012; 나승일 외, 2007; 이두휴, 2011)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이러한 격차를 정확히 진단하고, 학생들의 발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학업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는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정의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권영옥, 2013; Queiroga et al., 2024; Vigentini et al., 2022).
- 중단연구는 학업 성취와 발달 격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오희정 외, 2020; Willms, 2010; Khan et al., 2024).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습 습관 형성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중학교 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겪는 학생들에게는 정서적 지원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시기적 개입은 격차가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따라서, 경북교육중단연구는 학생 집단 간 발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대안 수립과 교육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현재의 격차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장기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미래 교육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학생들의 장기적 성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기반 학습, 창의적 문제 해결, 정의적 발달 강화와 같은 미래 교육의 핵심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 속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 오늘날의 교육 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

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들은 교육 방법과 학습 환경을 혁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강이화, 2019; 박남기, 2017; 교육플러스, 2024; 충청투데이, 2024; Farooq et al., 2024). 경북교육중단연구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교육에 통합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업과 정의적 발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경북교육중단연구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장기적 데이터를 통해 특정 연령대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시점과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정의적 발달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자기 효능감, 협력 능력을 포함하며, 이는 학업 성취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직결된다. 경북교육중단연구는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의 방향성 및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정서 지원 프로그램, 또래 간 협력 학습 활동, 학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 또한, 경북교육중단연구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 설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은 학생들의 현재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도전과 요구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학업 성취 격차나 정의적 발달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경북교육중단연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적, 창의적, 정의적 역량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경북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현재의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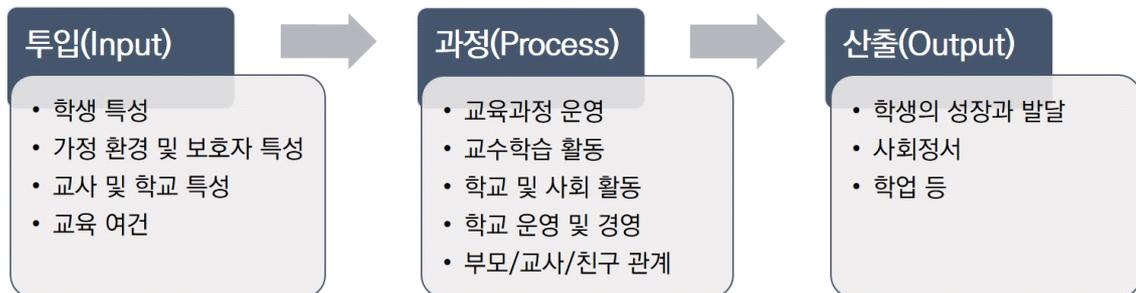
조사 모형

- 경북교육중단연구의 조사 모형은 경북 지역의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모형은 학교효과 모형을 기반으로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이라는 구조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학생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도록 설계되었다.
- 먼저, 투입 단계는 학생의 특성, 가정 환경 및 보호자 특성, 교사 및 학교 특성, 교육 여건을

포함하여 학생의 초기 환경과 배경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학생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등이 있으며, 가정 환경 및 보호자 특성으로는 부모의 직업, 교육적 지원 수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사의 교육 경력과 전문성, 학교의 자원과 시설 등의 교사 및 학교 특성이 고려되어 투입 요인에 반영된다.

- 과정 단계는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형성하고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활동, 학교 및 사회 활동, 학교 운영 및 경영, 부모·교사·친구 관계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내용과 교사의 수업 방식을 다루며, 교수학습 활동은 학생 중심의 학습 참여, 과제 수행 및 피드백 과정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동아리 활동, 사회봉사 등은 학교 및 사회 활동으로, 이는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와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학교 운영 및 경영은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 문화 등으로 분석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소통, 친구와의 관계는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과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과정 단계는 투입 요인과 산출 요인 간의 연결고리로 작동하며,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경험하는 환경과 활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산출 단계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학업 성취 등의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로, 교육정책과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출 요인에는 학생들의 학업과 정의적 발달, 진로 준비 상태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성과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격차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 경북교육종단연구의 조사 모형은 투입, 과정, 산출의 각 단계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북 지역의 교육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경북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미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1-1 경북교육종단연구 조사 모형



조사 문항

❖ 학생 대상 조사 도구

- 경북교육중단연구의 학생 대상 설문은 학생들의 생활, 학습 경험, 심리적 특성, 대인관계, 진로 및 사교육 참여 등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은 학생 생활, 컴퓨터/스마트기기,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학교 수업(학습 일반),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 학습), 학교 및 사회생활, 부모자녀관계, 사교육, 학교 선택/진로, 학업성취도의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한국교육중단연구, 서울교육중단연구, 경기교육중단연구, 부산교육중단연구, 세종교육중단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충북교육실태조사 등의 타 지역 중단연구 척도 검토 및 디지털리터러시(안정임 외, 2013), 게임중독(조운오, 2020), Beck의 우울척도(BDI), 애착(유성경 외, 2010), 의사소통(Barnes et al., 1982), 부모자녀 관계(최인재, 2006), 연구진 자체 개발 척도 등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경북교육중단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먼저, 학생 생활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적 학습 및 여가 활동, 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내용, 동아리 활동, 비행 행동, 독서 활동 등을 조사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시간과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하며,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포함하여 학생들의 생활 습관과 사회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비행 경험과 행동 여부를 측정하여 학생들의 생활 태도와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한다.
-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사용 영역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조사하는 부분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평가하고, 학생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 시간과 게임 활동 여부를 측정하여 디지털 기기가 학습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확인한다. 기본적인 건강 관련 문항 외에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성장신념, 끈기, 다문화 수용성, 우울, 행복도 등의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학교 수업(학습 일반) 영역에서는 학습 동기, 자기주도 학습, 학업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환경을 조사한다. 또한, 교사의 사기와 열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교과 학습 경험을 분석한다. 수업 이해도, 수업 집중도, 수강 태도, 수업 방식,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교 내 평가 활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교과 학습 환경의 질을 확인한다.
- 학교 및 사회생활 영역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의 만족도와 대인관계를 분석하는 영역이다. 학교 만족도를 비롯하여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식, 친구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간,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분석하여 방과후 활동이 학습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 의사소통 방식,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측정하여 가정 환경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사교육 영역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다.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 사교육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가정 외 학습 지원 환경을 조사한다.
- 학교 선택 및 진로 영역은 학생들의 교육 포부,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진로 성숙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요소를 분석한다.
-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 영역은 학생들의 학업적 성과를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적 성장과 발전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향후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이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경험과 성장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 1-1 학생 대상 설문 영역 및 문항

영역	설문 항목	문항수
학생 생활	자발적 학습활동 시간	1
	여가시간	1
	봉사활동 참여 여부	1
	봉사활동	4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1
	비행활동 경험	8
	비행 여부	4
	독서활동	1
컴퓨터/스마트기기	디지털리터러시	7
	디지털 기기 의존도	7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시간	5
	게임활동	5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건강	2
	자아존중감	7
	자기효능감	4
	성장신념	3
	끈기	4
	다문화 수용성	4
	우울	5
	행복도	6
학교 수업 (학습일반)	학습동기	4
	자기주도학습	9
	학업 스트레스	7
	교사의 사기 및 열의	3
학교 수업 (교과별 교수학습)	수업이해도	3
	수업집중도	3
	수강태도	5
	수업방식	4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	5
	학교내 평가활동	2

영역	설문 항목	문항수
학교 및 사회 생활	학교 만족도	1
	학교에 관한 인식	10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6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6
	방과후학교 참여여부	1
	방과후학교 참여시간	7
	방과후학교 만족도	1
부모자녀관계	부모애착관계	4
	부모의사소통	4
	부모자녀관계	6
	부모와의 대화시간	1
사교육	사교육 참여 여부	7
	사교육 참여 시간	7
	사교육 도움 정도	1
학교선택/진로	교육포부	1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7
	진로성숙도	7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3

❖ 학부모 대상 조사 도구

- 경북교육중단연구의 학부모 대상 설문은 학부모의 교육 지원 실태와 교육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은 사교육 및 교육비, 보호자의 지원, 부모자녀 관계,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학부모 참여 및 학교 만족, 보호자 및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 교육 현안의 7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먼저, 사교육 및 교육비 영역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참여 여부와 유형, 교육비 지출 구조를 조사한다. 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유형과 사교육 비용 문항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사교육의 유형을 파악하며, 총 교육비 지출, 가계 부담 정도,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을 분석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 수준을 진단한다.
- 보호자의 지원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여가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조사한다. 자녀의 교육지원 문항을 통해 학부모가 제공하는 학습 및 교육적 지원의 형태를 분석하며,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문항을 통해 자녀의 전반적인 정서적 성장과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 보호자가 기울이는 노력을 측정한다.
- 부모자녀 관계 영역에서는 학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양육행동 문항을 통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양육 방식과 지도 방식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자녀의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지원을 조사한다. 자녀 희망 교육 수준 및 희망 대학 지역 문항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해 가지는 기대를 분석하며,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 문항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 학부모 참여 및 학교 만족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운영 및 교육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진단한다. 학교 참여 경험 여부 문항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 활동을 조사하고, 학교교육 만족도 및 학교안전 만족도 문항을 통해 학부모가 느끼는 학교 교육의 효과성과 개선 필요성을 파악한다.
- 보호자 및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 영역에서는 학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한다. 보호자의 자아존중감 문항을 통해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며,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끈기 문항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보호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경북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한다.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을 통해 학부모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이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경북 지역의 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표 1-2 학부모 대상 설문 영역 및 문항

영역	설문 항목		문항수
사교육 및 교육비	사교육	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유형	7
		사교육 비용	7
	교육비 지출	총 교육비 지출	1
		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1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1
보호자의 지원	자녀의 교육지원	6	
	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6	
부모자녀관계	양육행동	7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자녀 희망 교육 수준	1	
	희망 대학 지역	1	
	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	8	
학부모 참여 및 학교만족	학교 참여 경험 여부	7	
	학교교육 만족도	5	
	학교안전 만족도	5	
보호자 및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	보호자 심리특성 - 자아존중감		5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	자아존중감	5
		회복탄력성	2
		끈기	4
교육 현안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10

❖ 교사 대상 조사 도구

- 경북교육종단연구의 교사 대상 설문은 교사들이 학교 교육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가지는 인식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은 교수자 특성, 학교 운영 일반,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교육 현안의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 먼저, 교수자 특성 영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환경을 평가한다. 교사효능감 문항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지도 능력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을 측정하며, 교사의 사기와 열의를 평가하

는 문항을 통해 교직에 대한 열의 수준을 파악한다. 또한, 교직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사의 직업적 만족 수준을 평가하고, 교사소진 문항을 통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탈진 정도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교사의 연수 참여도와 수업 개선 활동을 조사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학교 운영 일반 영역은 학교 내 교사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부분이다. 학교 내 주당 유형별 업무시간 문항을 통해 교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의 시간 분포를 파악하고, 학교 내 의사결정권한 문항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가지는 권한과 참여도를 분석한다. 교장의 리더십 문항은 교장이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휘하는 리더십 수준을 측정하며, 학교풍토 문항은 조직 문화와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또한, 지역사회 관계 문항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영역에서는 교사의 수업 운영 방식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학생의 수업이해도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의 빈도와 질을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수자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 문항을 통해 교사의 교수법이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와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영역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조사한다.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문항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이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사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교육 환경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 및 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3 교사 대상 설문 영역 및 문항

영역	설문 항목	문항수
교수자 특성	교사효능감	8
	교사의 사기/열의	3
	교직만족도	6
	교사소진	4
	수업개선활동	4
	연수시간	7
	학교운영 일반	5
학교운영 일반	학교 내 주당 유형별 업무시간	5
	의사결정권한(민주성)	12
	교장의 리더십	12
	학교풍토	8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지역사회 관계	5
	학생의 수업이해도	1
	과제에 대한 피드백	4
	수업활동: 교수자 중심	6
교육 현안	수업활동: 학습자 중심	9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10

❖ 학교장 대상 조사 도구

- 경북교육중단연구의 학교장 대상 설문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은 학교경영 일반과 교육 현안의 두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학교장의 리더십과 운영 방식이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교경영 일반 영역에서는 학교장의 조직 운영 방식과 학교 운영 정책을 분석한다. 학교 교육 목표 문항을 통해 학교장이 설정한 교육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며, 의사결정권한 문항을 통해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이 교직원 및 교육 공동체와 협의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학교장 리더십 문항을 통해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휘하는 지도력을 측정하고, 학교풍토 문항을 통해 학교 내 조직문화와 개선 노력 수준을 진단한다. 지역사회 관계 문항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정도를 분석하여 학교장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공동체와 협력하는 방식과 효과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업무 비중 문항은 학교장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의 분포와 주요 역할을 분석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 한편, 교육 현안 영역에서는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장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 실행의 실효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학교 운영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문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장의 역할과 학교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경북 지역의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표 1-4 학교장 대상 설문 영역 및 문항

영역	설문 항목	문항수
학교경영 일반	학교 교육 목표	1
	의사결정권한(민주성)	12
	학교장 리더십	12
	학교풍토	8
	지역사회 관계	5
	업무 비중	8
교육 현안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10

패널 설계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경북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 진로 형성, 학업 성취 등 다양한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는 두 개의 주요 패널, 즉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예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패널은 지정된 학년부터 시작하여 해당 학생 집단의 졸업 시점까지 추적된다. 이 연구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 주요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북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 먼저,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202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3학년까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패널은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 사회적 관계 형성, 학업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2030년에는 종합 검토를 통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한다.
- 또한, 중학교 1학년 패널(예정)은 2025년부터 시작되며,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3학년 까지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추적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시점은 학생들의 학습 습관, 진로 선택, 정의적 발달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로, 이 패널은 해당 시기의 데이터를 통해 교육적 개입의 효과와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패널 역시 2030년에 종합 검토를 실시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발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 패널 설계의 주요 특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를 포함하여 교육 환경 전반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106개 학교의 4학년 학생 3,895명과 이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182명과 학교장 106명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학생 개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 또한, 패널 설계에는 층화군집 표본추출 방법이 활용되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Yunus, 2018). 경북 지역을 시·군 단위로 층화하여 지역별 교육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각 층 내에서 학교 및 반을 군집 단위로 설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분석하고,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포항시와 구미시와 같은 인구 규모가 큰 도시지역은 많은 학교와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울릉군이나 영양군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와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교육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또한 기술 기반 학습과 창의적 문제 해결, 정의적 발달 강화 등 미래 교육의 핵심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 데이터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등이 학업 성취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개입 시기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경북교육중단연구의 패널 설계는 경북 지역의 학생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미래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5 경북교육종단연구 패널 설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패널1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
	-	-	-	-	-	-	종합검토
패널2 (예정)	-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	-	-	-	-	-	종합검토

조사 대상 패널 학교 및 학생 구성 현황

- 경북교육종단연구는 경북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총 106개 학교의 4학년 학생 3,89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층화군집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 층화군집 표본추출 방법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 표본추출과 군집 표본추출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Pu et al., 2016; Yunus, 2018). 경북교육종단연구에서는 경북 지역의 지리적·행정적 구분 및 학교 규모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 경북 지역을 시·군 단위로 층화하여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지역 내 교육 환경과 학생 수의 분포를 반영하여,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 각 층(시·군) 내에서 학교 및 반을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하고, 지역별로 일정 수의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군집으로 선정된 학교 및 반 내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학생 단위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 모집단의 전체 규모(경북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적절한 비율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와 학생의 수는 지역별 학령인구의 크기와 학교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층화 표본추출을 통해 지역 간 대표성을 확보하고, 군집 표본추출을 통해 효율적으로 표본을 구성함으로써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 층화군집 표본추출은 경북 지역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산어촌과 도시 간의 교육 격차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학교 및 반을 군집 단위로 설정하여, 최초 조사 연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표본이 경북 지역 전체를 고르게 대표하므로, 각 지역의 교육적 필요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학생의 발달 격차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 최종적으로 1차년도 경북교육종단연구의 패널은 경북 지역 내 모든 시·군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 환경과 학생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널 구성이 이루어졌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학생이 포함된 지역은 포항시(22개 학교, 968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구미시(20개 학교, 921명)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 지역인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농산어촌 지역인 영양군, 봉화군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군 간의 교육 환경 및 자원 격차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표 1-6 초등학교 4학년(패널) 학교 및 학생 현황

지역별	학교수	학생 인원수
경산시	6	227
경주시	3	128
고령군	2	94
구미시	20	921
김천시	4	121
문경시	3	98
봉화군	4	85
상주시	2	94
성주군	2	66
안동시	3	133
영덕군	3	100
영양군	2	52
영주시	3	106
영천시	4	98
예천군	3	110
울릉군	2	31
울진군	3	98
의성군	4	84
청도군	5	97
청송군	2	66
칠곡군	4	118
포항시	22	968
총합계	106	3,895

1차년도 조사 대상 및 최종 분석 대상자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경북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조사 대상을 통해 교육 환경과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106개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4학년 학생 3,895명 중 최종 분석 대상자는 학생 2,449명이다.
- 학생은 본 연구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정의적 발달, 사회적 관계 형성, 학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설문조사와 학업 성취도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정서적 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 궤적을 추적하고 교육적 개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 학부모는 학생들의 가정 환경과 교육적 지원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사교육 참여, 자녀와의 관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교육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파악하였다. 학부모 데이터를 통해 가정 환경이 학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정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교사는 조사 대상 학급의 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교사는 학급 운영, 학생 지도, 교육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교수 방법과 학생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 환경과 지원 체계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학교 운영이 학생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이러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부터 학교 수준에 이르는 교육 환경의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경북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표 1-7 1차년도 최종 분석 대상자

구분	조사 대상(초4) 분석 대상자
학교	106
학생	2,449

조사 방식

- 경북교육중단연구의 2024년 1차년도 조사는 경북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과 성취도 진단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의 추적 연구로 진행된다(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 조사는 크게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성취도 진단으로 나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 설문은 학생생활,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사용, 건강 및 심리 정서, 학교 수업, 학교 및 사회생활, 부모와의 관계, 사교육, 학교 선택 및 진로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 설문은 사교육 및 교육비 지출, 보호자의 교육 지원, 부모자녀 관계,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학부모 참여 및 학교만족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며, 교사 설문은 교수자 특성, 학교 운영,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교육 현안 인식을 다룬다. 학교장 설문은 학교 경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오프라인 성취도 진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두 과목에 대해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성취도 검사는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 시험지와 OMR 카드가 각 학교에 배부되고, 학생들은 40분씩 시험을 진행하였다.
- 조사 도구와 관련된 모든 안내는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 각 학교에 전달되었다. 설문조사의

경우 QR 코드가 포함된 안내문이 배송되었으며, 성취도 진단용 시험지와 OMR 카드, 컴퓨터 용 사인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며, 모든 조사는 2024년 8월말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종료 후 성취도 진단 자료는 지정된 택배사를 통해 회수되었다.

- 이 과정에서 경북교육청연구원은 각 협력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조사와 관련된 문의는 경북교육청연구원 및 담당 조사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및 연구 과정에서 연구 동의된 모든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의 신상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었다.
- 결과 분석은 10월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경북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한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북 지역의 학생 및 학교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경북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SPSS 26.0, Stata 16.0, Mplus 8.3, jMetrik 4.1.1 등 다양한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진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대상별로 세분화된 영역과 항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 학생 조사결과 분석

- 학생 설문조사는 학습활동, 여가시간, 봉사활동, 컴퓨터/스마트기기 사용, 건강 및 심리정서, 학교수업, 학교 및 사회생활, 부모자녀 관계, 사교육, 학교 선택 및 진로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다. 학생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각 항목의 응답 분포를 확인하고,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Cronbach's α 를 사용하여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성별 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성별 간 평균 차이와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성취도 진단 결과 분석에는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 CTT)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이 적용되었으며, 데이터 분석 도구로는 jMetrik 4.1.1이 활용되었다.

❖ 학부모 조사결과 분석

- 학부모 설문조사는 사교육 및 교육비, 자녀 지원, 부모자녀 관계,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자녀 심리특성, 교육 현안 등으로 나뉘었다. 학부모 설문 결과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비율과 응답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보호자의 지원 활동과 사교육 참여 패턴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 교사 조사결과 분석

- 교사 설문조사는 교수자 특성, 학교 운영 일반,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교육 현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사 설문은 5점 Likert 척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항목별 평균 점수와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수자 특성,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학교장 조사결과 분석

- 학교장 설문조사는 학교 경영 일반과 교육 현안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 설문은 학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학교장들의 응답 분포와 주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 심화연구 분석

- 심화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것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6.0, Stata 16.0, 그리고 SmartPL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표본의 전반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독립·매개·종속변수)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고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지표를 활용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 둘째, 주요 변수 간의 이론적 관련성과 상호 관계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고, 이어 변수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s; PLS)에 기반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PLS-SEM은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계수 추정을 가능하게 하며,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신건권, 201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적용하였다.
- 셋째, 측정모형 평가 단계에서는 각 잠재변수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으며, 구조모형 평가 단계에서는 내부분산팽창지수(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효과크기(f^2)와 경로계수(path coefficient)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 단계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적용하여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수로서 가지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신건권, 2018; 이동욱, 2024).

II

학생 조사결과



제 II 장

학생 조사결과

학생생활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생생활을 자발적 학습활동 시간, 여가시간, 봉사활동 참여 여부, 봉사활동 참여 경험,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비행활동 경험, 독서활동이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응답 비율과 인원을 분석하고, 신뢰도와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경향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습 습관, 여가 활용, 봉사활동 참여 정도, 비행 행동 경험 및 독서 습관 등 생활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 특히, 초등학생들의 각 활동별 참여 수준과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습과 여가 활동 간의 균형, 봉사와 비행 행동 실태, 그리고 독서활동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학생 생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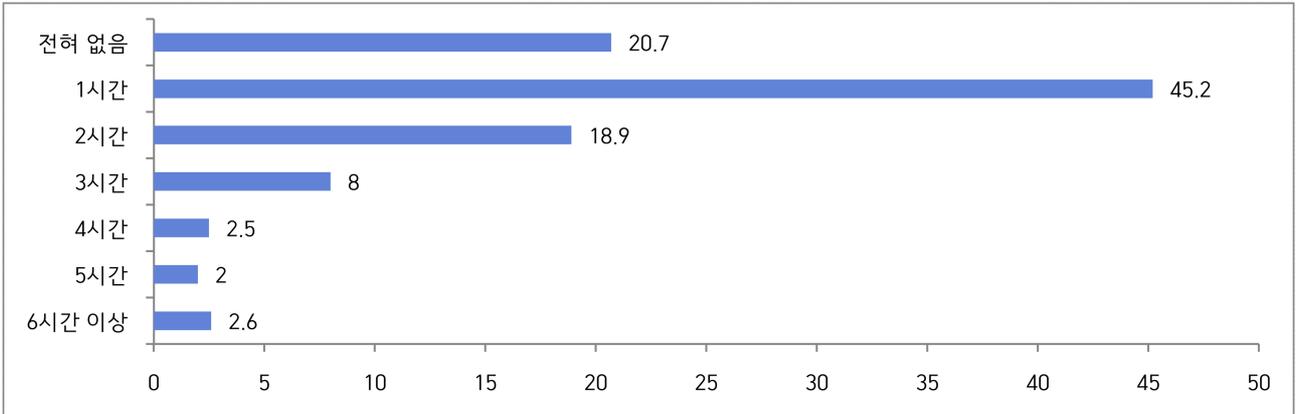
❖ 자발적 학습활동 시간

- 초등학생의 학교와 학원(과외)의 수업 및 과제(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1,10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전혀 없음]이 20.7%(507명), [2시간]이 18.9%(46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3시간]은 8.0%(196명)로 조사되었다. 반면, [4시간]과 [5시간]은 각각 2.5%(61명)와 2.0%(50명), [6시간 이상]은 2.6%(64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중 하루 평균 1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으며, 이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1 초등학생_자발적 학습활동 시간 빈도분석

구분	전혀 없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N	%	N	%	N	%	N	%	N	%	N	%	N	%
학교와 학원(과외)의 수업 및 과제(숙제)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507	20.7%	1,107	45.2%	464	18.9%	196	8.0%	61	2.5%	50	2.0%	64	2.6%

그림 2-1 초등학생_자발적 학습활동 시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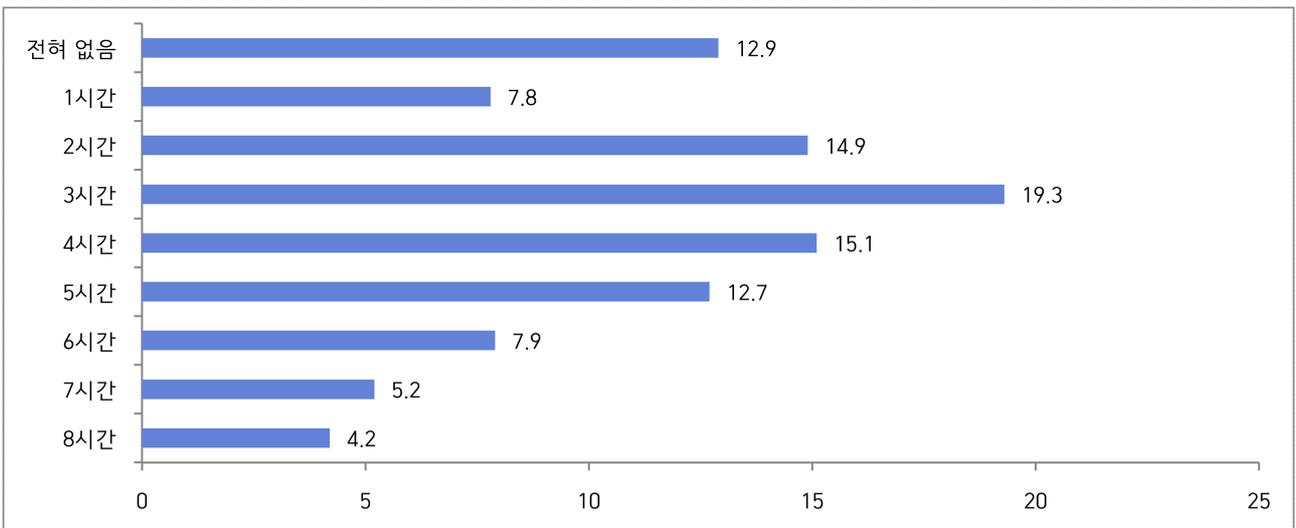
❖ 여가시간

○ 초등학생의 주중과 주말에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3%(473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4시간]이 15.1%(371명), [2시간]이 14.9%(365명)로 나타났으며, [5시간]은 12.7%(310명)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혀 없음]은 12.9%(317명), [1시간]은 7.8%(190명), [6시간]은 7.9%(193명), [7시간]은 5.2%(127명), [8시간]은 4.2%(103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으며, 여가시간이 많아질수록 해당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2-2 초등학생_여가시간 빈도분석

구분	전혀 없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N	%	N	%	N	%	N	%	N	%	N	%	N	%	N	%	N	%
주중과 주말에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입니까?	317	12.9%	190	7.8%	365	14.9%	473	19.3%	371	15.1%	310	12.7%	193	7.9%	127	5.2%	103	4.2%

그림 2-2 초등학생_여가시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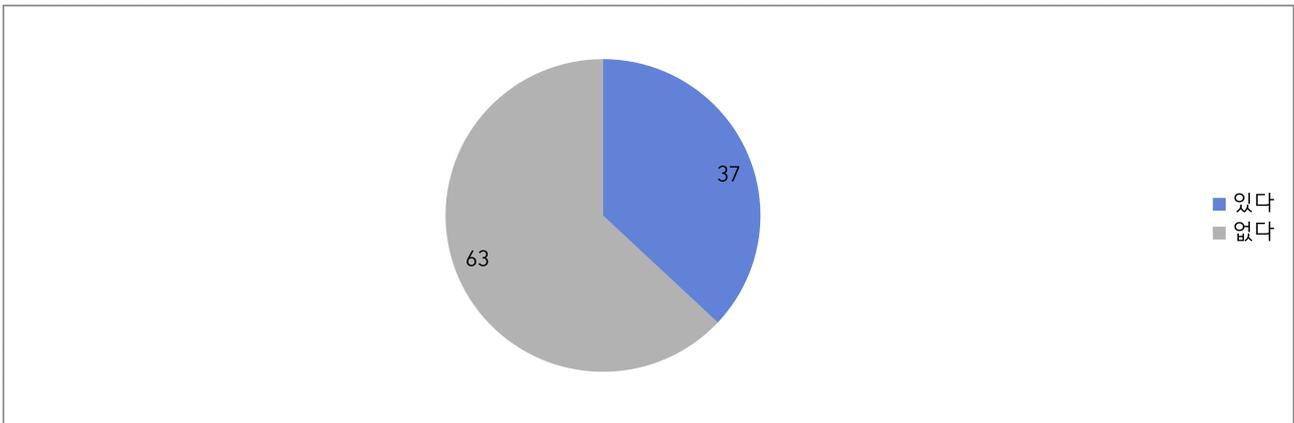
❖ 봉사활동 참여 여부

- 초등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0%(1,542명)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7.0%(907명)로 나타나,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3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여부 빈도분석

구분	있다		없다	
	N	%	N	%
올해 교내 봉사나 학교에서 단체로 하도록 정해진 봉사 이외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907	37.0%	1,542	63.0%

그림 2-3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여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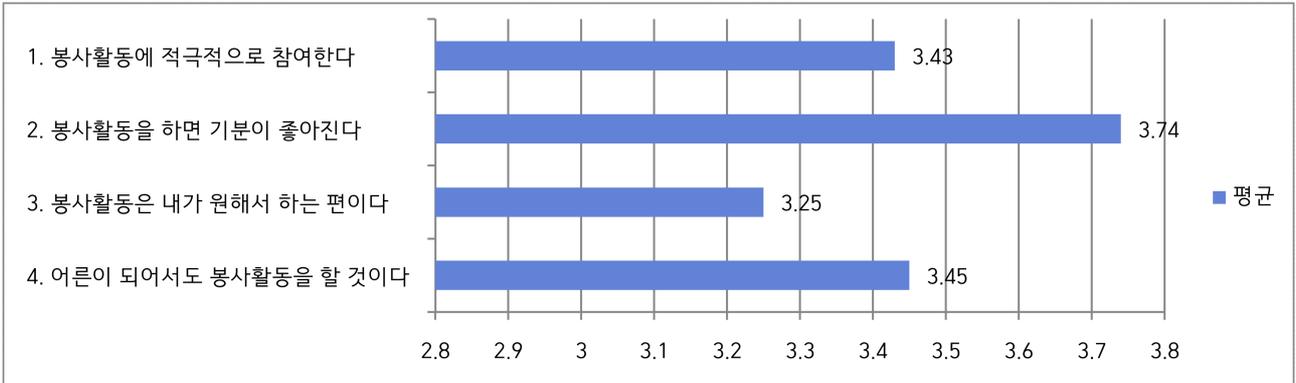
❖ 봉사활동 참여 경험

- 초등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봉사활동 참여 경험(전체)의 평균은 3.47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이었다. 설문 문항 중 '2.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3.7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3. 봉사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편이다'는 3.2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18~0.67, 첨도 절댓값은 0.08~0.36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다. 또한,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2-4 초등학생_봉사활동 참여 경험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449	1.00	5.00	3.43	1.09	-0.31	-0.36	0.83	0.86
2.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2,449	1.00	5.00	3.74	1.06	-0.67	0.08	0.80	
3. 봉사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편이다	2,449	1.00	5.00	3.25	1.08	-0.18	-0.36	0.81	
4.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2,449	1.00	5.00	3.45	1.06	-0.39	-0.16	0.83	
봉사활동 참여 경험(전체)	2,449	1.00	5.00	3.47	0.90	-0.56	0.44	-	-

그림 2-4 초등학교_봉사활동 참여 경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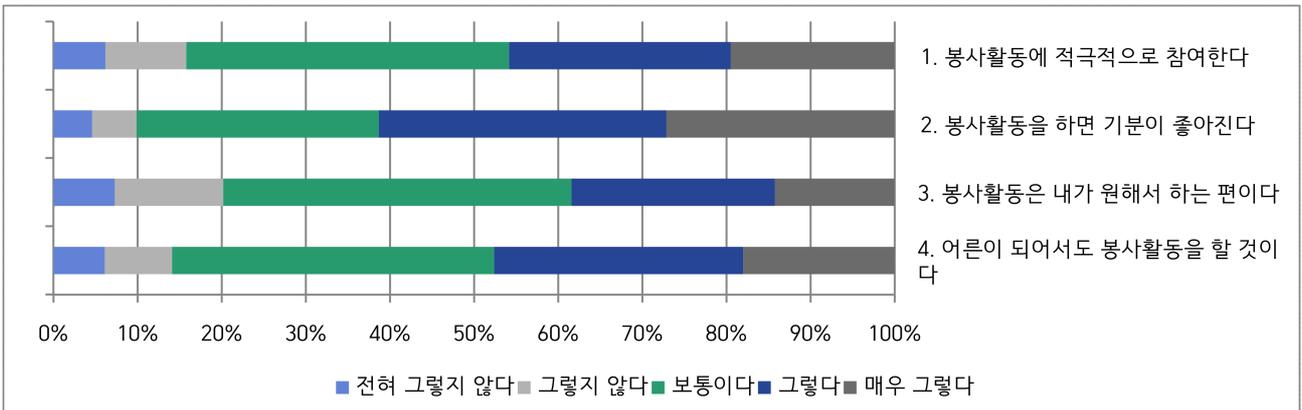


○ 초등학교의 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의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매우 그렇다] 27.1%(664명), [그렇다] 34.2%(837명), [보통이다] 28.8%(705명)으로 응답하였다. ‘1.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매우 그렇다] 19.5%(477명), [그렇다] 26.4%(646명), [보통이다] 38.4%(940명)로 나타났다. 또한, ‘4.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는 [매우 그렇다] 18.0%(440명), [그렇다] 29.6%(726명), [보통이다] 38.3%(938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5 초등학교_봉사활동 참여 경험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51	6.2%	235	9.6%	940	38.4%	646	26.4%	477	19.5%
2.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112	4.6%	131	5.3%	705	28.8%	837	34.2%	664	27.1%
3. 봉사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편이다	178	7.3%	316	12.9%	1,015	41.4%	592	24.2%	348	14.2%
4.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149	6.1%	196	8.0%	938	38.3%	726	29.6%	440	18.0%

그림 2-5 초등학교_봉사활동 참여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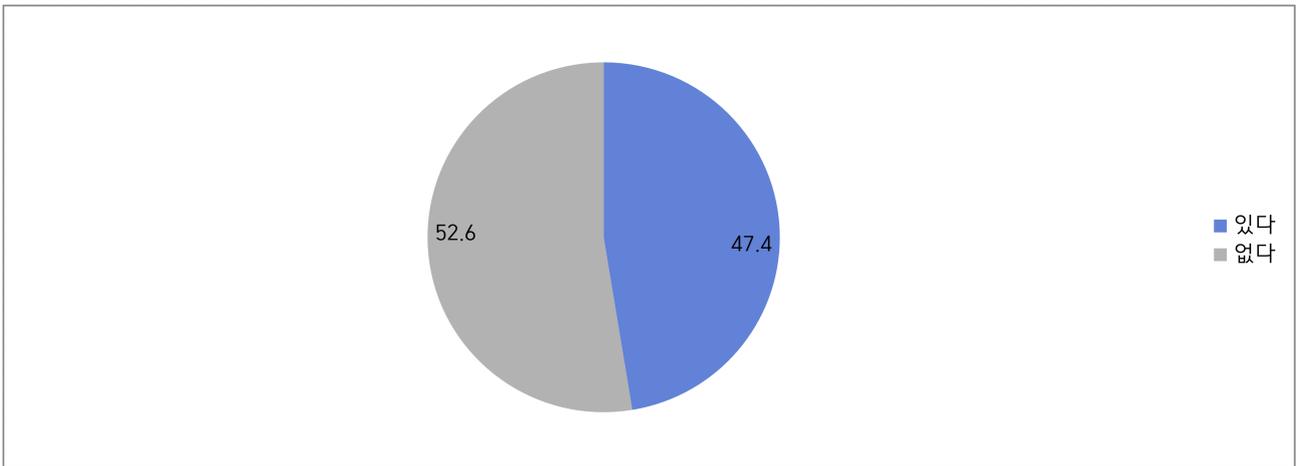
❖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 초등학생의 교내 동아리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1,288명)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7.4%(1,161명)로 나타나, 교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6 초등학생_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빈도분석

구분	있다		없다	
	N	%	N	%
올해 교내 동아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161	47.4%	1,288	52.6%

그림 2-6 초등학생_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비율



❖ 비행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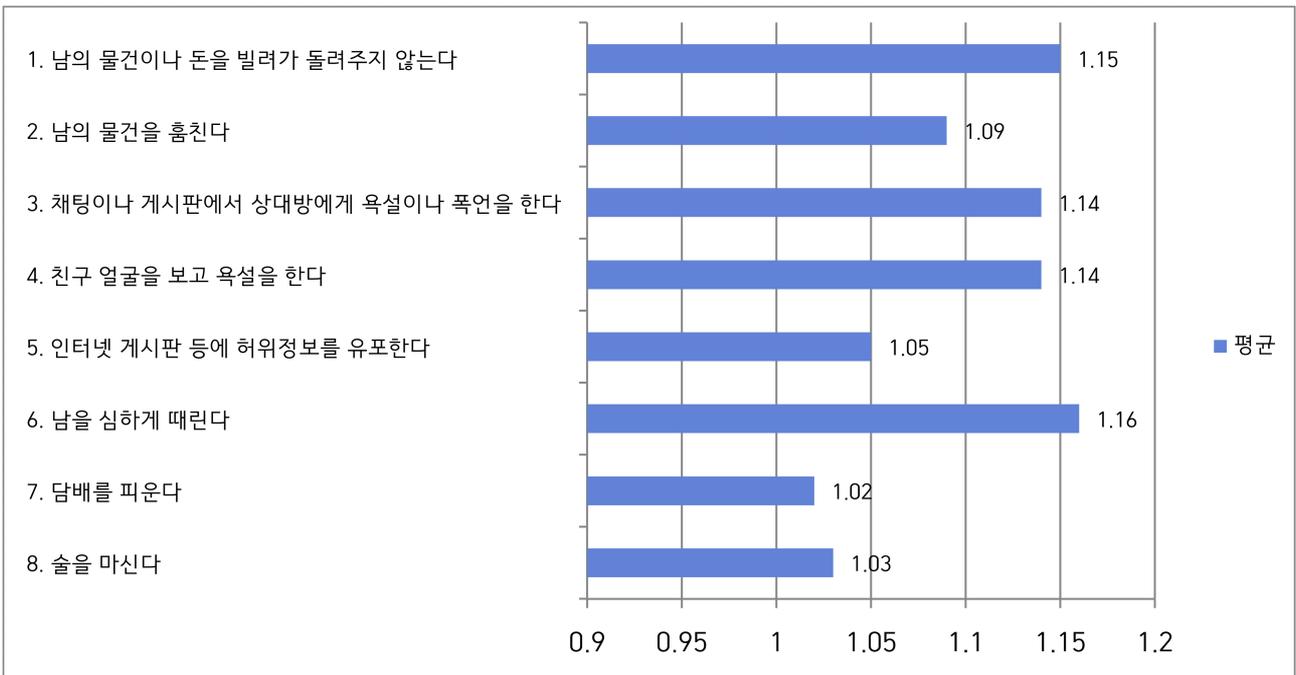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비행활동 경험은 8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비행활동 경험(전체)의 평균은 1.10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까웠다. 세부 설문 문항 중 '6. 남을 심하게 때린다'는 1.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7. 담배를 피운다'는 1.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2.95~13.15, 첨도 절댓값은 8.66~223.52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자료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9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2-7 초등학생_비행활동 경험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다	2,449	1.00	5.00	1.15	0.53	4.57	24.69	0.79	0.79
2. 남의 물건을 훔친다	2,449	1.00	5.00	1.09	0.33	4.72	27.58	0.76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3.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다	2,449	1.00	5.00	1.14	0.44	3.65	14.75	0.75	
4. 친구 얼굴을 보고 욕설을 한다	2,449	1.00	5.00	1.14	0.43	3.47	13.86	0.75	
5.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정보를 유포한다	2,449	1.00	5.00	1.05	0.29	7.40	69.41	0.76	
6. 남을 심하게 때린다	2,449	1.00	4.00	1.16	0.45	2.95	8.66	0.76	
7. 담배를 피운다	2,449	1.00	5.00	1.02	0.17	13.15	223.52	0.78	
8. 술을 마신다	2,449	1.00	5.00	1.03	0.23	12.11	179.96	0.78	
비행활동 경험(전체)	2,449	1.00	4.38	1.10	0.24	4.46	32.72	-	-

그림 2-7 초등학생_비행활동 경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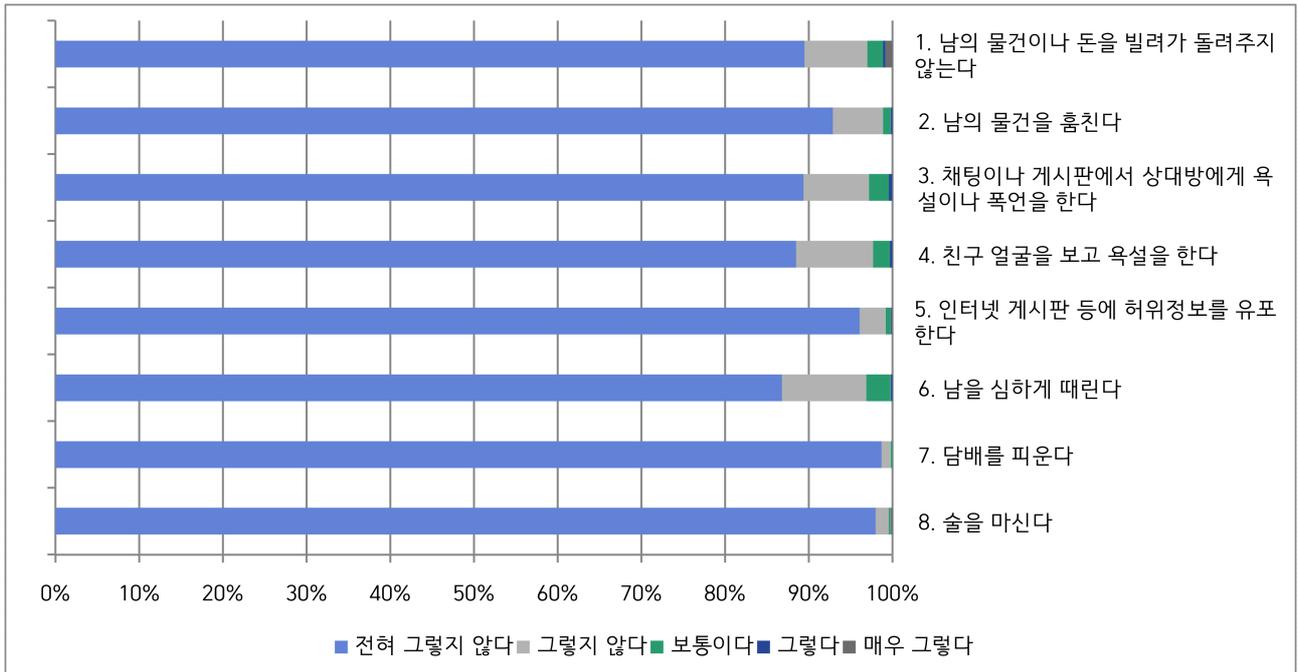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비행활동 경험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의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6. 남을 심하게 때린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86.9%(2,128명), [그렇지 않다] 10.1%(247명), [보통이다] 2.9%(70명)으로 응답하였다. ‘1.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89.5%(2,191명), [그렇지 않다] 7.5%(184명), [보통이다] 1.9%(47명)로 나타났다. 또한, ‘3.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89.4%(2,190명), [그렇지 않다] 7.8%(190명), [보통이다] 2.4%(59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8 초등학생_비행활동 경험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다	2,191	89.5%	184	7.5%	47	1.9%	7	0.3%	20	0.8%
2. 남의 물건을 훔친다	2,273	92.8%	148	6.0%	23	0.9%	4	0.2%	1	0.0%
3.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다	2,190	89.4%	190	7.8%	59	2.4%	9	0.4%	1	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4. 친구 얼굴을 보고 욕설을 한다	2,167	88.5%	225	9.2%	49	2.0%	7	0.3%	1	0.0%
5.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정보를 유포한다	2,352	96.0%	76	3.1%	15	0.6%	3	0.1%	3	0.1%
6. 남을 심하게 때린다	2,128	86.9%	247	10.1%	70	2.9%	4	0.2%	0	0.0%
7. 담배를 피운다	2,416	98.7%	27	1.1%	4	0.2%	1	0.0%	1	0.0%
8. 술을 마신다	2,402	98.1%	38	1.6%	4	0.2%	1	0.0%	4	0.2%

그림 2-8 초등학생_비행활동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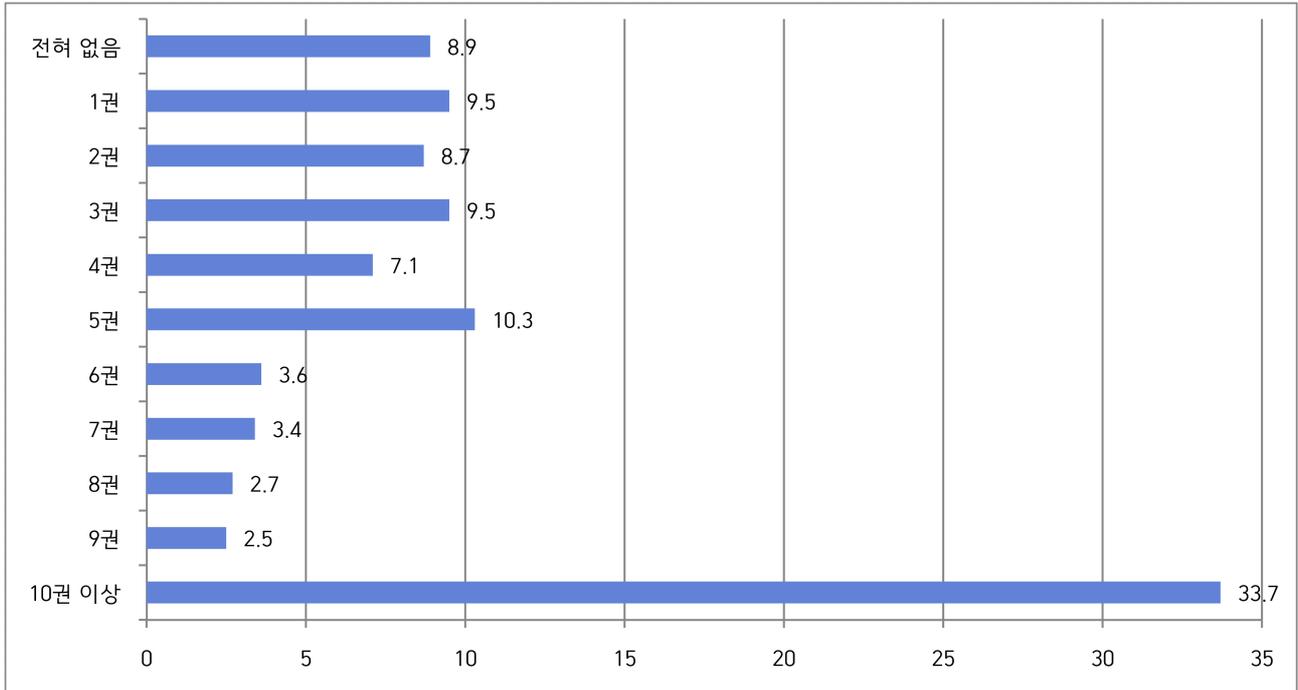
❖ 독서활동

- 초등학생의 한 달 동안 읽는 책의 권수를 분석한 결과, [10권 이상]을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825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5권] 10.3%(252명), [1권]과 [3권]이 각각 9.5%(232명, 233명)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혀 없음]은 8.9%(219명), [2권]은 8.7%(214명), [4권]은 7.1%(173명), [6권]은 3.6%(89명), [7권]은 3.4%(84명), [8권]은 2.7%(67명), [9권]은 2.5%(61명)로 비교적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의 독서활동은 평균적으로 10권 이상을 읽는 비율이 높았으나, 읽는 권수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2-9 초등학생_독서활동 빈도분석

구분	전혀 없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이상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보통 한 달 동안 책을 몇 권 읽습니까? (교과서, 참고서 제외)	219	8.9%	232	9.5%	214	8.7%	233	9.5%	173	7.1%	252	10.3%	89	3.6%	84	3.4%	67	2.7%	61	2.5%	825	33.7%

그림 2-9 초등학생_독서활동 비율



컴퓨터/스마트기기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디지털 기기 의존도, 사용시간, 게임활동이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항목 별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응답 비율과 인원을 분석하고, 신뢰도와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경향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습관과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특히,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기기 의존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과 사용 행태를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게임활동 및 기기 사용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디지털 기기가 초등학생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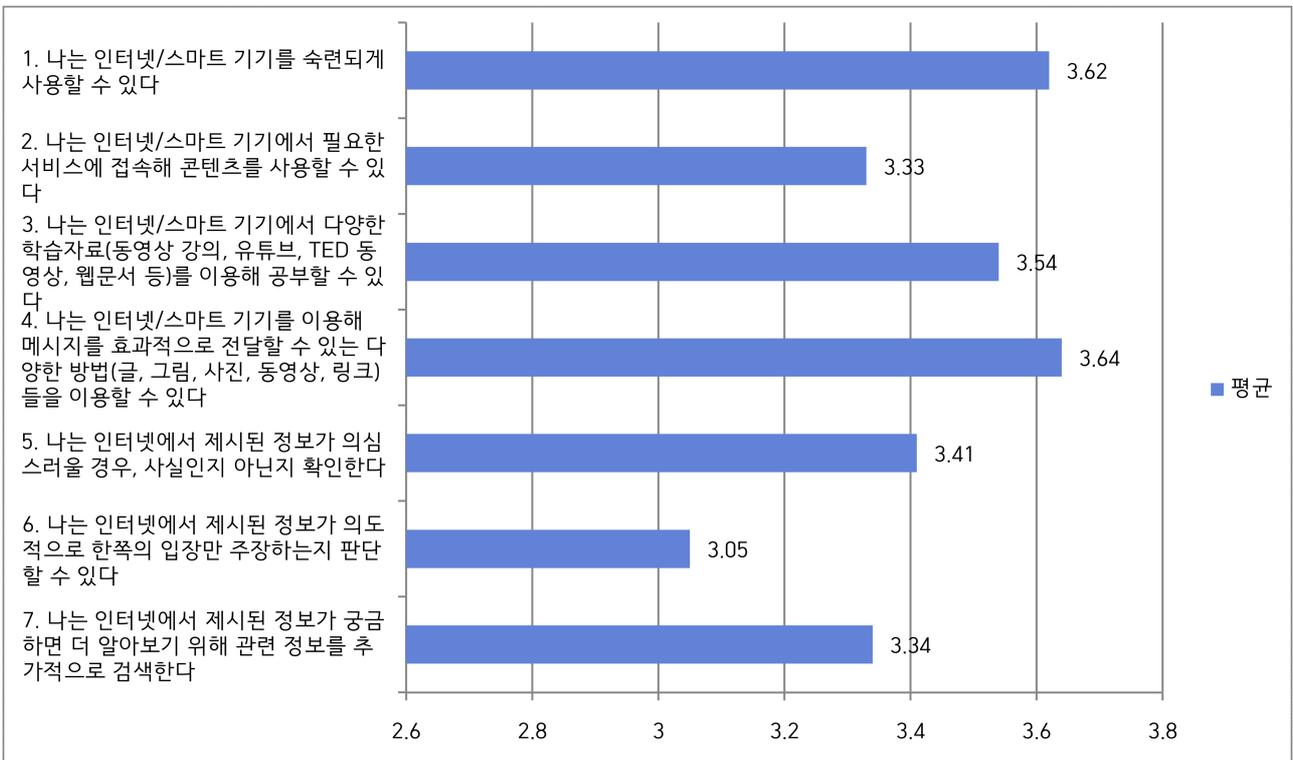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7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전체)의 평균은 3.42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이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 '1.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 '4.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글,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각각 3.62점과 3.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6.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3.0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7~0.54, 첨도 절댓값은 0.03~0.72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다.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2-10 초등학생_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	2,449	1.00	5.00	3.62	1.01	-0.43	-0.03	0.83	0.85
2.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2,449	1.00	5.00	3.33	1.20	-0.30	-0.70	0.82	
3.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동영상 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	2,449	1.00	5.00	3.54	1.13	-0.52	-0.36	0.82	
4.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글,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들을 이용할 수 있다	2,449	1.00	5.00	3.64	1.12	-0.54	-0.35	0.82	
5.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심스러운 경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2,449	1.00	5.00	3.41	1.24	-0.39	-0.72	0.84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6.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2,449	1.00	5.00	3.05	1.10	-0.07	-0.37	0.82	
7.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궁금하면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한다	2,449	1.00	5.00	3.34	1.21	-0.37	-0.69	0.83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전체)	2,449	1.00	5.00	3.42	0.83	-0.28	0.09	-	-

그림 2-10 초등학생_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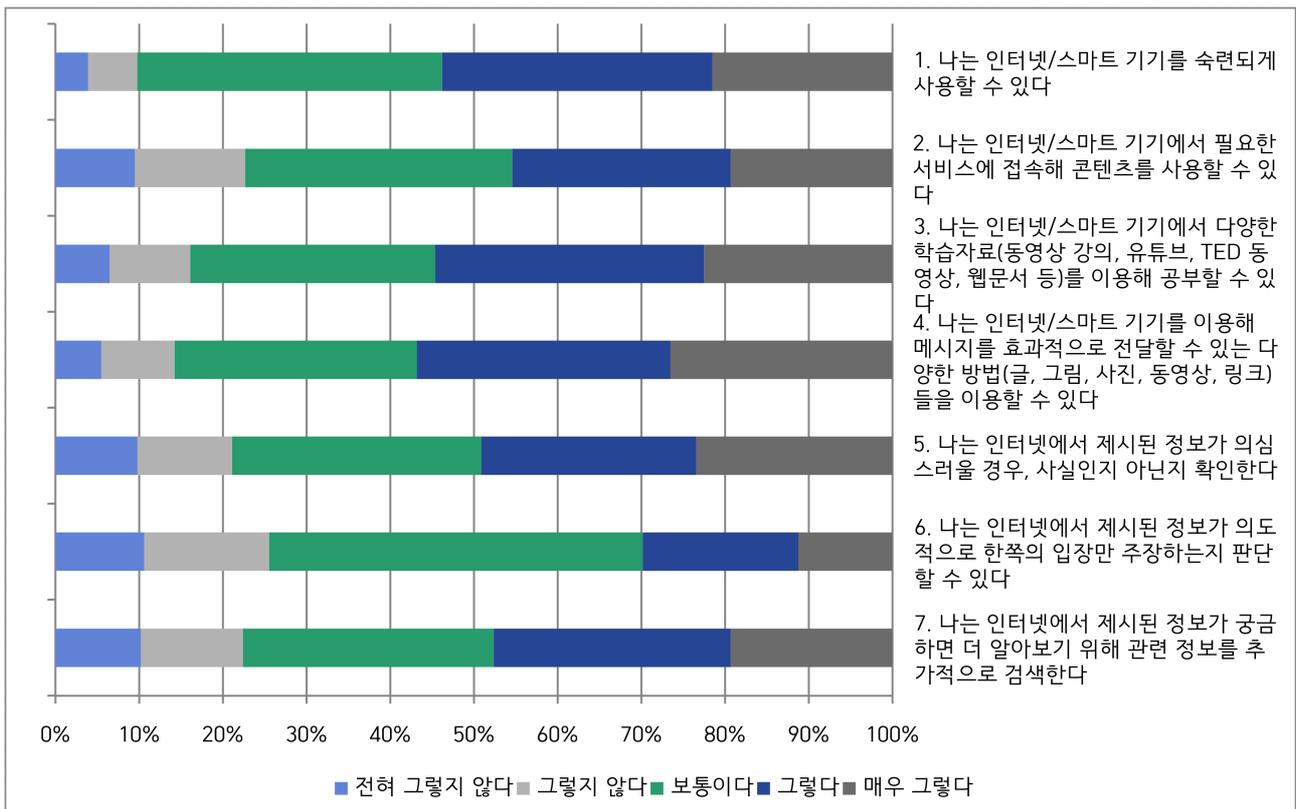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1.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21.5%(526명), [그렇다] 32.3%(792명), [보통이다] 36.4%(891명)으로 나타났다. ‘4.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글,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26.5%(648명), [그렇다] 30.3%(743명), [보통이다] 29.0%(71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3.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동영상 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22.5%(551명), [그렇다] 32.1%(785명), [보통이다] 29.3%(718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 초등학생_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	95	3.9%	145	5.9%	891	36.4%	792	32.3%	526	21.5%
2.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232	9.5%	324	13.2%	781	31.9%	639	26.1%	473	19.3%
3.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동영상 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	159	6.5%	236	9.6%	718	29.3%	785	32.1%	551	22.5%
4.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글,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들을 이용할 수 있다	134	5.5%	214	8.7%	710	29.0%	743	30.3%	648	26.5%
5.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심스러울 경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241	9.8%	277	11.3%	730	29.8%	629	25.7%	572	23.4%
6.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260	10.6%	366	14.9%	1,092	44.6%	456	18.6%	275	11.2%
7.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궁금하면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한다	251	10.2%	300	12.2%	733	29.9%	693	28.3%	472	19.3%

그림 2-11 초등학생_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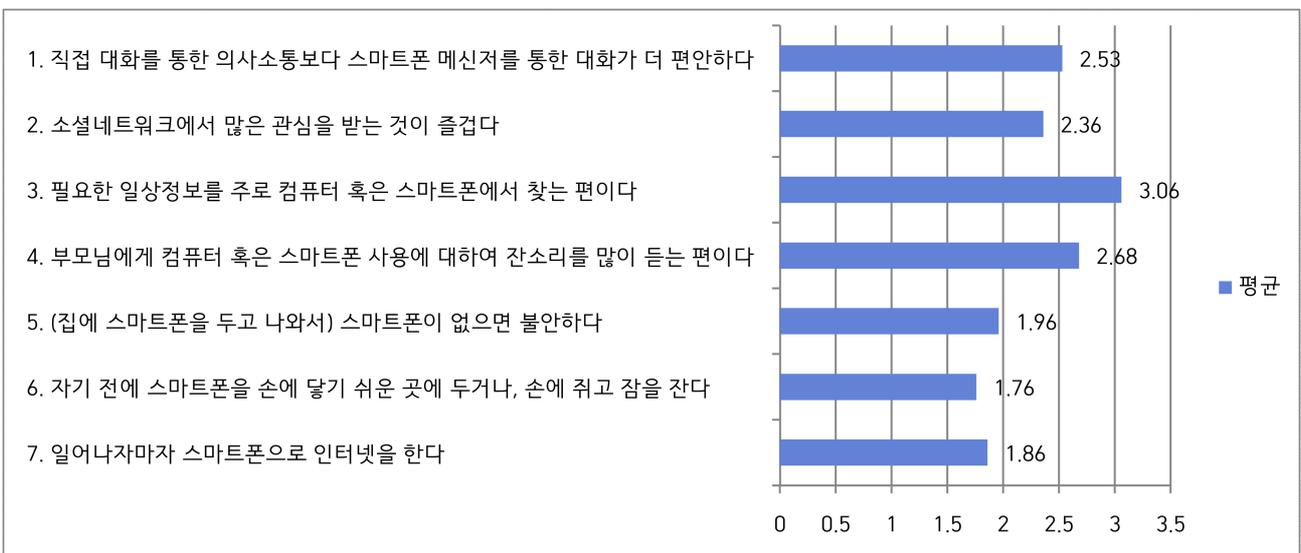
❖ 디지털 기기 의존도

○ 초등학생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는 7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디지털 기기 의존도(전체)의 평균은 2.32점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3.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는 3.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6.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손에 쥐고 잠을 잔다'(1.76점)는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15~1.37, 첨도 절댓값은 0.38~0.96으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3으로 도출되었다.

표 2-12 초등학생_디지털 기기 의존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대화가 더 편안하다	2,449	1.00	5.00	2.53	1.18	0.42	-0.58	0.72	0.73
2. 소셜네트워크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즐겁다	2,449	1.00	5.00	2.36	1.13	0.44	-0.56	0.71	
3.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	2,449	1.00	5.00	3.06	1.12	-0.22	-0.59	0.70	
4. 부모님에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	2,449	1.00	5.00	2.68	1.15	0.15	-0.76	0.70	
5.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와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2,449	1.00	5.00	1.96	1.09	1.04	0.38	0.69	
6.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손에 쥐고 잠을 잔다	2,449	1.00	5.00	1.76	1.09	1.37	0.96	0.70	
7.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2,449	1.00	5.00	1.86	1.08	1.13	0.46	0.69	
디지털 기기 의존도(전체)	2,449	1.00	5.00	2.32	0.69	0.40	0.33	-	-

그림 2-12 초등학생_디지털 기기 의존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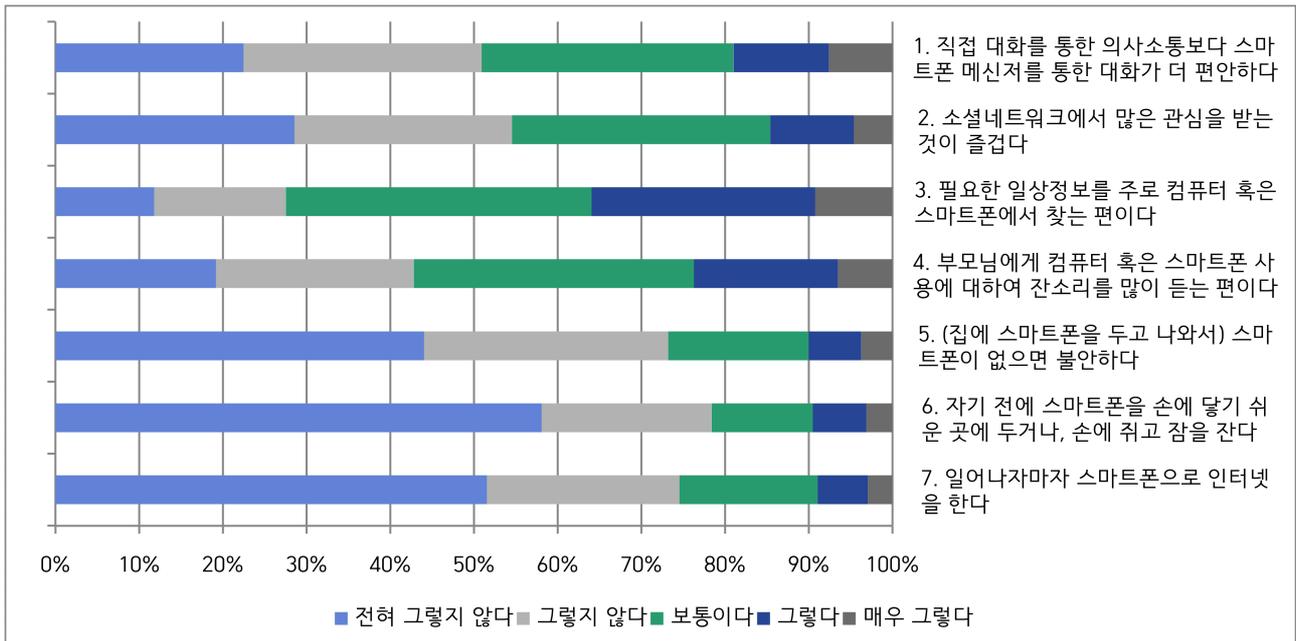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의 하위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3.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는 [매우 그렇다] 9.2%(226명), [그렇다] 26.7%(653명), [보통이다] 36.5%(895명)로 나타났다. '4. 부모님에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는 [매우 그렇다] 6.5%(158명), [그렇다] 17.2%(422명), [보통이다] 33.5%(82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1.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더 편안하다'는 [매우 그렇다] 7.6%(185명), [그렇다] 11.4%(279명), [보통이다] 30.1%(736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13 초등학생_디지털 기기 의존도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더 편안하다	551	22.5%	698	28.5%	736	30.1%	279	11.4%	185	7.6%
2. 소셜네트워크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즐겁다	700	28.6%	636	26.0%	756	30.9%	245	10.0%	112	4.6%
3.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	290	11.8%	385	15.7%	895	36.5%	653	26.7%	226	9.2%
4. 부모님에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	469	19.2%	579	23.6%	821	33.5%	422	17.2%	158	6.5%
5.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와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1,079	44.1%	715	29.2%	411	16.8%	154	6.3%	90	3.7%
6.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달기 쉬운 곳에 두거나, 손에 쥐고 잠을 잔다	1,422	58.1%	497	20.3%	297	12.1%	156	6.4%	77	3.1%
7.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1,262	51.5%	564	23.0%	403	16.5%	148	6.0%	72	2.9%

그림 2-13 초등학생_디지털 기기 의존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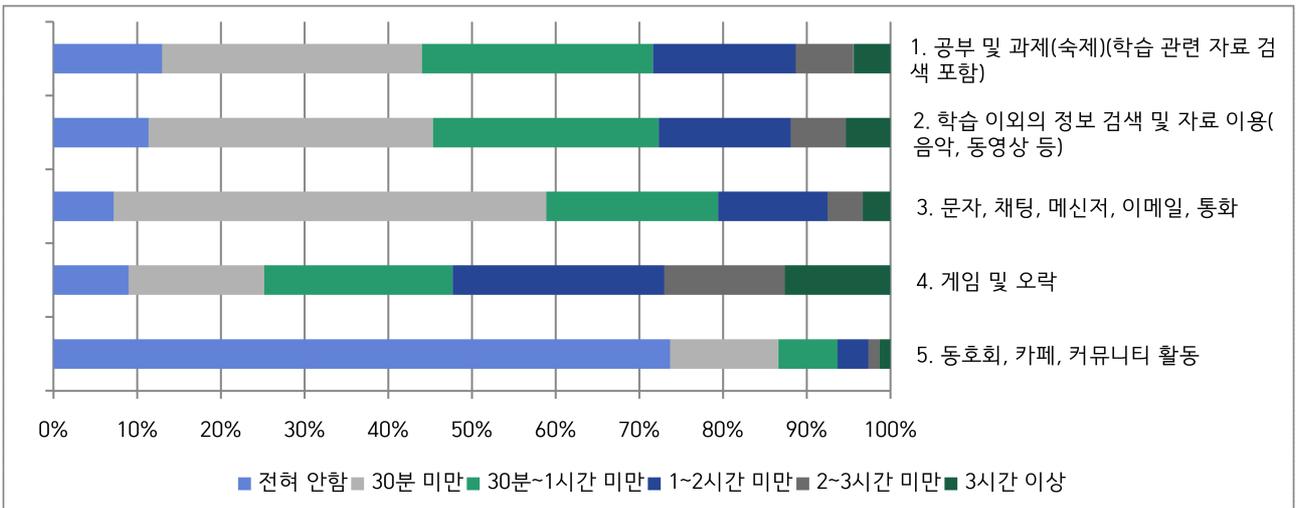
❖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시간

○ 초등학생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학습 관련 활동에서는 하루 평균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31.1%(76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분~1시간 미만]이 27.6%(675명), [1~2시간 미만]이 17.1%(419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3시간 이상]은 4.4%(107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습 이외의 활동에서는 [30분 미만] 응답이 34.0%(833명)로 가장 높았으며, [30분~1시간 미만]이 27.0%(661명)로 조사되었다. 문자, 채팅, 메신저 등에서는 [30분 미만]의 사용 응답이 절반 이상인 51.7%(1,267명)로 나타나, 다른 활동에 비해 짧은 사용 시간이 두드러졌다. 한편, 게임 및 오락에서는 [1~2시간 미만] 25.3%(619명)와 [30분~1시간 미만] 22.5%(551명)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호회 및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전혀 안 함]이 73.7%(1,806명)로 가장 많았다.

표 2-14 초등학생_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시간 빈도분석

구분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N	%	N	%	N	%	N	%	N	%	N	%
1. 공부 및 과제(숙제)(학습 관련 자료 검색 포함)	318	13.0%	762	31.1%	675	27.6%	419	17.1%	168	6.9%	107	4.4%
2.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음악, 동영상 등)	278	11.4%	833	34.0%	661	27.0%	386	15.8%	162	6.6%	129	5.3%
3. 문자, 채팅, 메신저, 이메일, 통화	176	7.2%	1,267	51.7%	501	20.5%	320	13.1%	104	4.2%	81	3.3%
4. 게임 및 오락	221	9.0%	396	16.2%	551	22.5%	619	25.3%	353	14.4%	309	12.6%
5.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1,806	73.7%	315	12.9%	174	7.1%	90	3.7%	32	1.3%	32	1.3%

그림 2-14 초등학생_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사용시간 비율



❖ 게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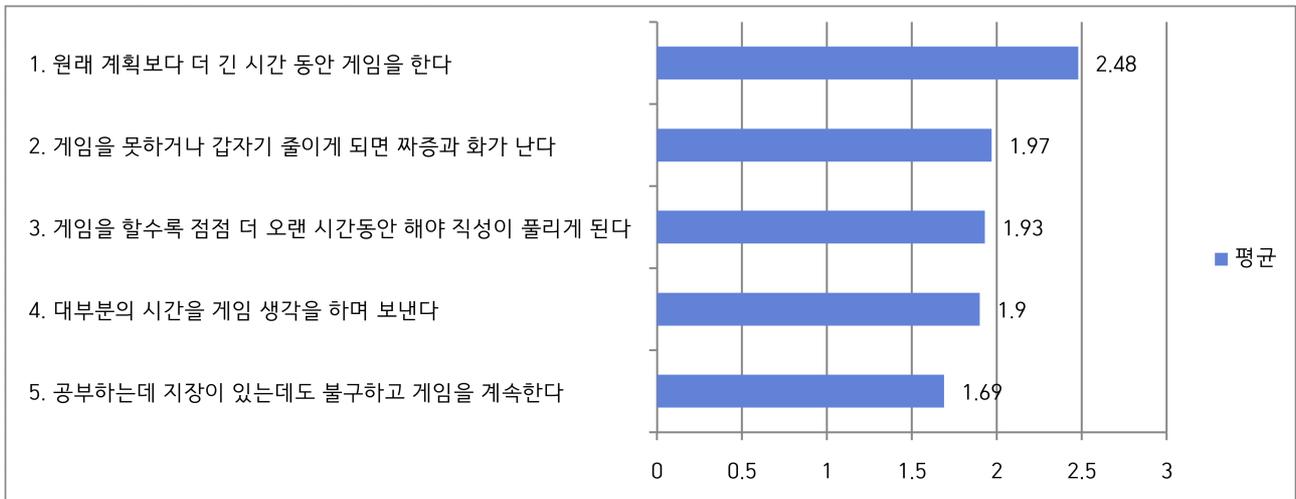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게임활동은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그런 적 없다 ~ 5점: 항상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게임활동(전체)의 평균은 1.99점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 '1.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

을 한다’는 2.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5.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한다’는 1.6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도출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30~1.39, 첨도 절댓값은 0.02~1.65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0.86으로 산출되었다.

표 2-15 초등학생_게임활동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2,449	1.00	5.00	2.48	1.08	0.30	-0.57	0.84	0.86
2.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과 화가 난다	2,449	1.00	5.00	1.97	1.03	0.84	0.02	0.83	
3.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	2,449	1.00	5.00	1.93	1.01	0.93	0.26	0.81	
4.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 생각을 하며 보낸다	2,449	1.00	5.00	1.90	1.01	1.04	0.53	0.83	
5.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한다	2,449	1.00	5.00	1.69	0.93	1.39	1.65	0.83	
게임활동(전체)	2,449	1.00	5.00	1.99	0.81	0.82	0.48	-	-

그림 2-15 초등학생_게임활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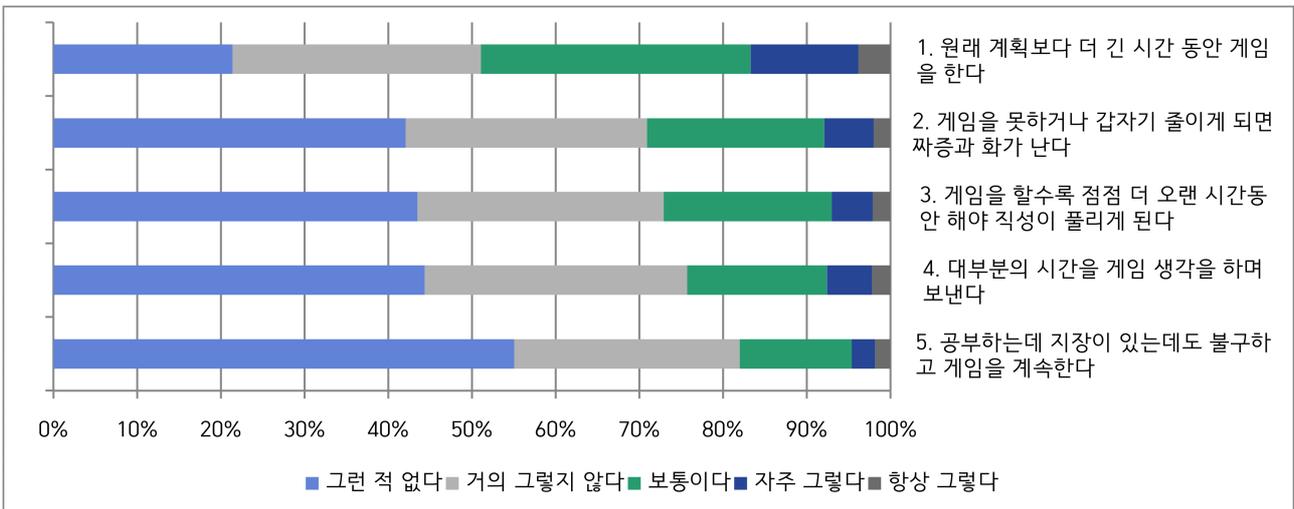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게임활동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조사하면, ‘1.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는 [항상 그렇다] 3.8%(94명), [자주 그렇다] 12.9%(315명), [보통이다] 32.2%(789명)이었으며, ‘3.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는 [항상 그렇다] 2.1%(51명), [자주 그렇다] 4.9%(120명), [보통이다] 20.1%(492명)으로 드러났고, ‘2.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과 화가 난다’는 [항상 그렇다] 2.0%(50명), [자주 그렇다] 5.9%(145명), [보통이다] 21.2%(518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2-16 초등학생_게임활동 빈도분석

구분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N	%	N	%	N	%	N	%	N	%
1.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523	21.4%	728	29.7%	789	32.2%	315	12.9%	94	3.8%
2.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과 화가 난다	1,030	42.1%	706	28.8%	518	21.2%	145	5.9%	50	2.0%
3.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	1,066	43.5%	720	29.4%	492	20.1%	120	4.9%	51	2.1%
4.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 생각을 하며 보낸다	1,087	44.4%	768	31.4%	409	16.7%	132	5.4%	53	2.2%
5.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한다	1,347	55.0%	660	26.9%	329	13.4%	68	2.8%	45	1.8%

그림 2-16 초등학생_게임활동 비율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성장신념, 끈기, 다문화 수용성, 우울, 행복도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각 주제별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활용해 주요 응답 비율과 인원 분포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전체 평균, 응답 경향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추가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세부 항목을 분석하여 초등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장신념과 끈기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습 목표에 대한 태도와 노력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수용성과 우울, 행복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태도와 심리적 상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심리적 지원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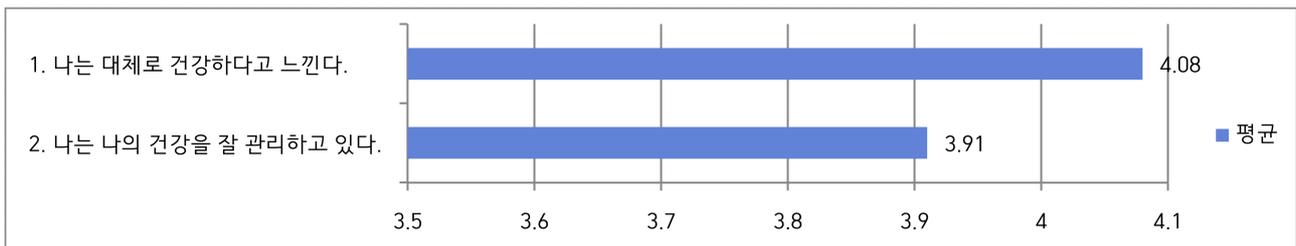
❖ 건강

- 초등학생의 건강은 2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건강(전체)의 평균은 4.00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4.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 나는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3.91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로 도출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45~0.79, 첨도 절댓값은 0.05~0.47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2로 나타났다.

표 2-17 초등학생_건강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2,449	1.00	5.00	4.08	0.95	-0.79	0.05	-	0.82
2. 나는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	2,449	1.00	5.00	3.91	0.94	-0.45	-0.47	-	
건강(전체)	2,449	1.00	5.00	4.00	0.87	-0.62	-0.03	-	-

그림 2-17 초등학생_건강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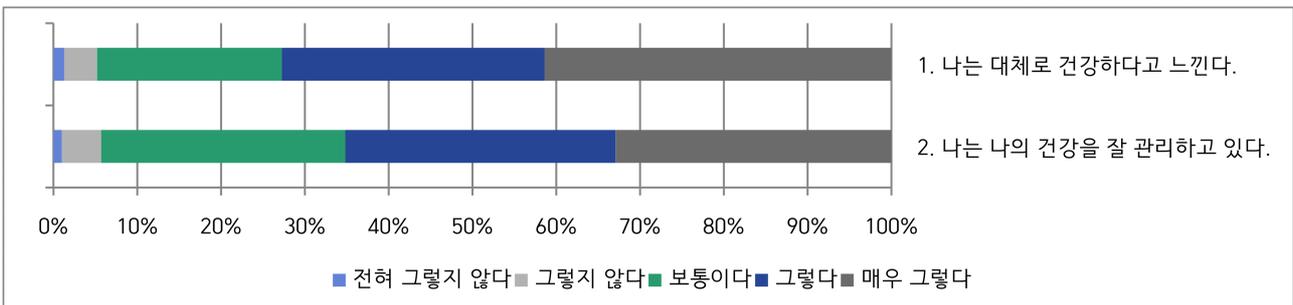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건강의 하위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1. 나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매우 그렇다] 41.4%(1,014명), [그렇다] 31.4%(768명), [보통이다] 22.1%(541명)로 나타났다. ‘2. 나는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매우 그렇다] 32.9%(806명), [그렇다] 32.3%(790명), [보통이다] 29.2%(714명)으로 확인 및 조사되었다.

표 2-18 초등학생_건강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31	1.3%	95	3.9%	541	22.1%	768	31.4%	1,014	41.4%
2. 나는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	24	1.0%	115	4.7%	714	29.2%	790	32.3%	806	32.9%

그림 2-18 초등학생_건강 비율



❖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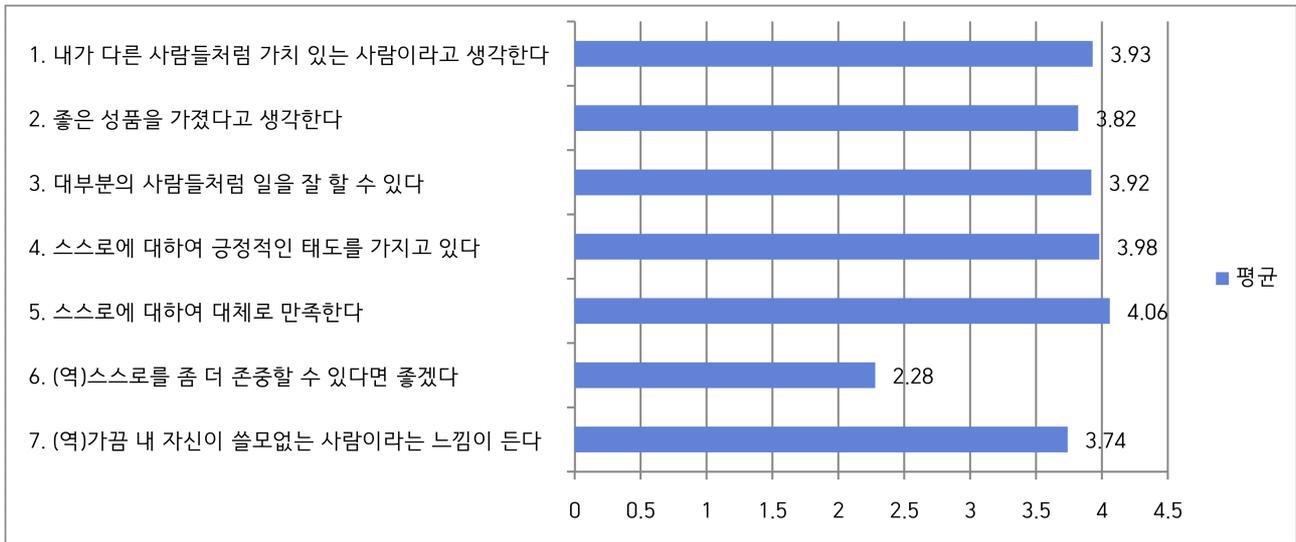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7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전체)의 평균은 3.68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5.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4.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6. (역)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2.2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57~0.84, 첨도 절댓값은 0.01~0.80으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5로 도출되었다.

표 2-19 초등학생_자아존중감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449	1.00	5.00	3.93	1.08	-0.79	-0.04	0.66	0.75
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449	1.00	5.00	3.82	1.01	-0.57	-0.12	0.67	
3.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2,449	1.00	5.00	3.92	0.93	-0.58	0.01	0.69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4.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449	1.00	5.00	3.98	0.96	-0.68	0.01	0.68	
5.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449	1.00	5.00	4.06	0.97	-0.84	0.15	0.67	
6. (역)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	2,449	1.00	5.00	2.28	1.07	0.62	-0.06	0.84	
7. (역)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449	1.00	5.00	3.74	1.32	-0.66	-0.80	0.74	
자아존중감(전체)	2,449	1.29	5.00	3.68	0.66	-0.37	-0.14	-	-

그림 2-19 초등학생_자아존중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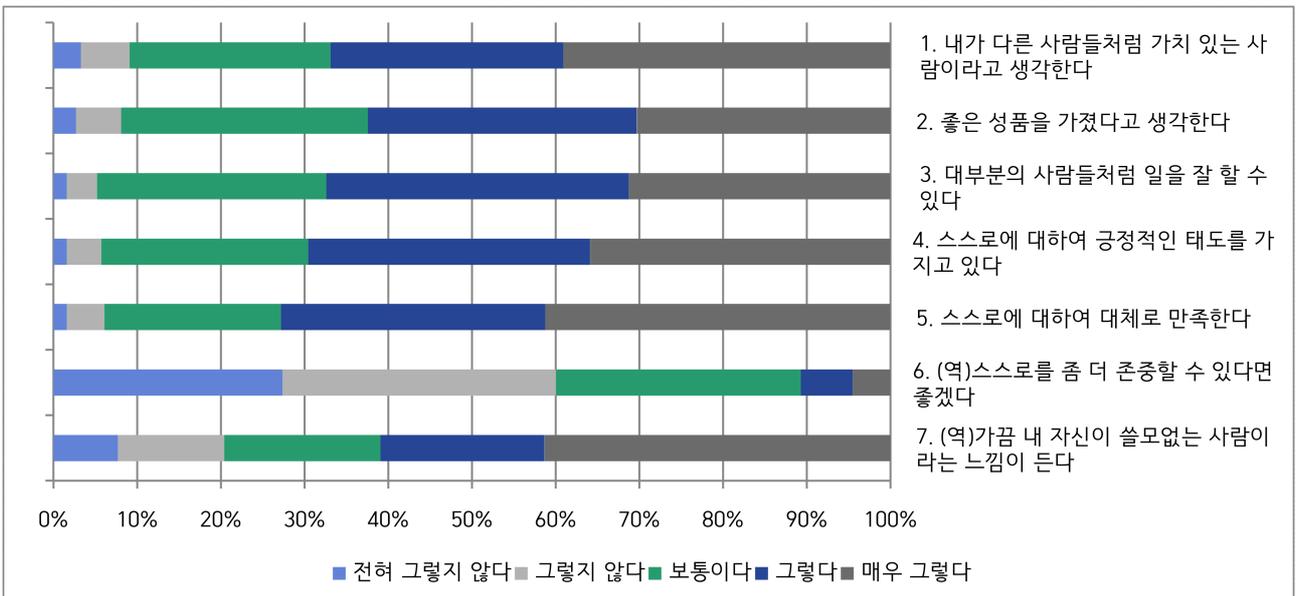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하위 세부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5.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매우 그렇다] 41.2%(1,009명), [그렇다] 31.6%(775명), [보통이다] 21.1%(516명)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매우 그렇다] 35.9%(878명), [그렇다] 33.7%(825명), [보통이다] 24.8%(607명)로 분석되었으며,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매우 그렇다] 39.0%(955명), [그렇다] 27.8%(682명), [보통이다] 24.0%(588명)로 나타났다.

표 2-20 초등학생_자아존중감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1	3.3%	143	5.8%	588	24.0%	682	27.8%	955	39.0%
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67	2.7%	132	5.4%	722	29.5%	785	32.1%	743	30.3%
3.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39	1.6%	88	3.6%	672	27.4%	885	36.1%	765	31.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4.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9	1.6%	100	4.1%	607	24.8%	825	33.7%	878	35.9%
5.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8	1.6%	111	4.5%	516	21.1%	775	31.6%	1,009	41.2%
6. (역)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	670	27.4%	801	32.7%	718	29.3%	151	6.2%	109	4.5%
7. (역)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89	7.7%	311	12.7%	458	18.7%	480	19.6%	1,011	41.3%

그림 2-20 초등학교_자아존중감 비율



❖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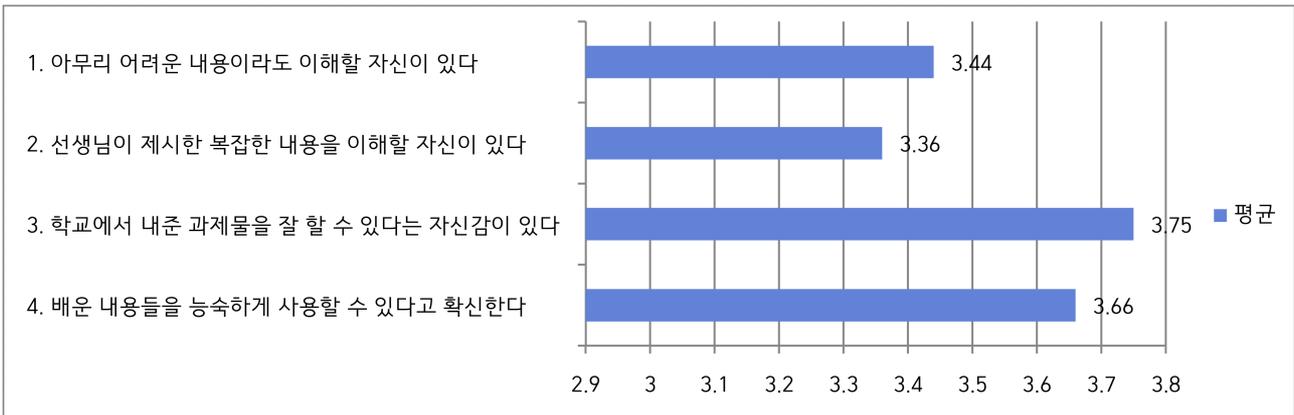
○ 초등학교의 자기효능감은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자기효능감(전체)의 평균은 3.55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3.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는 3.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8~0.46, 첨도 절댓값은 0.25~0.47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8로 도출되었다.

표 2-21 초등학교_자기효능감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2,449	1.00	5.00	3.44	1.02	-0.19	-0.34	0.84	0.88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2.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2,449	1.00	5.00	3.36	1.01	-0.08	-0.35	0.83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2,449	1.00	5.00	3.75	1.00	-0.46	-0.25	0.86	
4.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449	1.00	5.00	3.66	0.98	-0.21	-0.47	0.84	
자기효능감(전체)	2,449	1.00	5.00	3.55	0.86	-0.17	-0.20	-	-

그림 2-21 초등학생_자기효능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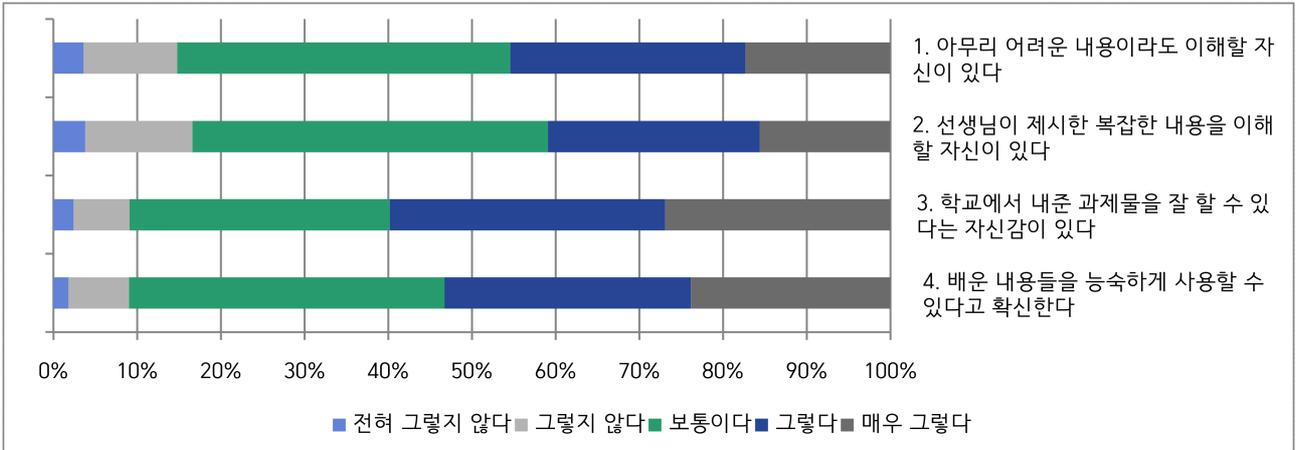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매우 그렇다] 26.9%(659명), [그렇다] 32.9%(806명), [보통이다] 31.1%(762명)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매우 그렇다] 23.8%(584명), [그렇다] 29.4%(720명), [보통이다] 37.7%(924명)으로 나타났으며, '1.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는 [매우 그렇다] 17.3%(423명), [그렇다] 28.1%(688명), [보통이다] 39.8%(975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2-22 초등학생_자기효능감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89	3.6%	274	11.2%	975	39.8%	688	28.1%	423	17.3%
2.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93	3.8%	314	12.8%	1,042	42.5%	619	25.3%	381	15.6%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58	2.4%	164	6.7%	762	31.1%	806	32.9%	659	26.9%
4.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44	1.8%	177	7.2%	924	37.7%	720	29.4%	584	23.8%

그림 2-22 초등학교_자기효능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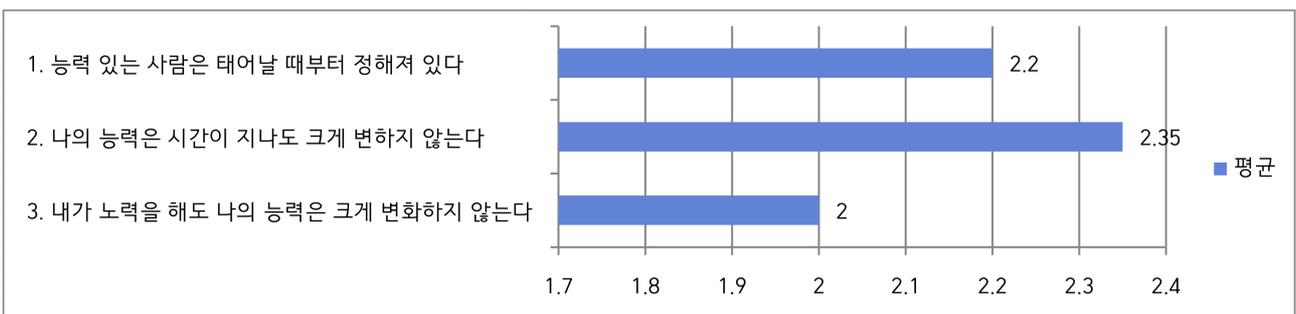
❖ 성장신념

○ 초등학교의 성장신념은 3개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성장신념(전체)의 평균은 2.18점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2.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2.0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55~1.00, 첨도 절댓값은 0.19~0.44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2로 도출되었다.

표 2-23 초등학교_성장신념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2,449	1.00	5.00	2.20	1.15	0.77	-0.19	0.77	0.72
2. 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2,449	1.00	5.00	2.35	1.14	0.55	-0.44	0.56	
3.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2,449	1.00	5.00	2.00	1.08	1.00	0.38	0.57	
성장신념(전체)	2,449	1.00	5.00	2.18	0.90	0.61	0.14	-	-

그림 2-23 초등학교_성장신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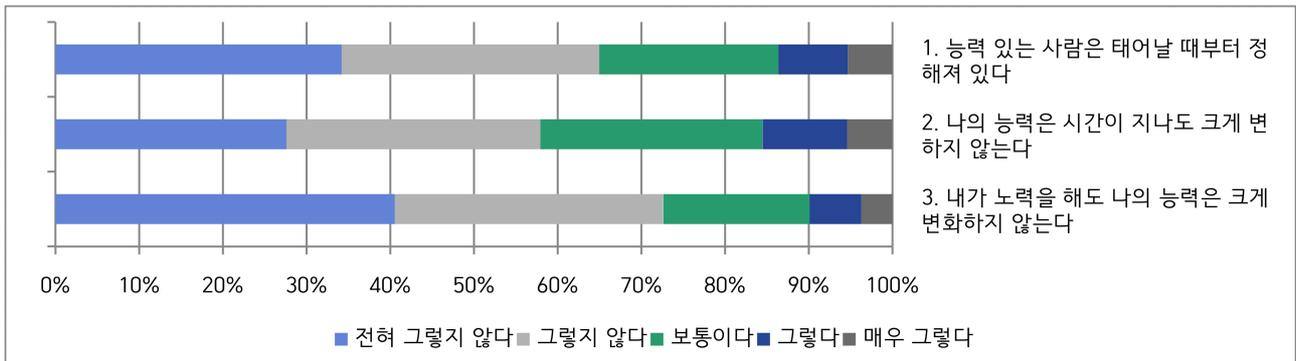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성장신념의 하위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매우 그렇다] 5.4%(133명), [그렇다] 10.1%(248명), [보통이다] 26.5%(648명)의 응답을 보였다. ‘1.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매우 그렇다] 5.3%(129명), [그렇다] 8.3%(204명), [보통이다] 21.4%(525명)으로 나타났다. ‘3.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매우 그렇다] 3.7%(90명), [그렇다] 6.2%(151명), [보통이다] 17.5%(428명)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표 2-24 초등학생_성장신념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837	34.2%	754	30.8%	525	21.4%	204	8.3%	129	5.3%
2. 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677	27.6%	743	30.3%	648	26.5%	248	10.1%	133	5.4%
3.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994	40.6%	786	32.1%	428	17.5%	151	6.2%	90	3.7%

그림 2-24 초등학생_성장신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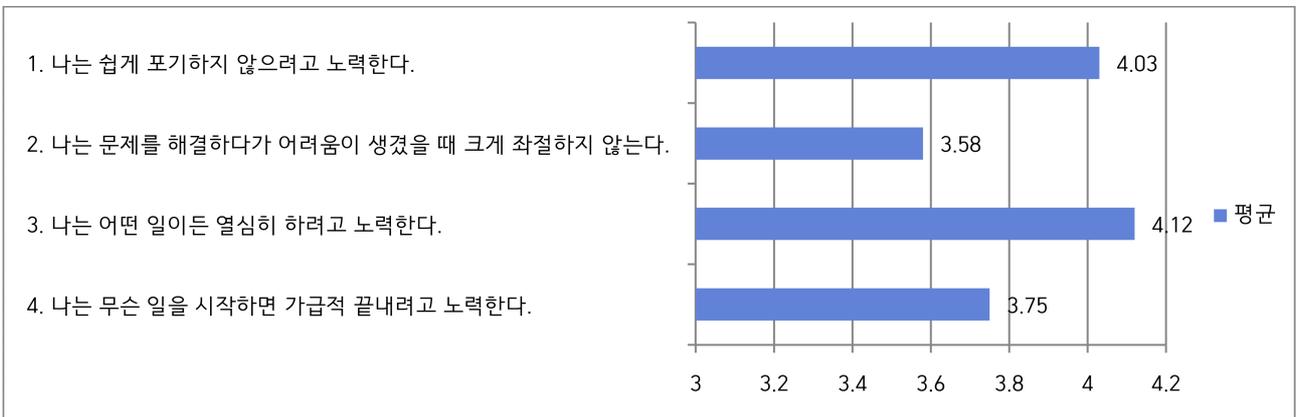
❖ 끈기

- 초등학생의 끈기는 4개의 하위 구성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끈기(전체)의 평균은 3.87점으로 ‘그렇다’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3.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4.1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3.5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38~0.78, 첨도 절댓값은 0.05~0.32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3으로 도출되었다.

표 2-25 초등학생_끈기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449	1.00	5.00	4.03	0.93	-0.78	0.32	0.62	0.73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2,449	1.00	5.00	3.58	1.04	-0.38	-0.32	0.72	
3.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2,449	1.00	5.00	4.12	0.86	-0.69	0.05	0.62	
4.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가급적 끝내려고 노력한다.	2,449	1.00	5.00	3.75	1.04	-0.52	-0.24	0.74	
끈기(전체)	2,449	1.00	5.00	3.87	0.72	-0.29	-0.02	-	-

그림 2-25 초등학생_끈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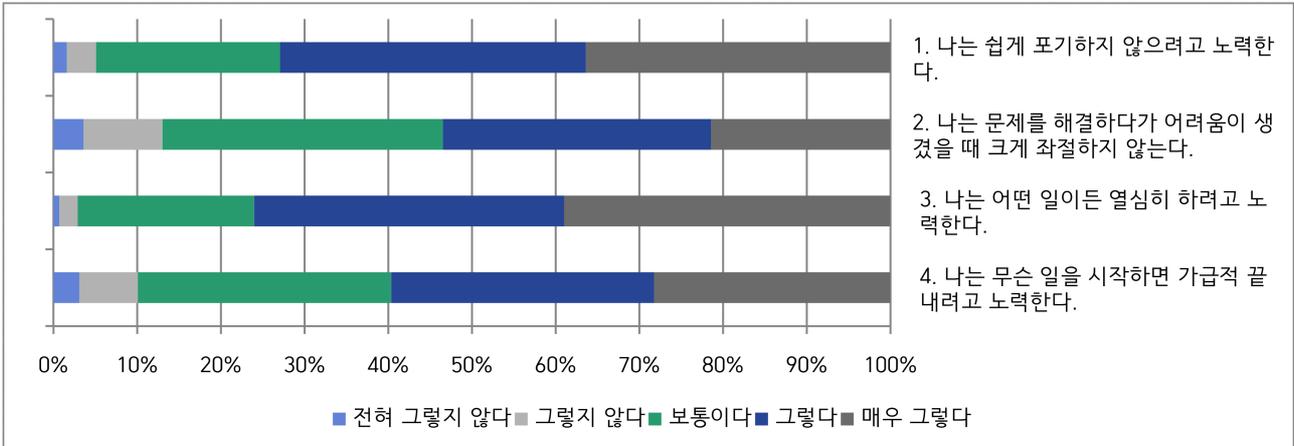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끈기의 하위 세부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3.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매우 그렇다] 39.0%(955명), [그렇다] 37.1%(908명), [보통이다] 21.1%(516명)의 비율을 보였다. ‘1.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매우 그렇다] 36.4%(891명), [그렇다] 36.6%(896명), [보통이다] 22.0%(539명)으로 나타났다. ‘4.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가급적 끝내려고 노력한다’는 [매우 그렇다] 28.2%(691명), [그렇다] 31.4%(770명), [보통이다] 30.2%(739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2-26 초등학생_끈기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38	1.6%	85	3.5%	539	22.0%	896	36.6%	891	36.4%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88	3.6%	231	9.4%	821	33.5%	784	32.0%	525	21.4%
3.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17	0.7%	53	2.2%	516	21.1%	908	37.1%	955	39.0%
4.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가급적 끝내려고 노력한다.	77	3.1%	172	7.0%	739	30.2%	770	31.4%	691	28.2%

그림 2-26 초등학교_끈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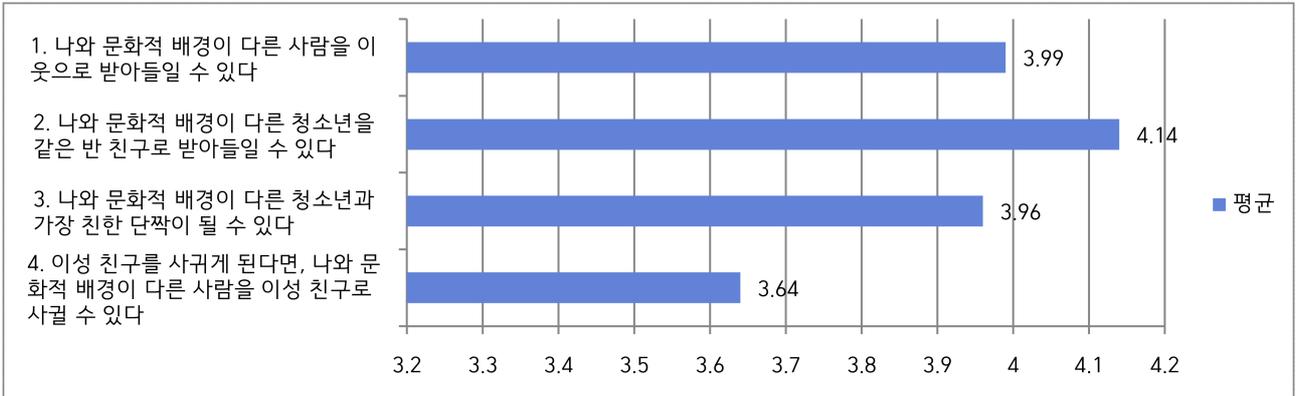
❖ 다문화수용성

- 초등학교의 다문화수용성은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다문화수용성(전체)의 평균은 3.93점으로 '그렇다' 정도의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4.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3.6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43~0.93, 첨도 절댓값은 0.08~0.54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7로 도출되었다.

표 2-27 초등학교_다문화수용성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449	1.00	5.00	3.99	0.97	-0.74	0.17	0.83	0.87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2,449	1.00	5.00	4.14	0.92	-0.93	0.54	0.81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2,449	1.00	5.00	3.96	0.99	-0.66	-0.08	0.81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2,449	1.00	5.00	3.64	1.08	-0.43	-0.31	0.88	
다문화수용성(전체)	2,449	1.00	5.00	3.93	0.84	-0.54	0.00	-	-

그림 2-27 초등학생_다문화수용성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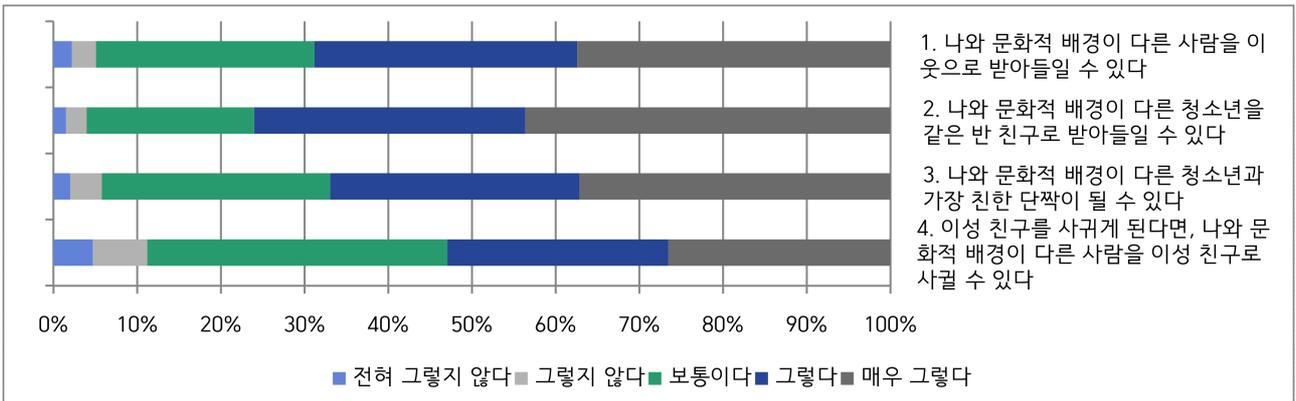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43.6%(1,067명), [그렇다] 32.4%(793명), [보통이다] 20.0%(490명)의 응답을 보였다.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37.4%(916명), [그렇다] 31.4%(769명), [보통이다] 26.1%(639명)으로 나타났으며,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37.1%(909명), [그렇다] 29.8%(731명), [보통이다] 27.2%(667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28 초등학생_다문화수용성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4	2.2%	71	2.9%	639	26.1%	769	31.4%	916	37.4%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7	1.5%	62	2.5%	490	20.0%	793	32.4%	1,067	43.6%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49	2.0%	93	3.8%	667	27.2%	731	29.8%	909	37.1%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14	4.7%	160	6.5%	879	35.9%	646	26.4%	650	26.5%

그림 2-28 초등학생_다문화수용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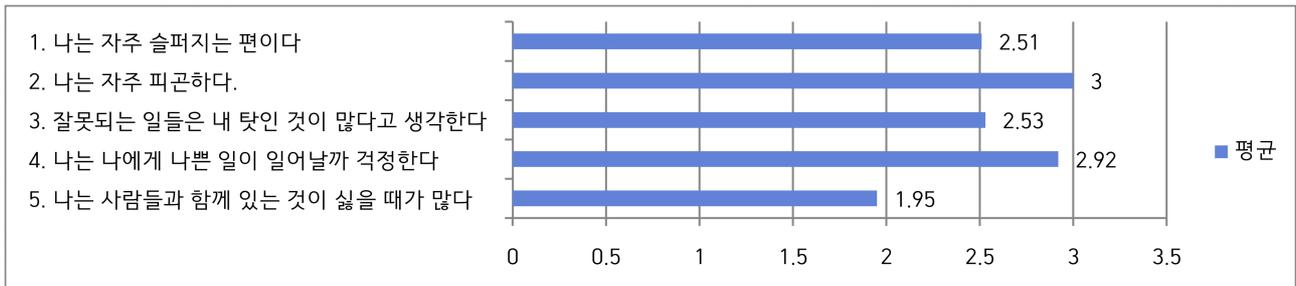
❖ 우울

- 초등학생의 우울은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측정되었다. 우울(전체)의 평균은 2.58점으로 '보통이다'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나는 자주 피곤하다.'는 3.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는 1.9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2~1.01, 첨도 절댓값은 0.25~1.16으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1로 도출되었다.

표 2-29 초등학생_우울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자주 슬퍼지는 편이다	2,449	1.00	5.00	2.51	1.23	0.43	-0.77	0.76	0.81
2. 나는 자주 피곤하다.	2,449	1.00	5.00	3.00	1.24	-0.02	-0.94	0.78	
3. 잘못되는 일들은 내 탓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2,449	1.00	5.00	2.53	1.20	0.39	-0.70	0.75	
4.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2,449	1.00	5.00	2.92	1.34	0.02	-1.16	0.75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2,449	1.00	5.00	1.95	1.10	1.01	0.25	0.81	
우울(전체)	2,449	1.00	5.00	2.58	0.92	0.26	-0.41	-	-

그림 2-29 초등학생_우울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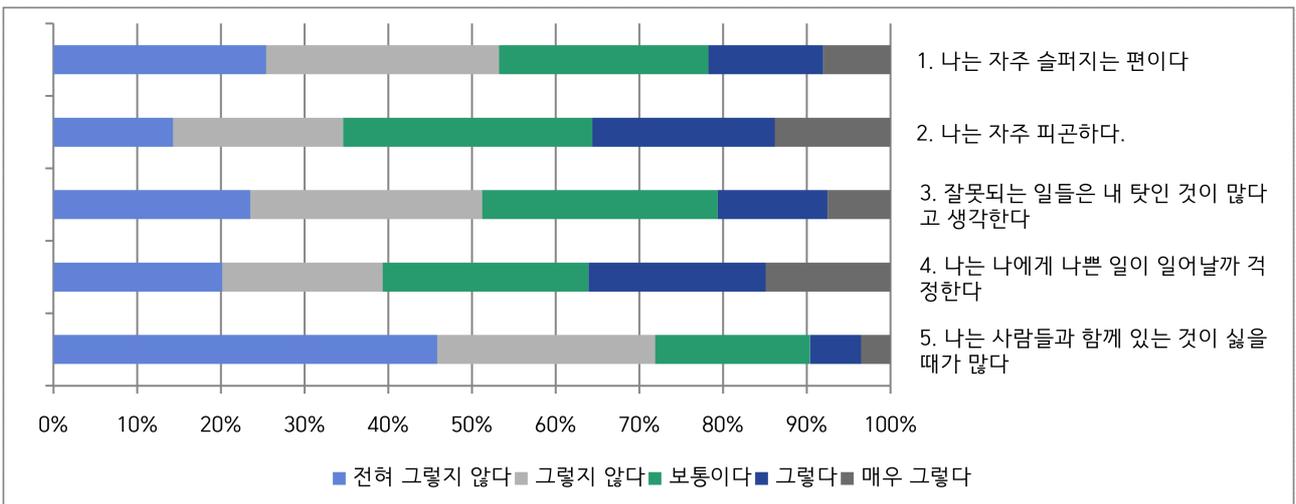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우울의 세부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나는 자주 피곤하다'는 [매우 그렇다] 13.8%(337명), [그렇다] 21.8%(533명), [보통이다] 29.8%(731명)의 비율을 보였다. '4.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는 [매우 그렇다] 14.9%(365명), [그렇다] 21.2%(519명), [보통이다] 24.6%(602명)으로 나타났으며,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는 [매우 그렇다] 3.5%(86명), [그렇다] 6.1%(150명), [보통이다] 18.5%(452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30 초등학생_우울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자주 슬퍼지는 편이다	622	25.4%	682	27.8%	612	25.0%	336	13.7%	197	8.0%
2. 나는 자주 피곤하다.	350	14.3%	498	20.3%	731	29.8%	533	21.8%	337	13.8%
3. 잘못되는 일들은 내 탓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576	23.5%	679	27.7%	689	28.1%	322	13.1%	183	7.5%
4.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494	20.2%	469	19.2%	602	24.6%	519	21.2%	365	14.9%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1,123	45.9%	638	26.1%	452	18.5%	150	6.1%	86	3.5%

그림 2-30 초등학생_우울 비율



❖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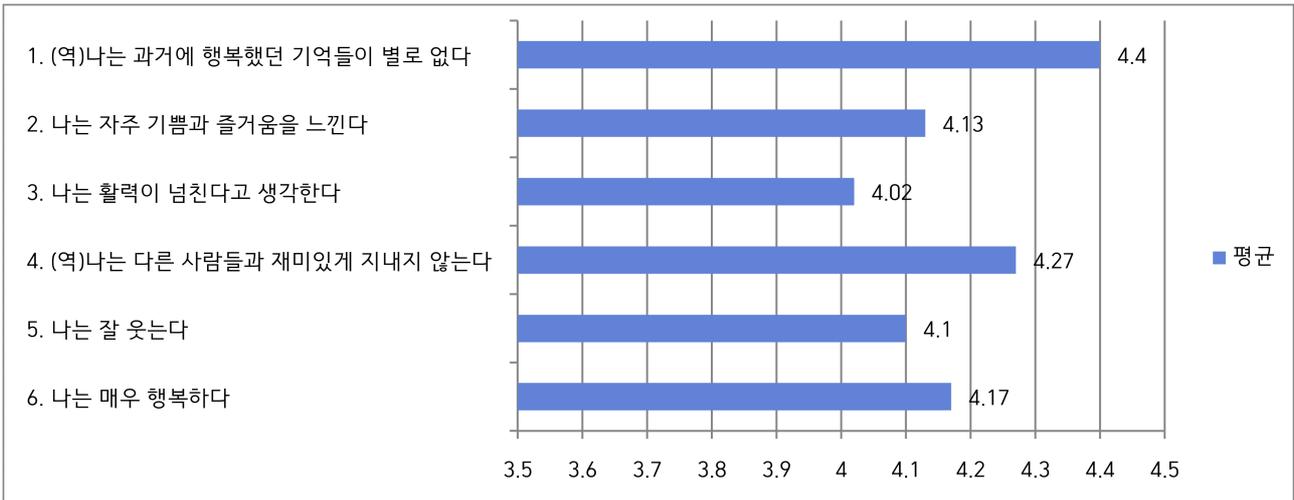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행복도는 6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행복도(전체)의 평균은 4.18점으로 '그렇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역)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는 4.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는 4.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86~1.74, 첨도 절댓값은 0.13~2.88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0.85로 조사 분석되었다.

표 2-31 초등학생_행복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역)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	2,449	1.00	5.00	4.40	0.91	-1.74	2.88	0.84	0.85
2. 나는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2,449	1.00	5.00	4.13	0.96	-0.98	0.52	0.80	
3.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2,449	1.00	5.00	4.02	1.04	-0.88	0.15	0.82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4. (역)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지 않는다	2,449	1.00	5.00	4.27	0.97	-1.44	1.81	0.85	
5. 나는 잘 웃는다	2,449	1.00	5.00	4.10	0.97	-0.86	0.13	0.80	
6. 나는 매우 행복하다	2,449	1.00	5.00	4.17	1.00	-1.05	0.46	0.80	
행복도(전체)	2,449	1.00	5.00	4.18	0.73	-0.76	0.05	-	-

그림 2-31 초등학교_행복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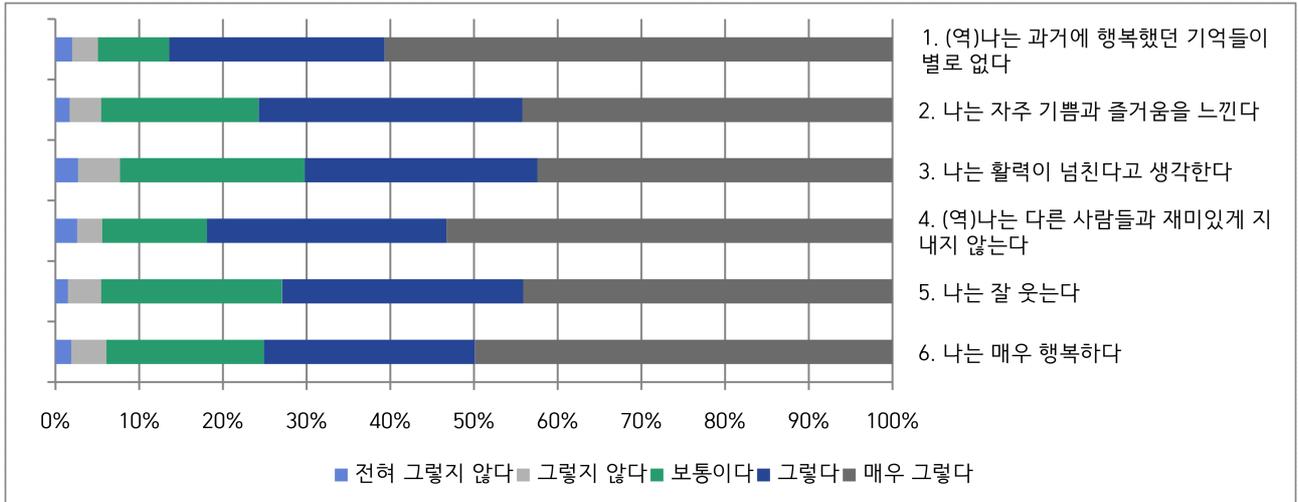


- 초등학교의 행복도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1. (역)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는 [매우 그렇다] 60.6%(1,485명), [그렇다] 25.7%(630명), [보통이다] 8.5%(209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4. (역)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지 않는다'는 [매우 그렇다] 53.2%(1,304명), [그렇다] 28.6%(701명), [보통이다] 12.5%(307명)으로 나타났으며, '6. 나는 매우 행복하다'는 [매우 그렇다] 49.9%(1,221명), [그렇다] 25.2%(616명), [보통이다] 18.9%(462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32 초등학교_행복도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역)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	49	2.0%	76	3.1%	209	8.5%	630	25.7%	1,485	60.6%
2. 나는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42	1.7%	92	3.8%	461	18.8%	772	31.5%	1,082	44.2%
3.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66	2.7%	122	5.0%	541	22.1%	682	27.8%	1,038	42.4%
4. (역)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지 않는다	63	2.6%	74	3.0%	307	12.5%	701	28.6%	1,304	53.2%
5. 나는 잘 웃는다	37	1.5%	98	4.0%	528	21.6%	706	28.8%	1,080	44.1%
6. 나는 매우 행복하다	47	1.9%	103	4.2%	462	18.9%	616	25.2%	1,221	49.9%

그림 2-32 초등학생_행복도 비율



학교 수업(학습일반)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학업 스트레스, 교사의 사기와 열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주제별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해 주요 응답 비율과 평균, 표준편차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신뢰도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습 태도, 행동,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세부적으로는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관련 항목을 분석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기와 자율성을 평가하였다. 더불어, 학업 스트레스와 교사의 사기 및 열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환경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학업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전략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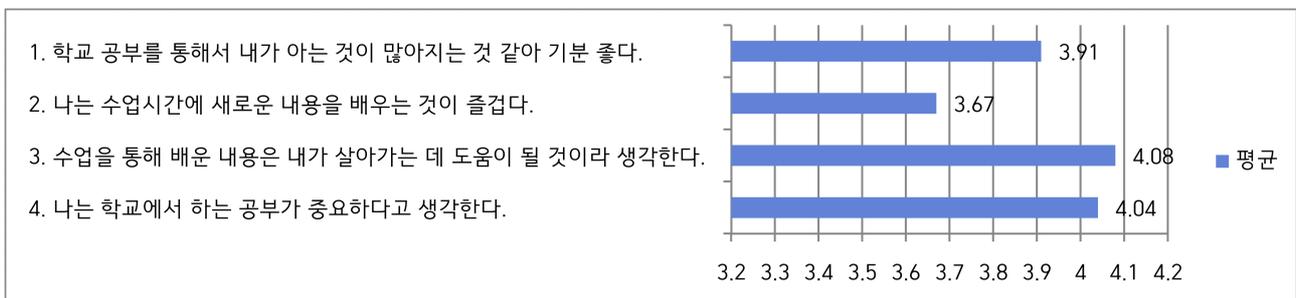
❖ 학습동기

- 초등학생의 학습동기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학습동기(전체)의 평균은 3.92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3.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4.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는 3.6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4~0.75, 첨도 절댓값은 0.21~0.42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으로 도출되었다.

표 2-33 초등학생_학습동기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	2,449	1.00	5.00	3.91	0.95	-0.51	-0.22	0.81	0.86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2,449	1.00	5.00	3.67	0.99	-0.24	-0.42	0.82	
3.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449	1.00	5.00	4.08	0.89	-0.73	0.21	0.82	
4. 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449	1.00	5.00	4.04	0.93	-0.75	0.23	0.84	
학습동기(전체)	2,449	1.00	5.00	3.92	0.79	-0.47	0.13	-	-

그림 2-33 초등학생_학습동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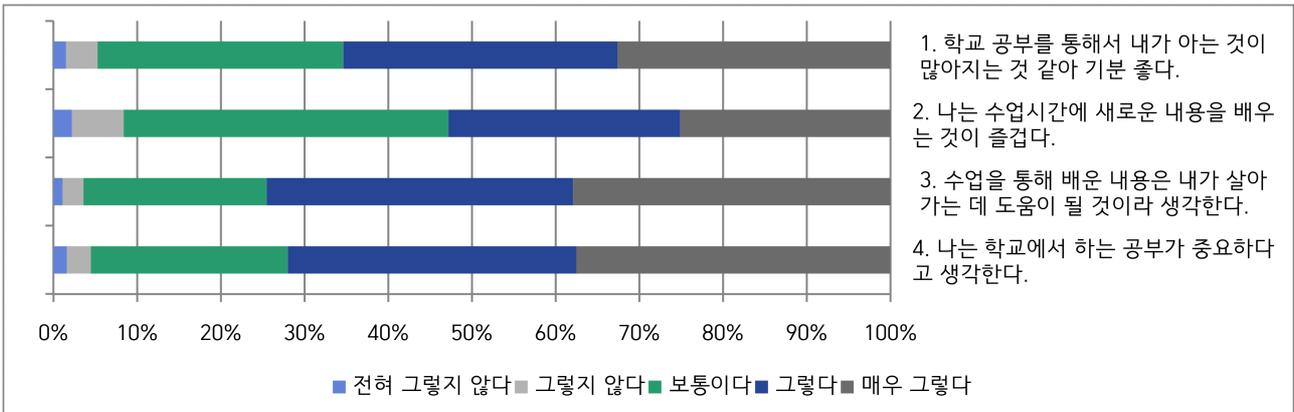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3.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매우 그렇다] 37.9%(929명), [그렇다] 36.6%(896명), [보통이다] 21.9%(536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4. 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매우 그렇다] 37.5%(919명), [그렇다] 34.5%(845명), [보통이다] 23.5%(576명)으로 나타났으며, ‘1.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는 [매우 그렇다] 32.6%(799명), [그렇다] 32.8%(804명), [보통이다] 29.3%(71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34 초등학생_학습동기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	36	1.5%	93	3.8%	717	29.3%	804	32.8%	799	32.6%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53	2.2%	153	6.2%	950	38.8%	679	27.7%	614	25.1%
3.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6	1.1%	62	2.5%	536	21.9%	896	36.6%	929	37.9%
4. 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8	1.6%	71	2.9%	576	23.5%	845	34.5%	919	37.5%

그림 2-34 초등학생_학습동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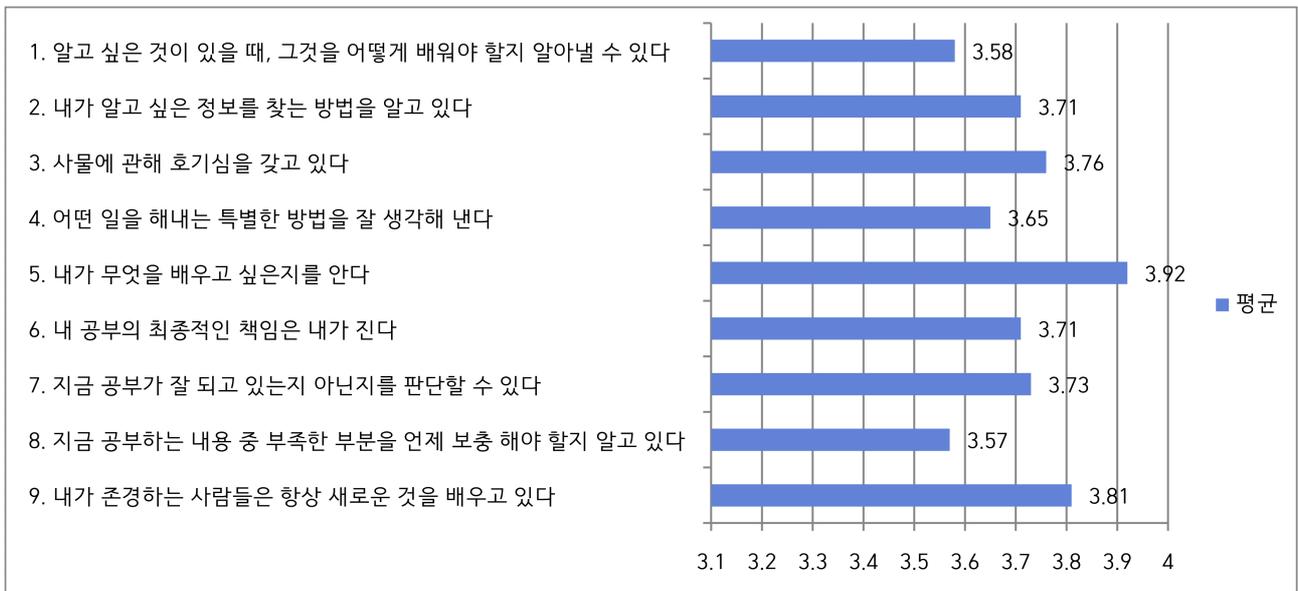
❖ 자기주도학습

-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9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자기주도학습(전체)의 평균은 3.71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는 3.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3.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7~0.61, 첨도 절댓값은 0.14~0.45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9로 도출되었다.

표 2-35 초등학교_자기주도학습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알아낼 수 있다	2,449	1.00	5.00	3.58	0.92	-0.07	-0.24	0.87	0.89
2.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2,449	1.00	5.00	3.71	0.94	-0.35	-0.14	0.87	
3.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2,449	1.00	5.00	3.76	0.99	-0.45	-0.22	0.88	
4. 어떤 일을 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	2,449	1.00	5.00	3.65	0.93	-0.13	-0.41	0.87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2,449	1.00	5.00	3.92	0.98	-0.61	-0.17	0.87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2,449	1.00	5.00	3.71	0.97	-0.31	-0.30	0.87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2,449	1.00	5.00	3.73	0.97	-0.38	-0.18	0.87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2,449	1.00	5.00	3.57	0.99	-0.17	-0.45	0.87	
9.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2,449	1.00	5.00	3.81	0.93	-0.27	-0.43	0.88	
자기주도학습(전체)	2,449	1.00	5.00	3.71	0.69	-0.06	0.20	-	-

그림 2-35 초등학교_자기주도학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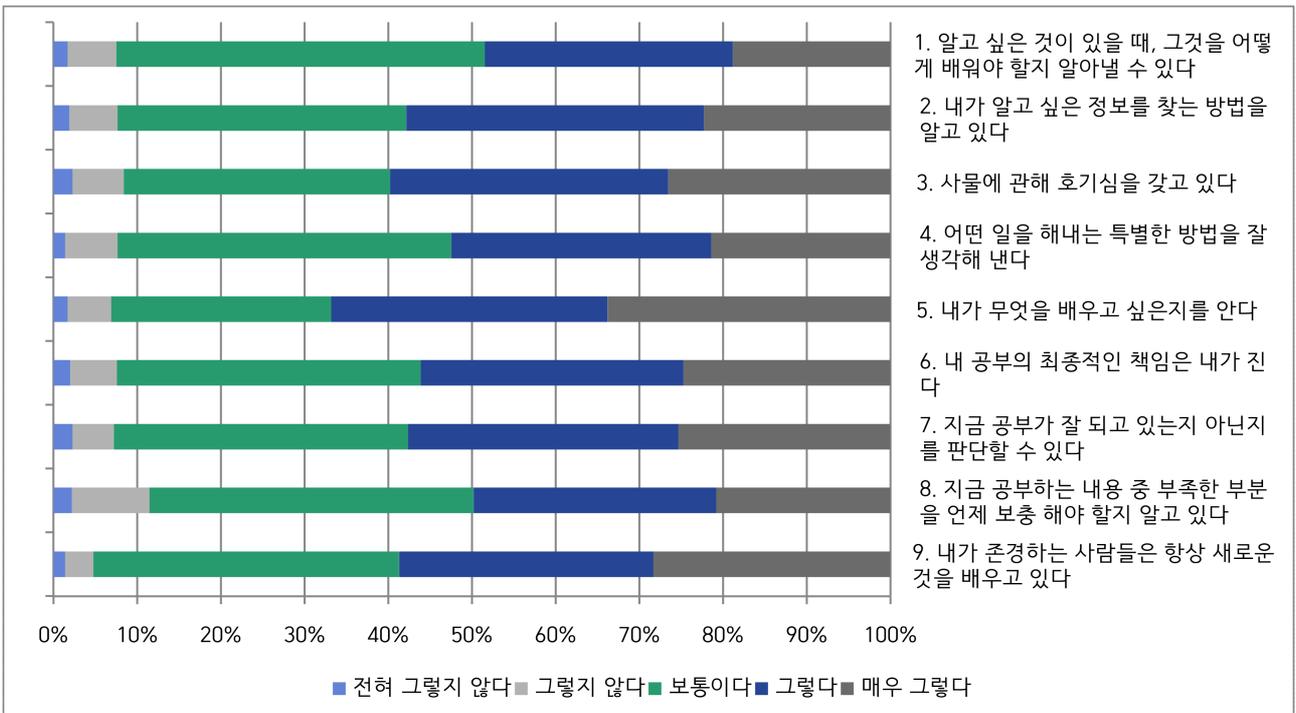


- 초등학교의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는 [매우 그렇다] 33.8%(827명), [그렇다] 33.0%(809명), [보통이다] 26.3%(644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9.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매우 그렇다] 28.3%(693명), [그렇다] 30.4%(744명), [보통이다] 36.5%(894명)으로 나타났으며, '3.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매우 그렇다] 26.5%(650명), [그렇다] 33.2%(813명), [보통이다] 31.8%(780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36 초등학생_자기주도학습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알아낼 수 있다	42	1.7%	143	5.8%	1,077	44.0%	726	29.6%	461	18.8%
2.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47	1.9%	141	5.8%	844	34.5%	871	35.6%	546	22.3%
3.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56	2.3%	150	6.1%	780	31.8%	813	33.2%	650	26.5%
4. 어떤 일을 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	34	1.4%	154	6.3%	976	39.9%	762	31.1%	523	21.4%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41	1.7%	128	5.2%	644	26.3%	809	33.0%	827	33.8%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49	2.0%	138	5.6%	889	36.3%	768	31.4%	605	24.7%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56	2.3%	121	4.9%	861	35.2%	792	32.3%	619	25.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53	2.2%	227	9.3%	948	38.7%	711	29.0%	510	20.8%
9.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34	1.4%	84	3.4%	894	36.5%	744	30.4%	693	28.3%

그림 2-36 초등학생_자기주도학습 비율



❖ 학업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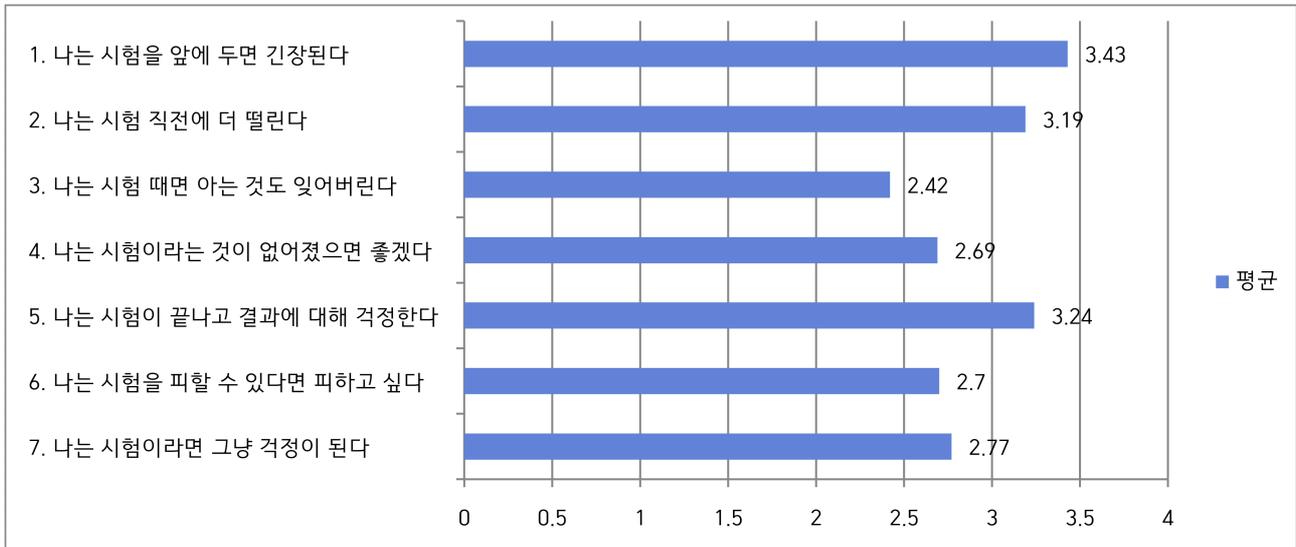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7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학업스트레스(전체)의 평균은 2.92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는 3.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나는 시험 때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2.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1~0.57, 척도 절댓값은 0.60~1.10으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0.88로 평가되었다.

표 2-37 초등학생_학업 스트레스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	2,449	1.00	5.00	3.43	1.24	-0.51	-0.67	0.86	0.88
2. 나는 시험 직전에 더 떨린다	2,449	1.00	5.00	3.19	1.31	-0.21	-1.05	0.85	
3. 나는 시험 때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	2,449	1.00	5.00	2.42	1.22	0.57	-0.60	0.87	
4. 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2,449	1.00	5.00	2.69	1.34	0.34	-0.99	0.87	
5. 나는 시험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	2,449	1.00	5.00	3.24	1.33	-0.26	-1.06	0.86	
6. 나는 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2,449	1.00	5.00	2.70	1.32	0.32	-0.96	0.86	
7. 나는 시험이라면 그냥 걱정이 된다	2,449	1.00	5.00	2.77	1.35	0.22	-1.10	0.84	
학업스트레스(전체)	2,449	1.00	5.00	2.92	0.99	0.02	-0.45	-	-

그림 2-37 초등학생_학업 스트레스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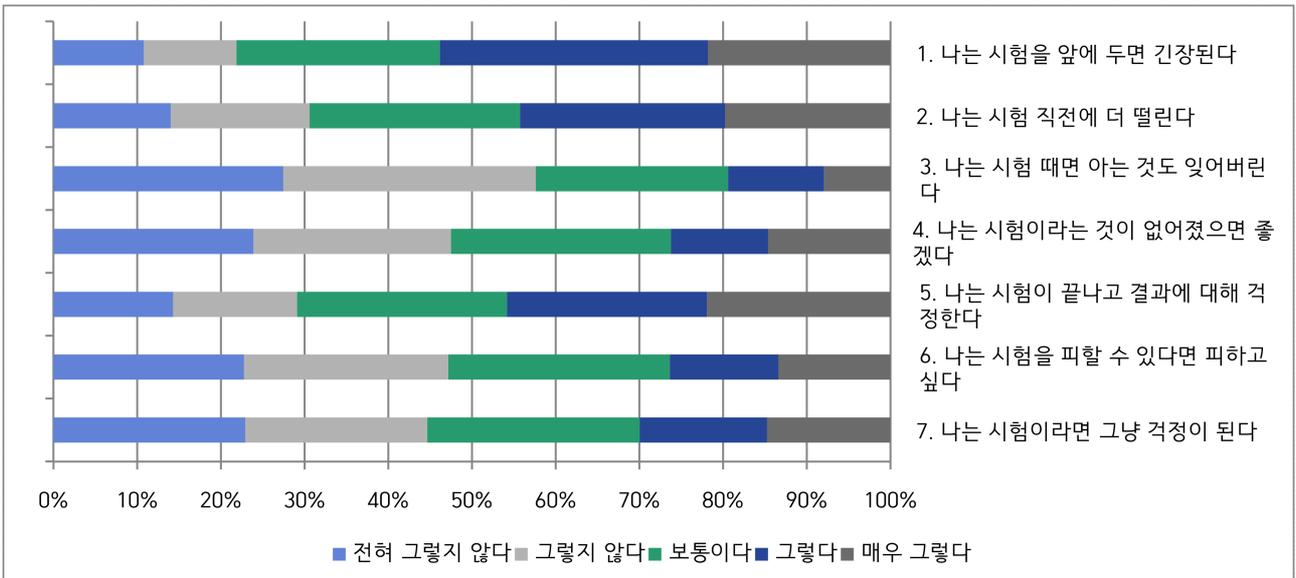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의 하위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1.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는 [매우 그렇다] 21.8%(533명), [그렇다] 32.1%(785명), [보통이다] 24.3%(596명)의 응답을 보였다. ‘5. 나는 시험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는 [매우 그렇다] 21.9%(536명), [그렇다] 23.9%(585명), [보통이다] 25.1%(614명)으로 나타났으며, ‘2. 나는 시험 직전에 더 떨린다’는 [매우 그렇다] 19.7%(483명), [그렇다] 24.5%(601명), [보통이다] 25.1%(615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38 초등학생_학업 스트레스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	264	10.8%	271	11.1%	596	24.3%	785	32.1%	533	21.8%
2. 나는 시험 직전에 더 떨린다	343	14.0%	407	16.6%	615	25.1%	601	24.5%	483	19.7%
3. 나는 시험 때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	673	27.5%	739	30.2%	563	23.0%	281	11.5%	193	7.9%
4. 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586	23.9%	577	23.6%	645	26.3%	284	11.6%	357	14.6%
5. 나는 시험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	351	14.3%	363	14.8%	614	25.1%	585	23.9%	536	21.9%
6. 나는 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559	22.8%	597	24.4%	648	26.5%	318	13.0%	327	13.4%
7. 나는 시험이라면 그냥 걱정이 된다	561	22.9%	532	21.7%	622	25.4%	373	15.2%	361	14.7%

그림 2-38 초등학생_학업 스트레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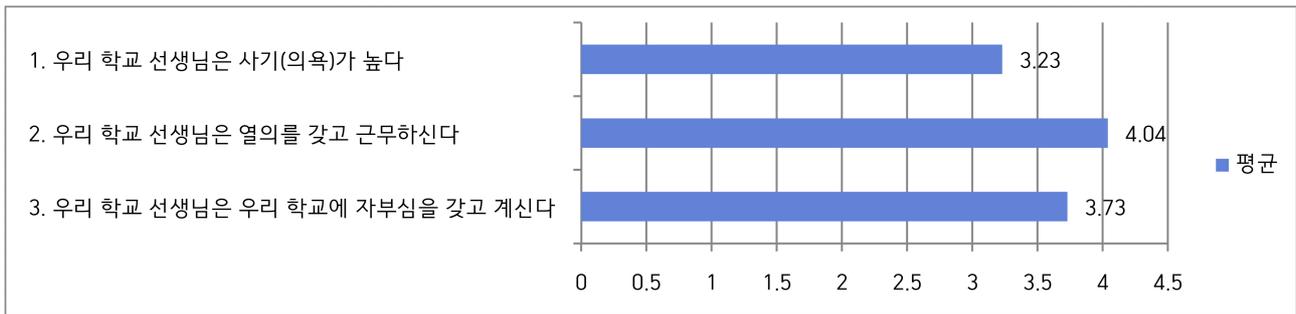
❖ 교사의 사기 및 열의

○ 초등학생의 교사의 사기 및 열의는 3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교사의 사기 및 열의(전체)의 평균은 3.67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는 4.0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1. 우리 학교 선생님은 사기(의욕)가 높다'는 3.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33~1.02, 첨도 절댓값은 0.15~1.21로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1로 나타났다.

표 2-39 초등학생_교사의 사기 및 열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우리 학교 선생님은 사기(의욕)가 높다	2,449	1.00	5.00	3.23	1.46	-0.33	-1.21	0.73	0.71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	2,449	1.00	5.00	4.04	1.02	-1.02	0.73	0.61	
3. 우리 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	2,449	1.00	5.00	3.73	1.12	-0.65	-0.15	0.53	
교사의 사기 및 열의(전체)	2,449	1.00	5.00	3.67	0.97	-0.44	-0.11	-	-

그림 2-39 초등학생_교사의 사기 및 열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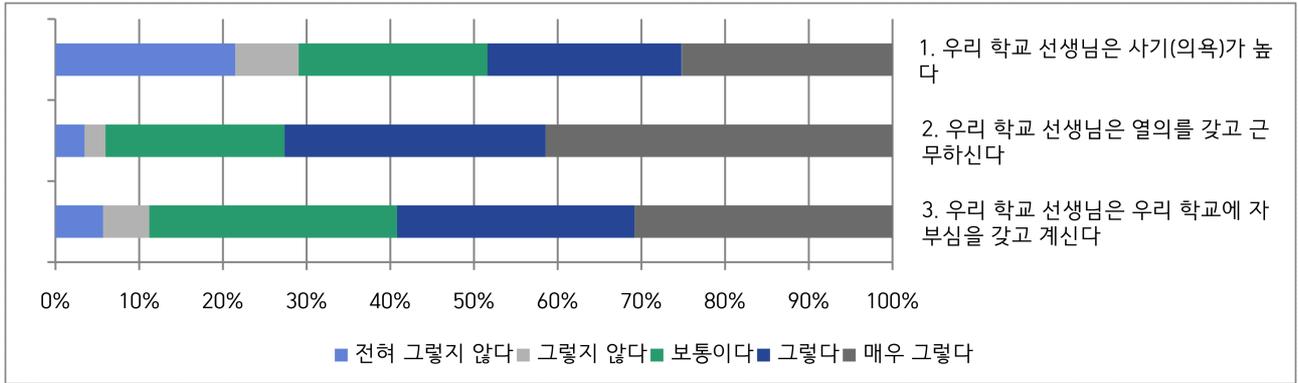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교사의 사기 및 열의의 하위 세부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는 [매우 그렇다] 41.4%(1,014명), [그렇다] 31.2%(763명), [보통이다] 21.4%(525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3. 우리 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매우 그렇다] 30.8%(755명), [그렇다] 28.4%(696명), [보통이다] 29.6%(725명)으로 나타났으며, ‘1. 우리 학교 선생님은 사기(의욕)가 높다’는 [매우 그렇다] 25.2%(617명), [그렇다] 23.2%(567명), [보통이다] 22.6%(553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40 초등학생_교사의 사기 및 열의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우리 학교 선생님은 사기(의욕)가 높다	526	21.5%	186	7.6%	553	22.6%	567	23.2%	617	25.2%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	85	3.5%	62	2.5%	525	21.4%	763	31.2%	1,014	41.4%
3. 우리 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	139	5.7%	134	5.5%	725	29.6%	696	28.4%	755	30.8%

그림 2-40 초등학생_교사의 사기 및 열의 비율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 수업의 교과별 교수학습과 관련된 영역을 수업이해도, 수업집중도, 수강태도(국어, 영어, 수학), 수업방식(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학교 내 평가활동이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신뢰도와 응답 경향을 평가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교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 태도와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교과 수업 시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해도와 집중도를 분석하여 수업 참여 수준을 진단하고, 국어, 영어, 수학의 각 과목별 수강 태도와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세밀히 살펴보았다. 더불어, 선생님과 학생 간의 협력 활동의 양상과 학교 내 평가활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학습 환경과 교사의 지도 방식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교과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향후 학습 지원 방안 마련과 교사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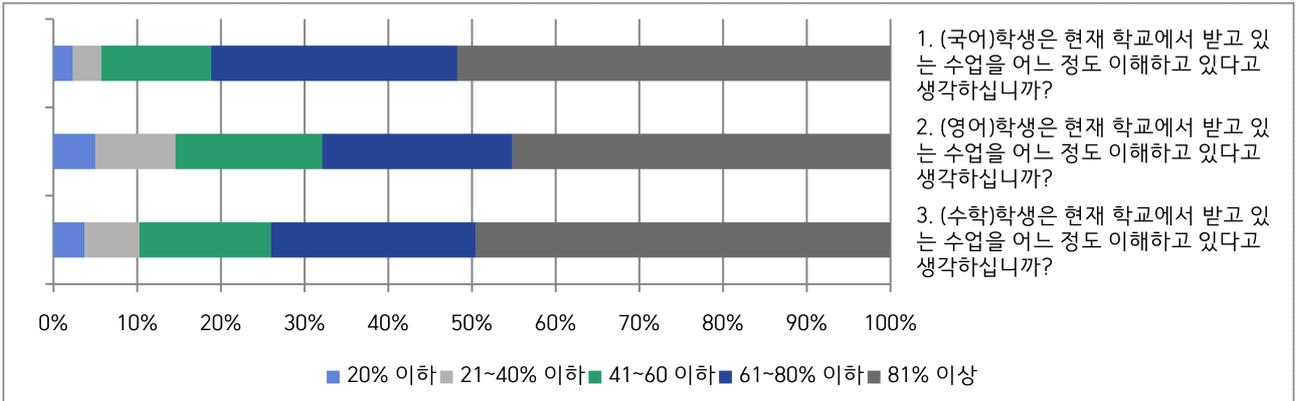
❖ 수업이해도

- 초등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수업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국어 수업에서는 [81% 이상 이해]에 응답한 비율이 51.7%(1,267명)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와 수학도 각각 45.1%(1,104명), 49.5%(1,212명)로 나타났다. [61~80% 이하] 응답은 국어 29.4%(720명), 영어 22.7%(557명), 수학 24.5%(600명)로 조사되었고, [41~60% 이하]는 국어 13.1%(322명), 영어 17.5%(429명), 수학 15.7%(384명)로 확인되었다. 반면, [20% 이하]와 [21~40% 이하] 응답은 국어가 각각 2.3%(56명), 3.4%(84명)로 가장 낮았으며, 영어와 수학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은 세 과목 모두 높은 수준의 수업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표 2-41 초등학생_수업이해도 빈도분석

구분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 이상	
	N	%	N	%	N	%	N	%	N	%
1. (국어)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받고 있는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6	2.3%	84	3.4%	322	13.1%	720	29.4%	1,267	51.7%
2. (영어)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받고 있는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3	5.0%	236	9.6%	429	17.5%	557	22.7%	1,104	45.1%
3. (수학)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받고 있는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1	3.7%	162	6.6%	384	15.7%	600	24.5%	1,212	49.5%

그림 2-41 초등학생_수업이해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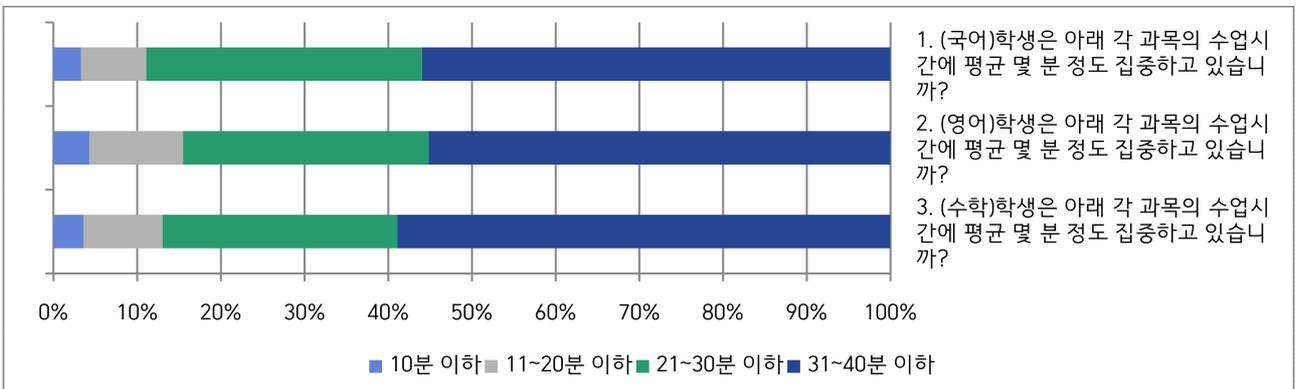
❖ 수업집중도

○ 초등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수업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31~40분 이하]에 집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어 55.9%(1,370명), 영어 55.2%(1,351명), 수학 58.8%(1,441명)로 각 과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1~30분 이하]에 응답한 비율은 국어 32.9%(805명), 영어 29.4%(719명), 수학 28.1%(688명)로 확인되었으며, [11~20분 이하]는 국어 7.8%(192명), 영어 11.2%(274명), 수학 9.4%(231명)로 나타났다. 반면, [10분 이하]에 응답한 비율은 국어 3.3%(82명), 영어 4.3%(105명), 수학 3.6%(89명)로 비교적 낮았다. 초등학생들은 세 과목 모두 수업시간 중 31~40분 정도 집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2-42 초등학생_수업집중도 빈도분석

구분	10분 이하		11~20분 이하		21~30분 이하		31~40분 이하	
	N	%	N	%	N	%	N	%
1. (국어)학생은 아래 각 과목의 수업시간에 평균 몇 분 정도 집중하고 있습니까?	82	3.3%	192	7.8%	805	32.9%	1,370	55.9%
2. (영어)학생은 아래 각 과목의 수업시간에 평균 몇 분 정도 집중하고 있습니까?	105	4.3%	274	11.2%	719	29.4%	1,351	55.2%
3. (수학)학생은 아래 각 과목의 수업시간에 평균 몇 분 정도 집중하고 있습니까?	89	3.6%	231	9.4%	688	28.1%	1,441	58.8%

그림 2-42 초등학생_수업집중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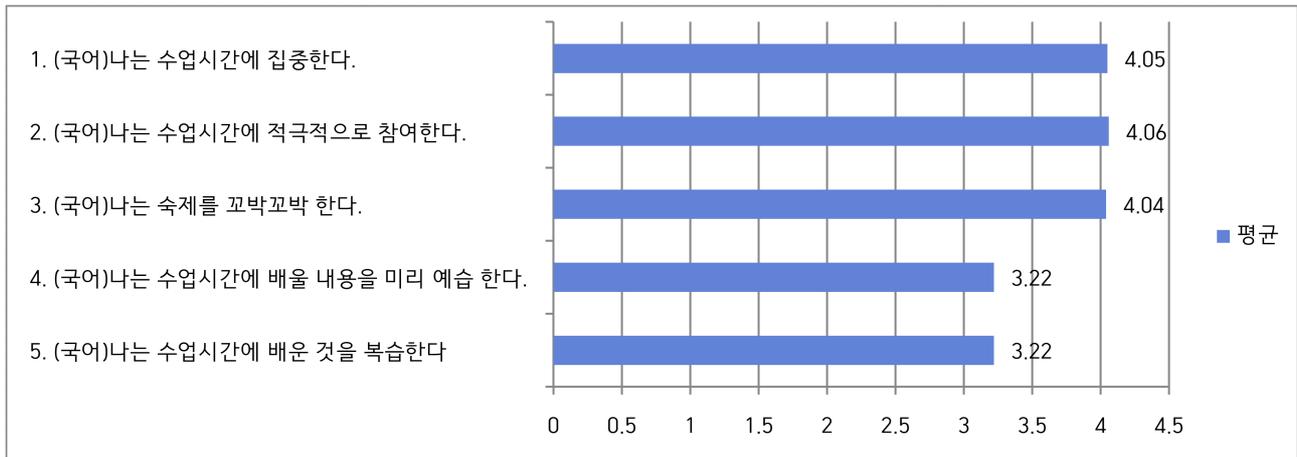
❖ 수강태도_국어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국어는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측정되었다. 수강태도_국어(전체)의 평균은 3.72점으로 '보통이다'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국어) 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4.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4. (국어) 나는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와 '5. (국어)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각각 3.2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4~0.75, 첨도 절댓값은 0.07~1.02로 자료의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0으로 나타났다.

표 2-43 초등학생_수강태도_국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2,449	1.00	5.00	4.05	0.85	-0.64	0.29	0.76	0.80
2.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449	1.00	5.00	4.06	0.92	-0.72	0.13	0.76	
3. (국어)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2,449	1.00	5.00	4.04	0.99	-0.75	-0.07	0.77	
4.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	2,449	1.00	5.00	3.22	1.27	-0.04	-1.02	0.78	
5.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2,449	1.00	5.00	3.22	1.20	-0.08	-0.81	0.75	
수강태도_국어(전체)	2,449	1.00	5.00	3.72	0.79	-0.27	-0.10	-	-

그림 2-43 초등학생_수강태도_국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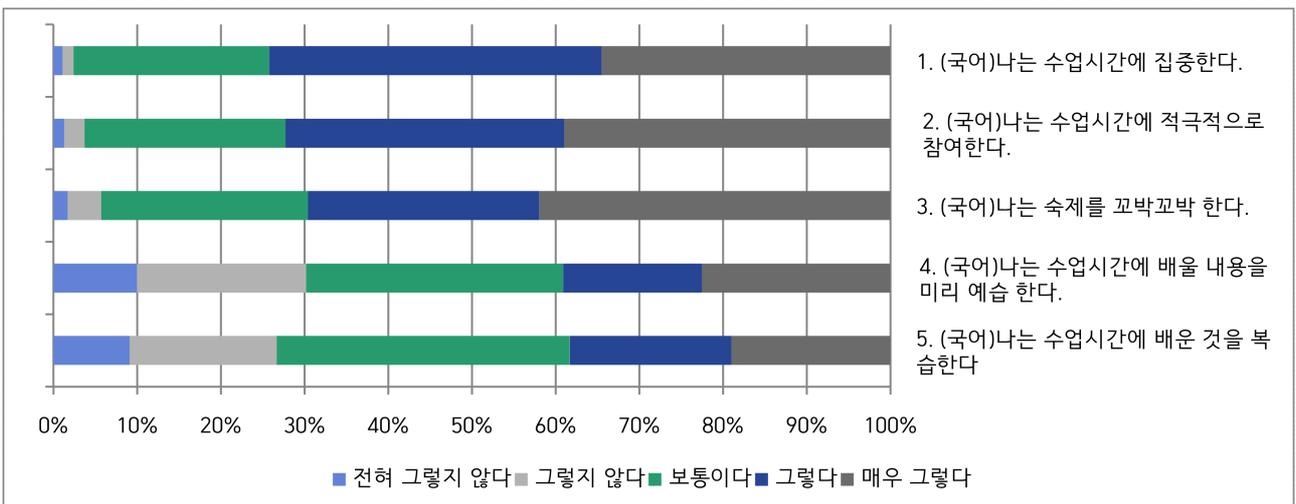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국어의 하위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 비율 및 인원을 확인하여 보면, '3. (국어) 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는 [매우 그렇다] 41.9%(1,027명), [그렇다] 27.6%(677명), [보통이다] 24.7%(606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2. (국어) 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매우 그렇다] 38.9%(952명), [그렇다] 33.3%(816명), [보통이다] 24.0%(588명)으로 나타났으며, '1. (국어)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는 [매우 그렇다] 34.5%(846명), [그렇다] 39.7%(973명), [보통이다] 23.4%(573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44 초등학생_수강태도_국어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26	1.1%	31	1.3%	573	23.4%	973	39.7%	846	34.5%
2.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3	1.3%	60	2.4%	588	24.0%	816	33.3%	952	38.9%
3. (국어)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42	1.7%	97	4.0%	606	24.7%	677	27.6%	1,027	41.9%
4.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	244	10.0%	494	20.2%	753	30.7%	407	16.6%	551	22.5%
5.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222	9.1%	432	17.6%	857	35.0%	473	19.3%	465	19.0%

그림 2-44 초등학생_수강태도_국어 비율



❖ 수강태도_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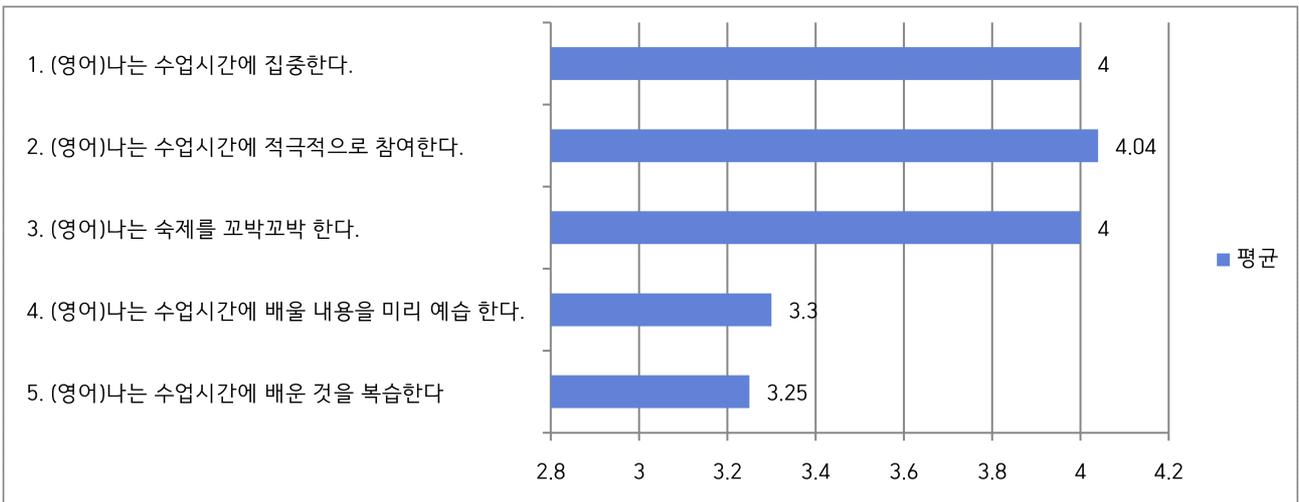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영어는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수강태도_영어(전체)의 평균은 3.72점으로 '보통이다'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영어) 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4.0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5. (영어)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3.2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분석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11~0.77, 첨도 절댓값은 0.01~1.00으로 자료의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2로 산출되었다.

표 2-45 초등학생_수강태도_영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2,449	1.00	5.00	4.00	0.93	-0.64	-0.02	0.78	0.82
2.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449	1.00	5.00	4.04	0.94	-0.72	0.01	0.78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3. (영어)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2,449	1.00	5.00	4.00	1.04	-0.77	-0.10	0.79	
4.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	2,449	1.00	5.00	3.30	1.27	-0.14	-1.00	0.80	
5.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2,449	1.00	5.00	3.25	1.21	-0.11	-0.83	0.78	
수강태도_영어(전체)	2,449	1.00	5.00	3.72	0.83	-0.28	-0.28	-	-

그림 2-45 초등학생_수강태도_영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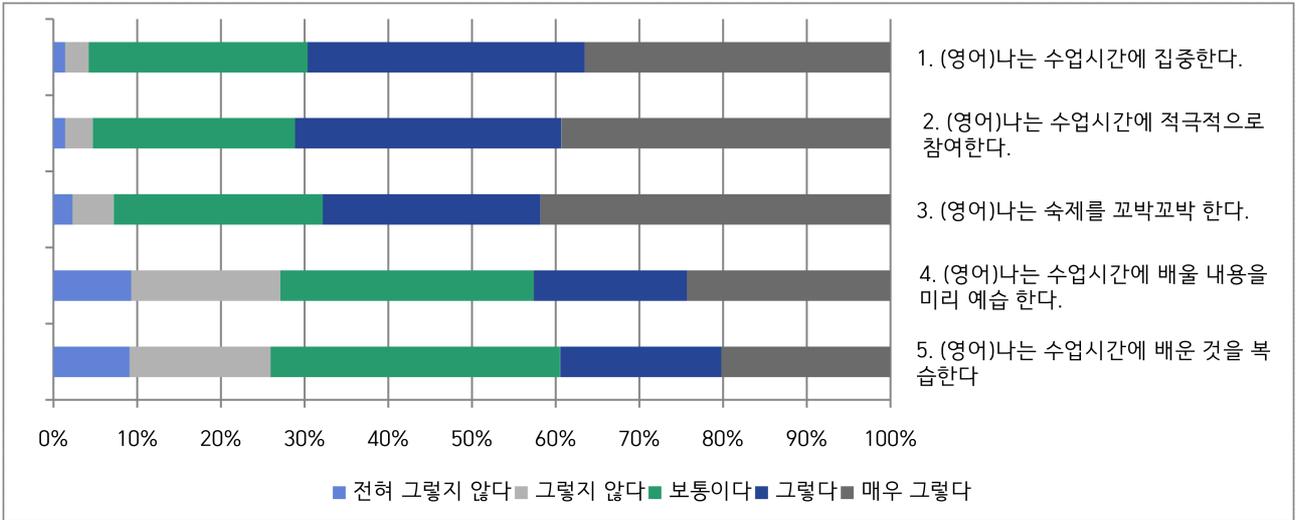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영어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3. (영어) 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는 [매우 그렇다] 41.8%(1,023명), [그렇다] 26.0%(637명), [보통이다] 25.0%(613명)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2. (영어) 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매우 그렇다] 39.3%(962명), [그렇다] 31.8%(779명), [보통이다] 24.2%(59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1. (영어)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는 [매우 그렇다] 36.5%(893명), [그렇다] 33.1%(811명), [보통이다] 26.2%(641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46 초등학생_수강태도_영어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35	1.4%	69	2.8%	641	26.2%	811	33.1%	893	36.5%
2.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4	1.4%	81	3.3%	593	24.2%	779	31.8%	962	39.3%
3. (영어)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57	2.3%	119	4.9%	613	25.0%	637	26.0%	1,023	41.8%
4.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	227	9.3%	437	17.8%	743	30.3%	447	18.3%	595	24.3%
5.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223	9.1%	413	16.9%	847	34.6%	472	19.3%	494	20.2%

그림 2-46 초등학생_수강태도_영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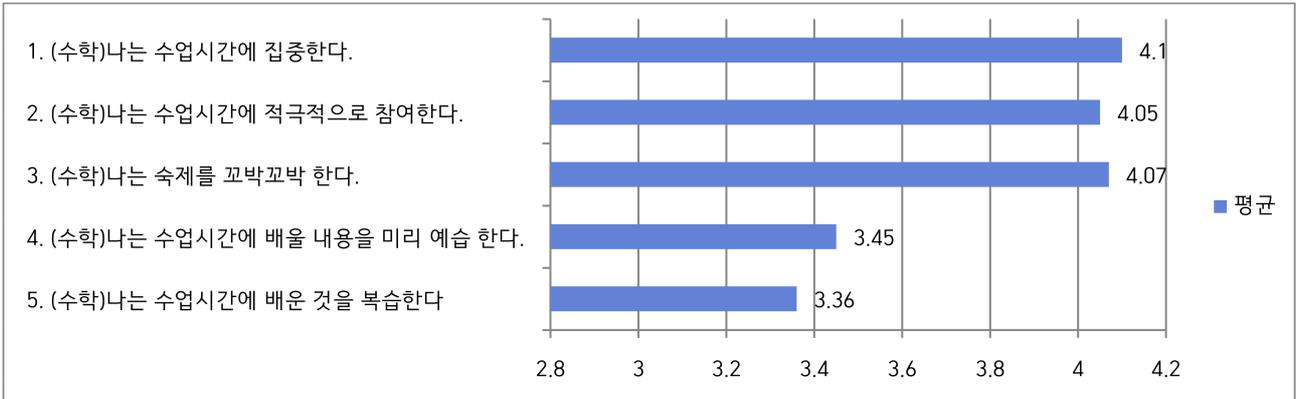
❖ 수강태도_수학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수학은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수강태도_수학(전체)의 평균은 3.81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수학)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는 4.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5. (수학)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3.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2~0.81, 첨도 절댓값은 0.03~1.01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3으로 평가되었다.

표 2-47 초등학생_수강태도_수학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2,449	1.00	5.00	4.10	0.92	-0.76	0.03	0.79	0.83
2.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449	1.00	5.00	4.05	0.96	-0.73	-0.04	0.79	
3. (수학)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2,449	1.00	5.00	4.07	1.01	-0.81	-0.10	0.80	
4.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	2,449	1.00	5.00	3.45	1.31	-0.32	-1.01	0.81	
5.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2,449	1.00	5.00	3.36	1.25	-0.22	-0.90	0.80	
수강태도_수학(전체)	2,449	1.00	5.00	3.81	0.85	-0.38	-0.35	-	-

그림 2-47 초등학생_수강태도_수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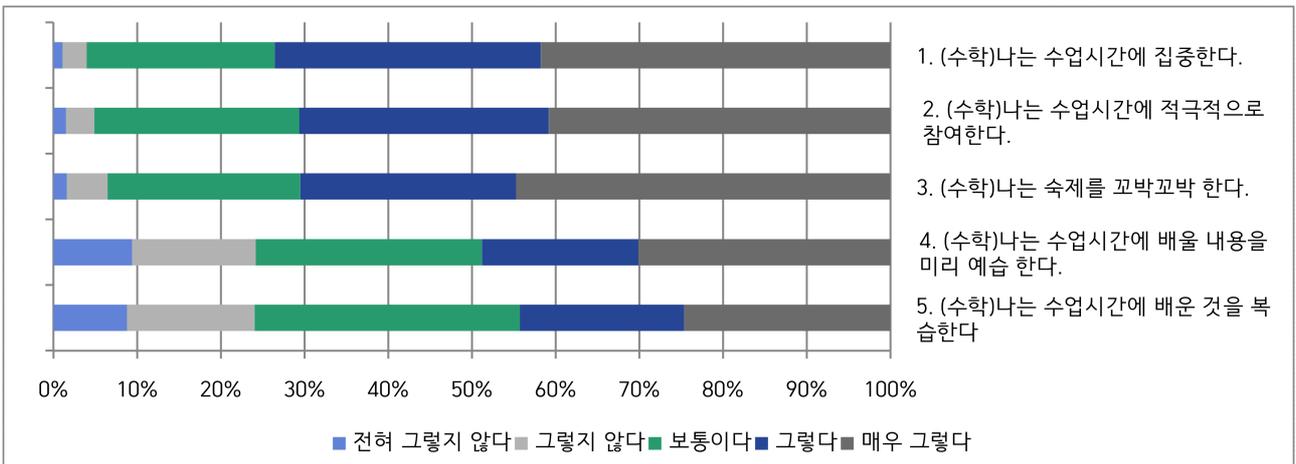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수학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3. (수학) 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는 [매우 그렇다] 44.7%(1,094명), [그렇다] 25.8%(631명), [보통이다] 23.0%(563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1. (수학)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는 [매우 그렇다] 41.8%(1,024명), [그렇다] 31.8%(778명), [보통이다] 22.5%(550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 (수학) 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매우 그렇다] 40.8%(998명), [그렇다] 29.8%(730명), [보통이다] 24.5%(601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48 초등학생_수강태도_수학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26	1.1%	71	2.9%	550	22.5%	778	31.8%	1,024	41.8%
2.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6	1.5%	84	3.4%	601	24.5%	730	29.8%	998	40.8%
3. (수학)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40	1.6%	121	4.9%	563	23.0%	631	25.8%	1,094	44.7%
4.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	229	9.4%	363	14.8%	661	27.0%	459	18.7%	737	30.1%
5.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216	8.8%	372	15.2%	777	31.7%	481	19.6%	603	24.6%

그림 2-48 초등학생_수강태도_수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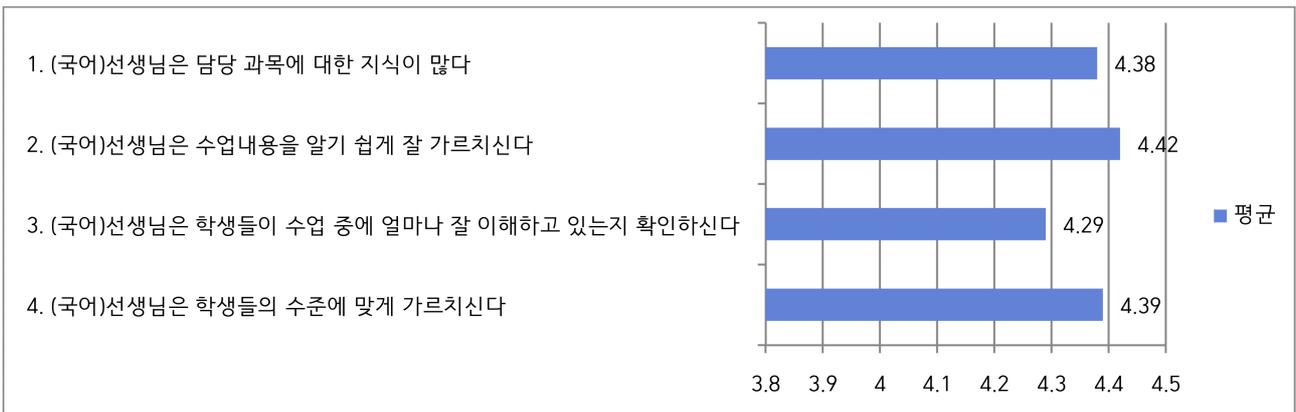
❖ 수업방식_국어

○ 초등학생의 수업방식_국어는 4개의 하위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수업방식_국어(전체)의 평균은 4.37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국어)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는 4.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국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4.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1.04~1.46, 첨도 절댓값은 0.75~2.35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으로 분석되었다.

표 2-49 초등학생_수업방식_국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국어)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2,449	1.00	5.00	4.38	0.84	-1.46	2.35	0.84	0.86
2. (국어)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2,449	1.00	5.00	4.42	0.79	-1.39	2.08	0.81	
3.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2,449	1.00	5.00	4.29	0.85	-1.04	0.75	0.84	
4.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2,449	1.00	5.00	4.39	0.81	-1.38	2.00	0.81	
수업방식_국어(전체)	2,449	1.00	5.00	4.37	0.69	-1.30	2.36	-	-

그림 2-49 초등학생_수업방식_국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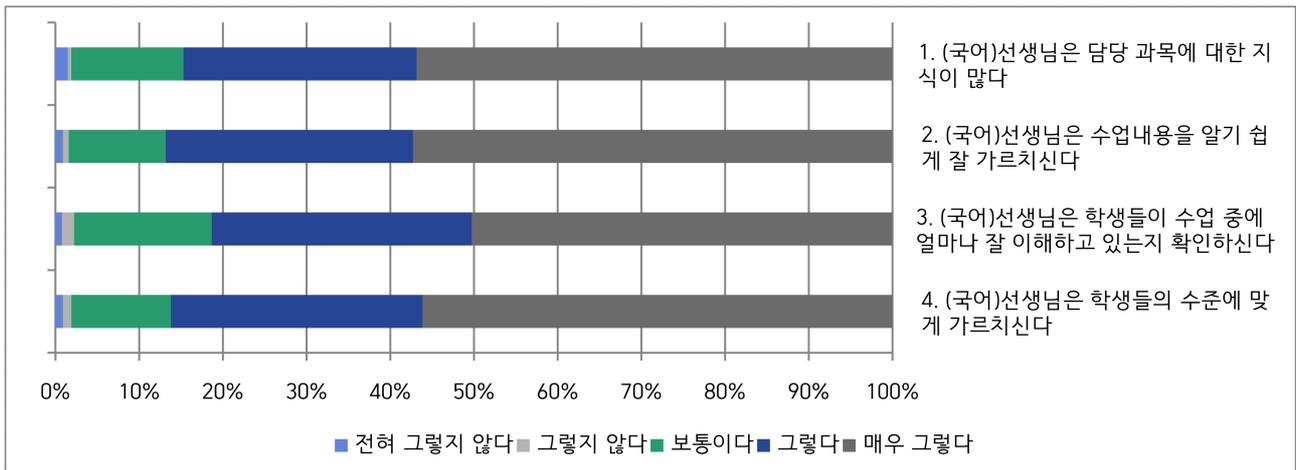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업방식_국어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국어)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는 [매우 그렇다] 57.3%(1,403명), [그렇다] 29.6%(724명), [보통이다] 11.6%(284명)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4. (국어)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는 [매우 그렇다] 56.1%(1,374명), [그렇다] 30.1%(736명), [보통이다] 11.9%(292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 (국어)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매우 그렇다] 56.8%(1,391명), [그렇다] 27.9%(684명), [보통이다] 13.4%(328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50 초등학교_수업방식_국어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국어)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37	1.5%	9	0.4%	328	13.4%	684	27.9%	1,391	56.8%
2. (국어)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21	0.9%	17	0.7%	284	11.6%	724	29.6%	1,403	57.3%
3.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20	0.8%	34	1.4%	403	16.5%	762	31.1%	1,230	50.2%
4.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23	0.9%	24	1.0%	292	11.9%	736	30.1%	1,374	56.1%

그림 2-50 초등학교_수업방식_국어 비율



❖ 수업방식_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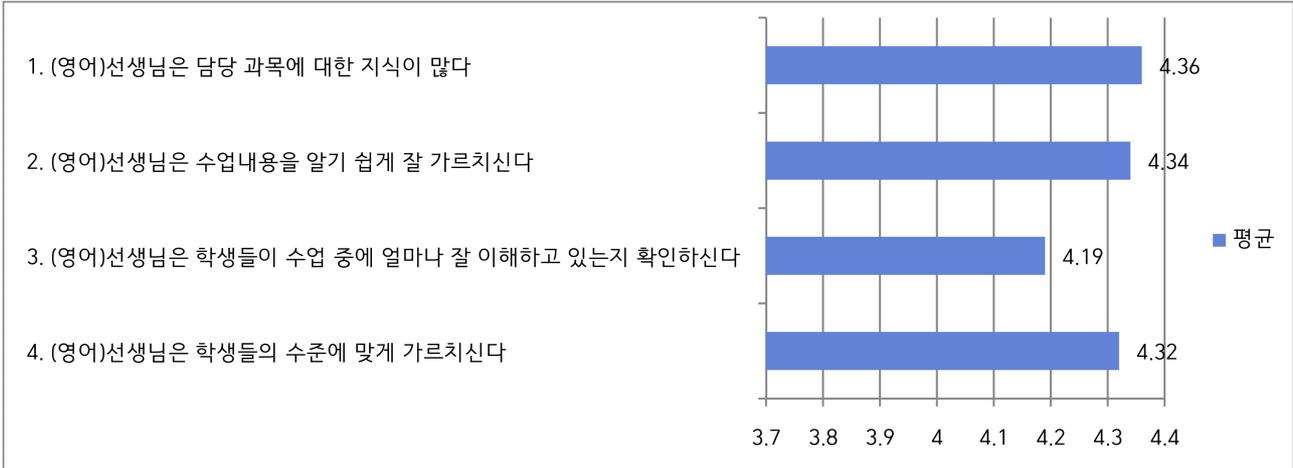
- 초등학교의 수업방식_영어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수업방식_영어(전체)의 평균은 4.30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영어)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4.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4.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88~1.28, 첨도 절댓값은 0.28~1.44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으로 평가되었다.

표 2-51 초등학교_수업방식_영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영어)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2,449	1.00	5.00	4.36	0.84	-1.28	1.44	0.84	0.86
2. (영어)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2,449	1.00	5.00	4.34	0.83	-1.22	1.36	0.80	
3.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2,449	1.00	5.00	4.19	0.89	-0.88	0.28	0.84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4.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2,449	1.00	5.00	4.32	0.86	-1.25	1.44	0.81	
수업방식_영어(전체)	2,449	1.00	5.00	4.30	0.72	-1.09	1.38	-	-

그림 2-51 초등학생_수업방식_영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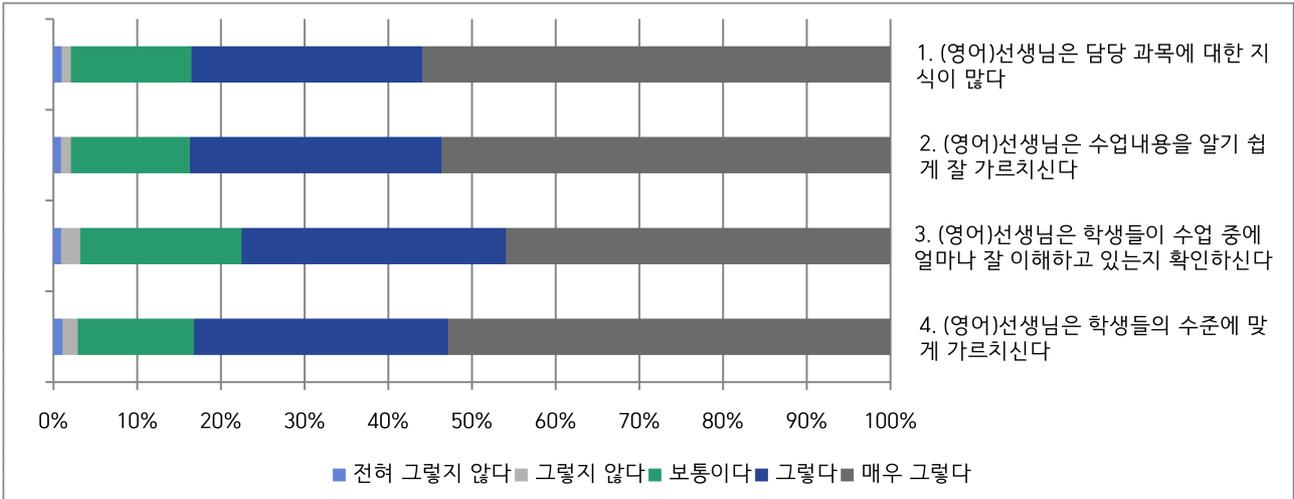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업방식_영어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확인하면, ‘1. (영어)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매우 그렇다] 55.9%(1,369명), [그렇다] 27.6%(676명), [보통이다] 14.4%(352명)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2. (영어)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는 [매우 그렇다] 53.6%(1,312명), [그렇다] 30.1%(736명), [보통이다] 14.2%(348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는 [매우 그렇다] 52.8%(1,293명), [그렇다] 30.4%(745명), [보통이다] 13.9%(341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52 초등학생_수업방식_영어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영어)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24	1.0%	28	1.1%	352	14.4%	676	27.6%	1,369	55.9%
2. (영어)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23	0.9%	30	1.2%	348	14.2%	736	30.1%	1,312	53.6%
3.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21	0.9%	56	2.3%	473	19.3%	775	31.6%	1,124	45.9%
4.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27	1.1%	43	1.8%	341	13.9%	745	30.4%	1,293	52.8%

그림 2-52 초등학생_수업방식_영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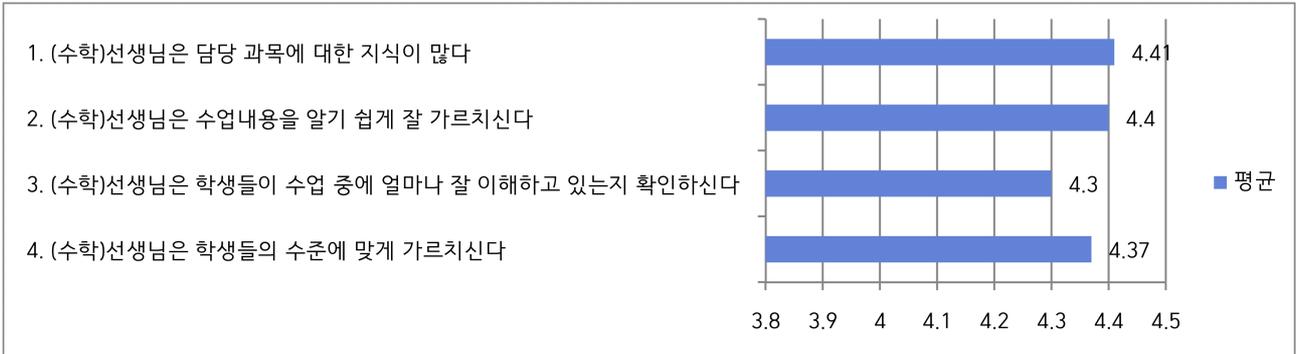
❖ 수업방식_수학

○ 초등학생의 수업방식_수학은 4개의 하위 세부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업방식_수학(전체)의 평균은 4.37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수학)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4.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4.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1.12~1.44, 첨도 절댓값은 0.97~2.05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으로 분석되었다.

표 2-53 초등학생_수업방식_수학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수학)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2,449	1.00	5.00	4.41	0.82	-1.44	2.04	0.83	0.86
2. (수학)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2,449	1.00	5.00	4.40	0.83	-1.42	1.93	0.80	
3.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2,449	1.00	5.00	4.30	0.86	-1.12	0.97	0.83	
4.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2,449	1.00	5.00	4.37	0.85	-1.43	2.05	0.82	
수업방식_수학(전체)	2,449	1.00	5.00	4.37	0.71	-1.26	1.96	-	-

그림 2-53 초등학생_수업방식_수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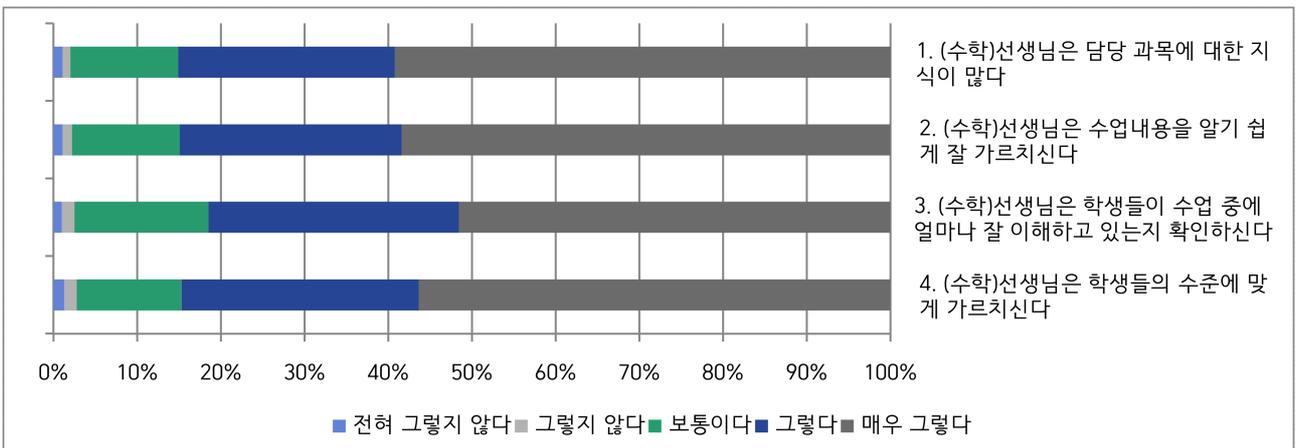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업방식_수학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확인하면, '1. (수학)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매우 그렇다] 59.2%(1,451명), [그렇다] 25.9%(634명), [보통이다] 12.9%(317명)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2. (수학)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는 [매우 그렇다] 58.3%(1,428명), [그렇다] 26.5%(650명), [보통이다] 12.9%(317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는 [매우 그렇다] 56.4%(1,381명), [그렇다] 28.4%(696명), [보통이다] 12.5%(305명)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표 2-54 초등학생_수업방식_수학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수학)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26	1.1%	21	0.9%	317	12.9%	634	25.9%	1,451	59.2%
2. (수학)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26	1.1%	28	1.1%	317	12.9%	650	26.5%	1,428	58.3%
3.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24	1.0%	37	1.5%	393	16.0%	733	29.9%	1,262	51.5%
4.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31	1.3%	36	1.5%	305	12.5%	696	28.4%	1,381	56.4%

그림 2-54 초등학생_수업방식_수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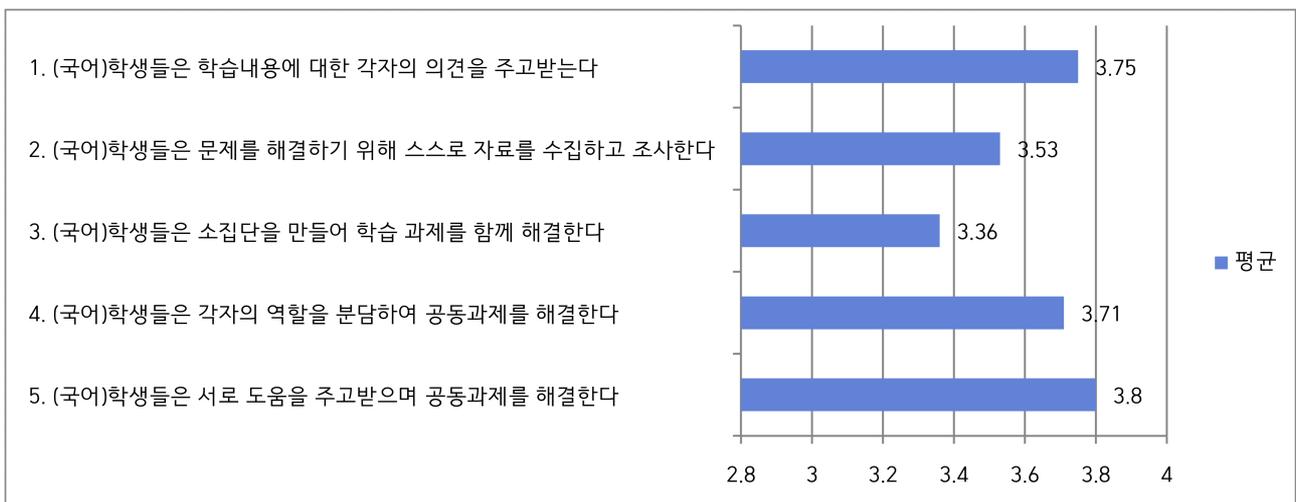
❖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는 5개의 하위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분석되었다.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전체)의 평균은 3.63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5. (국어)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3.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국어) 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3.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7~0.65, 첨도 절댓값은 0.01~0.65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으로 분석되었다.

표 2-55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국어)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2,449	1.00	5.00	3.75	0.99	-0.51	0.01	0.85	0.86
2. (국어)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2,449	1.00	5.00	3.53	1.04	-0.29	-0.33	0.83	
3. (국어)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2,449	1.00	5.00	3.36	1.17	-0.27	-0.65	0.83	
4. (국어)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2,449	1.00	5.00	3.71	1.04	-0.58	0.01	0.82	
5. (국어)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2,449	1.00	5.00	3.80	1.04	-0.65	0.07	0.82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전체)	2,449	1.00	5.00	3.63	0.85	-0.24	-0.09	-	-

그림 2-55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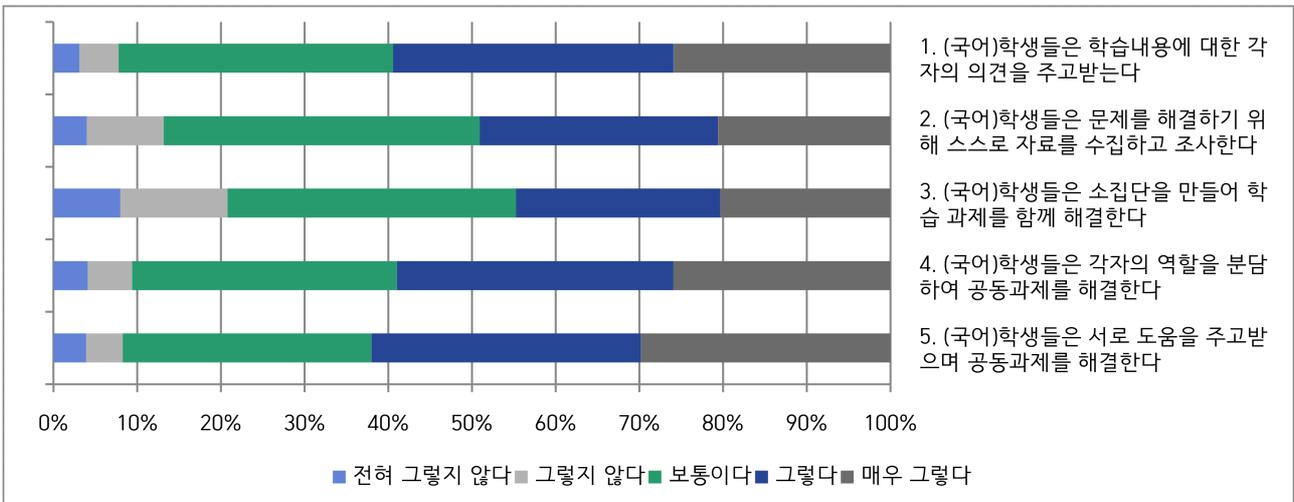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국어의 세부 측정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 보면, '5. (국어)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매우 그렇다]

29.8%(730명), [그렇다] 32.2%(788명), [보통이다] 29.7%(728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1. (국어) 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매우 그렇다] 25.9%(635명), [그렇다] 33.5%(821명), [보통이다] 32.8%(803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국어)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매우 그렇다] 25.9%(635명), [그렇다] 33.0%(808명), [보통이다] 31.6%(774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56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국어)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75	3.1%	115	4.7%	803	32.8%	821	33.5%	635	25.9%
2. (국어)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97	4.0%	225	9.2%	926	37.8%	697	28.5%	504	20.6%
3. (국어)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196	8.0%	314	12.8%	844	34.5%	598	24.4%	497	20.3%
4. (국어)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101	4.1%	131	5.3%	774	31.6%	808	33.0%	635	25.9%
5. (국어)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95	3.9%	108	4.4%	728	29.7%	788	32.2%	730	29.8%

그림 2-56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비율



❖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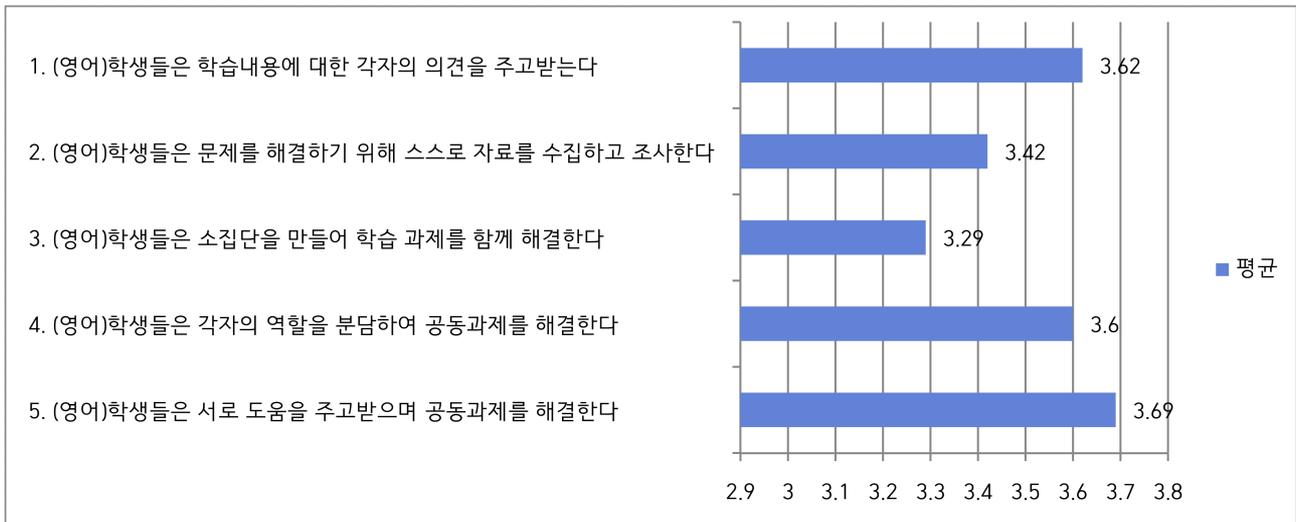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는 5개의 하위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전체)의 평균은 3.52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5. (영어)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3.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영어) 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3.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1~0.48, 첨도

절댓값은 0.08~0.62로 자료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7로 산출되었다.

표 2-57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영어)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2,449	1.00	5.00	3.62	1.01	-0.39	-0.08	0.86	0.87
2. (영어)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2,449	1.00	5.00	3.42	1.04	-0.23	-0.24	0.84	
3. (영어)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2,449	1.00	5.00	3.29	1.16	-0.21	-0.62	0.84	
4. (영어)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2,449	1.00	5.00	3.60	1.04	-0.44	-0.16	0.83	
5. (영어)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2,449	1.00	5.00	3.69	1.05	-0.48	-0.21	0.84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전체)	2,449	1.00	5.00	3.52	0.86	-0.14	-0.06	-	-

그림 2-57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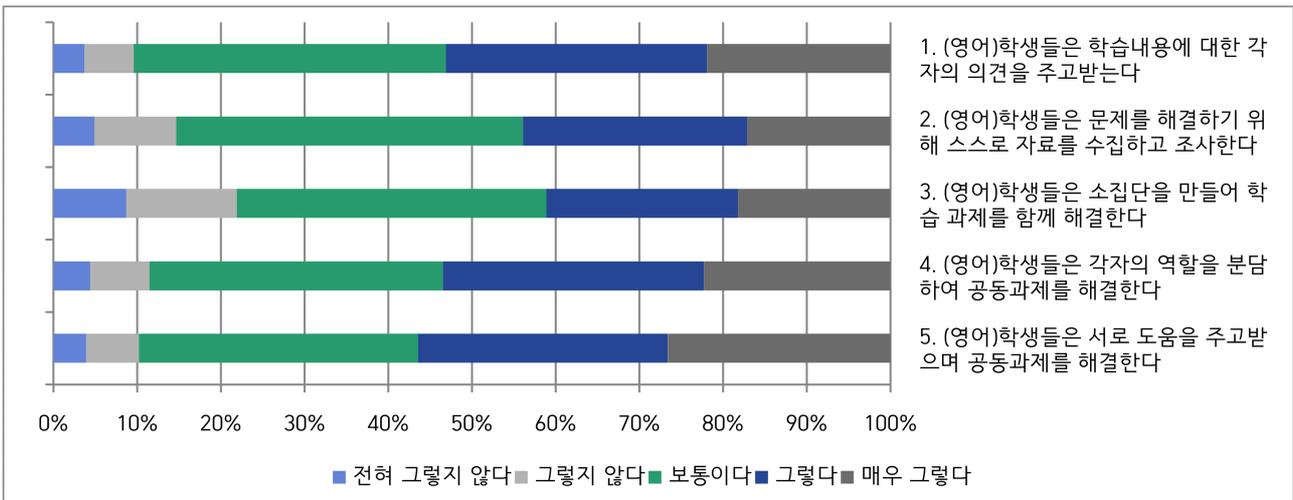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영어의 세부적인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5. (영어)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매우 그렇다] 26.6%(652명), [그렇다] 29.8%(729명), [보통이다] 33.4%(818명)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1. (영어) 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매우 그렇다] 21.9%(536명), [그렇다] 31.2%(765명), [보통이다] 37.3%(913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영어)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매우 그렇다] 22.3%(546명), [그렇다] 31.2%(763명), [보통이다] 35.1%(860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2-58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영어)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90	3.7%	145	5.9%	913	37.3%	765	31.2%	536	21.9%
2. (영어)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119	4.9%	240	9.8%	1,014	41.4%	656	26.8%	420	17.1%
3. (영어)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213	8.7%	324	13.2%	907	37.0%	560	22.9%	445	18.2%
4. (영어)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107	4.4%	173	7.1%	860	35.1%	763	31.2%	546	22.3%
5. (영어)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96	3.9%	154	6.3%	818	33.4%	729	29.8%	652	26.6%

그림 2-58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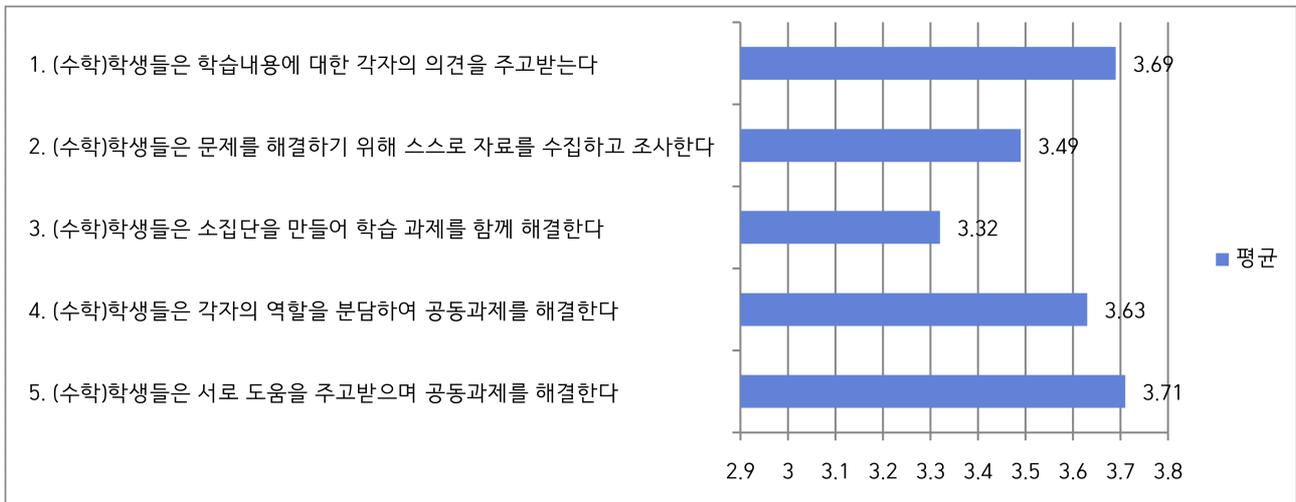
❖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은 5개의 하위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전체)의 평균은 3.57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5. (수학)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3.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수학) 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3.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분석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3~0.54, 첨도 절댓값은 0.16~0.69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7로 산출되었다.

표 2-59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수학)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2,449	1.00	5.00	3.69	1.02	-0.43	-0.16	0.86	0.87
2. (수학)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2,449	1.00	5.00	3.49	1.06	-0.25	-0.37	0.85	
3. (수학)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2,449	1.00	5.00	3.32	1.19	-0.23	-0.69	0.84	
4. (수학)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2,449	1.00	5.00	3.63	1.06	-0.44	-0.22	0.84	
5. (수학)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2,449	1.00	5.00	3.71	1.06	-0.54	-0.16	0.85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전체)	2,449	1.00	5.00	3.57	0.88	-0.14	-0.21	-	-

그림 2-59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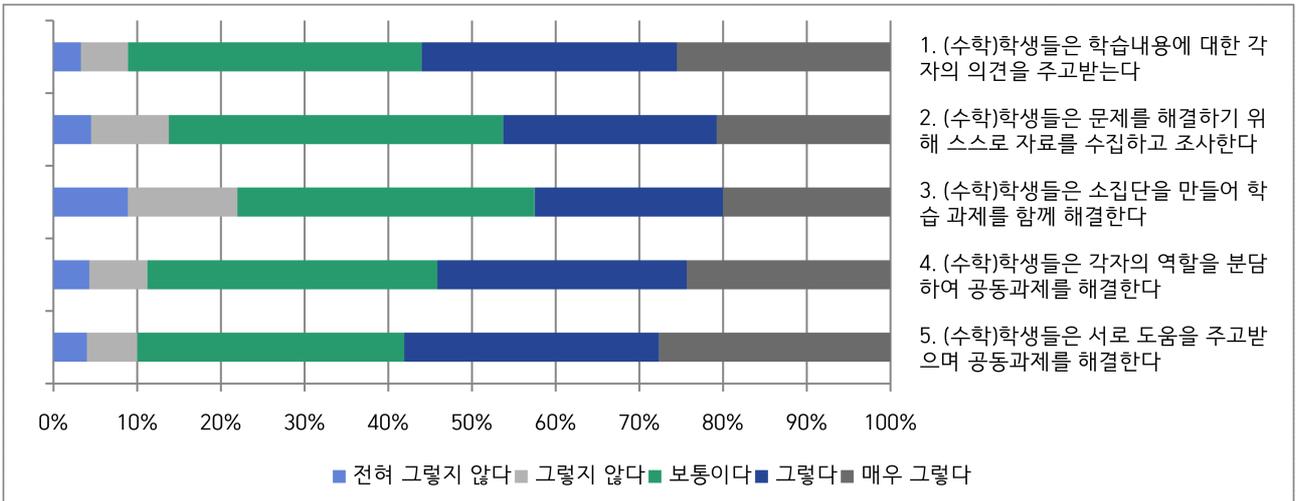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수학의 하위 세부적인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5. (수학)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매우 그렇다] 27.6%(675명), [그렇다] 30.4%(745명), [보통이다] 31.9%(782명)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1. (수학) 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매우 그렇다] 25.5%(625명), [그렇다] 30.5%(746명), [보통이다] 35.1%(860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수학)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매우 그렇다] 24.3%(594명), [그렇다] 29.8%(731명), [보통이다] 34.7%(849명)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표 2-60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수학)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81	3.3%	137	5.6%	860	35.1%	746	30.5%	625	25.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2. (수학)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111	4.5%	228	9.3%	978	39.9%	624	25.5%	508	20.7%
3. (수학)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218	8.9%	322	13.1%	869	35.5%	550	22.5%	490	20.0%
4. (수학)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105	4.3%	170	6.9%	849	34.7%	731	29.8%	594	24.3%
5. (수학)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99	4.0%	148	6.0%	782	31.9%	745	30.4%	675	27.6%

그림 2-60 초등학생_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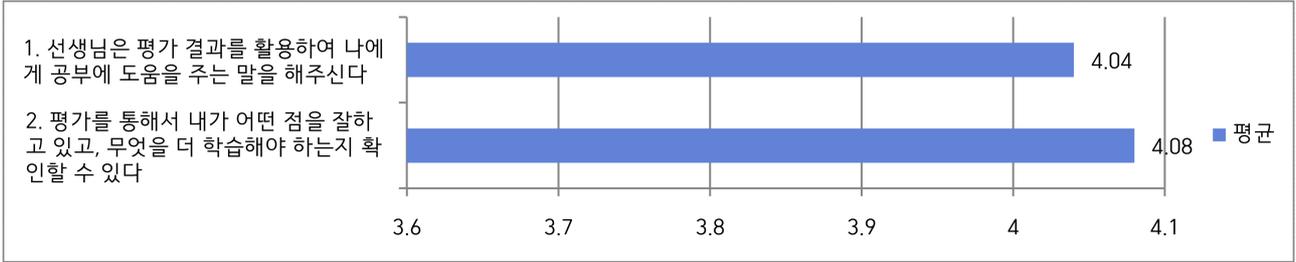
❖ 학교내 평가활동

○ 초등학생의 학교내 평가활동은 2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학교내 평가활동(전체)의 평균은 4.06점으로 '그렇다'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4.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1. 선생님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신다'는 4.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73~0.74, 첨도 절댓값은 0.13~0.27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6으로 나타났다.

표 2-61 초등학생_학교내 평가활동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선생님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신다	2,449	1.00	5.00	4.04	0.93	-0.74	0.13	-	0.76
2.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449	1.00	5.00	4.08	0.88	-0.73	0.27	-	
학교내 평가활동(전체)	2,449	1.00	5.00	4.06	0.81	-0.60	-0.03	-	-

그림 2-61 초등학생_학교내 평가활동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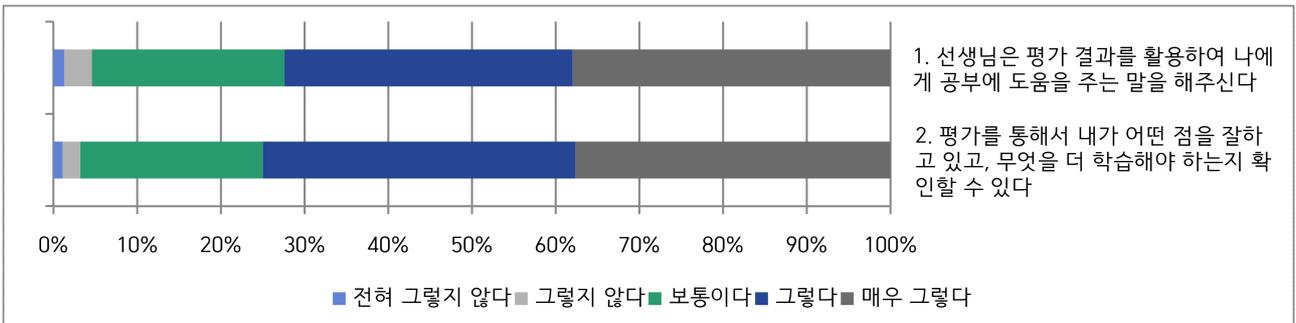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학교 내 평가활동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37.6%(922명), [그렇다] 37.3%(914명), [보통이다] 21.8%(535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1. 선생님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37.9%(929명), [그렇다] 34.4%(842명), [보통이다] 23.0%(564명)으로 나타났다.

표 2-62 초등학생_학교내 평가활동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선생님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신다	33	1.3%	81	3.3%	564	23.0%	842	34.4%	929	37.9%
2.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6	1.1%	52	2.1%	535	21.8%	914	37.3%	922	37.6%

그림 2-62 초등학생_학교내 평가활동 비율



학교 및 사회생활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학교 만족도, 학교에 관한 인식,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 관계 등을 주요 주제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각 주제별 주요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신뢰도와 응답 경향을 평가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계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학교 환경 개선 및 학생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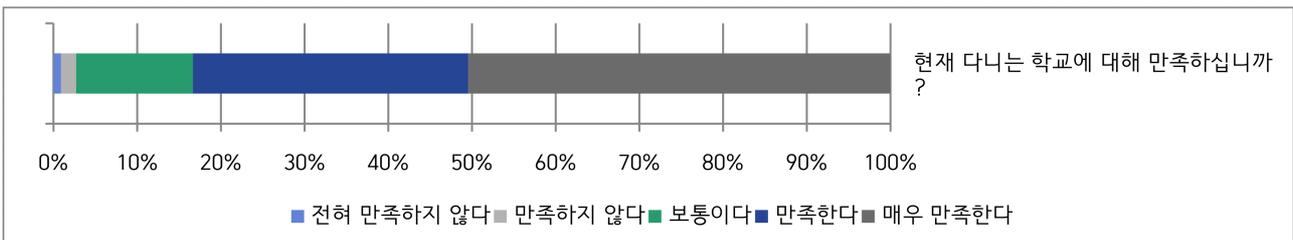
❖ 학교 만족도

-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4%(1,23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만족한다]는 32.9%(805명)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다]는 14.0%(343명)로 나타났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1.8%(44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0.9%(23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 결과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학교 만족도의 평균값은 4.28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2-63 초등학생_학교 만족도 빈도분석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N	%	N	%	N	%	N	%	N	%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23	0.9%	44	1.8%	343	14.0%	805	32.9%	1,234	50.4%

그림 2-63 초등학생_학교 만족도 비율



❖ 학교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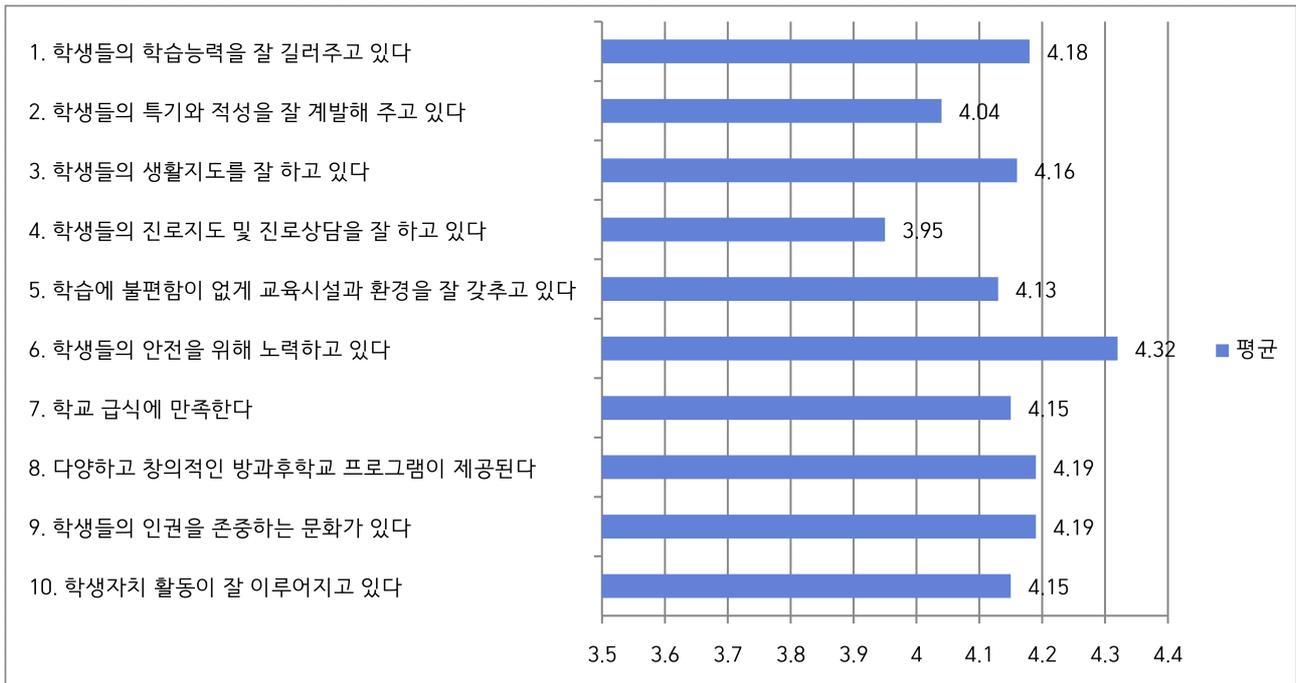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학교에 관한 인식은 10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학교에 관한 인식(전체)의 평균

은 4.15점으로 ‘그렇다’ 수준 정도로 확인되었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4.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4.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잘 하고 있다’는 3.9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55~1.14, 첨도 절댓값은 0.01~1.20으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4로 도출되었다.

표 2-64 초등학교_학교에 관한 인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2,449	1.00	5.00	4.18	0.81	-0.66	-0.01	0.93	0.94
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2,449	1.00	5.00	4.04	0.87	-0.55	-0.17	0.93	
3.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잘 하고 있다	2,449	1.00	5.00	4.16	0.83	-0.72	0.19	0.93	
4.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잘 하고 있다	2,449	1.00	5.00	3.95	0.94	-0.55	-0.14	0.93	
5.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2,449	1.00	5.00	4.13	0.89	-0.81	0.30	0.93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49	1.00	5.00	4.32	0.80	-1.11	1.20	0.93	
7.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2,449	1.00	5.00	4.15	1.03	-1.14	0.71	0.95	
8.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449	1.00	5.00	4.19	0.90	-0.94	0.52	0.93	
9.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2,449	1.00	5.00	4.19	0.86	-0.82	0.23	0.93	
10. 학생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449	1.00	5.00	4.15	0.89	-0.78	0.19	0.93	
학교에 관한 인식(전체)	2,449	1.00	5.00	4.15	0.71	-0.65	0.32	-	-

그림 2-64 초등학교_학교에 관한 인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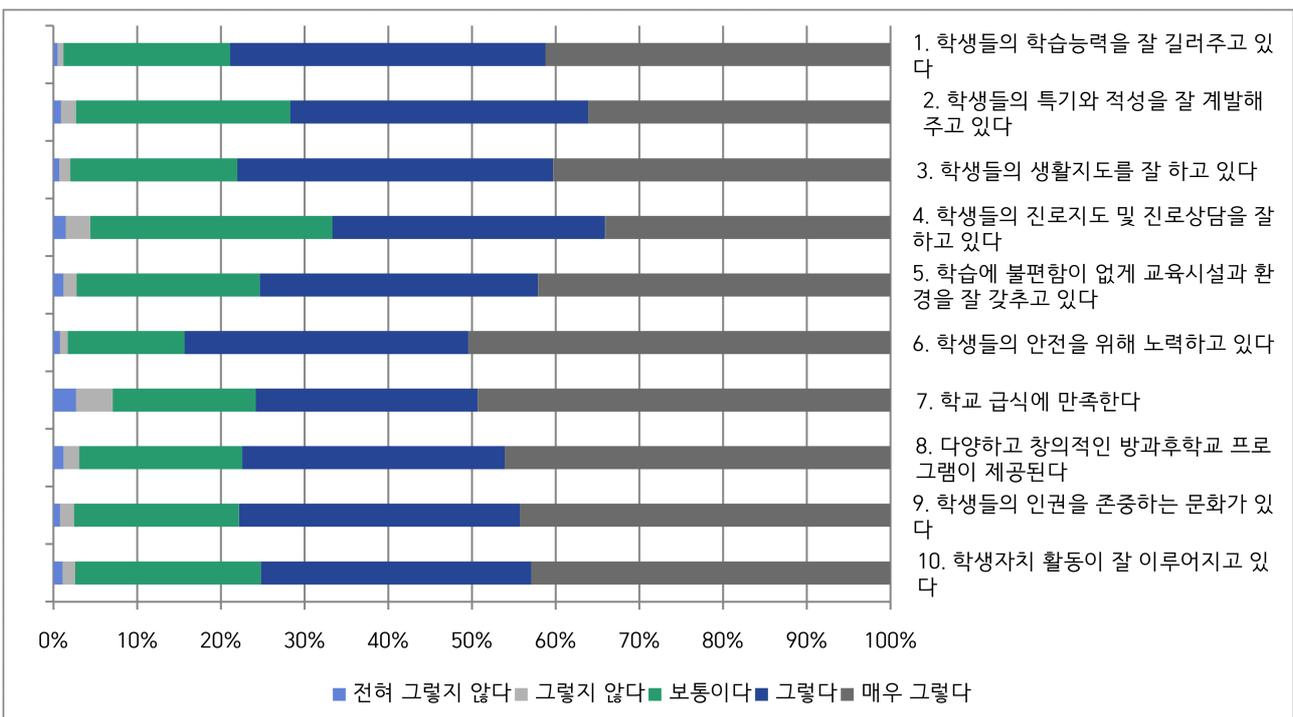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학교에 관한 인식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과 인원을 분석한 결과,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매우 그렇다] 50.4%(1,234명), [그렇다] 33.9%(831명), [보통이다] 14.0%(342명)로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8.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매우 그렇다] 46.1%(1,128명), [그렇다] 31.4%(768명), [보통이다] 19.5%(477명)으로 나타났으며, ‘1.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는 [매우 그렇다] 41.2%(1,008명), [그렇다] 37.7%(923명), [보통이다] 19.9%(488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2-65 초등학생_학교에 관한 인식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13	0.5%	17	0.7%	488	19.9%	923	37.7%	1,008	41.2%
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21	0.9%	43	1.8%	628	25.6%	872	35.6%	885	36.1%
3.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잘 하고 있다	17	0.7%	32	1.3%	490	20.0%	924	37.7%	986	40.3%
4.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잘 하고 있다	37	1.5%	70	2.9%	709	29.0%	799	32.6%	834	34.1%
5.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29	1.2%	40	1.6%	536	21.9%	814	33.2%	1,030	42.1%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	0.8%	23	0.9%	342	14.0%	831	33.9%	1,234	50.4%
7.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65	2.7%	108	4.4%	420	17.1%	648	26.5%	1,208	49.3%
8.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9	1.2%	47	1.9%	477	19.5%	768	31.4%	1,128	46.1%
9.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19	0.8%	42	1.7%	482	19.7%	822	33.6%	1,084	44.3%
10. 학생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6	1.1%	37	1.5%	543	22.2%	792	32.3%	1,051	42.9%

그림 2-65 초등학생_학교에 관한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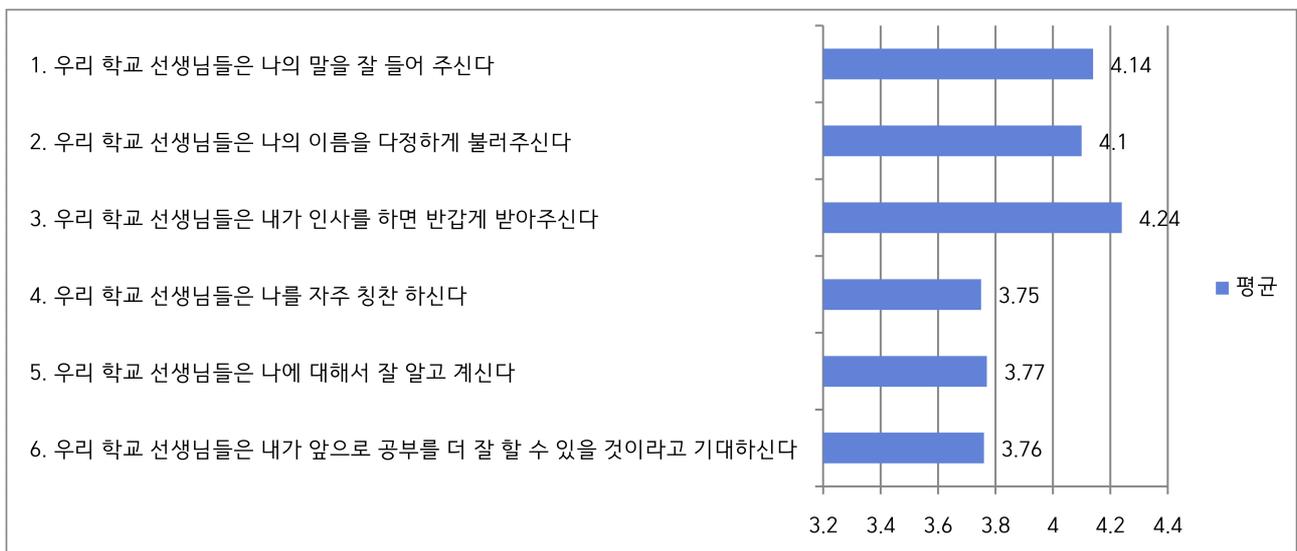
❖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 초등학생의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은 6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전체)의 평균은 3.96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4.2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자주 칭찬하신다'는 3.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8~0.91, 첨도 절댓값은 0.01~0.50으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1로 분석되었다.

표 2-66 초등학생_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2,449	1.00	5.00	4.14	0.87	-0.77	0.24	0.89	0.91
2.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2,449	1.00	5.00	4.10	0.90	-0.71	-0.01	0.89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2,449	1.00	5.00	4.24	0.84	-0.91	0.45	0.89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자주 칭찬하신다	2,449	1.00	5.00	3.75	0.98	-0.28	-0.50	0.88	
5.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2,449	1.00	5.00	3.77	1.00	-0.35	-0.45	0.89	
6.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2,449	1.00	5.00	3.76	0.98	-0.34	-0.39	0.89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전체)	2,449	1.00	5.00	3.96	0.77	-0.41	-0.06	-	-

그림 2-66 초등학생_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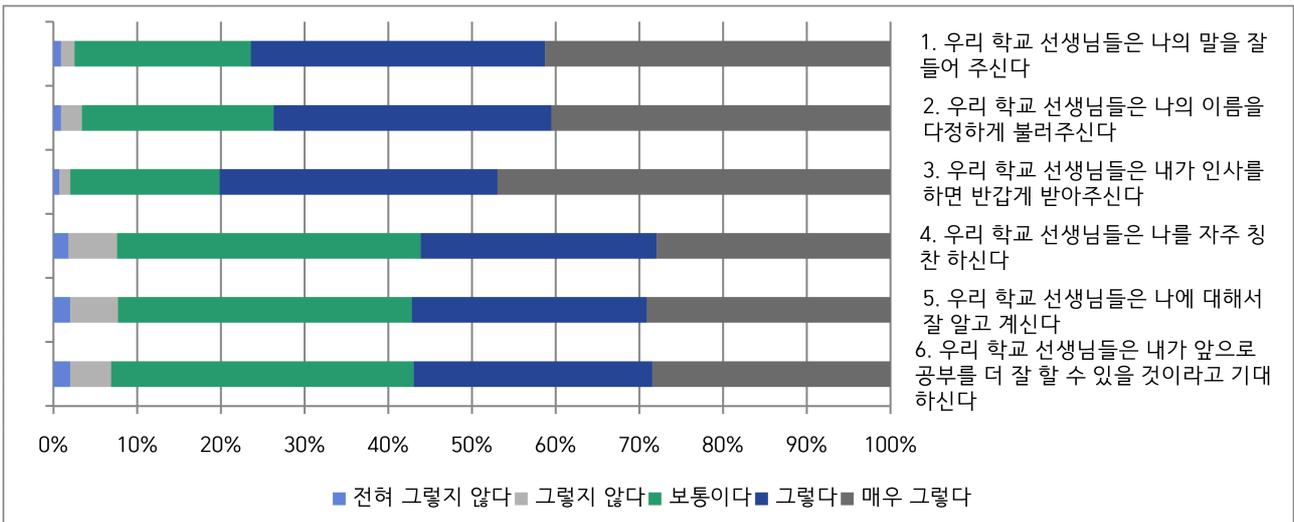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의 하위 조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6.9%(1,148명), [그렇다] 33.2%(814명), [보통이다] 17.8%(436명)로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1.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1.2%(1,010명), [그렇다] 35.1%(860명), [보통이다] 21.1%(516명)으로 나타났으며, '2.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 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0.5%(992명), [그렇다] 33.2%(813명), [보통이다] 22.9%(560명)으로 도출되었다.

표 2-67 초등학생_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23	0.9%	40	1.6%	516	21.1%	860	35.1%	1,010	41.2%
2.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23	0.9%	61	2.5%	560	22.9%	813	33.2%	992	40.5%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18	0.7%	33	1.3%	436	17.8%	814	33.2%	1,148	46.9%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43	1.8%	142	5.8%	890	36.3%	691	28.2%	683	27.9%
5.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49	2.0%	140	5.7%	859	35.1%	688	28.1%	713	29.1%
6.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50	2.0%	120	4.9%	885	36.1%	698	28.5%	696	28.4%

그림 2-67 초등학생_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비율



❖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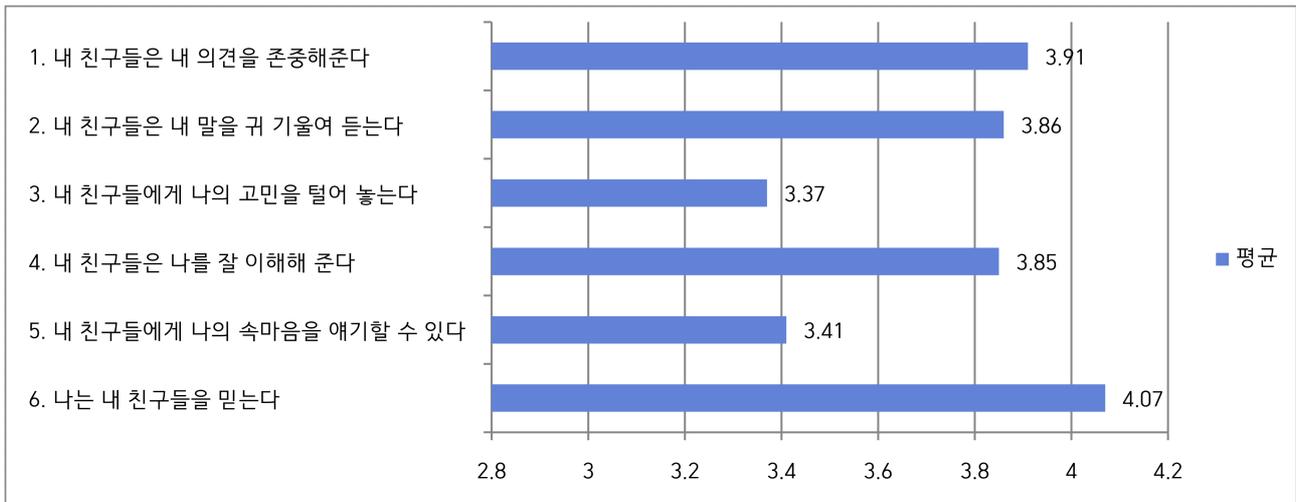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은 6개의 하위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전체)의 평균은 3.75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는 4.0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는 3.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6~0.97, 첨도 절댓값은 0.05~0.82로 자료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0으로 분석되었다.

표 2-68 초등학생_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2,449	1.00	5.00	3.91	0.94	-0.53	-0.09	0.87	0.90
2.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2,449	1.00	5.00	3.86	0.97	-0.53	-0.12	0.87	
3.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2,449	1.00	5.00	3.37	1.22	-0.26	-0.81	0.89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2,449	1.00	5.00	3.85	1.01	-0.61	-0.05	0.87	
5.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2,449	1.00	5.00	3.41	1.24	-0.32	-0.82	0.88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2,449	1.00	5.00	4.07	1.01	-0.97	0.47	0.89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전체)	2,449	1.00	5.00	3.75	0.87	-0.36	-0.20	-	-

그림 2-68 초등학생_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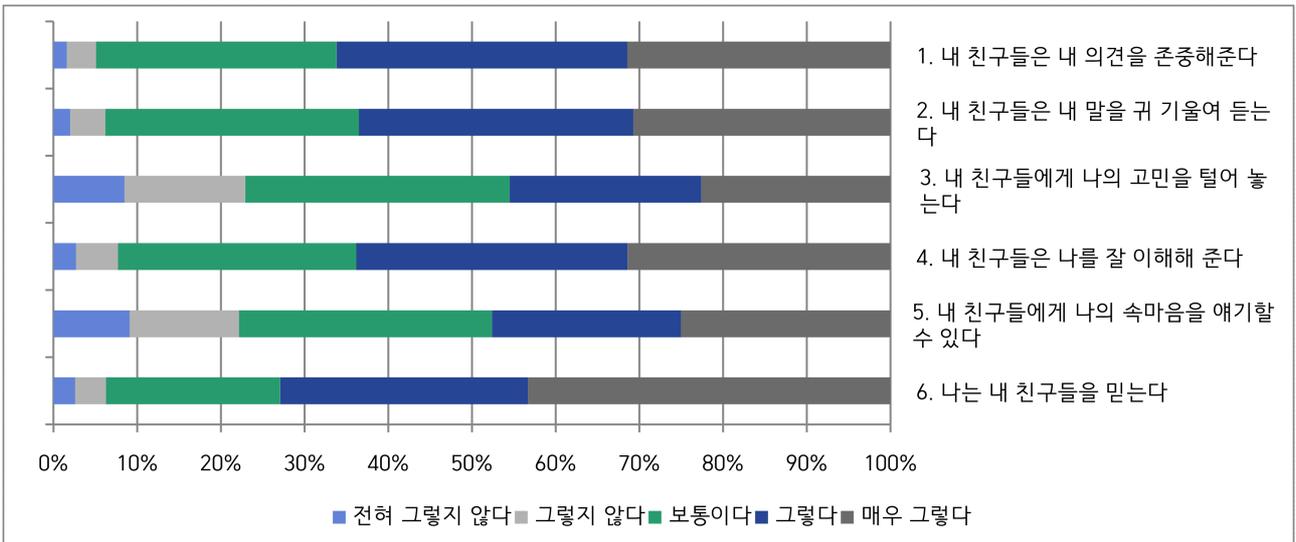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의 하위 측정 문항을 분석한 결과,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는 [매우 그렇다] 43.3%(1,060명), [그렇다] 29.6%(725명), [보통이다] 20.8%(510명)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1.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매우 그렇다] 31.4%(770명), [그렇다] 34.7%(851명), [보통이다] 28.7%(704명)로 조사되었으며, '2.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매우 그렇다] 30.7%(752명), [그렇다] 32.8%(804명), [보통이다] 30.3%(741명)로 나타났다.

표 2-69 초등학생_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38	1.6%	86	3.5%	704	28.7%	851	34.7%	770	31.4%
2.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50	2.0%	102	4.2%	741	30.3%	804	32.8%	752	30.7%
3.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208	8.5%	353	14.4%	773	31.6%	561	22.9%	554	22.6%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66	2.7%	122	5.0%	699	28.5%	793	32.4%	769	31.4%
5.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222	9.1%	322	13.1%	739	30.2%	554	22.6%	612	25.0%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63	2.6%	91	3.7%	510	20.8%	725	29.6%	1,060	43.3%

그림 2-69 초등학생_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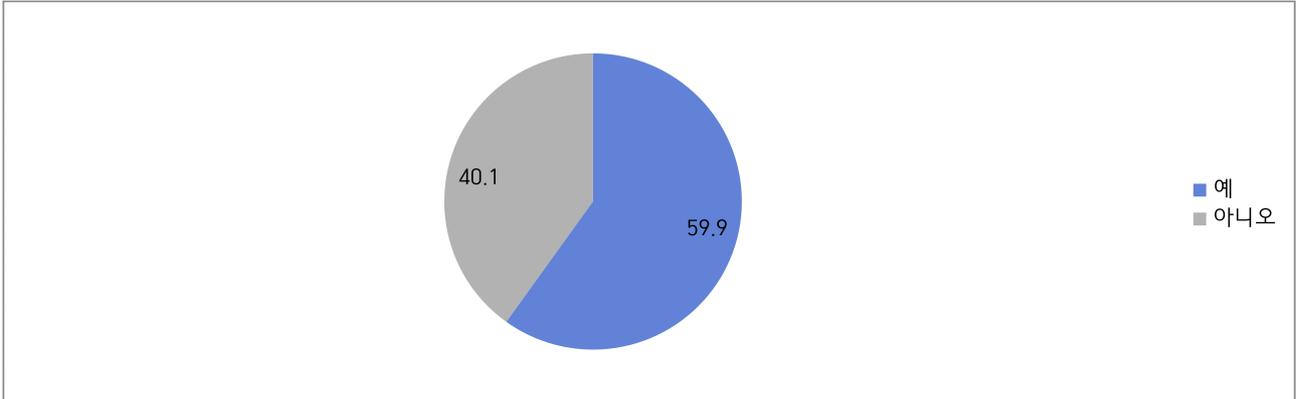
❖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59.9%(1,468명)로 나타났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1%(981명)로 확인되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70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빈도분석

구분	예		아니오	
	N	%	N	%
학생은 올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468	59.9%	981	40.1%

그림 2-70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비율



❖ 방과후학교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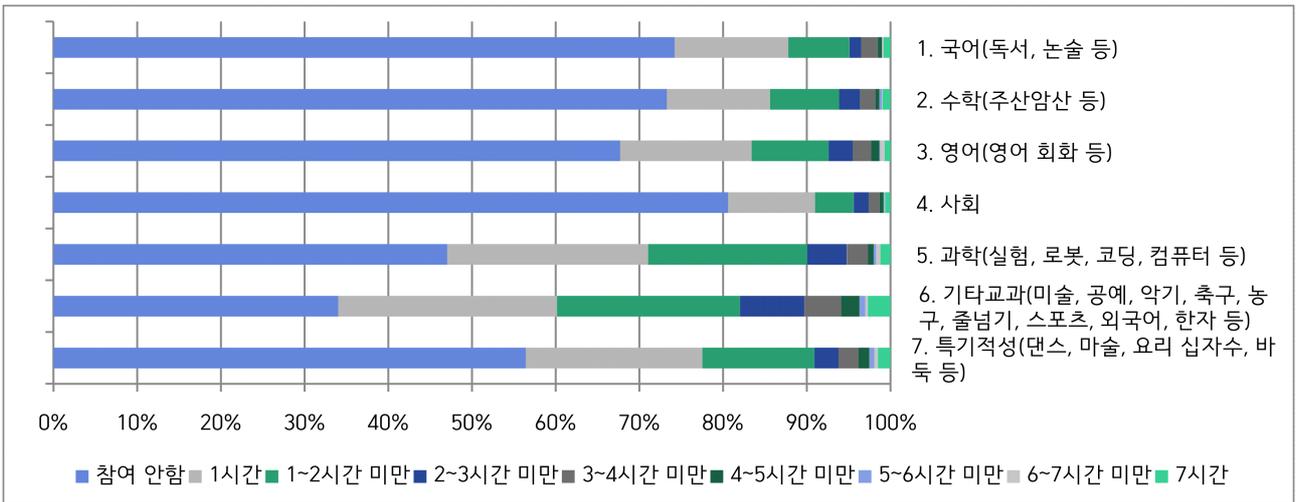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시간을 분석한 결과, 교과 및 특기적성 활동별 참여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국어(독서, 논술 등)’ 참여 시간은 [1시간 미만] 13.6%(199명), [1~2시간 미만] 7.3%(107명), [2~3시간 미만] 1.4%(20명), [3~4시간 미만] 2.0%(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학(주산암산 등)’은 [1시간 미만] 12.3%(180명), [1~2시간 미만] 8.3%(122명), [2~3시간 미만] 2.5%(36명), [3~4시간 미만] 1.8%(27명)로 국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영어(영어 회화 등)’는 [1시간 미만] 15.7%(231명), [1~2시간 미만] 9.2%(135명), [2~3시간 미만] 2.9%(42명), [3~4시간 미만] 2.2%(32명)로, 국어 및 수학보다 다소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과학(실험, 로봇, 코딩, 컴퓨터 등)’은 [1시간 미만] 24.0%(353명), [1~2시간 미만] 19.0%(279명), [2~3시간 미만] 4.7%(69명), [3~4시간 미만] 2.5%(37명)로, 주요 교과목보다 방과후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교과(미술, 공예, 악기, 축구, 농구, 줄넘기, 스포츠, 외국어, 한자 등)’는 [1시간 미만] 26.2%(384명), [1~2시간 미만] 21.9%(321명), [2~3시간 미만] 7.7%(113명), [3~4시간 미만] 4.4%(64명)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되었다. ‘특기적성(댄스, 마술, 요리, 십자수, 바둑 등)’은 [1시간 미만] 21.1%(310명), [1~2시간 미만] 13.4%(196명), [2~3시간 미만] 2.9%(42명), [3~4시간 미만] 2.4%(35명)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국어, 수학 등의 주요 교과목보다 과학,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71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참여시간 빈도분석

구분	참여 안함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N	%	N	%	N	%	N	%	N	%	N	%	N	%	N	%	N	%
1. 국어(독서, 논술 등)	1,090	74.3%	199	13.6%	107	7.3%	20	1.4%	29	2.0%	8	0.5%	0	0.0%	3	0.2%	12	0.8%
2. 수학(주산암산 등)	1,076	73.3%	180	12.3%	122	8.3%	36	2.5%	27	1.8%	8	0.5%	4	0.3%	2	0.1%	13	0.9%
3. 영어(영어 회화 등)	996	67.8%	231	15.7%	135	9.2%	42	2.9%	32	2.2%	14	1.0%	1	0.1%	7	0.5%	10	0.7%
4. 사회	1,185	80.7%	152	10.4%	67	4.6%	26	1.8%	19	1.3%	7	0.5%	2	0.1%	1	0.1%	9	0.6%
5. 과학(실험, 로봇, 코딩, 컴퓨터 등)	690	47.0%	353	24.0%	279	19.0%	69	4.7%	37	2.5%	11	0.7%	4	0.3%	7	0.5%	18	1.2%

구분	참여 안함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N	%	N	%	N	%	N	%	N	%	N	%	N	%	N	%	N	%
6. 기타교과(미술, 공예, 악기, 축구, 농구, 줄넘기, 스포츠, 외국어, 한자 등)	500	34.1%	384	26.2%	321	21.9%	113	7.7%	64	4.4%	32	2.2%	11	0.7%	4	0.3%	39	2.7%
7. 특기적성(댄스, 미술, 요리 십자수, 바둑 등)	829	56.5%	310	21.1%	196	13.4%	42	2.9%	35	2.4%	19	1.3%	9	0.6%	6	0.4%	22	1.5%

그림 2-71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참여시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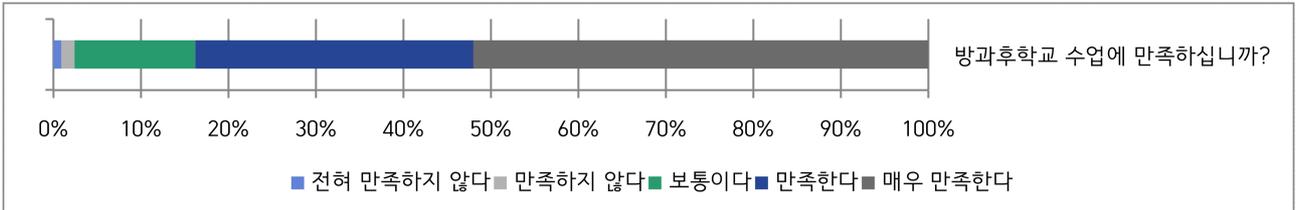
❖ 방과후학교 만족도

○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0%(7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만족한다]는 31.8%(467명)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다]는 13.8%(202명)로 나타났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1.5%(22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0.9%(13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수업 만족도의 평균값은 4.31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2-72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만족도 빈도분석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N	%	N	%	N	%	N	%	N	%
방과후학교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13	0.9%	22	1.5%	202	13.8%	467	31.8%	764	52.0%

그림 2-72 초등학생_방과후학교 만족도 비율



부모자녀관계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영역을 부모애착관계, 부모의사소통,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문항 신뢰도와 자료 정규성을 평가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부모자녀 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과 의사소통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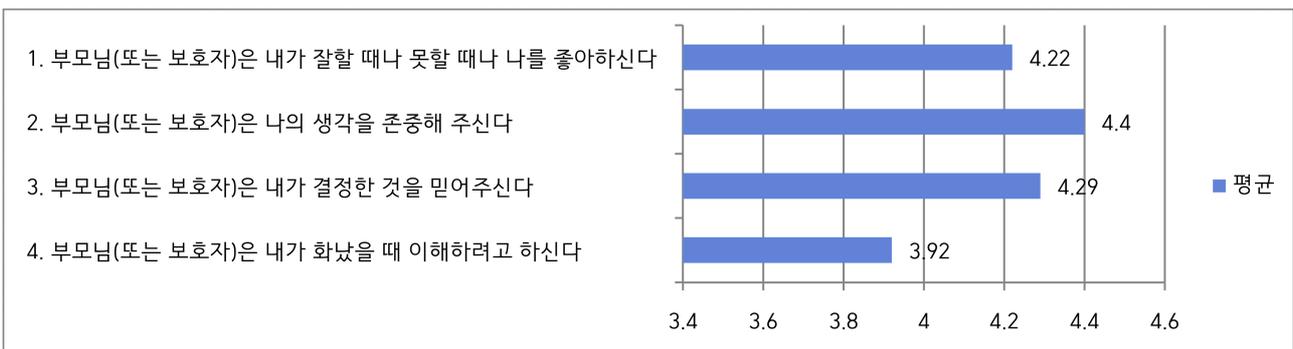
❖ 부모애착관계

-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관계는 4개의 하위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부모애착관계(전체)의 평균은 4.21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는 4.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하신다'는 3.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77~1.36, 첨도 절댓값은 0.08~1.70으로 자료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7로 분석되었다.

표 2-73 초등학생_부모애착관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	2,449	1.00	5.00	4.22	0.96	-1.12	0.70	0.85	0.87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	2,449	1.00	5.00	4.40	0.81	-1.36	1.70	0.81	
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	2,449	1.00	5.00	4.29	0.87	-1.11	0.83	0.81	
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하신다	2,449	1.00	5.00	3.92	1.08	-0.77	-0.08	0.85	
부모애착관계(전체)	2,449	1.00	5.00	4.21	0.79	-0.95	0.66	-	-

그림 2-73 초등학생_부모애착관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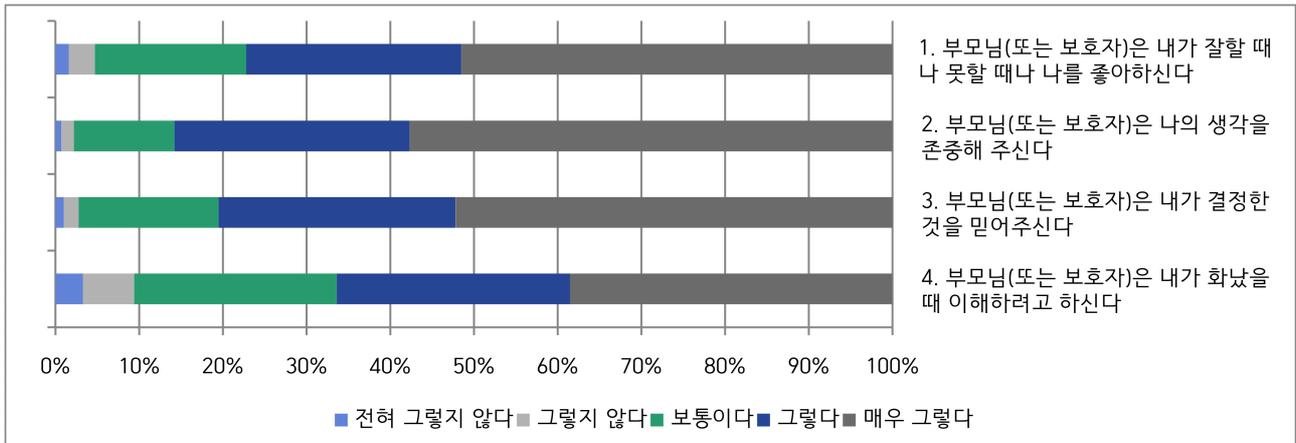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관계 하위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57.7%(1,412명), [그렇다] 28.1%(689명), [보통이다] 12.0%(293명)로 높은 긍정적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52.2%(1,279명), [그렇다] 28.3%(694명), [보통이다] 16.7%(408명)로 나타났으며,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는 [매우 그렇다] 51.5%(1,261명), [그렇다] 25.7%(629명), [보통이다] 18.1%(443명)로 조사·분석되었다.

표 2-74 초등학생_부모애착관계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	40	1.6%	76	3.1%	443	18.1%	629	25.7%	1,261	51.5%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	18	0.7%	37	1.5%	293	12.0%	689	28.1%	1,412	57.7%
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	24	1.0%	44	1.8%	408	16.7%	694	28.3%	1,279	52.2%
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하신다	81	3.3%	149	6.1%	593	24.2%	683	27.9%	943	38.5%

그림 2-74 초등학생_부모애착관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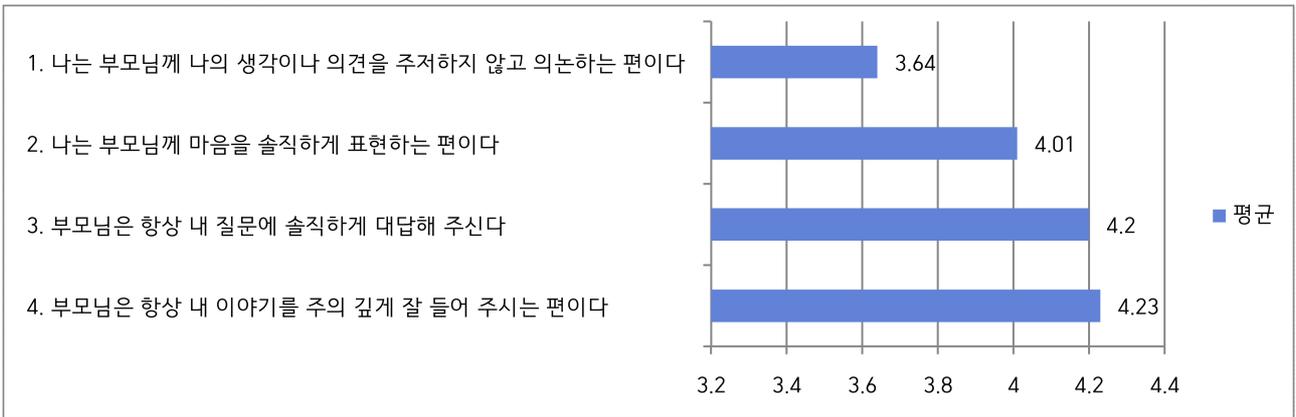
❖ 부모의사소통

- 초등학생의 부모의사소통은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부모의사소통(전체)의 평균은 4.02점으로 ‘그렇다’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4.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는 4.2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하는 편이다’는 3.6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56~1.06, 첨도 절댓값은 0.20~0.80으로 자료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1로 산출되었다.

표 2-75 초등학생_부모의사소통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하는 편이다	2,449	1.00	5.00	3.64	1.18	-0.56	-0.44	0.84	0.81
2. 나는 부모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2,449	1.00	5.00	4.01	1.01	-0.84	0.20	0.74	
3. 부모님은 항상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2,449	1.00	5.00	4.20	0.90	-1.02	0.80	0.74	
4.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2,449	1.00	5.00	4.23	0.92	-1.06	0.71	0.75	
부모의사소통(전체)	2,449	1.00	5.00	4.02	0.81	-0.64	0.24	-	-

그림 2-75 초등학생_부모의사소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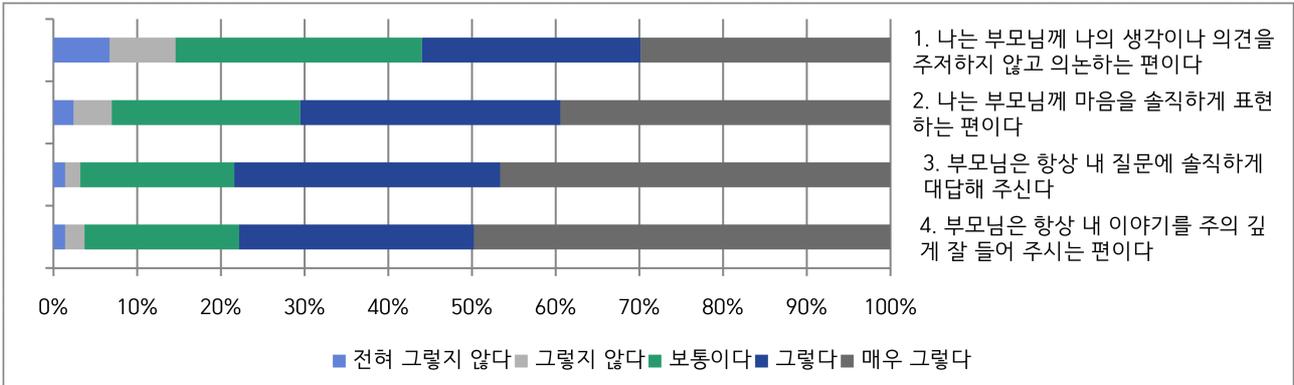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부모의사소통 하위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4.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는 [매우 그렇다] 49.8%(1,219명), [그렇다] 28.1%(688명), [보통이다] 18.5%(452명)로 높은 긍정적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3. 부모님은 항상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6.6%(1,142명), [그렇다] 31.8%(778명), [보통이다] 18.4%(450명)로 나타났으며, '2. 나는 부모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는 [매우 그렇다] 39.4%(966명), [그렇다] 31.1%(762명), [보통이다] 22.5%(550명)로 도출되었다.

표 2-76 초등학생_부모의사소통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하는 편이다	164	6.7%	194	7.9%	721	29.4%	640	26.1%	730	29.8%
2. 나는 부모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59	2.4%	112	4.6%	550	22.5%	762	31.1%	966	39.4%
3. 부모님은 항상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34	1.4%	45	1.8%	450	18.4%	778	31.8%	1,142	46.6%
4.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34	1.4%	56	2.3%	452	18.5%	688	28.1%	1,219	49.8%

그림 2-76 초등학생_부모의사소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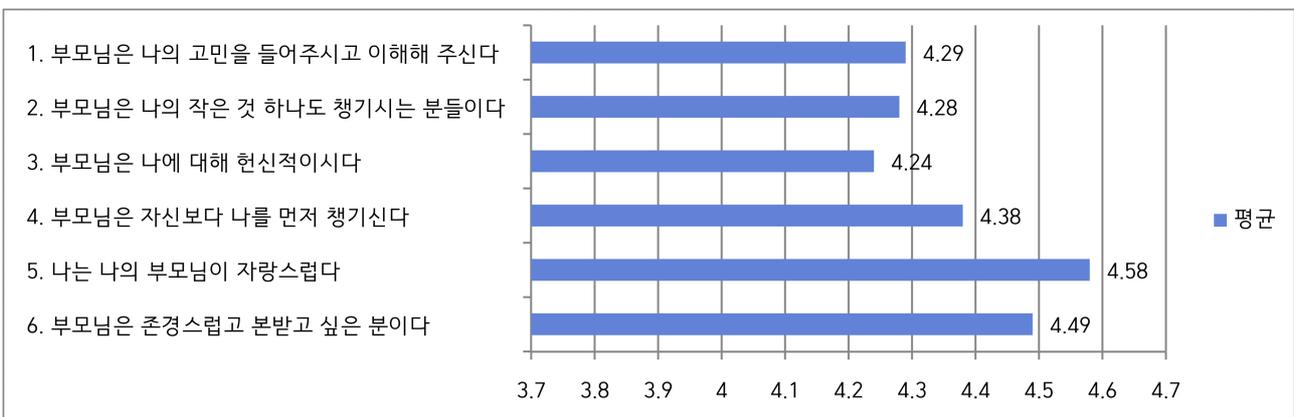
❖ 부모자녀관계

-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는 6개의 하위 세부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분석되었다. 부모자녀관계(전체)의 평균은 4.38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5. 나는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는 4.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헌신적이다'는 4.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93~1.81, 첨도 절댓값은 0.32~3.41로 자료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2로 산출되었다.

표 2-77 초등학생_부모자녀관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2,449	1.00	5.00	4.29	0.87	-1.12	0.94	0.90	0.92
2. 부모님은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챙기시는 분입니다	2,449	1.00	5.00	4.28	0.87	-1.12	0.94	0.90	
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헌신적이다	2,449	1.00	5.00	4.24	0.88	-0.93	0.32	0.91	
4. 부모님은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	2,449	1.00	5.00	4.38	0.80	-1.19	1.14	0.90	
5. 나는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2,449	1.00	5.00	4.58	0.72	-1.81	3.41	0.90	
6. 부모님은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	2,449	1.00	5.00	4.49	0.79	-1.50	1.89	0.90	
부모자녀관계(전체)	2,449	1.00	5.00	4.38	0.69	-1.21	1.60	-	-

그림 2-77 초등학생_부모자녀관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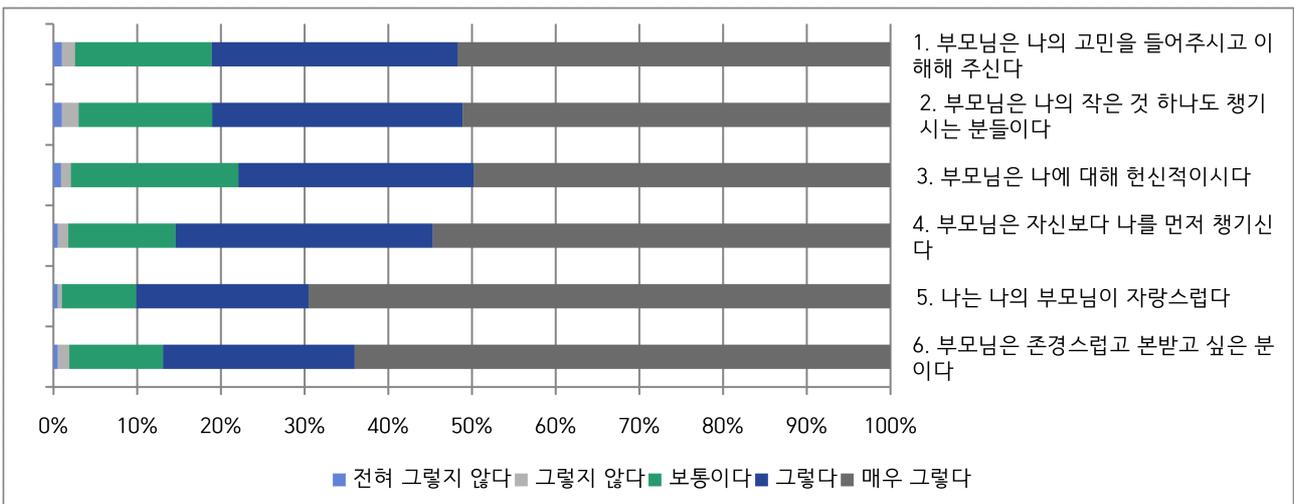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 하위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5. 나는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는 [매우 그렇다] 69.5%(1,703명), [그렇다] 20.6%(504명), [보통이다] 8.9%(217명)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6. 부모님은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는 [매우 그렇다] 64.0%(1,567명), [그렇다] 22.9%(561명), [보통이다] 11.2%(275명)로 나타났으며, ‘4. 부모님은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는 [매우 그렇다] 54.6%(1,337명), [그렇다] 30.7%(753명), [보통이다] 12.8%(313명)로 확인되었다.

표 2-78 초등학생_부모자녀관계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25	1.0%	39	1.6%	400	16.3%	719	29.4%	1,266	51.7%
2. 부모님은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챙기시는 분들이다	25	1.0%	48	2.0%	391	16.0%	733	29.9%	1,252	51.1%
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헌신적으시다	22	0.9%	30	1.2%	491	20.0%	689	28.1%	1,217	49.7%
4. 부모님은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	13	0.5%	33	1.3%	313	12.8%	753	30.7%	1,337	54.6%
5. 나는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13	0.5%	12	0.5%	217	8.9%	504	20.6%	1,703	69.5%
6. 부모님은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	12	0.5%	34	1.4%	275	11.2%	561	22.9%	1,567	64.0%

그림 2-78 초등학생_부모자녀관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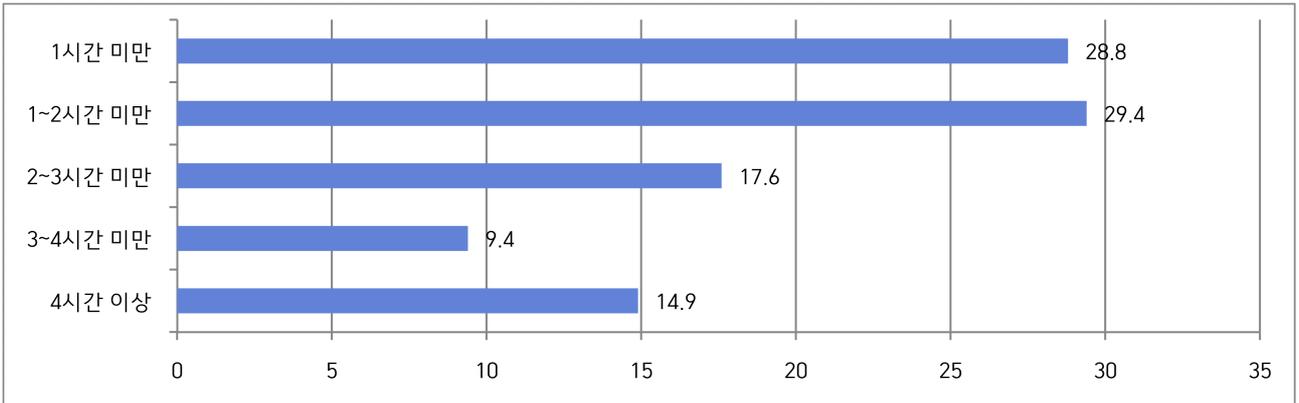
❖ 부모와의 대화시간

-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분석한 결과,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4%(719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1시간 미만]이 28.8%(705명), [2~3시간 미만]이 17.6%(430명)로 나타났다. [3~4시간 미만]은 9.4%(231명), [4시간 이상]은 14.9%(364명)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장시간 대화는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였다.

표 2-79 초등학생_부모와의 대화시간 빈도분석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N	%	N	%	N	%	N	%	N	%
하루 중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705	28.8%	719	29.4%	430	17.6%	231	9.4%	364	14.9%

그림 2-79 초등학생_부모와의 대화시간 비율



사교육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사교육 활동을 사교육 참여 여부와 사교육 참여 시간이라는 세부 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의 분포를 살펴보고, 주요 응답 비율을 도출하여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활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목별 사교육 특성과 참여 시간 분포를 고려하여 학부모와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사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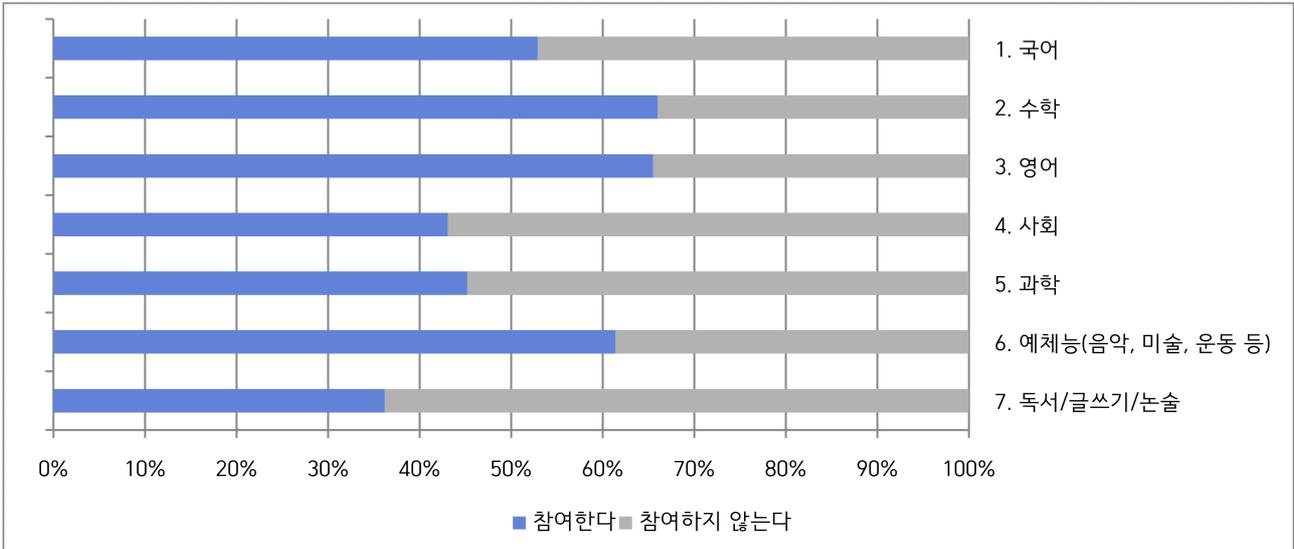
❖ 사교육 참여 여부

-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참여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수학 과목은 66.0%(1,617명)가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어서 영어 65.5%(1,604명),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 61.4%(1,503명)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국어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은 52.9%(1,295명)로 절반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43.1%(1,055명), 과학 45.2%(1,108명)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독서/글쓰기/논술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은 36.2%(886명)로 가장 낮았으며, 63.8%(1,563명)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수학과 영어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 및 과학은 중간 수준, 독서·논술 관련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은 가장 낮았다. 이는 수학과 영어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교육 분야이며, 반면 독서 및 논술 관련 과목의 사교육 참여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80 초등학생_사교육 참여 여부 빈도분석

구분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N	%	N	%
1. 국어	1,295	52.9%	1,154	47.1%
2. 수학	1,617	66.0%	832	34.0%
3. 영어	1,604	65.5%	845	34.5%
4. 사회	1,055	43.1%	1,394	56.9%
5. 과학	1,108	45.2%	1,341	54.8%
6.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	1,503	61.4%	946	38.6%
7. 독서/글쓰기/논술	886	36.2%	1,563	63.8%

그림 2-80 초등학생_사교육 참여 여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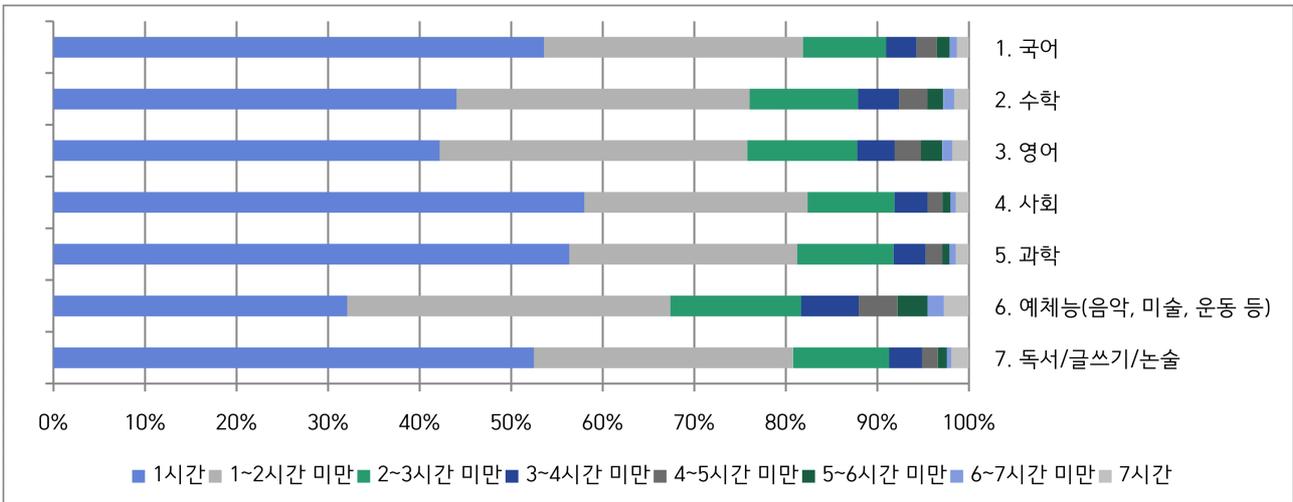
❖ 사교육 참여 시간

○ 초등학생의 과목별 사교육 참여 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과목에서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 과목은 [1시간 미만]이 53.6%(694명)로 가장 높았으며, [1~2시간 미만]이 28.3%(366명)로 뒤를 이었다. [2~3시간 미만]은 9.1%(118명), [3~4시간 미만]은 3.3%(43명)로 조사되었다. 수학은 [1시간 미만] 44.0%(712명), [1~2시간 미만] 32.0%(518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3시간 미만] 11.8%(191명), [3~4시간 미만] 4.5%(73명)로 나타났다. 영어 과목도 수학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1시간 미만] 42.2%(677명), [1~2시간 미만] 33.6%(539명), [2~3시간 미만] 12.0%(193명)로 확인되었다. 사회와 과학 과목에서는 [1시간 미만]이 각각 58.0%(612명), 56.3%(624명)로 다른 과목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2시간 미만]은 사회 24.4%(257명), 과학 24.9%(276명)로 나타났다.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은 [1시간 미만] 32.1%(483명), [1~2시간 미만] 35.3%(531명)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2~3시간 미만]은 14.3%(215명)로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독서/글쓰기/논술 과목은 [1시간 미만] 52.5%(465명), [1~2시간 미만] 28.3%(251명)로 나타났으며, 2시간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낮았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1~2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체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1시간 미만]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81 초등학교_사교육 참여 시간 빈도분석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N	%	N	%	N	%	N	%	N	%	N	%	N	%	N	%
1. 국어	694	53.6%	366	28.3%	118	9.1%	43	3.3%	28	2.2%	18	1.4%	11	0.8%	17	1.3%
2. 수학	712	44.0%	518	32.0%	191	11.8%	73	4.5%	50	3.1%	28	1.7%	19	1.2%	26	1.6%
3. 영어	677	42.2%	539	33.6%	193	12.0%	65	4.1%	47	2.9%	37	2.3%	17	1.1%	29	1.8%
4. 사회	612	58.0%	257	24.4%	100	9.5%	38	3.6%	17	1.6%	10	0.9%	6	0.6%	15	1.4%
5. 과학	624	56.3%	276	24.9%	116	10.5%	39	3.5%	20	1.8%	9	0.8%	8	0.7%	16	1.4%
6.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	483	32.1%	531	35.3%	215	14.3%	94	6.3%	63	4.2%	50	3.3%	27	1.8%	40	2.7%
7. 독서/글쓰기/논술	465	52.5%	251	28.3%	93	10.5%	32	3.6%	15	1.7%	9	1.0%	4	0.5%	17	1.9%

그림 2-81 초등학교_사교육 참여 시간 비율



학교선택/진로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선택 및 진로와 관련된 영역을 교육포부,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그리고 진로성숙도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의 희망 교육 수준, 진로 및 진학 관련 활동 참여 정도, 그리고 진로성숙도 수준을 평가하였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교육 목표와 진로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희망 교육 수준과 진로 관련 경험의 특성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학부모와 교사가 효과적인 진로 지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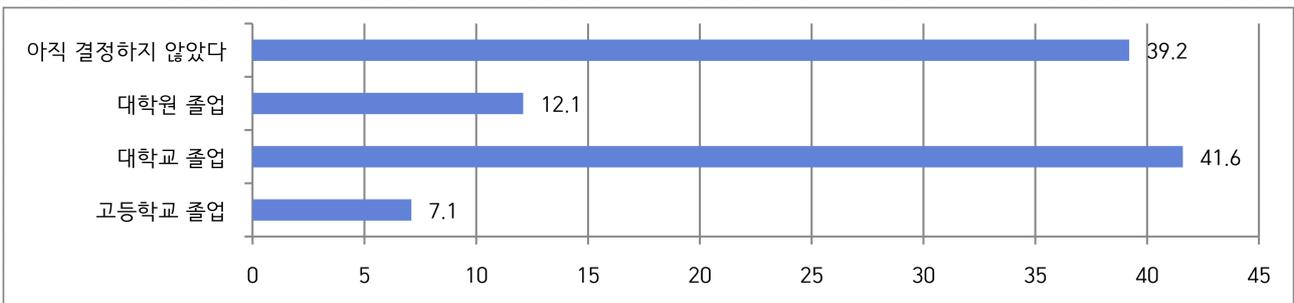
❖ 교육포부

- 초등학생의 희망 최종 교육 수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41.6%(1,01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961명)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2.1%(296명)로 조사되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7.1%(174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2-82 초등학생_교육포부 빈도분석

구분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N	%	N	%	N	%	N	%
여러분이 희망하는 최종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174	7.1%	1,018	41.6%	296	12.1%	961	39.2%

그림 2-82 초등학생_교육포부 비율



❖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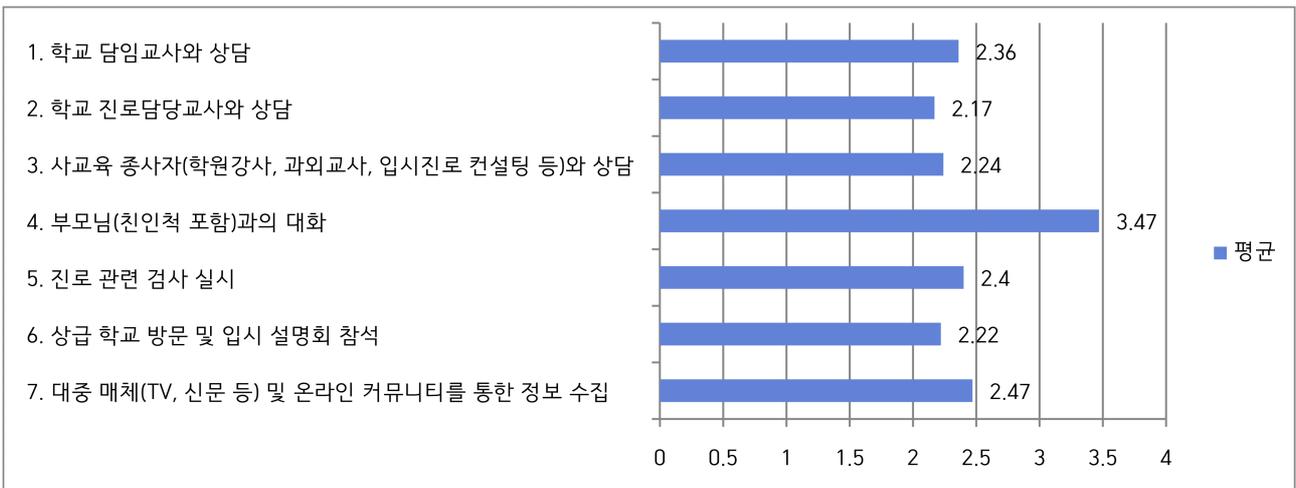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은 7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자주 한다)로 측정되었다.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전체)의 평균은 2.48점으로 '보통이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

에서 '4. 부모님(친인척 포함)과의 대화'는 3.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은 2.1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3~0.52, 첨도 절댓값은 0.04~0.33으로 자료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8로 분석되었다.

표 2-83 초등학교_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2,449	1.00	5.00	2.36	0.97	0.23	-0.12	0.85	0.88
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	2,449	1.00	5.00	2.17	0.97	0.49	-0.04	0.85	
3. 사교육 종사자(학원강사, 과외교사, 입시진로 컨설팅 등)와 상담	2,449	1.00	5.00	2.24	1.01	0.49	-0.12	0.85	
4. 부모님(친인척 포함)과의 대화	2,449	1.00	5.00	3.47	1.13	-0.41	-0.33	0.90	
5. 진로 관련 검사 실시	2,449	1.00	5.00	2.40	1.02	0.26	-0.18	0.85	
6. 상급 학교 방문 및 입시 설명회 참석	2,449	1.00	5.00	2.22	1.02	0.52	-0.04	0.85	
7. 대중 매체(TV, 신문 등)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수집	2,449	1.00	5.00	2.47	1.07	0.25	-0.32	0.86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전체)	2,449	1.00	5.00	2.48	0.78	0.33	0.72	-	-

그림 2-83 초등학교_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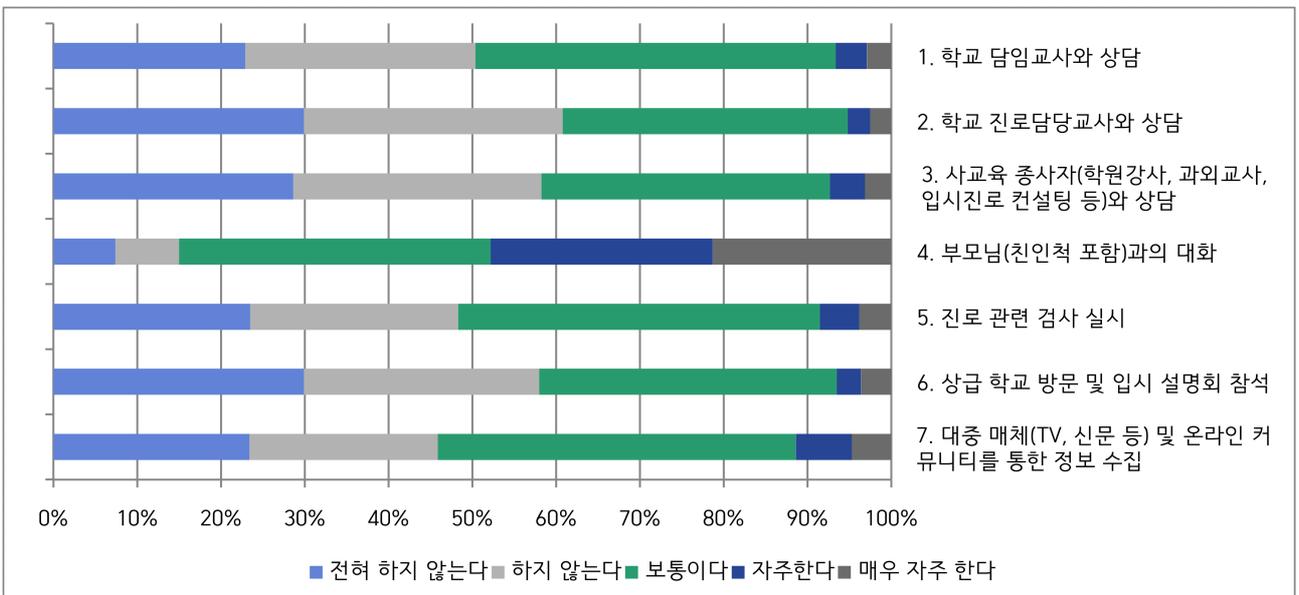


○ 초등학교의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의 하위 세부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과 인원을 분석한 결과, '4. 부모님(친인척 포함)과의 대화'는 [매우 자주 한다] 21.3%(522명), [자주한다] 26.5%(648명), [보통이다] 37.2%(911명)로 나타나 부모와의 대화가 주요한 진로 경험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7. 대중 매체(TV, 신문 등)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수집'은 [매우 자주 한다] 4.7%(116명), [자주한다] 6.7%(165명), [보통이다] 42.7%(1,045명)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5. 진로 관련 검사 실시'는 [매우 자주 한다] 3.8%(93명), [자주한다] 4.7%(115명), [보통이다] 43.2%(1,058명)로 확인되었다.

표 2-84 초등학생_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빈도분석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한다		매우 자주 한다	
	N	%	N	%	N	%	N	%	N	%
1.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562	22.9%	674	27.5%	1,053	43.0%	90	3.7%	70	2.9%
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	732	29.9%	757	30.9%	832	34.0%	66	2.7%	62	2.5%
3. 사교육 종사자(학원강사, 과외교사, 입시진로 컨설팅 등)와 상담	701	28.6%	726	29.6%	843	34.4%	102	4.2%	77	3.1%
4. 부모님(친인척 포함)과의 대화	182	7.4%	186	7.6%	911	37.2%	648	26.5%	522	21.3%
5. 진로 관련 검사 실시	576	23.5%	607	24.8%	1,058	43.2%	115	4.7%	93	3.8%
6. 상급 학교 방문 및 입시 설명회 참석	733	29.9%	688	28.1%	869	35.5%	72	2.9%	87	3.6%
7. 대중 매체(TV, 신문 등)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수집	572	23.4%	551	22.5%	1,045	42.7%	165	6.7%	116	4.7%

그림 2-84 초등학생_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비율



❖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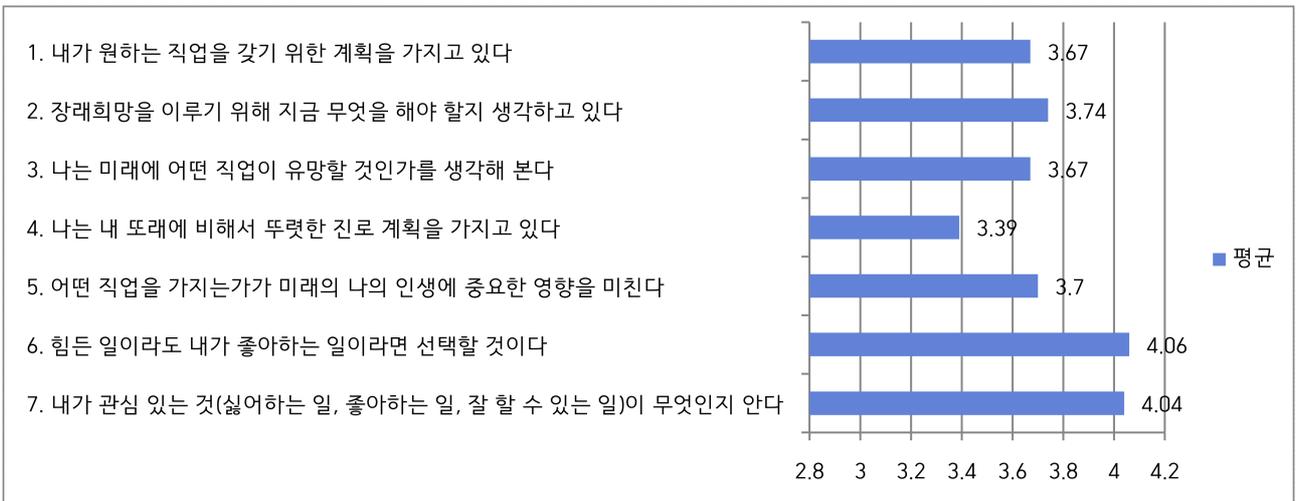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7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진로성숙도(전체)의 평균은 3.75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는 4.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4.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3.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7~0.84, 첨도 절댓값은 0.12~0.62로 자료 정규성은 문제가 없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1로 산출되었다.

표 2-85 초등학생_진로성숙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449	1.00	5.00	3.67	1.15	-0.49	-0.55	0.89	0.91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2,449	1.00	5.00	3.74	1.12	-0.57	-0.41	0.89	
3.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2,449	1.00	5.00	3.67	1.11	-0.47	-0.46	0.89	
4.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449	1.00	5.00	3.39	1.11	-0.07	-0.62	0.90	
5.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449	1.00	5.00	3.70	1.06	-0.44	-0.36	0.91	
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2,449	1.00	5.00	4.06	0.95	-0.84	0.41	0.91	
7. 내가 관심 있는 것(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2,449	1.00	5.00	4.04	0.99	-0.79	0.12	0.91	
진로성숙도(전체)	2,449	1.00	5.00	3.75	0.87	-0.37	-0.05	-	-

그림 2-85 초등학생_진로성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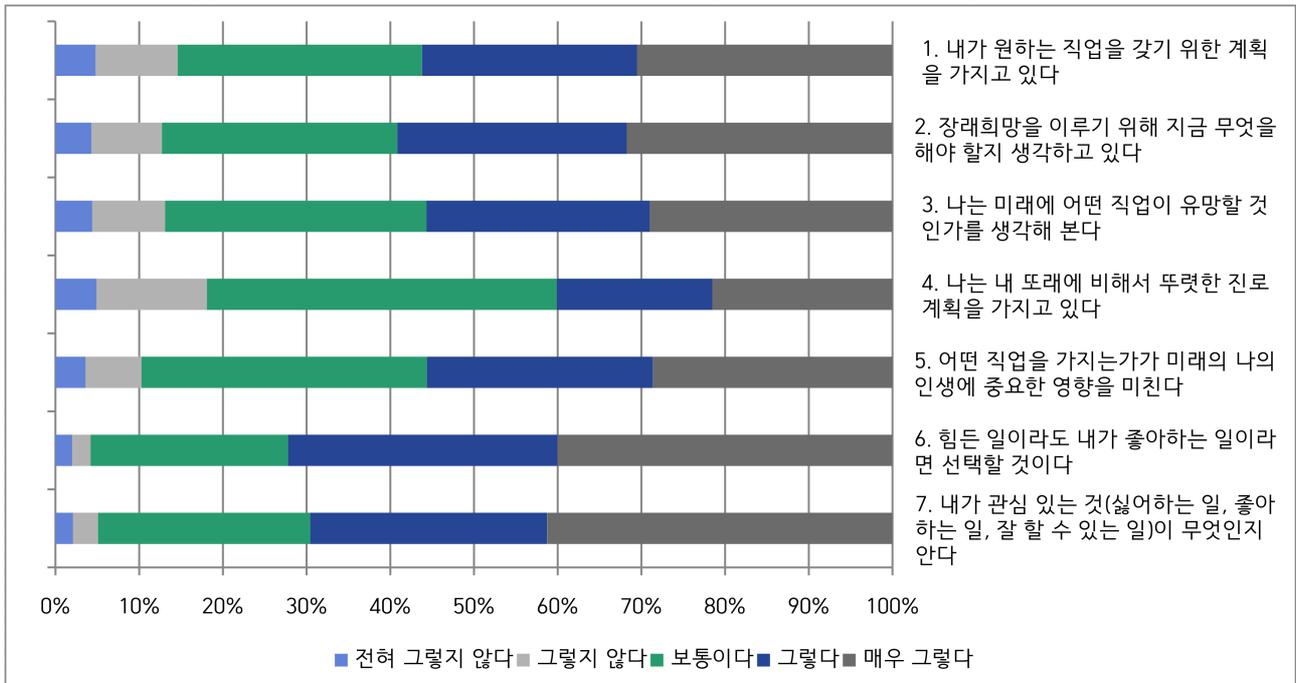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의 하위 세부 조사 문항에 대해 응답 비율 및 인원을 확인하면, ‘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는 [매우 그렇다] 40.0%(979명), [그렇다] 32.2%(789명), [보통이다] 23.6%(579명)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7. 내가 관심 있는 것(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매우 그렇다] 41.3%(1,011명), [그렇다] 28.3%(692명), [보통이다] 25.4%(621명)로 나타났으며,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는 [매우 그렇다] 31.7%(777명), [그렇다] 27.4%(672명), [보통이다] 28.1%(689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86 초등학생_진로성숙도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18	4.8%	240	9.8%	715	29.2%	630	25.7%	746	30.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105	4.3%	206	8.4%	689	28.1%	672	27.4%	777	31.7%
3.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07	4.4%	212	8.7%	767	31.3%	653	26.7%	710	29.0%
4.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19	4.9%	323	13.2%	1,024	41.8%	456	18.6%	527	21.5%
5.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88	3.6%	165	6.7%	834	34.1%	662	27.0%	700	28.6%
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49	2.0%	53	2.2%	579	23.6%	789	32.2%	979	40.0%
7. 내가 관심 있는 것(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52	2.1%	73	3.0%	621	25.4%	692	28.3%	1,011	41.3%

그림 2-86 초등학생_진로성숙도 비율



학업성취도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영역을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학업성취도는 초등학생이 평소 본인이 인지하는 학업성취도 수준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학업성취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제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과목별 학업성취도 수준, 주요 응답 비율 등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인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과목별 학습 수준을 비교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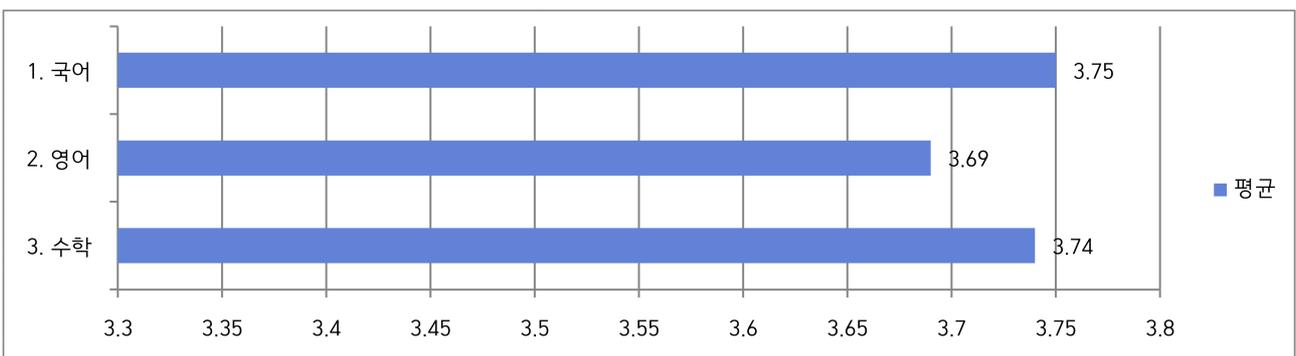
❖ 학업성취도

-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국어, 영어, 수학의 3개 과목으로 구성된 하위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낮은 편이다 ~ 5점: 매우 높은 편이다)로 측정되었다. 학업성취도(전체)의 평균은 3.73점으로 '보통이다'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국어는 평균 3.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영어는 평균 3.6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35~0.47, 첨도 절댓값은 0.1~0.45로 자료의 정규성이 충족되었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5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2-87 초등학생_학업성취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국어	2,449	1.00	5.00	3.75	0.87	-0.35	0.10	0.65	0.75
2. 영어	2,449	1.00	5.00	3.69	1.07	-0.45	-0.45	0.68	
3. 수학	2,449	1.00	5.00	3.74	1.04	-0.47	-0.37	0.68	
학업성취도(전체)	2,449	1.00	5.00	3.73	0.82	-0.33	0.01	-	-

그림 2-87 초등학생_학업성취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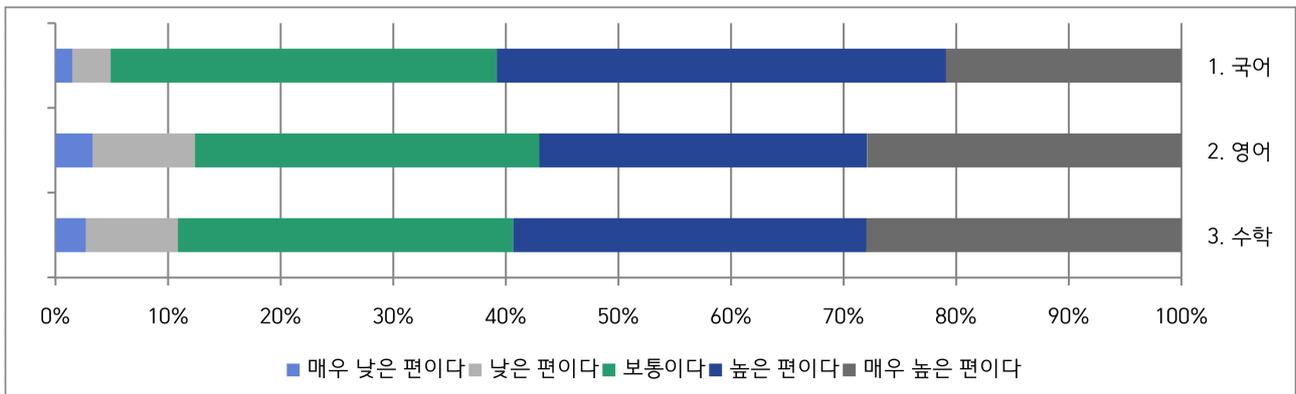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분석한 결과, 국어 과목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9%(513명), [높은 편이다] 39.9%(976명), [보통이다] 34.3%(840명)로 나타났다. 수학 과목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28.0%(685명), [높은 편이다] 31.4%(769명), [보통이다] 29.8%(730명)로 조사되었으며, 영어 과목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27.9%(683명), [높은 편이다] 29.1%(713명), [보통이다] 30.6%(749명)로 분석되었다.

표 2-88 초등학생_학업성취도 빈도분석

구분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N	%	N	%	N	%	N	%	N	%
1. (학업성취도)국어	37	1.5%	83	3.4%	840	34.3%	976	39.9%	513	20.9%
2. (학업성취도)영어	82	3.3%	222	9.1%	749	30.6%	713	29.1%	683	27.9%
3. (학업성취도)수학	65	2.7%	200	8.2%	730	29.8%	769	31.4%	685	28.0%

그림 2-88 초등학생_학업성취도 비율



성취도 진단

❖ 개요

-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성취도 진단은 경북 지역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학습 성장과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2024년 경북교육중단연구 1차년도(2024) 초4 성취도검사 문항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된 문항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문항 분석에는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 CTT)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성태제, 2009)을 적용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jMetrik 4.1.1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국어 2,642명, 수학 2,646명의 학생이었다. 국어와 수학의 본 검사의 문항 구성 및 교과역량별 문항 배분을 분석한 결과, 각 교과의 특성과 학습 목표에 따라 문항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국어 본 검사 문항을 살펴보면, 읽기 영역(30.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쓰기(25.0%)와 문학(25.0%)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었다. 문법 영역(20.0%)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어의 기초적인 문법적 이해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 검사는 독해력, 작문 능력, 문법 지식, 문학적 감수성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교과역량별 문항 분포를 살펴보면, 비판적·창의적 사고(25.0%)와 의사소통(25.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어 교육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동체·대인관계(20.0%), 문화향유(15.0%), 자료정보활용(10.0%), 자기성찰·계발(5.0%)이 포함되어 있어, 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편, 수학 본 검사 문항은 수와 연산(56.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측정(15.0%), 도형(10.0%), 자료와 가능성(10.0%) 순으로 분포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 연산 능력을 핵심으로 다루면서도, 다양한 수학 개념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학 교과역량별 문항 배분을 보면, 추론(30.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문제 해결(25.0%)과 의사소통(25.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처리(15.0%)와 연결(5.0%) 역량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수학 개념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진단이 구성되었다.
- 국어 과목 기술통계 결과, 응답 값의 최소값은 0.00점, 최대값은 20.0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13.29점, 표준편차는 3.92로 확인되었다. 점수 분포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왜도(Skewness)는 -0.62, 첨도를 나타내는 첨도(Kurtosis)는 0.02로 나타나, 점수 분포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0.777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 과목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응답 값의 최소값은 0.00점, 최대값은 20.00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점수는 12.47점, 표준편차는 4.59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왜도(Skewness)는 -0.31, 첨도를 나타내는 첨도(Kurtosis)는 -0.81로 분석되어, 점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깝지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34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국어 문항 정보

-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문항들은 문학, 문법, 읽기, 쓰기 등 다양한 내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해당 성취기준과 교과역량에 따라 구성되었다. 또한, 선다형과 서답형 문항이 혼합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에서는 공통 지문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국어1, 국어2, 국어10, 국어17으로, 주로 작품 감상과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국어1은 감각적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이며, 국어2는 작품을 듣거나 읽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국어10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는 활동을 요구하며, 국어17은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이와 같이 문학 영역의 문항들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감상 능력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3, 국어8, 국어12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낱말의 의미 관계 파악, 문장의 짜임 이해, 높임법 사용 등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국어3은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능력을, 국어8은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또한, 국어12는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실생활에서의 국어 사용과 관련된 학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읽기 영역은 국어4, 국어6, 국어7, 국어11, 국어13, 국어15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국어4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는 능력을 측정하며, 국어6과 국어13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국어11과 국어15는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을 진단하여, 학생들의 독해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쓰기 영역에서는 국어5, 국어9, 국어14, 국어16, 국어18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중심 문장을 갖춘 문단 작성,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등이 진단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국어5와 국어14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활용하여 문단을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국어9와 국어16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글쓰기 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국어18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구성하는 글쓰기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글을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선다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서답1, 서답2)로 이루어져 있다. 서답형 문항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유도하고 개방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다 심층적인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공통 지문을 활용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지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2-89 국어 문항 정보

문항번호	내용영역	성취기준	교과역량	국어자료	문항유형	배점	비고
국어1	문학	[4국05-01]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문화향유	문학	선다	5	공통 지문
국어2	문학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의사소통	문학	선다	5	

문항번호	내용영역	성취기준	교과역량	국어자료	문항유형	배점	비고
국어3	문법	[4국04-01]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의사소통	설명	선다	5	공통 지문
국어 서답1	문법	[4국04-03]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문화향유	설명	서답	5	
국어4	읽기	[4국02-02]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비판적창의적사고	설득	선다	5	공통 지문
국어5	쓰기	[4국03-01]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쓴다.	자료정보활용	설득	선다	5	
국어6	읽기	[4국02-04]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비판적창의적사고	설득	선다	5	공통 지문
국어7	읽기	[4국02-02] 글의 유형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공동체대인 관계	설득	선다	5	
국어8	문법	[4국04-02]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비판적창의적사고	낱말	선다	5	
국어9	쓰기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의사소통	설명	선다	5	
국어 서답2	문학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공동체대인 관계	문학	서답	5	공통 지문
국어10	문학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문화향유	문학	선다	5	
국어11	읽기	[4국02-01]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의사소통	친교	선다	5	공통 지문
국어12	문법	[4국04-04]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공동체대인 관계	친교	선다	5	
국어13	읽기	[4국02-04]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비판적창의적사고	설득	선다	5	공통 지문
국어14	쓰기	[4국03-01]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쓴다.	비판적창의적사고	설득	선다	5	
국어15	읽기	[4국02-01]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공동체대인 관계	설득	선다	5	
국어16	쓰기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의사소통	설명	선다	5	
국어17	문학	[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기성찰개발	문학	선다	5	공통 지문
국어18	쓰기	[4국03-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자료정보활용	문학	선다	5	

❖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문항 반응

○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국어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 문항별 정답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정답률이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이 구분되었으며, 우선, 정답률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국어 2(90.2%), 국어5(86.1%), 국어8(86.5%), 국어9(81.9%), 국어10(70.8%), 국어11(76.8%), 국어12(78.9%), 국어14(72.1%), 국어15(73.0%), 국어18(72.5%)에서 정답률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2, 국어5, 국어8은 85%를 넘는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항들은 정답 선택 비율이 집중되어 있으며, 오답 선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습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도 확인되었다. 국어1(52.7%), 국어3(55.6%), 국어4(68.4%), 국어6(54.0%), 국어7(59.2%), 국어13(60.9%), 국어16(30.7%), 국어17(50.2%)에서는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국어16의 경우 정답률이 30.7%로 가장 낮았다. 이

는 해당 문항이 난이도가 높거나, 학생들이 정확한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무응답 및 오기입 비율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0.2%에서 2.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국어16(1.9%), 국어17(2.2%), 국어18(2.4%)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무응답 비율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문항들이 학생들에게 난이도가 높거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가능성이 있다. 정답률이 낮은 문항에 대한 학습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정답률이 현저히 낮은 문항은 학생들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학습 지원이 요구된다.

-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문학, 문법, 읽기, 쓰기 영역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정 학습 요소가 확인된다. 우선, 문학 영역에서는 국어1(52.7%)과 국어17(50.2%)의 정답률이 낮아, 작품 감상 능력과 감정 표현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국어1은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문학적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감각적 표현을 직접 찾아보고 감상을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감상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국어17은 작품을 감상하며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정답률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감상보다는 단순한 내용 이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문학 감상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추가하여 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3(55.6%)과 국어6(54.0%)의 정답률이 낮아, 기본적인 국어 사용 능력과 문법 개념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국어3은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국어사전 활용법과 낱말의 의미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어사전 사용법을 실습하고 다양한 유형의 낱말 분류 활동을 제공하여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6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정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글을 분석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습을 반복하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활동을 추가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읽기 영역에서는 국어4(68.4%)와 국어13(60.9%)의 정답률이 낮아, 중심 내용 요약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이 필요하다. 국어4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글에서 주요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요약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어13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문항으로, 국어6과 유사하게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글을 분석하는 연습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글을 제공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반복하여 사고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쓰기 영역에서는 국어16(30.7%)의 정답률이 가장 낮아,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국어16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짧은 글을 써보며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국어7(59.2%) 역시 정답률이 낮아,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글쓰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문학 감상 능력, 문법 개념 이해, 비판적 읽기, 논리적 글쓰기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학 감상 활동을 강화하고, 문법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읽기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글쓰기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서답형 문항 분석 결과, 국어19 문항의 정답률은 50.0%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문항이 학생들에게 비교적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정답과 오답이 균등하게 분포된 점을 고려할 때 개념 학습 강화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국어20 문항은 정답률 59.2%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보완 학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어19 문항은 개념 이해도에 대한 추가 분석과 학습 보완이 필요하며, 국어20 문항은 개념 설명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 서답1 문항은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문법 개념을 이해하더라도 표현상의 실수로 인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명확히 분석하는 연습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장 구조를 연습하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 서답2 문항은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을 분석하여 작품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해야 한다.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학생들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품의 주요 요소(인물, 사건, 배경)를 정리하는 연습을 반복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표 2-90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응답 비율

문항번호	응답 비율						정답
	1	2	3	4	5	무응답/오기입	
국어1	3.9%	52.7%	2.5%	32.7%	8.1%	0.2%	2
국어2	6.3%	1.6%	1.0%	90.2%	0.8%	0.2%	4
국어3	8.2%	13.3%	13.3%	55.6%	8.9%	0.8%	4
국어4	13.9%	2.2%	68.4%	4.4%	10.9%	0.2%	3
국어5	4.6%	86.1%	2.7%	4.0%	2.3%	0.2%	2
국어6	12.0%	54.0%	14.2%	7.8%	11.6%	0.4%	2
국어7	2.0%	59.2%	1.8%	1.4%	35.2%	0.4%	2
국어8	5.6%	3.9%	2.1%	86.5%	1.5%	0.4%	4
국어9	2.1%	10.2%	2.5%	2.8%	81.9%	0.5%	5
국어10	6.9%	10.5%	2.5%	8.5%	70.8%	0.8%	5
국어11	3.9%	13.2%	3.0%	2.2%	76.8%	1.0%	5
국어12	2.0%	5.5%	3.5%	9.2%	78.9%	1.0%	5
국어13	11.4%	3.8%	12.7%	9.6%	60.9%	1.7%	5

문항번호	응답 비율						정답
	1	2	3	4	5	무응답/오기입	
국어14	8.0%	5.4%	3.1%	10.1%	72.1%	1.3%	5
국어15	4.0%	9.4%	5.6%	73.0%	6.4%	1.7%	4
국어16	33.4%	13.9%	30.7%	10.4%	9.7%	1.9%	3
국어17	15.7%	9.4%	14.3%	8.1%	50.2%	2.2%	5
국어18	10.8%	72.5%	9.1%	3.0%	2.2%	2.4%	2

❖ 국어 고전검사이론 및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 결과

-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문항에 대한 고전검사이론(CTT)과 문항반응이론(IRT) 분석 결과, 문항 별 난이도와 변별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CTT 기준 난이도를 살펴보면 국어2, 국어5, 국어8, 국어9의 문항이 매우 쉬운 범위(0.80 이상)로 나타났으며, 국어4, 국어10, 국어11, 국어12, 국어13, 국어14, 국어15, 국어18은 쉬운 범위(0.60 이상 0.80 미만)에 속했다. 중간 난이도(0.40 이상 0.60 미만) 문항은 국어1, 국어3, 국어6, 국어7, 국어17, 국어서답1, 국어서답2로 확인되었으며, 국어16은 어려운 문항(0.20 이상 0.40 미만)에 해당했다. 매우 어려운 문항(0.00 이상 0.20 미만)은 존재하지 않았다. 변별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CTT 기준에서 변별도가 높은 문항(0.40 이상)은 국어11, 국어12, 국어14로 확인되었으며, 변별도가 적절한 문항(0.30 이상 0.39 미만)은 국어3, 국어4, 국어5, 국어6, 국어8, 국어9, 국어10, 국어13, 국어15, 국어17, 국어18, 국어서답1, 국어서답2로 나타났다. 변별도가 낮은 문항(0.20 이상 0.29 미만)은 국어1, 국어2, 국어16이었으며, 매우 낮은 문항(0.10 이상 0.19 미만)은 국어7이었다. 변별도가 전혀 없는 문항(0.10 미만)은 존재하지 않았다.
- IRT 기준으로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쉬운 문항(-2.0 이하)은 국어2 한 개 문항이었으며, 쉬운 문항(-2.0 ~ -0.5)은 국어4, 국어5, 국어7, 국어8, 국어9, 국어10, 국어11, 국어12, 국어13, 국어14, 국어15, 국어18로 나타났다. 중간 난이도 문항(-0.5 ~ 0.5)은 국어1, 국어3, 국어6, 국어17, 국어서답1, 국어서답2였으며, 어려운 문항(0.5 ~ 2.0)은 국어16이었다. 매우 어려운 문항(2.0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IRT 변별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변별도가 높은 문항(1.35 이상 1.69 이하)은 국어5, 국어8, 국어12로 확인되었으며, 변별도가 적절한 문항(0.65 이상 1.34 이하)은 국어1, 국어2, 국어3, 국어4, 국어6, 국어9, 국어10, 국어11, 국어13, 국어14, 국어15, 국어16, 국어17, 국어18, 국어서답1, 국어서답2로 나타났다. 변별도가 낮은 문항(0.35 이상 0.64 이하)은 국어7이었으며, 거의 없는 문항(0.01 이상 0.34 이하)과 변별도가 없는 문항(0.00)은 존재하지 않았다.
- 향후 진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변별도가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항반응 분석을 통해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서술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91 국어의 고전검사이론 및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 결과

문항번호	고전검사이론(CTT)		문항반응이론(IRT)	
	난이도	변별도	난이도	변별도
국어1	0.53	0.26	-0.16	0.66
국어2	0.90	0.26	-2.55	1.02
국어3	0.56	0.39	-0.24	1.14
국어4	0.68	0.30	-1.05	0.84
국어5	0.86	0.38	-1.66	1.49
국어6	0.54	0.38	-0.18	1.09
국어7	0.59	0.18	-0.87	0.44
국어8	0.86	0.37	-1.73	1.40
국어9	0.82	0.35	-1.59	1.17
국어10	0.71	0.32	-1.15	0.90
국어11	0.77	0.40	-1.20	1.30
국어12	0.79	0.42	-1.21	1.49
국어13	0.61	0.37	-0.52	1.04
국어14	0.72	0.42	-0.94	1.34
국어15	0.73	0.32	-1.25	0.93
국어16	0.31	0.22	1.35	0.66
국어17	0.50	0.33	-0.00	0.90
국어18	0.72	0.39	-1.01	1.22
국어서답1	0.50	0.36	0.00	1.03
국어서답2	0.59	0.39	-0.41	1.13

표 2-92 국어 고전검사이론 문항 난이도 결과

범위 (기준값)	문항수	문항번호
매우 쉽다 .80이상 ~ 1.0미만	4	2, 5, 8, 9
쉽다 .60이상 ~ .80미만	8	4, 10, 11, 12, 13, 14, 15, 18
중간이다 .40이상 ~ .60미만	7	1, 3, 6, 7, 17, 서답1, 서답2
어렵다 .20이상 ~ .40미만	1	16
매우 어렵다 .00 ~ .20미만	0	-
전체	20	-

표 2-93 국어 고전검사이론 문항 변별도 결과

범위 (기준값)	문항수	문항번호
높다 .40이상	3	11, 12, 14
적절하다 .30 ~ .39	13	3, 4, 5, 6, 8, 9, 10, 13, 15, 17, 18, 서답1, 서답2
낮다 .20 ~ .29	3	1, 2, 16,
매우 낮다 .10 ~ .19	1	7
없다 .10미만	0	-
전체	20	-

표 2-94 국어 문항반응이론 문항 난이도 결과

범위 (기준값)	문항수	문항번호
매우 쉽다 -2.00이하	1	2
쉽다 -2.0~-1.5	12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8
중간이다 -1.5~+1.5	6	1, 3, 6, 17, 서답1, 서답2
어렵다 +1.5~+2.0	1	16
매우 어렵다 +2.0이상	0	-
전체	20	-

표 2-95 국어 문항반응이론 문항 변별도 결과

범위 (기준값)		문항수	문항번호
매우 높다	1.70~	0	-
높다	1.35~1.69	3	5, 8, 12
적절하다	.65~1.34	16	1, 2, 3, 4, 6, 9, 10, 11, 13, 14, 15, 16, 17, 18, 서답1, 서답2
낮다	.35~.64	1	7
거의 없다	.01~.34	0	-
없다	0.00	0	-
전체	-	20	-

❖ 수학 문항 정보

-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들은 수와 연산, 측정, 도형, 자료와 가능성 등 다양한 내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성취기준과 교과역량(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등)에 맞춰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곱셈, 나눗셈, 분수, 큰 수의 개념 등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1(곱셈 계산 원리), 수학2(나눗셈의 계산 원리), 수학3(분수 이해), 수학4(분수의 크기 비교), 수학5(다섯 자리 이상의 수 이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수학8과 수학9는 나눗셈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문항으로,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수학14(두 자리 수 나눗셈)와 수학15(곱셈 어렵 계산)처럼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연산력과 추론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 영역에서는 수학6(삼각형·사각형의 내각의 합 추론), 수학13(각도기 사용), 수학17(들이의 덧셈과 뺄셈) 등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학생들이 측정 개념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수학6은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 합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수학13은 각도의 크기를 측정하고 어렵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도형 영역에서는 수학10(평면도형의 이동과 무늬 꾸미기), 수학19(도형의 이동과 변형) 등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도형의 변화를 관찰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공간 감각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수학19는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이용한 도형의 변화를 다루어, 학생들이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수학11(그림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수학20(자료의 수집·정리·해석)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정보처리와 의사소통 역량을 진단하는 데 중점을 두며,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프를 활용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수학20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한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는 능력을 진단한다. 교과 역량 측면에서 보면, 수학 문항들은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정보처리, 창의융합 등의 다양한 역량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제해결 역량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예: 수학8, 수학17)에서 강조되었으며, 추론 역량은 논리적 분석과 수학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과정(예: 수학6, 수학12)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역량은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예: 수학3, 수학15)과 관련되며, 정보처리 역량은

수학적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예: 수학5, 수학11)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항은 기본적인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을 균형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표 2-96 수학 문항 정보

문항번호	내용 영역	성취기준	교과역량(하위요소)	배점
수학1	수와 연산	[4수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문제해결(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추론(논리적 절차 수행)	5
수학2	수와 연산	[4수01-08]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의 의미를 안다.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이해) 추론(논리적 절차 수행)	5
수학3	수와 연산	[4수01-10] 양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다.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이해) 추론(관찰과 추측)	5
수학4	수와 연산	[4수01-11]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 [4수01-12]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단위분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연결(수학 외적 연결) 추론(수학적 사실 분석)	5
수학5	수와 연산	[4수01-02] 다섯 자리 이상의 수의 범위에서 수의 계열을 이해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정보처리(정보 해석 및 활용) 창의융합(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5
수학6	측정	[4수03-14]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추론하고,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해결(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창의융합(수학 내적 연결)	5
수학7	수와 연산	[4수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추론(논리적 절차 수행) 문제해결(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5
수학8	수와 연산	[4수01-07]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문제해결(계획 실행 및 반성) 추론(논리적 절차 수행)	5
수학9	수와 연산	[4수01-07]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추론(논리적 절차 수행) 문제해결(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5
수학10	도형	[4수02-05] 평면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꾸밀 수 있다.	추론(관찰과 추측)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개발 및 변환)	5
수학11	자료와 가능성	[4수05-01]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 그래프나 막대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정보처리(정보 해석 및 활용)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이해)	5
수학12	수와 연산	[4수01-01] 10000 이상의 큰 수에 대한 자릿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고,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추론(수학적 사실 분석)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이해)	5
수학13	측정	[4수03-12] 각의 크기의 단위인 1도(°)를 알고,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이해) 문제해결(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5
수학14	수와 연산	[4수01-09] 나누는 수가 두 자리 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보처리(정보 해석 및 활용) 창의융합(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5
수학15	수와 연산	[4수01-06]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에서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추론(관찰과 추측)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이해)	5
수학16	수와 연산	[4수01-08]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의 의미를 안다.	문제해결(계획 실행 및 반성) 추론(정당화)	5
수학17	측정	[4수03-07] 실생활 문제 상황을 통하여 들이의 덧셈과 뺄셈을 이해한다.	문제해결(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연결(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5
수학18	수와 연산	[4수01-06]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에서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이해) 정보처리(정보 해석 및 활용)	5
수학19	도형	[4수02-04] 구체물이나 평면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이해한다.	추론(관찰과 추측)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개발 및 변환)	5
수학20	자료와 가능성	[4수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수학적 표현의 이해) 정보처리(정보 해석 및 활용)	5

❖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항 반응

-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학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 문항별 정답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부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정답을 쉽게 찾았지만, 몇몇 문항에서는 오답 선택이 많거나 정답률이 낮아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정답률이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구분하고, 학생들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답률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수학1(71.2%), 수학3(72.5%), 수학5(71.6%), 수학6(69.6%), 수학7(65.7%), 수학10(65.6%), 수학11(69.7%), 수학12(69.8%), 수학13(83.5%), 수학15(64.0%), 수학16(57.3%), 수학17(74.1%), 수학18(58.5%), 수학19(65.5%)에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특히 수학13(83.5%)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학생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60~70%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한 문항들은 학습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으며,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답률이 낮은 문항도 확인되었으며, 수학2(48.8%), 수학8(25.9%), 수학9(52.1%), 수학14(47.5%), 수학20(46.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수학8의 경우 정답률이 낮아 이는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무응답 및 오기입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0.1%~2.0% 수준으로 낮았으나, 일부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무응답 비율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문항들이 학생들에게 난이도가 높거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에 대한 보완 학습이 요구된다. 특히 수학8 등과 같이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개념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혼동하는 요소에 대해서 향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을 강화해야 할 영역을 살펴보면, 수와 연산, 도형,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눗셈, 그래프 해석,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개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수학2(48.8%), 수학8(25.9%), 수학9(52.1%), 수학14(47.5%)의 정답률이 낮아, 나눗셈 개념과 계산 과정의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수학2는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나눗셈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눗셈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구체물을 활용한 학습이 필요하다. 수학8과 수학9는 실생활에서 나눗셈이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수학8의 정답률이 특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추가하고,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학14의 경우, 두 자리 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다루는 문항으로, 높은 자리수의 계산 과정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나눗셈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연습과 더불어, 어렵 계산을 활용하는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형 영역에서는 수학10(65.6%), 수학19(65.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도형의 이동과 변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학10은 평면도형의 이동을 활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드는 능력을 진단

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도형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도형을 움직여 보거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도형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학19는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해 도형의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도형의 성질과 이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수학20(46.1%)의 정답률이 낮아,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수학20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해석하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막대그래프, 그림그래프 등 다양한 그래프 유형을 비교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로 표현해보는 프로젝트형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료 분석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나눗셈의 개념과 활용, 도형의 이동과 변형, 그래프 해석과 자료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을 강화하고, 도형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며, 실생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보완해야 한다.

표 2-97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응답 비율

구분	응답 비율						무응답/오기입	정답
	1	2	3	4	5			
수학1	24.3%	1.9%	71.2%	2.3%	0.3%	0.1%	3	
수학2	15.7%	48.8%	9.3%	6.9%	18.6%	0.7%	2	
수학3	72.5%	8.3%	6.1%	3.4%	9.1%	0.6%	1	
수학4	3.8%	9.2%	12.9%	4.5%	69.4%	0.2%	5	
수학5	71.6%	6.2%	2.3%	1.3%	18.5%	0.2%	1	
수학6	9.8%	10.2%	69.6%	5.4%	4.7%	0.3%	3	
수학7	7.7%	10.8%	7.9%	65.7%	7.3%	0.6%	4	
수학8	51.5%	25.9%	9.8%	6.8%	5.3%	0.7%	2	
수학9	10.3%	17.8%	52.1%	12.2%	5.6%	2.0%	3	
수학10	13.8%	3.9%	6.3%	65.6%	9.9%	0.6%	4	
수학11	3.0%	2.1%	8.1%	16.5%	69.7%	0.6%	5	
수학12	3.0%	3.8%	69.8%	6.1%	16.7%	0.6%	3	
수학13	83.5%	11.2%	2.5%	1.5%	0.7%	0.6%	1	
수학14	9.5%	47.5%	19.6%	11.9%	9.8%	1.7%	2	
수학15	10.6%	64.0%	5.4%	6.4%	12.6%	0.9%	2	
수학16	57.3%	8.8%	13.9%	9.8%	8.5%	1.7%	1	
수학17	5.0%	3.7%	74.1%	12.3%	3.7%	1.2%	3	
수학18	7.6%	6.1%	5.7%	20.3%	58.5%	1.8%	5	
수학19	12.1%	5.5%	7.1%	7.9%	65.5%	1.9%	5	
수학20	25.5%	9.7%	12.7%	46.1%	4.3%	1.7%	4	

❖ 수학 고전검사이론 및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 결과

- 수학 문항의 고전검사이론(CTT) 및 문항반응이론(IRT)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전검사이론(CTT) 기준에서 문항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쉽다’(0.60 이상 ~ 0.80 미만)에 해당하는 문항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이다’(0.40 이상 ~ 0.60 미만) 수준의 문항이 6개로 나타났다. ‘어렵다’(0.20 이상 ~ 0.40 미만)에 해당하는 문항은 수학8 단 하나였으며, ‘매우 쉽다’ 또는 ‘매우 어렵다’에 해당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문항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항이 부족하여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변별도의 경우, CTT 기준에서는 변별도가 높은 문항(0.40 이상)이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변별도가 적절한 문항(0.30 ~ 0.39)은 3개로 나타났다. 반면, 변별도가 낮거나 매우 낮은 문항(0.10 ~ 0.29)은 3개였으며, 변별도가 없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문항이 학생들의 능력 차이를 효과적으로 변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변별도가 낮은 문항도 있었다.
- 문항반응이론(IRT) 기준에서 문항의 난이도를 살펴본 결과, ‘쉽다’(-2.0 ~ -0.5) 범주에 속하는 문항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이다’(-0.5 ~ +0.5)에 속하는 문항은 6개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어렵다’(+2.0 이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수학8 단 하나였으며, ‘어렵다’(+0.5 ~ +2.0)에 해당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항반응이론(IRT) 기준에서 변별도를 분석한 결과, 변별도가 매우 높은 문항(≥ 1.70)은 3개(수학6, 16, 18)였으며, 변별도가 높은 문항(1.35 ~ 1.69)은 6개(수학3, 7, 13, 15, 17, 19)로 나타났다. 변별도가 적절한 문항(0.65 ~ 1.34)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변별도가 낮은 문항(0.35 ~ 0.64)은 2개(수학5, 8)로 확인되었다. 변별도가 거의 없거나(≤ 0.34) 전혀 없는(0.00) 문항은 없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문항이 변별력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수학 진단에서는 난이도를 다양하게 조정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폭넓게 측정하고, 변별력이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평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문항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 2-98 수학의 고전검사이론 및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 결과

문항번호	고전검사이론(CTT)		문항반응이론(IRT)	
	난이도	변별도	난이도	변별도
수학1	0.71	0.27	-1.38	0.73
수학2	0.49	0.42	0.04	1.15
수학3	0.72	0.44	-0.94	1.38
수학4	0.69	0.36	-0.98	1.00
수학5	0.71	0.21	-1.84	0.53
수학6	0.70	0.51	-0.72	1.78
수학7	0.66	0.46	-0.65	1.39
수학8	0.26	0.14	2.75	0.40
수학9	0.52	0.43	-0.10	1.24
수학10	0.66	0.40	-0.71	1.16
수학11	0.70	0.39	-0.91	1.14
수학12	0.70	0.42	-0.86	1.28
수학13	0.83	0.38	-1.52	1.41

문항번호	고전검사이론(CTT)		문항반응이론(IRT)	
	난이도	변별도	난이도	변별도
수학14	0.47	0.43	0.10	1.24
수학15	0.64	0.46	-0.57	1.42
수학16	0.57	0.53	-0.27	1.76
수학17	0.74	0.44	-1.00	1.46
수학18	0.58	0.55	-0.31	1.89
수학19	0.65	0.47	-0.61	1.48
수학20	0.46	0.41	0.17	1.14

표 2-99 수학 고전검사이론 문항 난이도 결과

범위 (기준값)		문항수	문항번호
매우 쉽다	.80이상 ~ 1.0미만	-	-
쉽다	.60이상 ~ .80미만	13	1, 3, 4, 5, 6, 7, 10, 11, 12, 13, 15, 17, 19
중간이다	.40이상 ~ .60미만	6	2, 9, 14, 16, 18, 20
어렵다	.20이상 ~ .40미만	1	8
매우 어렵다	.00 ~ .20미만	-	-
전체	-	20	-

표 2-100 수학 고전검사이론 문항 변별도 결과

범위 (기준값)		문항수	문항번호
높다	.40이상	14	2, 3, 6, 7, 9, 10, 12, 14, 15, 16, 17, 18, 19, 20
적절하다	.30 ~ .39	3	4, 11, 13
낮다	.20 ~ .29	2	1, 5
매우 낮다	.10 ~ .19	1	8
없다	.10미만	-	-
전체	-	20	-

표 2-101 수학 문항반응이론 문항 난이도 결과

범위 (기준값)		문항수	문항번호
매우 쉽다	-2.0이하	-	-
쉽다	-2.0~-1.5	13	1, 3, 4, 5, 6, 7, 10, 11, 12, 13, 15, 19, 17
중간이다	-1.5~+1.5	6	2, 9, 14, 16, 18, 20
어렵다	+1.5~+2.0	-	-
매우 어렵다	+2.0이상	1	8
전체	-	20	-

표 2-102 수학 문항반응이론 문항 변별도 결과

범위 (기준값)		문항수	문항번호
매우 높다	1.70~	3	6, 16, 18
높다	1.35~1.69	6	3, 7, 13, 15, 17, 19
적절하다	.65~1.34	9	1, 2, 4, 9, 10, 11, 12, 14, 20
낮다	.35~.64	2	5, 8
거의 없다	.01~.34	-	-
없다	0.00	-	-
전체	-	20	-

III

성별에 따른
학생 조사결과
비교 분석



제 III 장

성별에 따른 학생 조사결과 비교 분석

성별 집단 간 비교 분석 방법

- 이 단락에서는 성별 집단 간의 평균 차이 확인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시행하여,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학생생활 영역

-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생생활 영역에서 봉사활동 참여 경험, 비행활동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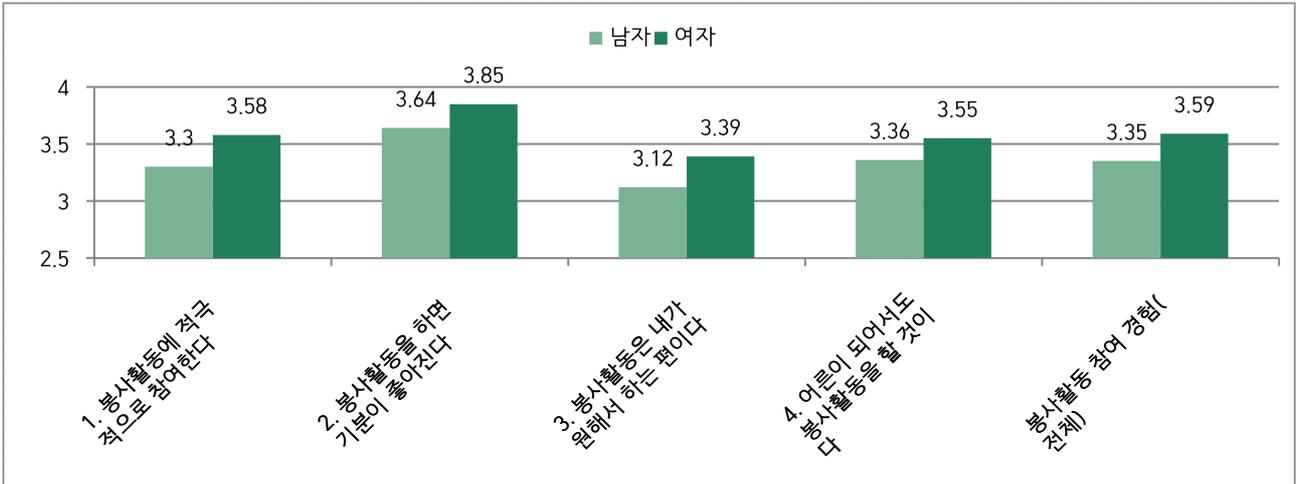
❖ 봉사활동 참여 경험

- 초등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1.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남학생 3.30점, 여학생 3.58점으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t=-6.427$, $p<0.001$), '2.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또한 남학생 3.64점, 여학생 3.85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t=-4.962$, $p<0.001$). '3. 봉사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편이다.'는 남학생 3.12점, 여학생 3.39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6.237$, $p<0.001$), '4.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역시 남학생 3.36점, 여학생 3.55점으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t=-4.483$, $p<0.001$). '봉사활동 참여 경험(전체)'에서는 남학생 3.35점, 여학생 3.59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6.639$, $p<0.001$).

표 3-1 성별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 경험 비교 분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남자	1,250	3.30	1.12	-6.427	<0.001	-0.282
	여자	1,199	3.58	1.05			
2.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남자	1,250	3.64	1.10	-4.962	<0.001	-0.211
	여자	1,199	3.85	1.00			
3. 봉사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편이다	남자	1,250	3.12	1.09	-6.237	<0.001	-0.270
	여자	1,199	3.39	1.05			
4.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남자	1,250	3.36	1.10	-4.483	<0.001	-0.192
	여자	1,199	3.55	1.02			
봉사활동 참여 경험(전체)	남자	1,250	3.35	0.92	-6.639	<0.001	-0.239
	여자	1,199	3.59	0.85			

그림 3-1 성별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 경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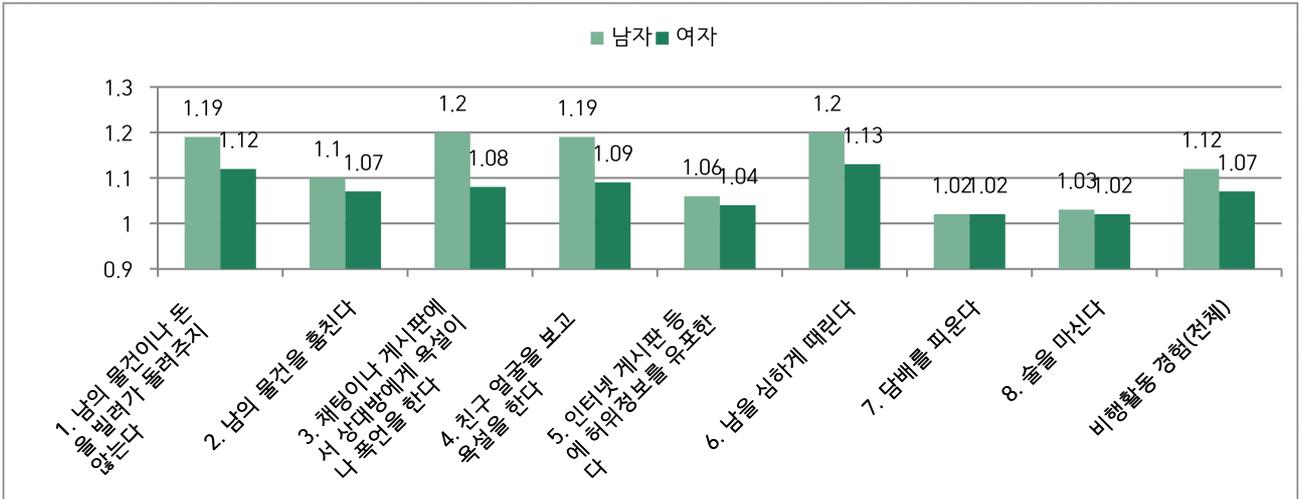
❖ 비행활동 경험

○ 초등학교의 비행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학생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비행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다'(t=3.174, p=0.002), '3.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다'(t=6.631, p<0.001), '4. 친구 얼굴을 보고 욕설을 한다'(t=5.582, p<0.001)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7. 담배를 피운다'(t=-0.107, p=0.915)와 '8. 술을 마신다'(t=1.229, p=0.219)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 평균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비행활동 경험(전체)에서는 남학생이 1.12점, 여학생이 1.07점을 기록하며,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5.486, p<0.001).

표 3-2 성별에 따른 비행활동 경험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다	남자	1,250	1.19	0.60	3.174	0.002	0.068
	여자	1,199	1.12	0.45			
2. 남의 물건을 훔친다	남자	1,250	1.10	0.37	2.897	0.004	0.039
	여자	1,199	1.07	0.29			
3.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다	남자	1,250	1.20	0.53	6.631	<0.001	0.116
	여자	1,199	1.08	0.31			
4. 친구 얼굴을 보고 욕설을 한다	남자	1,250	1.19	0.51	5.582	<0.001	0.095
	여자	1,199	1.09	0.32			
5.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정보를 유포한다	남자	1,250	1.06	0.32	1.854	0.064	0.022
	여자	1,199	1.04	0.25			
6. 남을 심하게 때린다	남자	1,250	1.20	0.51	3.918	<0.001	0.071
	여자	1,199	1.13	0.38			
7. 담배를 피운다	남자	1,250	1.02	0.18	-0.107	0.915	-0.001
	여자	1,199	1.02	0.15			
8. 술을 마신다	남자	1,250	1.03	0.26	1.229	0.219	0.011
	여자	1,199	1.02	0.18			
비행활동 경험(전체)	남자	1,250	1.12	0.27	5.486	<0.001	0.053
	여자	1,199	1.07	0.20			

그림 3-2 성별에 따른 비행활동 경험 수준



컴퓨터/스마트기기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컴퓨터/스마트기기 영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디지털 기기 의존도, 게임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조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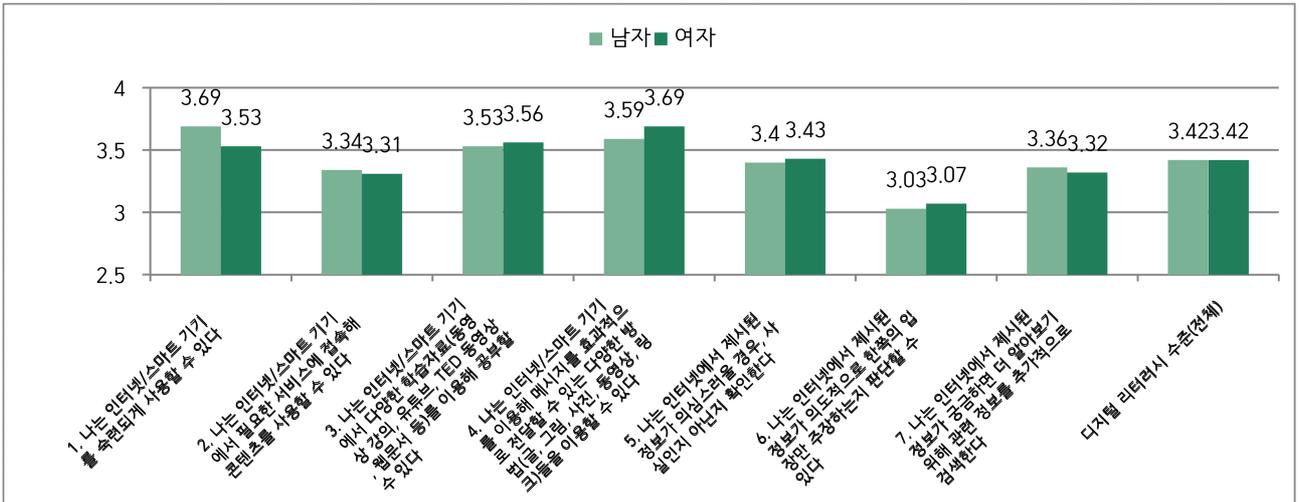
❖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남자 3.69점, 여자 3.53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3.937$, $p<0.001$), ‘2.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남자 3.34점, 여자 3.31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다($t=0.682$, $p=0.495$). 또한, ‘3.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동영상 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는 남자 3.53점, 여자 3.56점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다($t=-0.764$, $p=0.445$). ‘4.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글,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남자 3.59점, 여자 3.69점으로 여자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가 있었다($t=-2.151$, $p=0.032$). ‘5.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심스러울 경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남자 3.40점, 여자 3.43점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다($t=-0.739$, $p=0.460$). ‘6.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남자 3.03점, 여자 3.07점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으며($t=-0.892$, $p=0.372$), ‘7.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궁금하면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한다.’는 남자 3.36점, 여자 3.32점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다($t=0.828$, $p=0.408$).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전체)은 남자 3.42점, 여자 3.42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0.104$, $p=0.917$).

표 3-3 성별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	남자	1,250	3.69	1.05	3.937	<0.001	0.160
	여자	1,199	3.53	0.96			
2.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남자	1,250	3.34	1.25	0.682	0.495	0.033
	여자	1,199	3.31	1.15			
3.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동영상 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	남자	1,250	3.53	1.16	-0.764	0.445	-0.035
	여자	1,199	3.56	1.10			
4.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글,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들을 이용할 수 있다	남자	1,250	3.59	1.16	-2.151	0.032	-0.098
	여자	1,199	3.69	1.08			
5.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심스러울 경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남자	1,250	3.40	1.28	-0.739	0.460	-0.037
	여자	1,199	3.43	1.19			
6.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남자	1,250	3.03	1.12	-0.892	0.372	-0.040
	여자	1,199	3.07	1.08			
7.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궁금하면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한다	남자	1,250	3.36	1.24	0.828	0.408	0.041
	여자	1,199	3.32	1.18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전체)	남자	1,250	3.42	0.86	0.104	0.917	0.003
	여자	1,199	3.42	0.79			

그림 3-3 성별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 디지털 기기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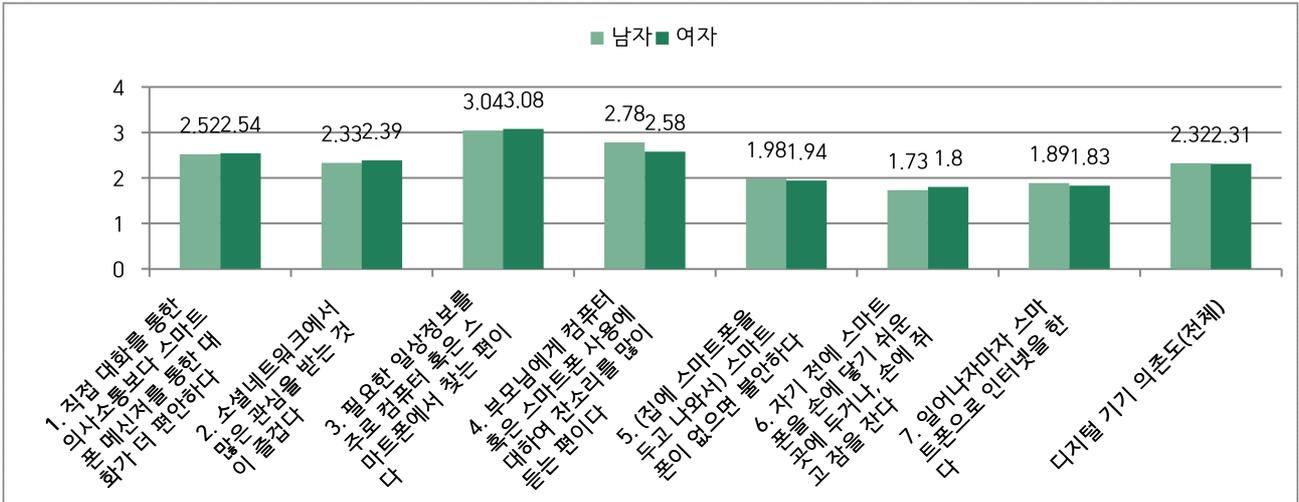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 설문 문항 중에서 ‘1.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더 편하다.’는 남자 2.52점, 여자 2.5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 (t=-0.397, p=0.692), ‘2. 소셜네트워크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즐겁다.’는 남자 2.33점,

여자 2.39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367$, $p=0.172$). 또한, '3.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는 남자 3.04점, 여자 3.08점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다($t=-0.843$, $p=0.399$). '4. 부모님에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는 남자 2.78점, 여자 2.58점으로 남자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가 있었다($t=4.487$, $p<0.001$). 반면, '5.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와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남자 1.98점, 여자 1.9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813$, $p=0.416$). '6.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손에 쥐고 잠을 잔다.'는 남자 1.73점, 여자 1.80점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고($t=-1.522$, $p=0.128$), '7.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남자 1.89점, 여자 1.83점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다($t=1.354$, $p=0.176$). 디지털 기기 의존도(전체)는 남자 2.32점, 여자 2.31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595$, $p=0.552$). 초등학교 남녀 모두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특정 문항에서 남자 초등학교생이 여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표 3-4 성별에 따른 디지털 기기 의존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더 편안하다	남자	1,250	2.52	1.22	-0.397	0.692	-0.019
	여자	1,199	2.54	1.13			
2. 소셜네트워크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즐겁다	남자	1,250	2.33	1.15	-1.367	0.172	-0.062
	여자	1,199	2.39	1.10			
3.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	남자	1,250	3.04	1.14	-0.843	0.399	-0.038
	여자	1,199	3.08	1.11			
4. 부모님에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	남자	1,250	2.78	1.17	4.487	<0.001	0.209
	여자	1,199	2.58	1.13			
5.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와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남자	1,250	1.98	1.11	0.813	0.416	0.036
	여자	1,199	1.94	1.07			
6.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손에 쥐고 잠을 잔다	남자	1,250	1.73	1.08	-1.522	0.128	-0.067
	여자	1,199	1.80	1.10			
7.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남자	1,250	1.89	1.12	1.354	0.176	0.059
	여자	1,199	1.83	1.04			
디지털 기기 의존도(전체)	남자	1,250	2.32	0.71	0.595	0.552	0.017
	여자	1,199	2.31	0.68			

그림 3-4 성별에 따른 디지털 기기 의존도 수준



❖ 게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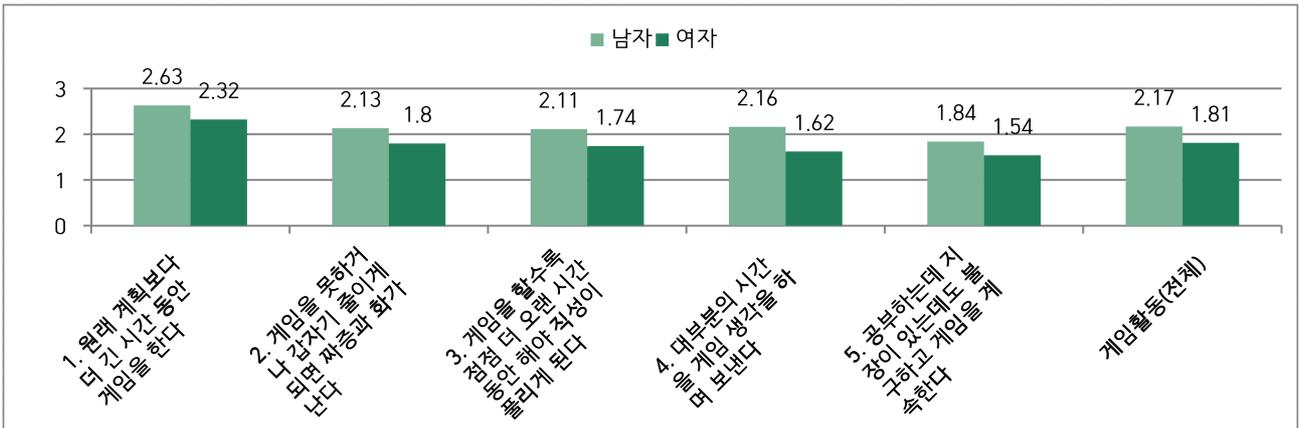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게임활동 설문 문항 중에서 ‘1.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는 남자 2.63점, 여자 2.32점으로 남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평균 차이가 있었다 ($t=7.102, p<0.001$). 또한, ‘2.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과 화가 난다.’는 남자 2.13점, 여자 1.80점으로 남자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고, 평균 차이가 있었다($t=7.991, p<0.001$). ‘3.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는 남자 2.11점, 여자 1.74점으로 남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평균 차이가 있었다($t=9.263, p<0.001$). 이어서 ‘4.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 생각을 하며 보낸다.’는 남자 2.16점, 여자 1.62점으로 남자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평균 차이가 있었다($t=13.804, p<0.001$). ‘5.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한다.’는 남자 1.84점, 여자 1.54점으로 남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평균 차이가 있었다($t=7.997, p<0.001$). 게임활동(전체)은 남자 2.17점, 여자 1.81점으로 남자 집단이 여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평균 차이가 있었다 ($t=11.602, p<0.001$). 이 결과는 남자 초등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에 비해 게임활동 수준이 더 높으며,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 성별에 따른 게임활동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남자	1,250	2.63	1.09	7.102	<0.001	0.307
	여자	1,199	2.32	1.05			
2.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과 화가 난다	남자	1,250	2.13	1.07	7.991	<0.001	0.326
	여자	1,199	1.80	0.95			
3.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	남자	1,250	2.11	1.04	9.263	<0.001	0.370
	여자	1,199	1.74	0.93			
4.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 생각을 하며 보낸다	남자	1,250	2.16	1.08	13.804	<0.001	0.538
	여자	1,199	1.62	0.84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5.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한다	남자	1,250	1.84	1.00	7.997	<0.001	0.296
	여자	1,199	1.54	0.82			
게임활동(전체)	남자	1,250	2.17	0.84	11.602	<0.001	0.367
	여자	1,199	1.81	0.72			

그림 3-5 성별에 따른 게임활동 수준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

-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에서 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성장신념, 끈기, 다문화수용성, 우울, 행복도를 알아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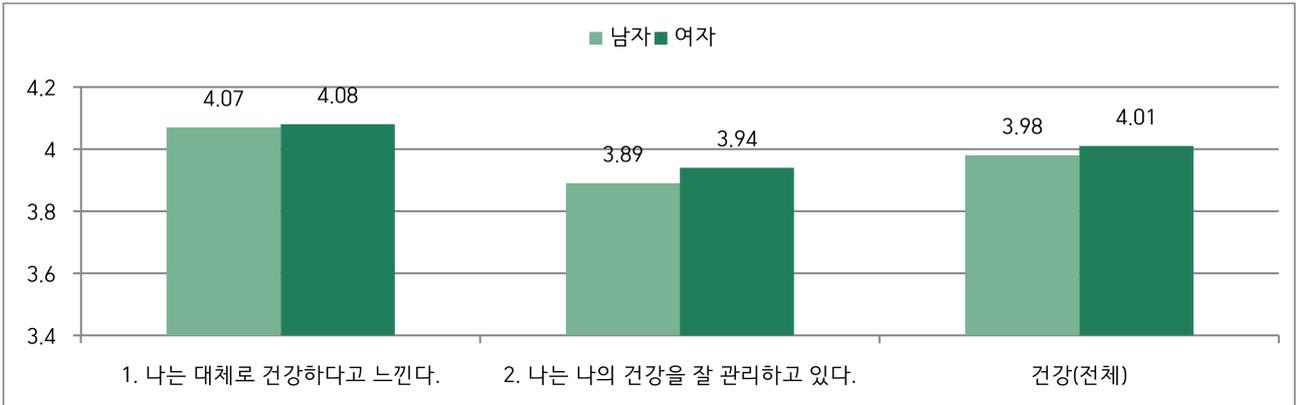
❖ 건강

- 초등학생의 건강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남자 4.07점, 여자 4.08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0.341$, $p=0.733$), 또한, ‘2. 나는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남자 3.89점, 여자 3.94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193$, $p=0.233$). 건강(전체)은 남자 3.98점, 여자 4.01점으로 여자 집단이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834$, $p=0.405$). 초등학생의 건강 관련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문항에서 남녀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6 성별에 따른 건강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남자	1,250	4.07	0.97	-0.341	0.733	-0.013
	여자	1,199	4.08	0.92			
2. 나는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	남자	1,250	3.89	0.97	-1.193	0.233	-0.045
	여자	1,199	3.94	0.92			
건강(전체)	남자	1,250	3.98	0.90	-0.834	0.405	-0.029
	여자	1,199	4.01	0.84			

그림 3-6 성별에 따른 건강 수준



❖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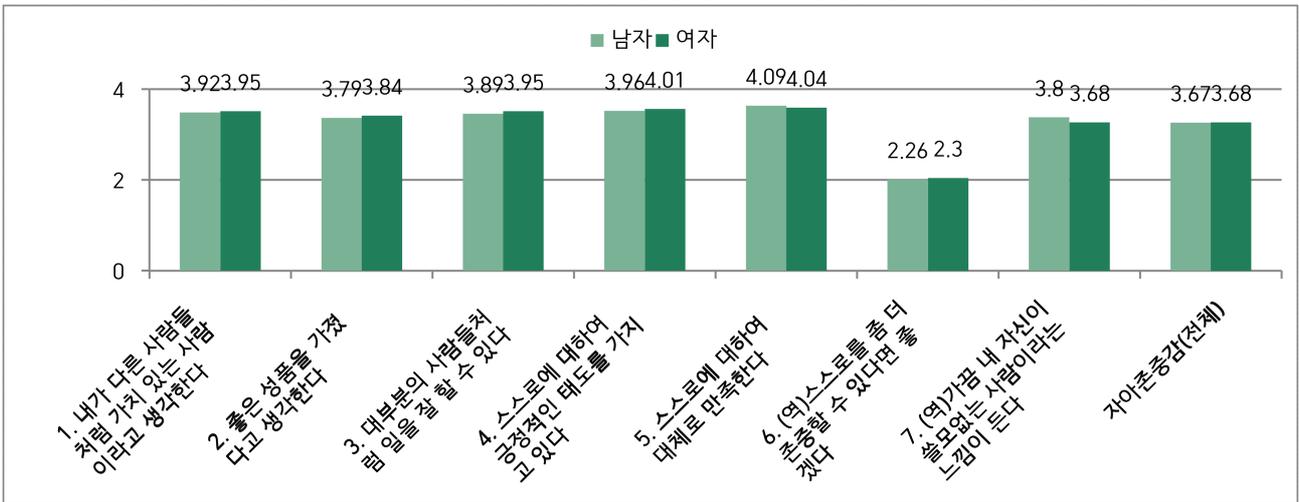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설문 문항 중에서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남자 3.92점, 여자 3.95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없었고($t=-0.538, p=0.591$), ‘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남자 3.79점, 여자 3.84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211, p=0.226$). 그리고 ‘3.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남자 3.89점, 여자 3.95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없었다($t=-1.603, p=0.109$). ‘4.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남자 3.96점, 여자 4.01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1.207, p=0.228$), ‘5.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남자 4.09점, 여자 4.04점으로 남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371, p=0.171$). 반면, ‘6. (역)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남자 2.26점, 여자 2.30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없었고($t=-0.854, p=0.393$), ‘7. (역)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남자 3.80점, 여자 3.68점으로 남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384, p=0.017$). 자아존중감(전체)은 남자 3.67점, 여자 3.68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193, p=0.847$).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서 성별 간 차이는 일부 문항에서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는 남녀 모두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표 3-7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남자	1,250	3.92	1.09	-0.538	0.591	-0.023
	여자	1,199	3.95	1.06			
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남자	1,250	3.79	1.02	-1.211	0.226	-0.050
	여자	1,199	3.84	1.01			
3.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남자	1,250	3.89	0.96	-1.603	0.109	-0.060
	여자	1,199	3.95	0.9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4.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남자	1,250	3.96	0.97	-1.207	0.228	-0.047
	여자	1,199	4.01	0.94			
5.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남자	1,250	4.09	0.96	1.371	0.171	0.054
	여자	1,199	4.04	0.97			
6. (역)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남자	1,250	2.26	1.08	-0.854	0.393	-0.037
	여자	1,199	2.30	1.05			
7. (역)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남자	1,250	3.80	1.31	2.384	0.017	0.127
	여자	1,199	3.68	1.32			
자아존중감(전체)	남자	1,250	3.67	0.65	-0.193	0.847	-0.005
	여자	1,199	3.68	0.68			

그림 3-7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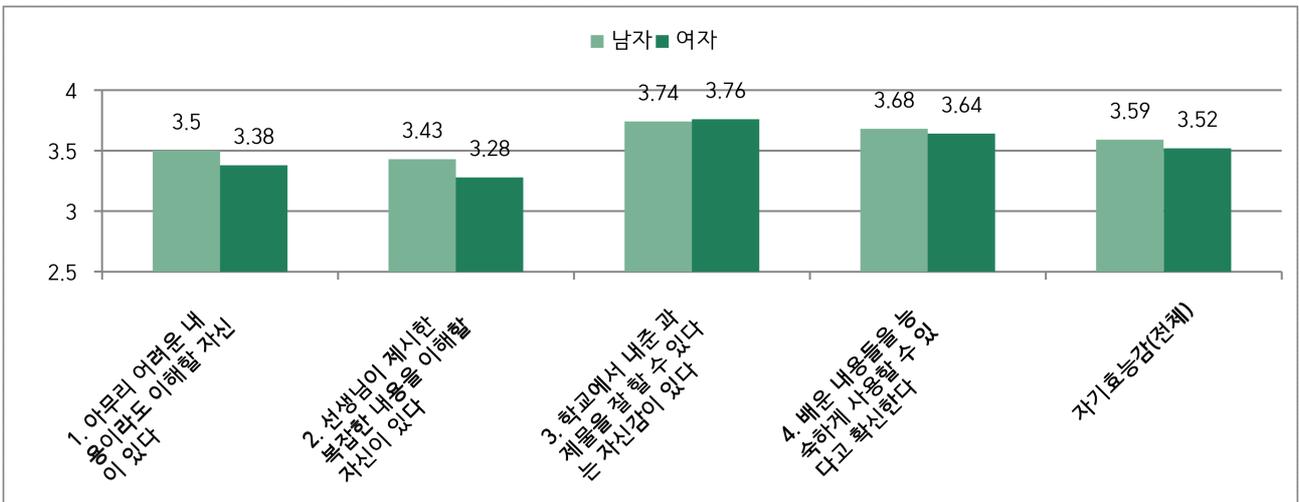
❖ 자기효능감

-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설문 문항 중에서 ‘1.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는 남자 3.50점, 여자 3.38점으로 남자 집단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018$, $p=0.003$). 또한, ‘2.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는 남자 3.43점, 여자 3.28점으로 남자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699$, $p<0.001$). 반면,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남자 3.74점, 여자 3.76점으로 여자 집단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493$, $p=0.622$). ‘4.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남자 3.68점, 여자 3.64점으로 남자 집단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19$, $p=0.309$). 자기효능감(전체)은 남자 3.59점, 여자 3.52점으로 남자 집단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132$, $p=0.033$).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일부 문항에서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3-8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남자	1,250	3.50	1.04	3.018	0.003	0.124
	여자	1,199	3.38	0.99			
2.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남자	1,250	3.43	1.04	3.699	<0.001	0.151
	여자	1,199	3.28	0.97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남자	1,250	3.74	1.01	-0.493	0.622	-0.020
	여자	1,199	3.76	0.99			
4.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남자	1,250	3.68	0.99	1.019	0.309	0.040
	여자	1,199	3.64	0.96			
자기효능감(전체)	남자	1,250	3.59	0.88	2.132	0.033	0.074
	여자	1,199	3.52	0.83			

그림 3-8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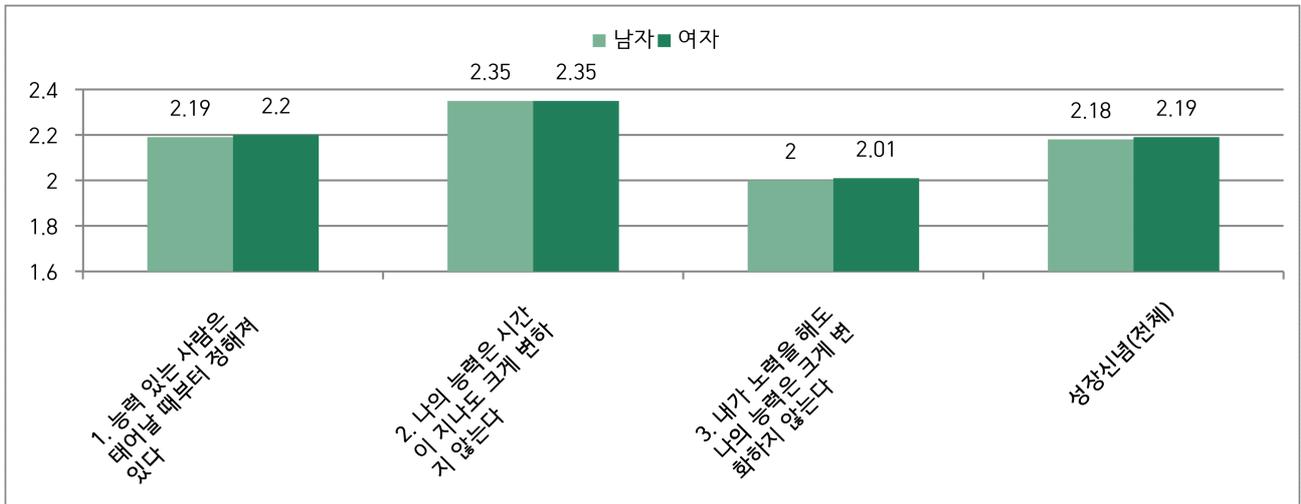
❖ 성장신념

○ 초등학교의 성장신념 설문 문항 중에서 ‘1.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남자 2.19점, 여자 2.20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0.124$, $p=0.901$), 또한, ‘2. 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남자 2.35점, 여자 2.35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었다($t=0.035$, $p=0.972$). ‘3.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남자 2.00점, 여자 2.01점으로 여자 집단의 점수가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228$, $p=0.820$). 성장신념(전체)은 남자 2.18점, 여자 2.19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었다($t=-0.129$, $p=0.898$). 초등학교의 성장신념에서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문항에서 남녀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표 3-9 성별에 따른 성장신념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남자	1,250	2.19	1.17	-0.124	0.901	-0.006
	여자	1,199	2.20	1.13			
2. 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남자	1,250	2.35	1.17	0.035	0.972	0.002
	여자	1,199	2.35	1.12			
3.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남자	1,250	2.00	1.10	-0.228	0.820	-0.010
	여자	1,199	2.01	1.05			
성장신념(전체)	남자	1,250	2.18	0.91	-0.129	0.898	-0.005
	여자	1,199	2.19	0.89			

그림 3-9 성별에 따른 성장신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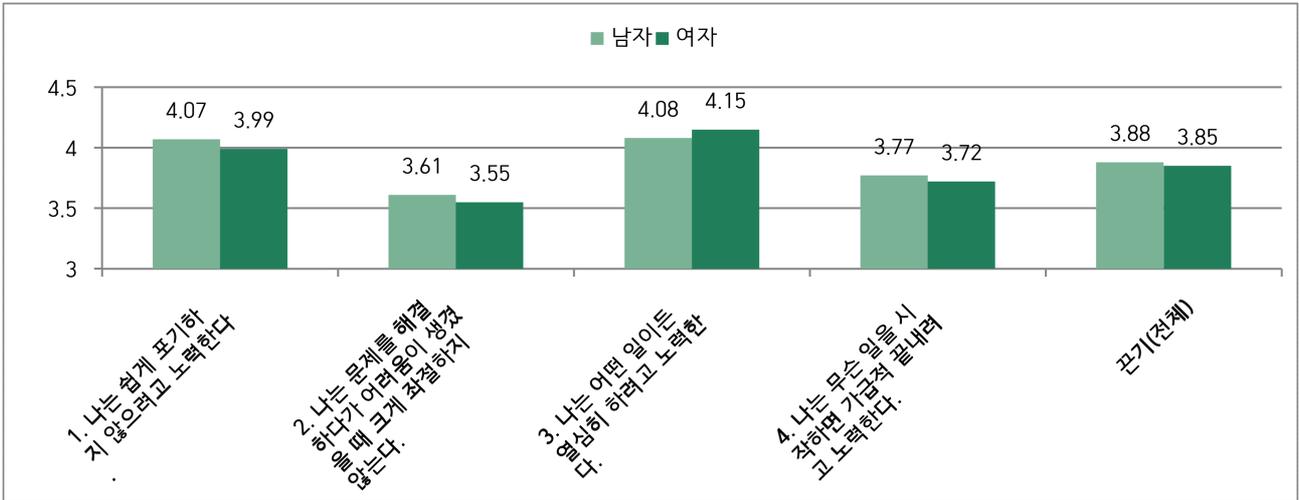
❖ 끈기

- 초등학생의 끈기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남자 4.07점, 여자 3.99점으로 남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148$, $p=0.032$). 또한,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남자 3.61점, 여자 3.55점으로 남자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467$, $p=0.143$). 반면, ‘3.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남자 4.08점, 여자 4.15점으로 여자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071$, $p=0.039$). 이어서 ‘4.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가급적 끝내려고 노력한다.’는 남자 3.77점, 여자 3.72점으로 남자 집단의 점수가 약간 더 높았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87$, $p=0.277$). 끈기(전체)는 남자 3.88점, 여자 3.85점으로 남자 집단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992$, $p=0.321$). 초등학생의 끈기 수준에서 남녀 간 차이는 일부 문항에서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표 3-10 성별에 따른 끈기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남자	1,250	4.07	0.92	2.148	0.032	0.081
	여자	1,199	3.99	0.93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남자	1,250	3.61	1.05	1.467	0.143	0.062
	여자	1,199	3.55	1.03			
3.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남자	1,250	4.08	0.88	-2.071	0.039	-0.072
	여자	1,199	4.15	0.83			
4.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가급적 끝내려고 노력한다.	남자	1,250	3.77	1.05	1.087	0.277	0.046
	여자	1,199	3.72	1.03			
끈기(전체)	남자	1,250	3.88	0.74	0.992	0.321	0.029
	여자	1,199	3.85	0.71			

그림 3-10 성별에 따른 끈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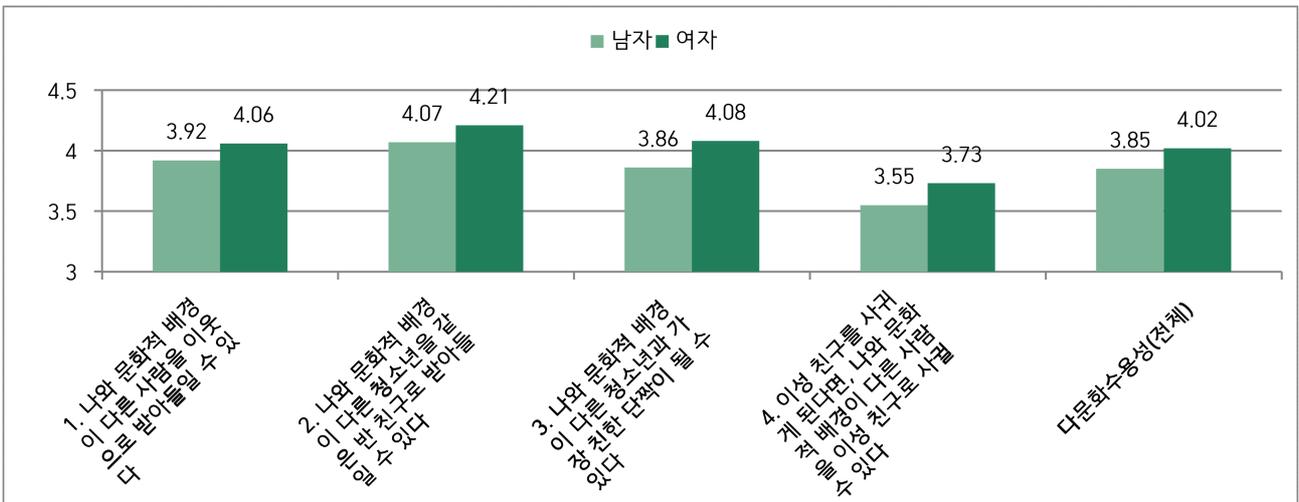
❖ 다문화수용성

○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남자 3.92점, 여자 4.06점으로 여자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711, p<0.001$). 또한,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남자 4.07점, 여자 4.21점으로 여자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797, p<0.001$). 이어서,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는 남자 3.86점, 여자 4.08점으로 여자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550, p<0.001$). 또한,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다.’는 남자 3.55점, 여자 3.73점으로 여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4.166, p<0.001$). 다문화수용성(전체)은 남자 3.85점, 여자 4.02점으로 여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083, p<0.001$). 초등학생 여자 집단이 남자 집단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11 성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남자	1,250	3.92	0.99	-3.711	<0.001	-0.146
	여자	1,199	4.06	0.95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남자	1,250	4.07	0.95	-3.797	<0.001	-0.141
	여자	1,199	4.21	0.89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남자	1,250	3.86	1.01	-5.550	<0.001	-0.220
	여자	1,199	4.08	0.95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다	남자	1,250	3.55	1.10	-4.166	<0.001	-0.182
	여자	1,199	3.73	1.06			
다문화수용성(전체)	남자	1,250	3.85	0.85	-5.083	<0.001	-0.172
	여자	1,199	4.02	0.82			

그림 3-11 성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수준



❖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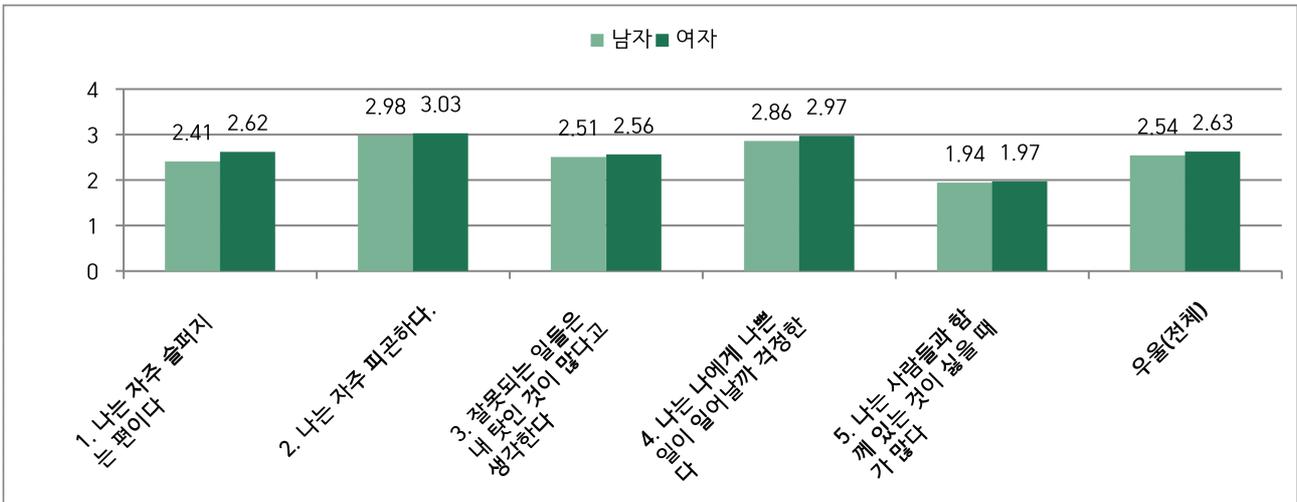
○ 초등학교생의 우울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자주 슬퍼지는 편이다.’는 남자 2.41점, 여자 2.62점으로 여자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4.232$, $p<0.001$). ‘2. 나는 자주 피곤하다.’는 남자 2.98점, 여자 3.03점으로 여자가 약간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963$, $p=0.336$). 또한, ‘3. 잘못되는 일들은 내 탓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남자 2.51점, 여자 2.56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134$, $p=0.257$). 이어서, ‘4.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는 남자 2.86점, 여자 2.97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t=-2.106$, $p=0.035$).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는 남자 1.94점, 여자 1.97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602$, $p=0.547$). 우울(전체)은 남자 2.54점, 여자 2.63점으로 여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39$, $p=0.015$).

여자 초등학생이 우울 관련 설문에서 남자 초등학생보다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일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12 성별에 따른 우울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자주 슬퍼지는 편이다	남자	1,250	2.41	1.21	-4.232	<0.001	-0.210
	여자	1,199	2.62	1.25			
2. 나는 자주 피곤하다.	남자	1,250	2.98	1.26	-0.963	0.336	-0.048
	여자	1,199	3.03	1.22			
3. 잘못되는 일들은 내 탓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남자	1,250	2.51	1.17	-1.134	0.257	-0.055
	여자	1,199	2.56	1.22			
4.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남자	1,250	2.86	1.35	-2.106	0.035	-0.114
	여자	1,199	2.97	1.33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남자	1,250	1.94	1.11	-0.602	0.547	-0.027
	여자	1,199	1.97	1.08			
우울(전체)	남자	1,250	2.54	0.89	-2.439	0.015	-0.091
	여자	1,199	2.63	0.95			

그림 3-12 성별에 따른 우울 수준



❖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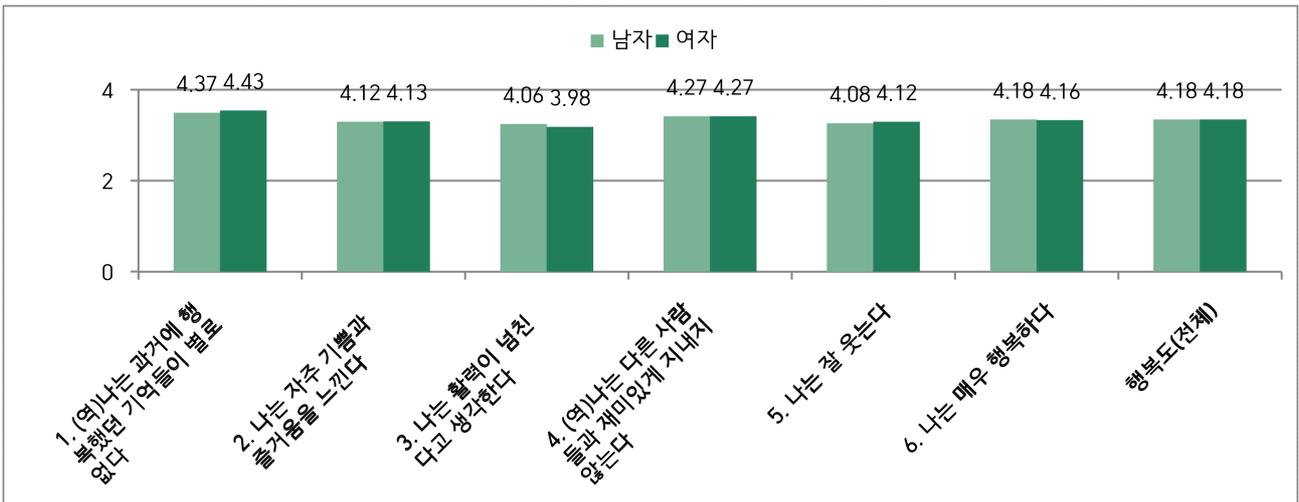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행복도 설문 문항 중에서 ‘1. (역)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는 남자 4.37점, 여자 4.43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801, p=0.072$). ‘2. 나는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남자 4.12점, 여자 4.13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326, p=0.744$). 또한, ‘3.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는 남자 4.06점, 여자 3.98점으로 남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898, p=0.058$). 이어서, ‘4. (역)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지 않는다’는 남자 4.27점, 여자 4.27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없었다($t=-0.120, p=0.905$). ‘5. 나는 잘 웃는다’는 남자 4.08점, 여자 4.12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084$, $p=0.278$). 마지막으로, '6. 나는 매우 행복하다'는 남자 4.18점, 여자 4.16점으로 남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635$, $p=0.526$). 행복도(전체)는 남자 4.18점, 여자 4.18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전혀 없었으며($t=-0.117$, $p=0.907$), 초등학생의 행복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표 3-13 성별에 따른 행복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역)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	남자	1,250	4.37	0.96	-1.801	0.072	-0.066
	여자	1,199	4.43	0.87			
2. 나는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남자	1,250	4.12	0.99	-0.326	0.744	-0.013
	여자	1,199	4.13	0.92			
3.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남자	1,250	4.06	1.03	1.898	0.058	0.080
	여자	1,199	3.98	1.05			
4. (역)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지 않는다	남자	1,250	4.27	0.98	-0.120	0.905	-0.005
	여자	1,199	4.27	0.96			
5. 나는 잘 웃는다	남자	1,250	4.08	0.99	-1.084	0.278	-0.043
	여자	1,199	4.12	0.95			
6. 나는 매우 행복하다	남자	1,250	4.18	1.02	0.635	0.526	0.026
	여자	1,199	4.16	0.98			
행복도(전체)	남자	1,250	4.18	0.74	-0.117	0.907	-0.003
	여자	1,199	4.18	0.73			

그림 3-13 성별에 따른 행복도 수준



학교 수업(학습일반) 영역

-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수업(학습일반) 영역에서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학업스트레스, 교사의 사기 및 열의를 알아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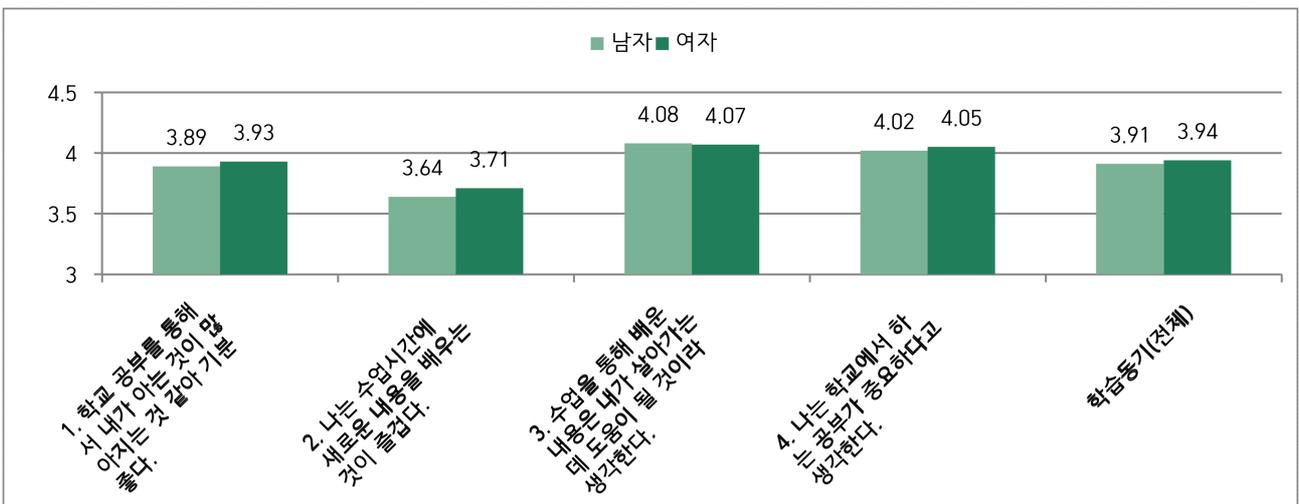
❖ 학습동기

○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설문 문항 중에서 ‘1.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는 남자 3.89점, 여자 3.93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1.018, p=0.309$).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는 남자 3.64점, 여자 3.71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893, p=0.058$). 또한, ‘3.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남자 4.08점, 여자 4.07점으로 남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251, p=0.802$). 이어서, ‘4. 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남자 4.02점, 여자 4.05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0.670, p=0.503$). 학습동기(전체)는 남자 3.91점, 여자 3.94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027, p=0.305$).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수준에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문항에서 남자와 여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표 3-14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	남자	1,250	3.89	0.98	-1.018	0.309	-0.039
	여자	1,199	3.93	0.91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남자	1,250	3.64	1.04	-1.893	0.058	-0.075
	여자	1,199	3.71	0.93			
3.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남자	1,250	4.08	0.90	0.251	0.802	0.009
	여자	1,199	4.07	0.87			
4. 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자	1,250	4.02	0.96	-0.670	0.503	-0.025
	여자	1,199	4.05	0.89			
학습동기(전체)	남자	1,250	3.91	0.81	-1.027	0.305	-0.033
	여자	1,199	3.94	0.76			

그림 3-14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 수준



❖ 자기주도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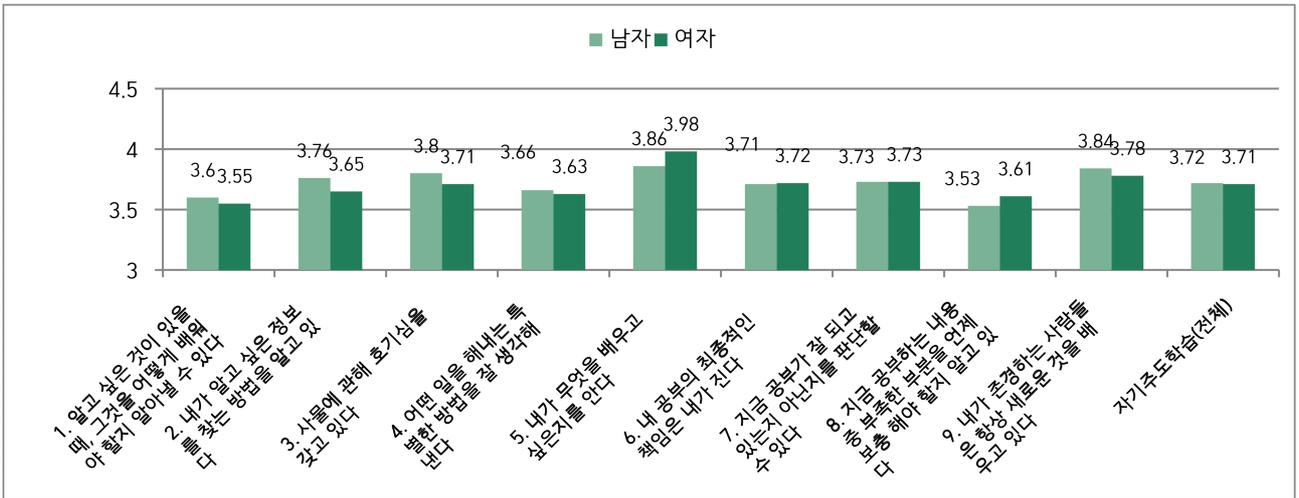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설문 문항 중에서 ‘1.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알아낼 수 있다.’는 남자 3.60점, 여자 3.55점으로 여자가 약간 낮은 평균을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356, p=0.175$). 또한, ‘2.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남자 3.76점, 여자 3.65점으로 남자가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101, p=0.002$). 이어서, ‘3. 사물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남자 3.80점, 여자 3.71점으로 남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t=2.057, p=0.040$). ‘4. 어떤 일을 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는 남자 3.66점, 여자 3.63점으로 남자가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0.890, p=0.373$). 반면,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는 남자 3.86점, 여자 3.98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239, p=0.001$).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는 남자 3.71점, 여자 3.72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 평균 차이는 없었다($t=-0.215, p=0.829$). 또한,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남자 3.73점, 여자 3.73점으로 두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없었다($t=-0.051, p=0.960$).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남자 3.53점, 여자 3.61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951, p=0.051$). 마지막으로, ‘9.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남자 3.84점, 여자 3.78점으로 남자가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532, p=0.126$). 자기주도학습(전체)은 남자 3.72점, 여자 3.71점으로 남자가 약간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501, p=0.617$).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표 3-15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알아낼 수 있다	남자	1,250	3.60	0.95	1.356	0.175	0.050																																																																																
	여자	1,199	3.55	0.88				2.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남자	1,250	3.76	0.96	3.101	0.002	0.118	여자	1,199	3.65	0.92	3. 사물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남자	1,250	3.80	1.01	2.057	0.040	0.082	여자	1,199	3.71	0.97	4. 어떤 일을 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	남자	1,250	3.66	0.94	0.890	0.373	0.033	여자	1,199	3.63	0.92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남자	1,250	3.86	1.02	-3.239	0.001	-0.127	여자	1,199	3.98	0.92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남자	1,250	3.71	1.00	-0.215	0.829	-0.008	여자	1,199	3.72	0.93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남자	1,250	3.73	1.00	-0.051	0.960	-0.002	여자	1,199	3.73	0.9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남자	1,250	3.53	1.04	-1.951	0.051	-0.078
2.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남자	1,250	3.76	0.96	3.101	0.002	0.118																																																																																
	여자	1,199	3.65	0.92				3. 사물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남자	1,250	3.80	1.01	2.057	0.040	0.082	여자	1,199	3.71	0.97	4. 어떤 일을 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	남자	1,250	3.66	0.94	0.890	0.373	0.033	여자	1,199	3.63	0.92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남자	1,250	3.86	1.02	-3.239	0.001	-0.127	여자	1,199	3.98	0.92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남자	1,250	3.71	1.00	-0.215	0.829	-0.008	여자	1,199	3.72	0.93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남자	1,250	3.73	1.00	-0.051	0.960	-0.002	여자	1,199	3.73	0.9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남자	1,250	3.53	1.04	-1.951	0.051	-0.078	여자	1,199	3.61	0.93								
3. 사물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남자	1,250	3.80	1.01	2.057	0.040	0.082																																																																																
	여자	1,199	3.71	0.97				4. 어떤 일을 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	남자	1,250	3.66	0.94	0.890	0.373	0.033	여자	1,199	3.63	0.92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남자	1,250	3.86	1.02	-3.239	0.001	-0.127	여자	1,199	3.98	0.92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남자	1,250	3.71	1.00	-0.215	0.829	-0.008	여자	1,199	3.72	0.93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남자	1,250	3.73	1.00	-0.051	0.960	-0.002	여자	1,199	3.73	0.9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남자	1,250	3.53	1.04	-1.951	0.051	-0.078	여자	1,199	3.61	0.93																				
4. 어떤 일을 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	남자	1,250	3.66	0.94	0.890	0.373	0.033																																																																																
	여자	1,199	3.63	0.92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남자	1,250	3.86	1.02	-3.239	0.001	-0.127	여자	1,199	3.98	0.92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남자	1,250	3.71	1.00	-0.215	0.829	-0.008	여자	1,199	3.72	0.93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남자	1,250	3.73	1.00	-0.051	0.960	-0.002	여자	1,199	3.73	0.9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남자	1,250	3.53	1.04	-1.951	0.051	-0.078	여자	1,199	3.61	0.93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남자	1,250	3.86	1.02	-3.239	0.001	-0.127																																																																																
	여자	1,199	3.98	0.92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남자	1,250	3.71	1.00	-0.215	0.829	-0.008	여자	1,199	3.72	0.93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남자	1,250	3.73	1.00	-0.051	0.960	-0.002	여자	1,199	3.73	0.9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남자	1,250	3.53	1.04	-1.951	0.051	-0.078	여자	1,199	3.61	0.93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남자	1,250	3.71	1.00	-0.215	0.829	-0.008																																																																																
	여자	1,199	3.72	0.93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남자	1,250	3.73	1.00	-0.051	0.960	-0.002	여자	1,199	3.73	0.9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남자	1,250	3.53	1.04	-1.951	0.051	-0.078	여자	1,199	3.61	0.93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남자	1,250	3.73	1.00	-0.051	0.960	-0.002																																																																																
	여자	1,199	3.73	0.9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남자	1,250	3.53	1.04	-1.951	0.051	-0.078	여자	1,199	3.61	0.93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남자	1,250	3.53	1.04	-1.951	0.051	-0.078																																																																																
	여자	1,199	3.61	0.9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9.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남자	1,250	3.84	0.97	1.532	0.126	0.058
	여자	1,199	3.78	0.90			
자기주도학습(전체)	남자	1,250	3.72	0.72	0.501	0.617	0.014
	여자	1,199	3.71	0.67			

그림 3-15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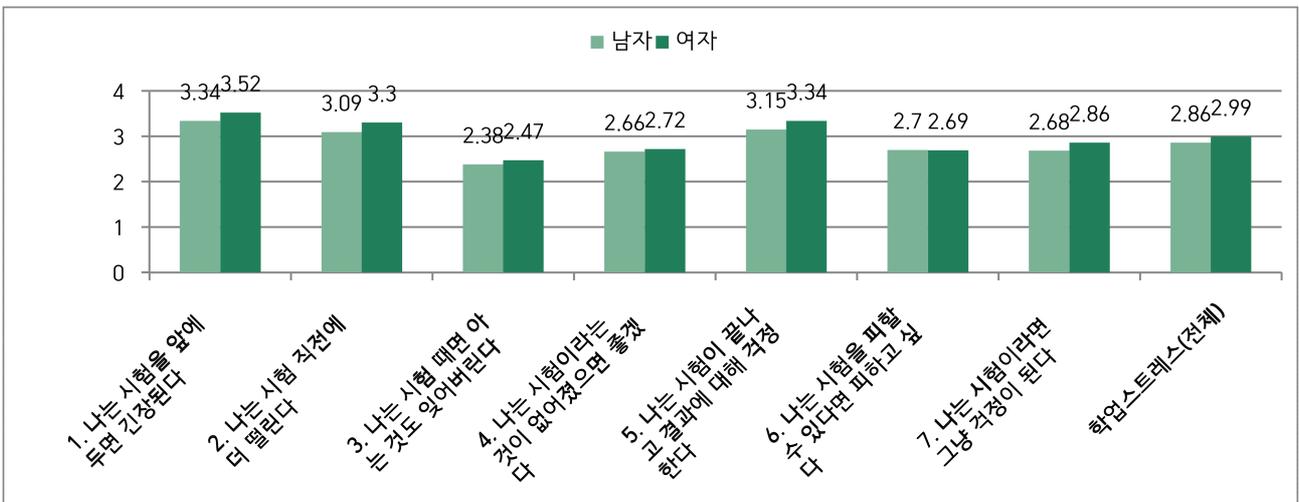
❖ 학업 스트레스

○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는 남자 3.34 점, 여자 3.52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653$, $p<0.001$). 또한, ‘2. 나는 시험 직전에 더 떨린다’는 남자 3.09점, 여자 3.30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106$, $p<0.001$). 반면, ‘3. 나는 시험 때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남자 2.38점, 여자 2.47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826$, $p=0.068$). 또한, ‘4. 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남자 2.66점, 여자 2.72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077$, $p=0.282$). 이어서, ‘5. 나는 시험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는 남자 3.15점, 여자 3.34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443$, $p<0.001$). ‘6. 나는 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남자 2.70점, 여자 2.69점으로 거의 동일한 평균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130$, $p=0.896$). 마지막으로, ‘7. 나는 시험이라면 그냥 걱정이 된다’는 남자 2.68점, 여자 2.86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262$, $p=0.001$). 학업 스트레스(전체)는 남자 2.86점, 여자 2.99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244$, $p=0.001$). 초등학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며, 일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3-16 성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	남자	1,250	3.34	1.30	-3.653	<0.001	-0.183
	여자	1,199	3.52	1.18			
2. 나는 시험 직전에 더 떨린다	남자	1,250	3.09	1.35	-4.106	<0.001	-0.217
	여자	1,199	3.30	1.27			
3. 나는 시험 때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	남자	1,250	2.38	1.24	-1.826	0.068	-0.090
	여자	1,199	2.47	1.21			
4. 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남자	1,250	2.66	1.38	-1.077	0.282	-0.058
	여자	1,199	2.72	1.30			
5. 나는 시험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	남자	1,250	3.15	1.37	-3.443	<0.001	-0.185
	여자	1,199	3.34	1.28			
6. 나는 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남자	1,250	2.70	1.36	0.130	0.896	0.007
	여자	1,199	2.69	1.27			
7. 나는 시험이라면 그냥 걱정이 된다	남자	1,250	2.68	1.37	-3.262	0.001	-0.178
	여자	1,199	2.86	1.32			
학업 스트레스(전체)	남자	1,250	2.86	1.02	-3.244	0.001	-0.129
	여자	1,199	2.99	0.95			

그림 3-16 성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수준



❖ 교사의 사기 및 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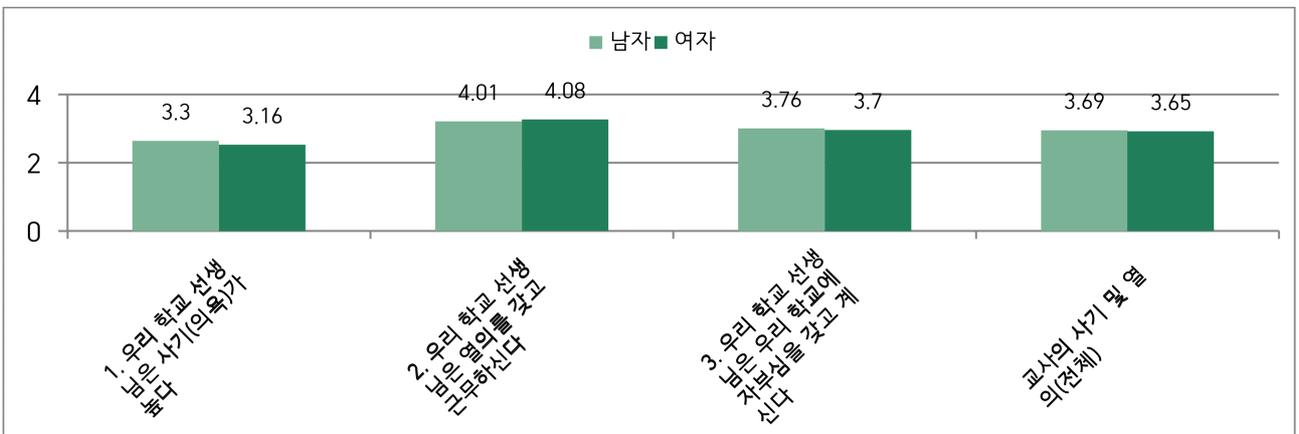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교사의 사기 및 열의 설문 문항 중에서 '1. 우리 학교 선생님은 사기(의욕)가 높다'는 남자 3.30점, 여자 3.16점으로 남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265$, $p=0.024$). 또한,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는 남자 4.01점, 여자 4.08점으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512$, $p=0.131$). 이어서, '3. 우리 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는 남자 3.76점, 여자 3.70점으로 남자 집단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343$, $p=0.180$). 교사의 사기 및 열의(전체)는 남자 3.69점, 여자 3.65점으로 남자가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1.127$, $p=0.260$).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사기 및 열의는 성별 간 큰 차이가 없으며, 일부 문항에서 남학생이 다소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3-17 성별에 따른 교사의 사기 및 열의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우리 학교 선생님은 사기(의욕)가 높다	남자	1,250	3.30	1.42	2.265	0.024	0.133
	여자	1,199	3.16	1.49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	남자	1,250	4.01	1.03	-1.512	0.131	-0.062
	여자	1,199	4.08	1.01			
3. 우리 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	남자	1,250	3.76	1.12	1.343	0.180	0.061
	여자	1,199	3.70	1.12			
교사의 사기 및 열의(전체)	남자	1,250	3.69	0.97	1.127	0.260	0.044
	여자	1,199	3.65	0.97			

그림 3-17 성별에 따른 교사의 사기 및 열의 수준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영역

-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영역에서 수강태도, 수업방식,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 학교내 평가활동을 알아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조사하였다.

❖ 수강태도_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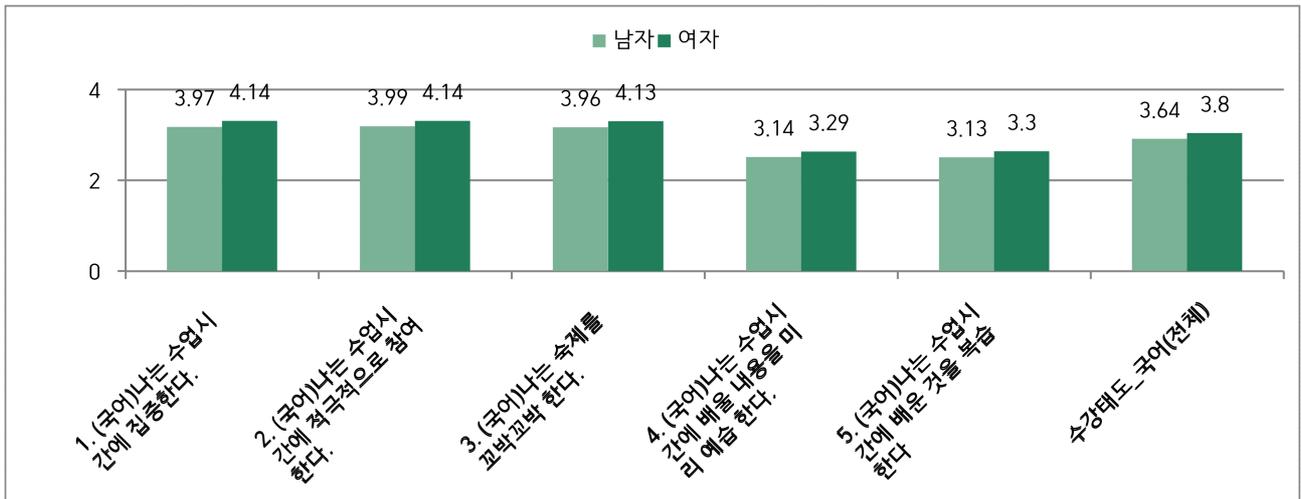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국어 설문 문항 분석 결과, '1.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는 남자 3.97점, 여자 4.14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011$, $p<0.001$). '2.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남자 3.99점, 여자 4.14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고,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015$, $p<0.001$). 또한, '3. (국어)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는 남자 3.96점, 여자 4.13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253$,

$p < 0.001$). 이어서, '4.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연습 한다'는 남자 3.14점, 여자 3.29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2.798$, $p = 0.005$). 마지막으로, '5.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남자 3.13점, 여자 3.30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3.436$, $p < 0.001$). 수강태도_국어(전체)는 남자 3.64점, 여자 3.80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 = -5.023$, $p < 0.001$). 초등학생의 국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경향을 보였다.

표 3-18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국어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남자	1,250	3.97	0.88	-5.011	<0.001	-0.171
	여자	1,199	4.14	0.81			
2.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남자	1,250	3.99	0.96	-4.015	<0.001	-0.149
	여자	1,199	4.14	0.87			
3. (국어)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남자	1,250	3.96	1.02	-4.253	<0.001	-0.169
	여자	1,199	4.13	0.95			
4.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연습 한다.	남자	1,250	3.14	1.28	-2.798	0.005	-0.144
	여자	1,199	3.29	1.27			
5. (국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남자	1,250	3.13	1.23	-3.436	<0.001	-0.167
	여자	1,199	3.30	1.17			
수강태도_국어(전체)	남자	1,250	3.64	0.81	-5.023	<0.001	-0.160
	여자	1,199	3.80	0.77			

그림 3-18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국어 수준



❖ 수강태도_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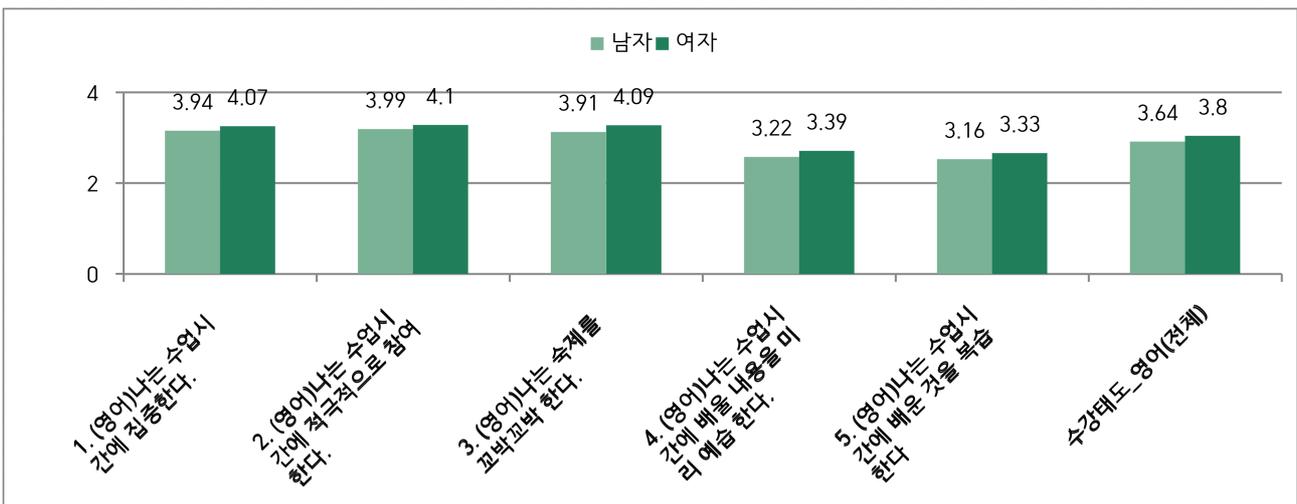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영어 설문 문항 분석 결과, '1.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는 남자 3.94점, 여자 4.07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592$, $p < 0.001$). 이어서, '2.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남

자 3.99점, 여자 4.10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813$, $p=0.005$). 또한, '3. (영어)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는 남자 3.91점, 여자 4.09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336$, $p<0.001$). '4.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는 남자 3.22점, 여자 3.39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11$, $p<0.001$). 마지막으로, '5.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남자 3.16점, 여자 3.33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564$, $p<0.001$). 수강태도_영어(전체)는 남자 3.64점, 여자 3.80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587$, $p<0.001$). 초등학생의 영어 수업 태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집중적이고 성실한 학습 태도를 보였다.

표 3-19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영어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남자	1,250	3.94	0.95	-3.592	<0.001	-0.135
	여자	1,199	4.07	0.91			
2.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남자	1,250	3.99	0.98	-2.813	0.005	-0.107
	여자	1,199	4.10	0.90			
3. (영어)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남자	1,250	3.91	1.07	-4.336	<0.001	-0.181
	여자	1,199	4.09	1.00			
4.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	남자	1,250	3.22	1.28	-3.311	<0.001	-0.170
	여자	1,199	3.39	1.25			
5. (영어)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남자	1,250	3.16	1.24	-3.564	<0.001	-0.174
	여자	1,199	3.33	1.18			
수강태도_영어(전체)	남자	1,250	3.64	0.86	-4.587	<0.001	-0.153
	여자	1,199	3.80	0.80			

그림 3-19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영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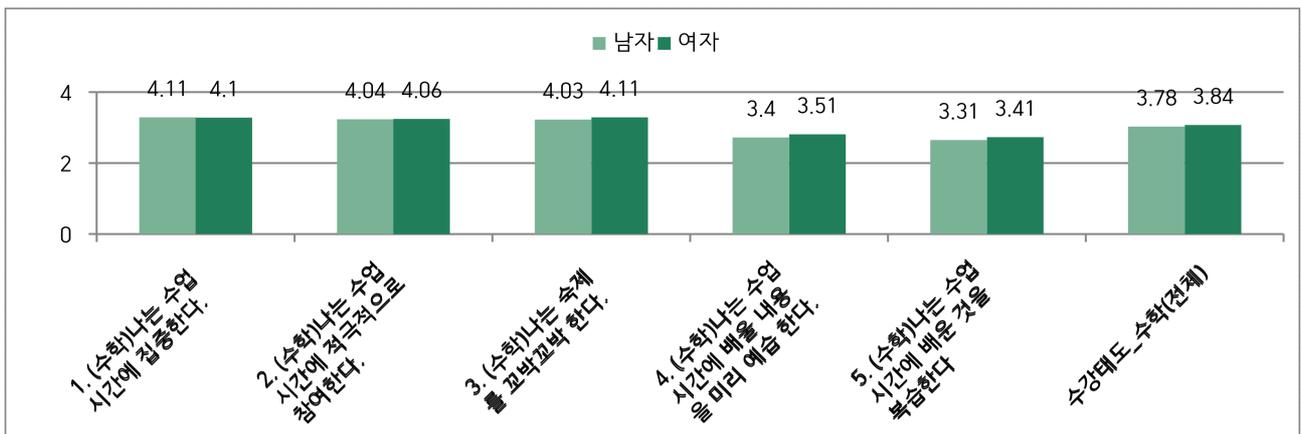
❖ 수강태도_수학

○ 초등학생의 수강태도_수학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1.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는 남자 4.11점, 여자 4.10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0.148$, $p=0.883$). 또한, '2.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남자 4.04점, 여자 4.06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0.453$, $p=0.650$). '3. (수학)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는 남자 4.03점, 여자 4.1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056$, $p=0.040$). 이어서 '4.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연습 한다'는 남자 3.40점, 여자 3.51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1.908$, $p=0.057$). '5.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남자 3.31점, 여자 3.41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036$, $p=0.042$). 수강태도_수학(전체)은 남자 3.78점, 여자 3.84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746$, $p=0.081$). 초등학생의 수학 수업 태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숙제나 복습 등 학습의 성실성 측면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3-20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수학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남자	1,250	4.11	0.93	0.148	0.883	0.005
	여자	1,199	4.10	0.91			
2.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남자	1,250	4.04	0.96	-0.453	0.650	-0.018
	여자	1,199	4.06	0.96			
3. (수학)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남자	1,250	4.03	1.04	-2.056	0.040	-0.084
	여자	1,199	4.11	0.97			
4.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연습 한다.	남자	1,250	3.40	1.34	-1.908	0.057	-0.101
	여자	1,199	3.51	1.27			
5. (수학)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남자	1,250	3.31	1.29	-2.036	0.042	-0.102
	여자	1,199	3.41	1.20			
수강태도_수학(전체)	남자	1,250	3.78	0.88	-1.746	0.081	-0.060
	여자	1,199	3.84	0.82			

그림 3-20 성별에 따른 수강태도_수학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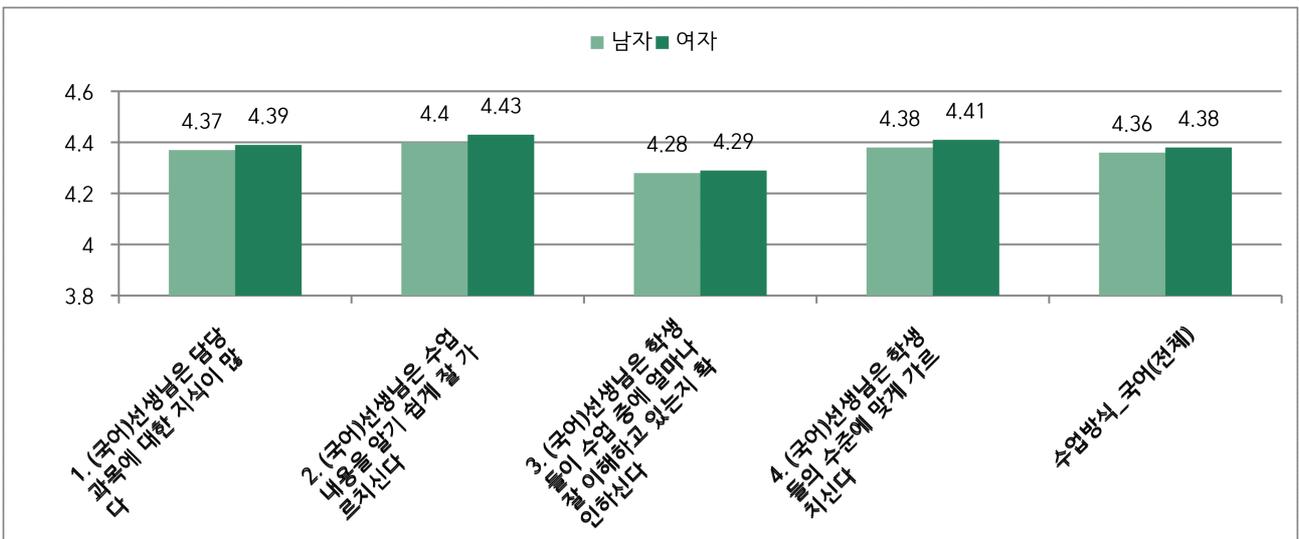
❖ 수업방식_국어

○ 초등학생의 국어 수업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1. (국어)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남자 4.37점, 여자 4.39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613, p=0.540$). 또한, '2. (국어)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는 남자 4.40점, 여자 4.43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803, p=0.422$). '3.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남자 4.28점, 여자 4.29점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t=-0.467, p=0.640$), '4.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또한 남자 4.38점, 여자 4.41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185, p=0.236$). 수업방식_국어(전체)는 남자 4.36점, 여자 4.38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907, p=0.364$).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국어 수업방식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3-21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국어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국어)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남자	1,250	4.37	0.89	-0.613	0.540	-0.021
	여자	1,199	4.39	0.79			
2. (국어)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남자	1,250	4.40	0.81	-0.803	0.422	-0.026
	여자	1,199	4.43	0.76			
3.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남자	1,250	4.28	0.88	-0.467	0.640	-0.016
	여자	1,199	4.29	0.81			
4.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남자	1,250	4.38	0.85	-1.185	0.236	-0.038
	여자	1,199	4.41	0.75			
수업방식_국어(전체)	남자	1,250	4.36	0.73	-0.907	0.364	-0.025
	여자	1,199	4.38	0.64			

그림 3-21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국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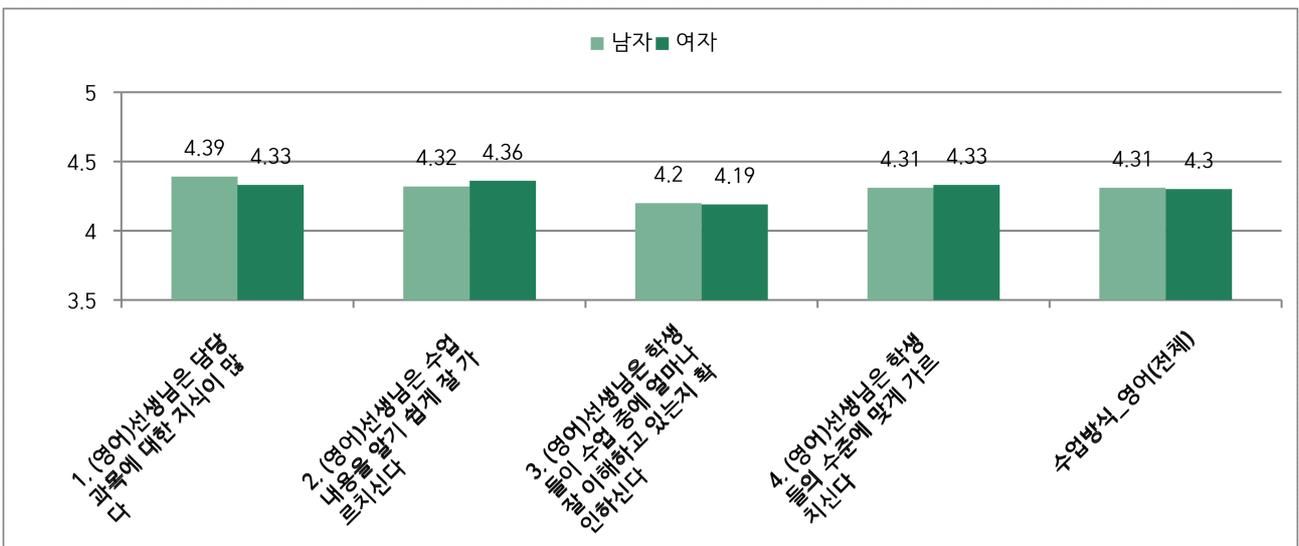
❖ 수업방식_영어

○ 초등학생의 영어 수업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1. (영어)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남자 4.39점, 여자 4.33점으로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697, p=0.090$). 또한, '2. (영어)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는 남자 4.32점, 여자 4.36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979, p=0.328$). '3.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남자 4.20점, 여자 4.19점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t=0.413, p=0.680$), '4.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는 남자 4.31점, 여자 4.33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0.457, p=0.648$). 수업방식_영어(전체)는 남자 4.31점, 여자 4.30점으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0.203, p=0.839$).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영어 수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2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영어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영어)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남자	1,250	4.39	0.84	1.697	0.090	0.058
	여자	1,199	4.33	0.84			
2. (영어)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남자	1,250	4.32	0.87	-0.979	0.328	-0.033
	여자	1,199	4.36	0.80			
3.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남자	1,250	4.20	0.91	0.413	0.680	0.015
	여자	1,199	4.19	0.86			
4.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남자	1,250	4.31	0.89	-0.457	0.648	-0.016
	여자	1,199	4.33	0.82			
수업방식_영어(전체)	남자	1,250	4.31	0.75	0.203	0.839	0.006
	여자	1,199	4.30	0.69			

그림 3-22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영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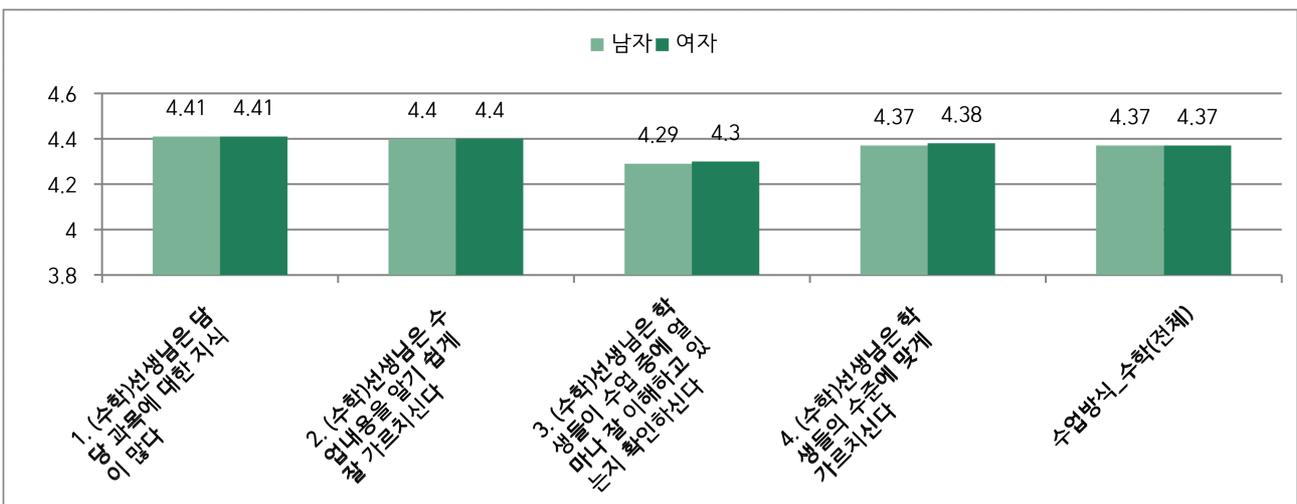
❖ 수업방식_수학

○ 초등학생의 수업방식_수학 설문 문항 중에서 ‘1. (수학)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남자 4.41점, 여자 4.41점으로 두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027, p=0.978$). 또한, ‘2. (수학)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는 남자 4.40점, 여자 4.40점으로 동일한 평균을 보여,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t=0.016, p=0.987$). ‘3.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남자 4.29점, 여자 4.30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0.237, p=0.813$). 이어서, ‘4.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는 남자 4.37점, 여자 4.38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237, p=0.813$). 수업방식_수학(전체)은 남자 4.37점, 여자 4.37점으로 두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었다($t=-0.147, p=0.883$).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수학 수업방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3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수학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수학)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남자	1,250	4.41	0.84	-0.027	0.978	-0.001
	여자	1,199	4.41	0.81			
2. (수학)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남자	1,250	4.40	0.85	0.016	0.987	0.001
	여자	1,199	4.40	0.81			
3.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남자	1,250	4.29	0.88	-0.237	0.813	-0.008
	여자	1,199	4.30	0.83			
4.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남자	1,250	4.37	0.88	-0.237	0.813	-0.008
	여자	1,199	4.38	0.82			
수업방식_수학(전체)	남자	1,250	4.37	0.73	-0.147	0.883	-0.004
	여자	1,199	4.37	0.68			

그림 3-23 성별에 따른 수업방식_수학 수준



❖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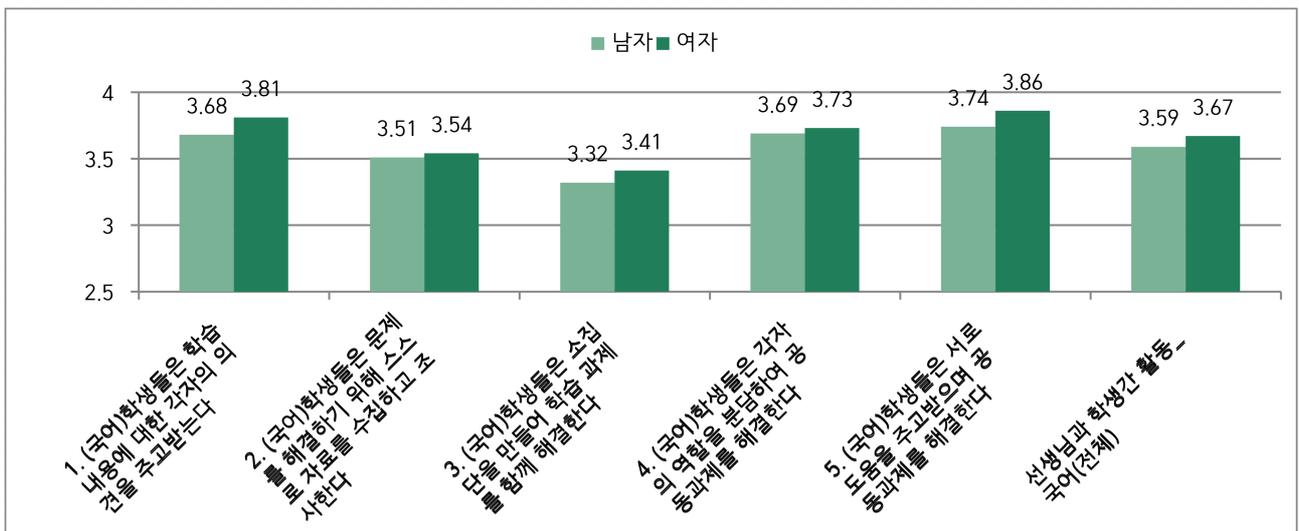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국어 설문 문항 중에서 ‘1. (국어)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남자 3.68점, 여자 3.81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354$, $p<0.001$). 또한, '2. (국어)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는 남자 3.51점, 여자 3.54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792$, $p=0.428$). '3. (국어)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남자 3.32점, 여자 3.41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839$, $p=0.066$). 이어서, '4. (국어)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남자 3.69점, 여자 3.73점으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40$, $p=0.298$). 마지막으로, '5. (국어)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남자 3.74점, 여자 3.86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784$, $p=0.005$).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국어(전체)는 남자 3.59점, 여자 3.67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27$, $p=0.015$).

표 3-24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국어)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남자	1,250	3.68	1.05	-3.354	<0.001	-0.134
	여자	1,199	3.81	0.93			
2. (국어)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남자	1,250	3.51	1.07	-0.792	0.428	-0.033
	여자	1,199	3.54	1.01			
3. (국어)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남자	1,250	3.32	1.21	-1.839	0.066	-0.087
	여자	1,199	3.41	1.13			
4. (국어)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남자	1,250	3.69	1.08	-1.040	0.298	-0.044
	여자	1,199	3.73	0.99			
5. (국어)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남자	1,250	3.74	1.09	-2.784	0.005	-0.117
	여자	1,199	3.86	0.98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전체)	남자	1,250	3.59	0.89	-2.427	0.015	-0.083
	여자	1,199	3.67	0.80			

그림 3-24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국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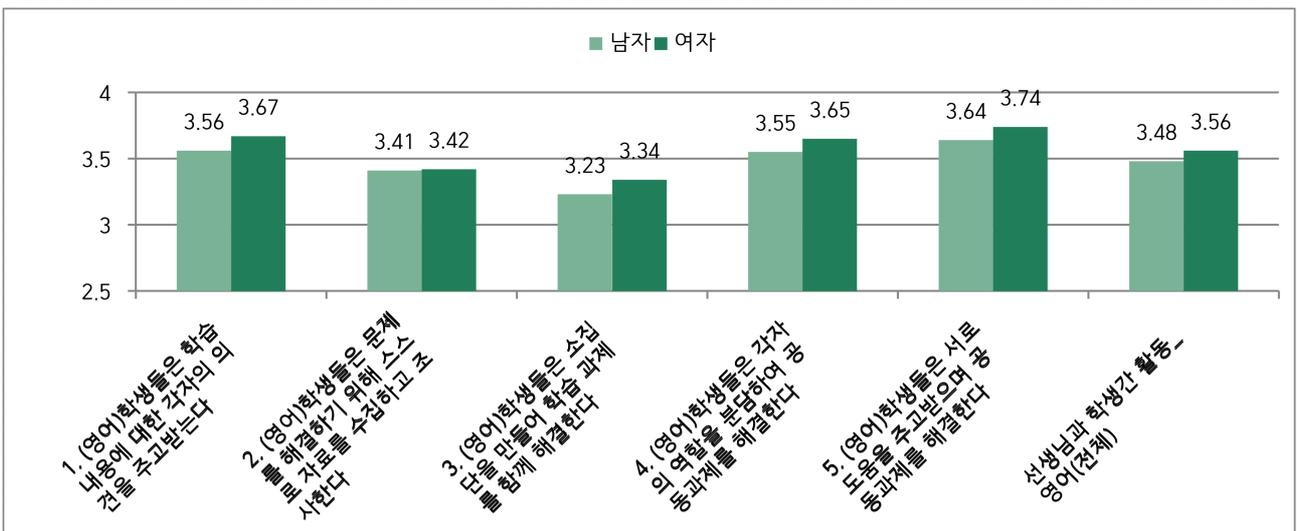
❖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영어 설문 문항 중에서 '1. (영어)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남자 3.56점, 여자 3.67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768, p=0.006$). 또한, '2. (영어)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는 남자 3.41점, 여자 3.42점으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218, p=0.827$). '3. (영어)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남자 3.23점, 여자 3.34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235, p=0.026$). 이어서, '4. (영어)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남자 3.55점, 여자 3.65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고,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2.223, p=0.026$). 마지막으로, '5. (영어)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남자 3.64점, 여자 3.74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390, p=0.017$).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영어(전체)는 남자 3.48점, 여자 3.56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2.427, p=0.015$).

표 3-25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영어)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남자	1,250	3.56	1.04	-2.768	0.006	-0.112
	여자	1,199	3.67	0.97			
2. (영어)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남자	1,250	3.41	1.05	-0.218	0.827	-0.009
	여자	1,199	3.42	1.02			
3. (영어)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남자	1,250	3.23	1.19	-2.235	0.026	-0.105
	여자	1,199	3.34	1.13			
4. (영어)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남자	1,250	3.55	1.08	-2.223	0.026	-0.094
	여자	1,199	3.65	1.01			
5. (영어)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남자	1,250	3.64	1.09	-2.390	0.017	-0.101
	여자	1,199	3.74	1.01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전체)	남자	1,250	3.48	0.89	-2.427	0.015	-0.084
	여자	1,199	3.56	0.83			

그림 3-25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영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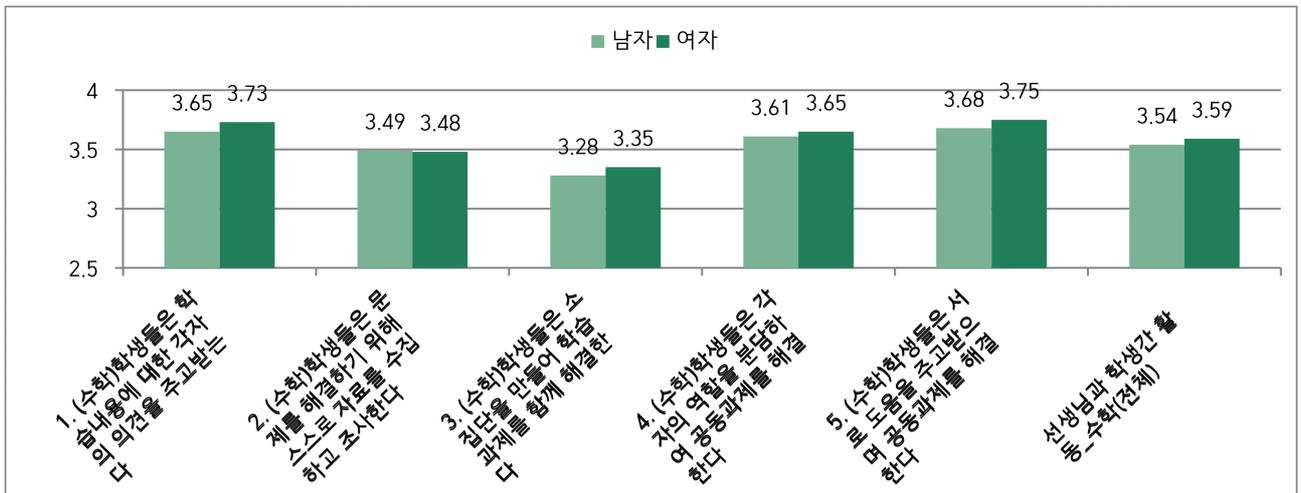
❖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 초등학생의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수학 설문 문항 중에서 '1. (수학)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남자 3.65점, 여자 3.73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근접하였다($t=-1.916$, $p=0.055$). 또한, '2. (수학)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는 남자 3.49점, 여자 3.48점으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138$, $p=0.890$). '3. (수학)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남자 3.28점, 여자 3.35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466$, $p=0.143$). 이어서, '4. (수학)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남자 3.61점, 여자 3.65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825$, $p=0.410$). 마지막으로, '5. (수학)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는 남자 3.68점, 여자 3.75점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1.789$, $p=0.074$).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_수학(전체)은 남자 3.54점, 여자 3.59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436$, $p=0.151$).

표 3-26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수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수학)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남자	1,250	3.65	1.04	-1.916	0.055	-0.079
	여자	1,199	3.73	0.99			
2. (수학)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남자	1,250	3.49	1.09	0.138	0.890	0.006
	여자	1,199	3.48	1.03			
3. (수학)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남자	1,250	3.28	1.23	-1.466	0.143	-0.070
	여자	1,199	3.35	1.14			
4. (수학)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남자	1,250	3.61	1.09	-0.825	0.410	-0.035
	여자	1,199	3.65	1.02			
5. (수학)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남자	1,250	3.68	1.10	-1.789	0.074	-0.076
	여자	1,199	3.75	1.01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전체)	남자	1,250	3.54	0.91	-1.436	0.151	-0.051
	여자	1,199	3.59	0.84			

그림 3-26 성별에 따른 선생님과 학생간 활동_수학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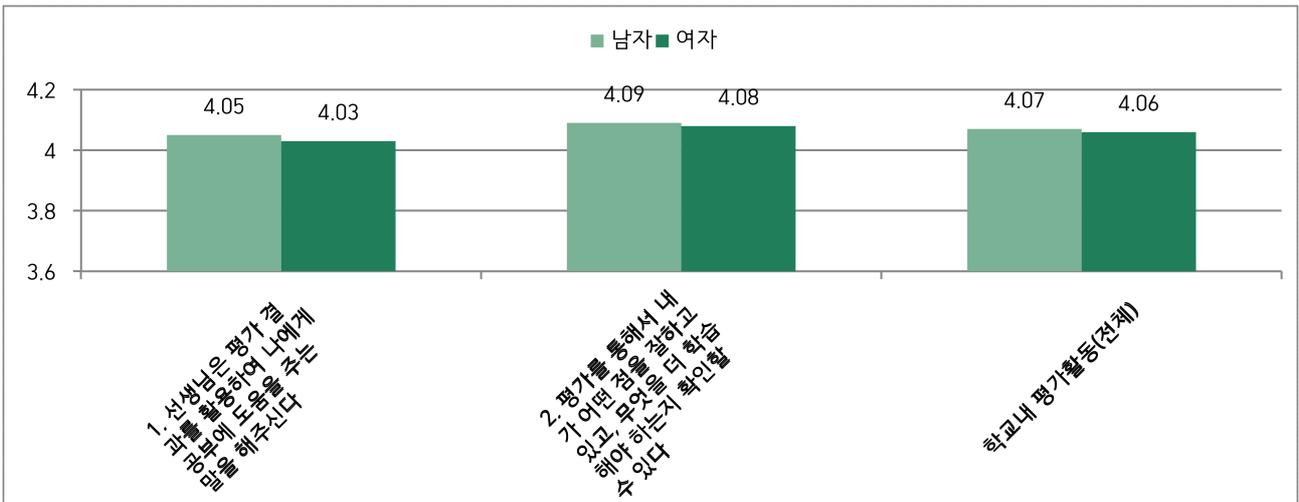
❖ 학교내 평가활동

○ 초등학생의 학교내 평가활동 설문 문항 중에서 ‘1. 선생님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신다’는 남자 4.05점, 여자 4.03점으로 남학생의 평균이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476$, $p=0.634$). 또한, ‘2.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남자 4.09점, 여자 4.08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201$, $p=0.841$). 학교내 평가활동(전체)은 남자 4.07점, 여자 4.06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381$, $p=0.703$).

표 3-27 성별에 따른 학교내 평가활동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선생님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신다	남자	1,250	4.05	0.95	0.476	0.634	0.018
	여자	1,199	4.03	0.90			
2.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남자	1,250	4.09	0.90	0.201	0.841	0.007
	여자	1,199	4.08	0.85			
학교내 평가활동(전체)	남자	1,250	4.07	0.84	0.381	0.703	0.012
	여자	1,199	4.06	0.78			

그림 3-27 성별에 따른 학교내 평가활동 수준



학교 및 사회생활 영역

○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사회생활 영역에서 학교에 관한 인식,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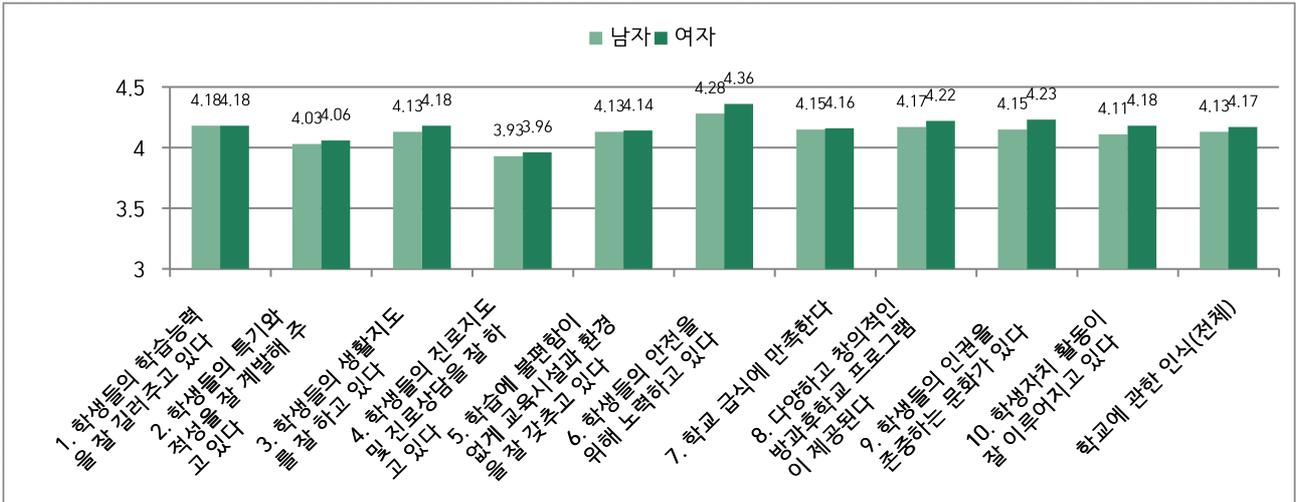
❖ 학교에 관한 인식

- 초등학생의 학교에 관한 인식 설문 문항 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평균 차이는 문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는 남자 4.18점, 여자 4.18점으로 동일한 평균을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0.108$, $p=0.914$). 또한, '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는 남자 4.03점, 여자 4.06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607$, $p=0.544$). '3.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잘 하고 있다'는 남자 4.13점, 여자 4.18점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382$, $p=0.167$). 또한, '4.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잘 하고 있다'는 남자 3.93점, 여자 3.96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808$, $p=0.419$). '5.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는 남자 4.13점, 여자 4.14점으로 거의 동일한 평균을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313$, $p=0.754$). 반면,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남자 4.28점, 여자 4.36점으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404$, $p=0.016$). 또한, '9.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는 남자 4.15점, 여자 4.23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79$, $p=0.038$). 아울러 '10. 학생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남자 4.11점, 여자 4.18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31$, $p=0.033$). 학교에 관한 인식(전체)은 남자 4.13점, 여자 4.17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409$, $p=0.159$).

표 3-28 성별에 따른 학교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남자	1,250	4.18	0.84	-0.108	0.914	-0.004
	여자	1,199	4.18	0.78			
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남자	1,250	4.03	0.90	-0.607	0.544	-0.021
	여자	1,199	4.06	0.84			
3.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잘 하고 있다	남자	1,250	4.13	0.85	-1.382	0.167	-0.047
	여자	1,199	4.18	0.81			
4.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잘 하고 있다	남자	1,250	3.93	0.98	-0.808	0.419	-0.031
	여자	1,199	3.96	0.89			
5.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남자	1,250	4.13	0.91	-0.313	0.754	-0.011
	여자	1,199	4.14	0.87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자	1,250	4.28	0.84	-2.404	0.016	-0.078
	여자	1,199	4.36	0.77			
7.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남자	1,250	4.15	1.06	-0.292	0.770	-0.012
	여자	1,199	4.16	1.00			
8.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남자	1,250	4.17	0.91	-1.395	0.163	-0.050
	여자	1,199	4.22	0.88			
9.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남자	1,250	4.15	0.90	-2.079	0.038	-0.072
	여자	1,199	4.23	0.82			
10. 학생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남자	1,250	4.11	0.91	-2.131	0.033	-0.076
	여자	1,199	4.18	0.86			
학교에 관한 인식(전체)	남자	1,250	4.13	0.74	-1.409	0.159	-0.040
	여자	1,199	4.17	0.67			

그림 3-28 성별에 따른 학교에 관한 인식 수준



❖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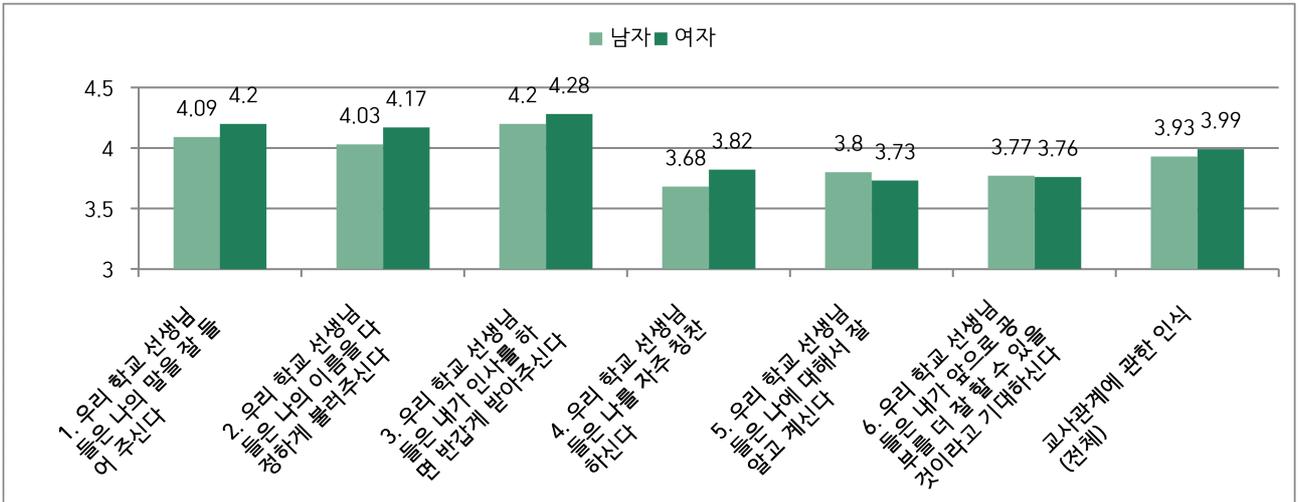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교사관계에 관한 설문 문항 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인식 차이는 일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는 남자 4.09점, 여자 4.20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3.224$, $p=0.001$). 또한, ‘2.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는 남자 4.03점, 여자 4.17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3.832$, $p<0.001$).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남자 4.20점, 여자 4.28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267$, $p=0.024$). 이어서,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자주 칭찬하신다’는 남자 3.68점, 여자 3.82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563$, $p<0.001$). 반면, ‘5.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남자 3.80점, 여자 3.73점으로 남학생이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경계 수준에서 유의미했다($t=1.964$, $p=0.050$). 마지막으로, ‘6.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는 남자 3.77점, 여자 3.76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268$, $p=0.789$).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전체)은 남자 3.93점, 여자 3.99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043$, $p=0.041$).

표 3-29 성별에 따른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남자	1,250	4.09	-3.224	0.001	-0.113
	여자	1,199	4.20			
2.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남자	1,250	4.03	-3.832	<0.001	-0.139
	여자	1,199	4.17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남자	1,250	4.20	-2.267	0.024	-0.077
	여자	1,199	4.28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남자	1,250	3.68	-3.563	<0.001	-0.141
	여자	1,199	3.82			
5.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남자	1,250	3.80	1.964	0.050	0.079
	여자	1,199	3.7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6.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남자	1,250	3.77	1.01	0.268	0.789	0.011
	여자	1,199	3.76	0.96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전체)	남자	1,250	3.93	0.79	-2.043	0.041	-0.063
	여자	1,199	3.99	0.74			

그림 3-29 성별에 따른 교사관계에 관한 인식 수준



❖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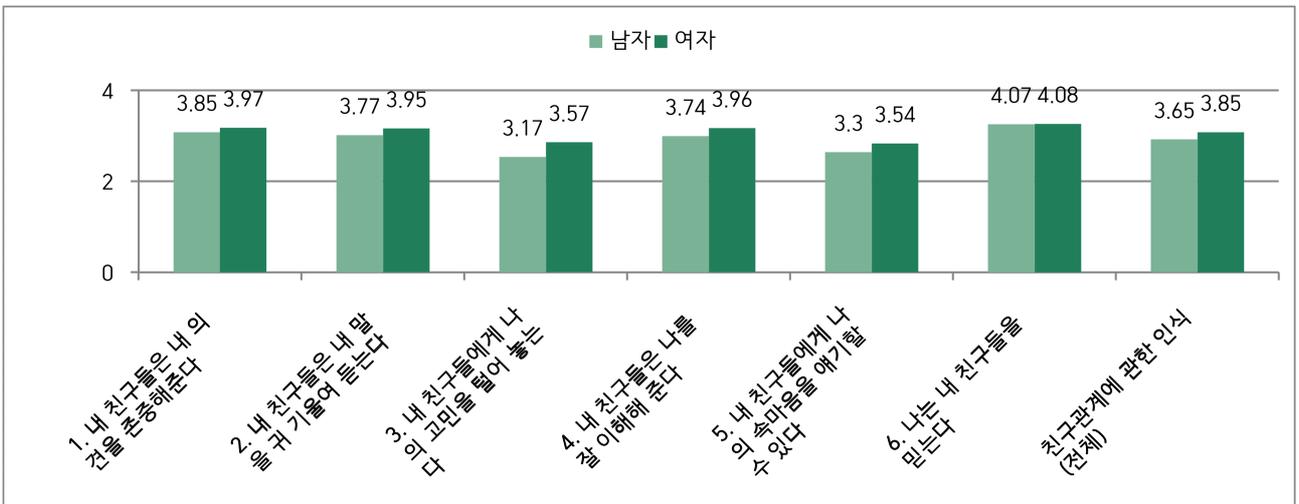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일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남자 3.85점, 여자 3.97점으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3.370, p<0.001$). 또한, ‘2.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남자 3.77점, 여자 3.95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4.521, p<0.001$). ‘3.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남자 3.17점, 여자 3.57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t=-8.237, p<0.001$),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는 남자 3.74점, 여자 3.96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577, p<0.001$). 또한, ‘5.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남자 3.30점, 여자 3.54점으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t=-4.812, p<0.001$). 반면,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는 남자 4.07점, 여자 4.08점으로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335, p=0.737$).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전체)은 남자 3.65점, 여자 3.85점으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t=-5.638, p<0.001$), 성별 간 인식 차이가 일부 문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3-30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남자	1,250	3.85	0.96	-3.370	<0.001	-0.127
	여자	1,199	3.97	0.9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2.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남자	1,250	3.77	0.99	-4.521	<0.001	-0.176
	여자	1,199	3.95	0.94			
3.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남자	1,250	3.17	1.26	-8.237	<0.001	-0.399
	여자	1,199	3.57	1.14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남자	1,250	3.74	1.05	-5.577	<0.001	-0.226
	여자	1,199	3.96	0.96			
5.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남자	1,250	3.30	1.27	-4.812	<0.001	-0.241
	여자	1,199	3.54	1.21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남자	1,250	4.07	1.04	-0.335	0.737	-0.014
	여자	1,199	4.08	0.97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전체)	남자	1,250	3.65	0.89	-5.638	<0.001	-0.197
	여자	1,199	3.85	0.84			

그림 3-30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에 관한 인식 수준



부모자녀관계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교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 부모애착관계, 부모의사소통,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확인하였다.

❖ 부모애착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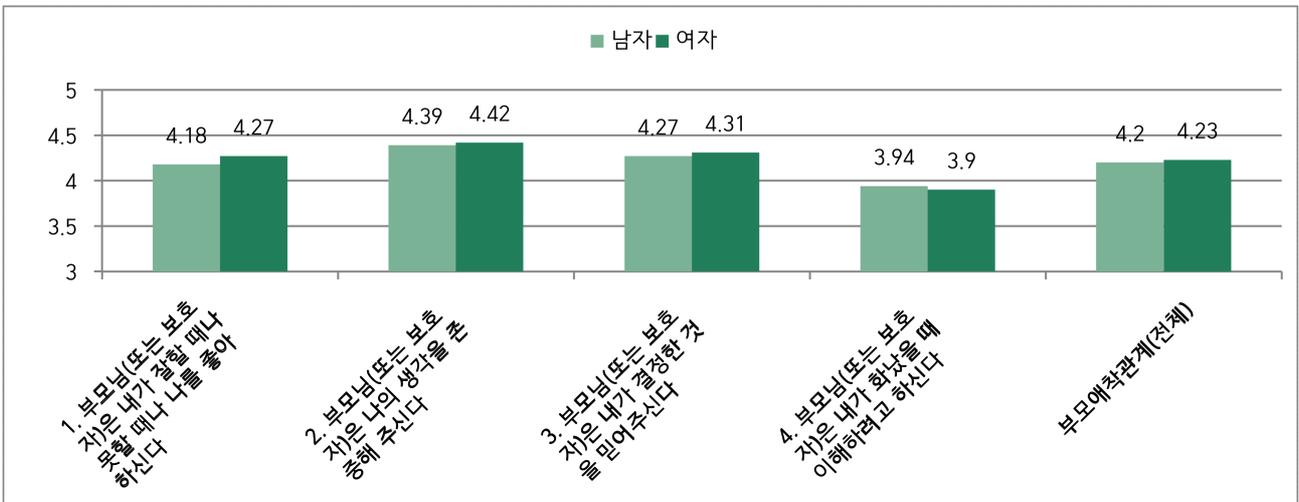
○ 초등학교생의 부모애착관계 설문 문항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일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는 남자 4.18점, 여자 4.27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2.355, p=0.019$). 반면,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는 남자 4.39점, 여자 4.42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887, p=0.375$). '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는 남자 4.27점, 여자 4.31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059, p=0.290$). 또한, '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하신다'는 남자 3.94점, 여자 3.90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881$, $p=0.379$). 부모애착관계(전체)는 남자 4.20점, 여자 4.23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소폭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932$, $p=0.352$).

표 3-31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관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	남자	1,250	4.18	0.99	-2.355	0.019	-0.091
	여자	1,199	4.27	0.92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	남자	1,250	4.39	0.83	-0.887	0.375	-0.029
	여자	1,199	4.42	0.79			
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	남자	1,250	4.27	0.89	-1.059	0.290	-0.037
	여자	1,199	4.31	0.86			
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하신다	남자	1,250	3.94	1.08	0.881	0.379	0.038
	여자	1,199	3.90	1.08			
부모애착관계(전체)	남자	1,250	4.20	0.80	-0.932	0.352	-0.030
	여자	1,199	4.23	0.78			

그림 3-31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관계 수준



❖ 부모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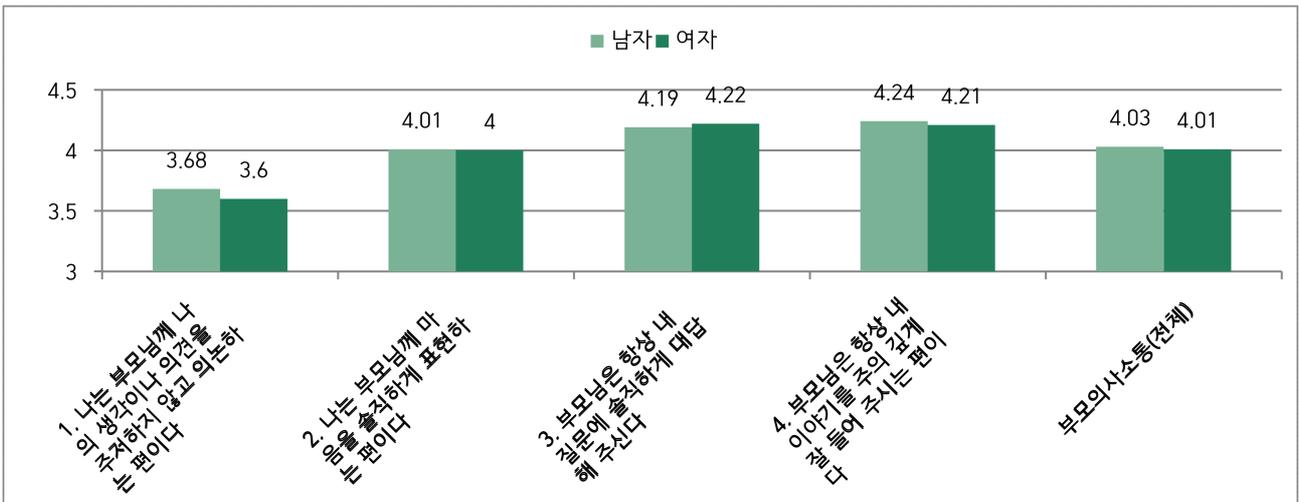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부모의사소통 설문 문항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일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하는 편이다'는 남자 3.68점, 여자 3.60점으로 남학생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737$, $p=0.083$). 또한, '2. 나는 부모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는 남자 4.01점, 여자 4.00점으로 두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없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t=0.414$, $p=0.679$). '3. 부모님은 항상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남자 4.19점, 여자 4.22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약간 더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t=-0.999$, $p=0.318$). '4.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는 남자 4.24점, 여자 4.21점으로 남학생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603$, $p=0.546$). 부모의사소통(전체)은 남자 4.03점, 여자 4.01점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656$, $p=0.512$). 이는 초등학생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2 성별에 따른 부모의사소통 수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하는 편이다	남자	1,250	3.68	1.16	1.737	0.083	0.083
	여자	1,199	3.60	1.19			
2. 나는 부모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남자	1,250	4.01	0.99	0.414	0.679	0.017
	여자	1,199	4.00	1.03			
3. 부모님은 항상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남자	1,250	4.19	0.91	-0.999	0.318	-0.036
	여자	1,199	4.22	0.88			
4.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남자	1,250	4.24	0.92	0.603	0.546	0.022
	여자	1,199	4.21	0.92			
부모의사소통(전체)	남자	1,250	4.03	0.81	0.656	0.512	0.021
	여자	1,199	4.01	0.81			

그림 3-32 성별에 따른 부모의사소통 수준



❖ 부모자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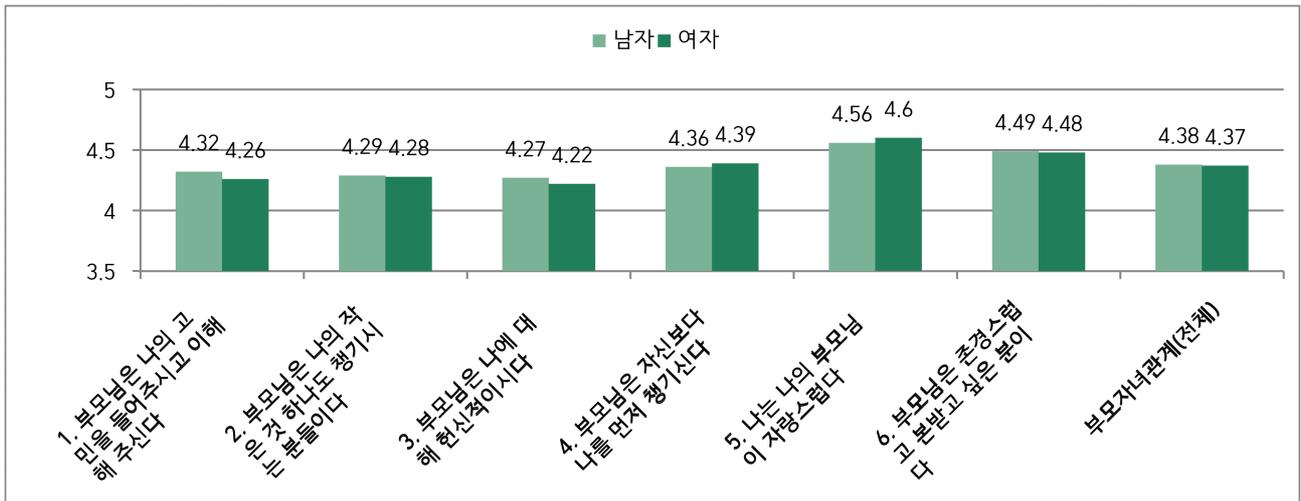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설문 문항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대체로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1. 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남자 4.32점, 여자 4.26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636$, $p=0.102$). 또한, ‘2. 부모님은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챙기시는 분들이다’는 남자 4.29점, 여자 4.28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t=0.316$, $p=0.752$). ‘3. 부모님은 나에 대해 헌신적이었다’는 남자 4.27점, 여자 4.22점으로 남학생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t=1.419$, $p=0.156$). 반면, ‘4. 부모님은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는 남자 4.36점, 여자 4.39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069$, $p=0.285$). '5. 나는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는 남자 4.56점, 여자 4.60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소폭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1.260$, $p=0.208$). 마지막으로, '6. 부모님은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는 남자 4.49점, 여자 4.48점으로 성별 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t=0.032$, $p=0.974$), 부모자녀관계(전체) 또한 남자 4.38점, 여자 4.37점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t=0.292$, $p=0.771$). 이는 초등학생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3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참여 경험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남자	1,250	4.32	0.84	1.636	0.102	0.057
	여자	1,199	4.26	0.89			
2. 부모님은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챙기시는 분들이다	남자	1,250	4.29	0.88	0.316	0.752	0.011
	여자	1,199	4.28	0.87			
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헌신적이다	남자	1,250	4.27	0.87	1.419	0.156	0.050
	여자	1,199	4.22	0.88			
4. 부모님은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	남자	1,250	4.36	0.80	-1.069	0.285	-0.034
	여자	1,199	4.39	0.79			
5. 나는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남자	1,250	4.56	0.74	-1.260	0.208	-0.036
	여자	1,199	4.60	0.69			
6. 부모님은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	남자	1,250	4.49	0.80	0.032	0.974	0.001
	여자	1,199	4.48	0.77			
부모자녀관계(전체)	남자	1,250	4.38	0.70	0.292	0.771	0.008
	여자	1,199	4.37	0.68			

그림 3-33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수준



학교선택/진로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 선택 및 진로 영역 중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진로성숙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하위 설문 문항별로 성별 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그리고 평균 차이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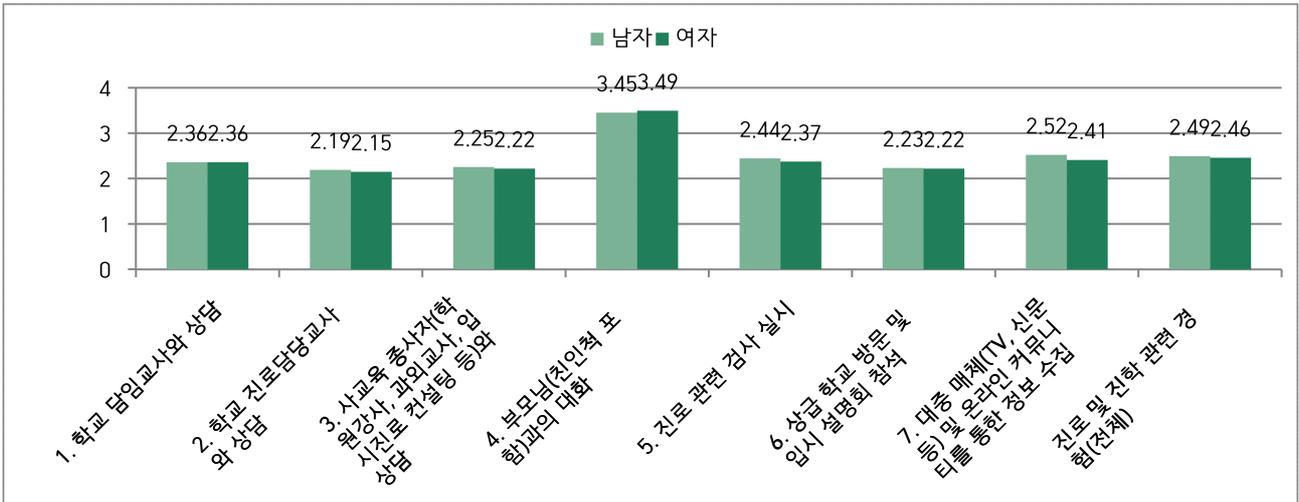
❖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 초등학생의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 결과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은 남자 2.36점, 여자 2.36점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전혀 없었다($t=0.056$, $p=0.956$). 또한, '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은 남자 2.19점, 여자 2.15점으로 남학생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1.193$, $p=0.233$). '3. 사교육 종사자(학원강사, 과외교사, 입시진로 컨설팅 등)와 상담'도 남자 2.25점, 여자 2.22점으로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0.659$, $p=0.510$). 반면, '4. 부모님(친인척 포함)과의 대화'는 남자 3.45점, 여자 3.49점으로 여학생이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892$, $p=0.373$). '5. 진로 관련 검사 실시'는 남자 2.44점, 여자 2.37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t=1.558$, $p=0.119$). '6. 상급 학교 방문 및 입시 설명회 참석' 또한 남자 2.23점, 여자 2.22점으로 차이가 없었다($t=0.272$, $p=0.785$). 마지막으로, '7. 대중 매체(TV, 신문 등)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수집'은 남자 2.52점, 여자 2.41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2.531$, $p=0.011$).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전체)은 남자 2.49점, 여자 2.46점으로 거의 유사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993$, $p=0.321$).

표 3-34 성별에 따른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남자	1,250	2.36	1.00	0.056	0.956	0.002
	여자	1,199	2.36	0.93			
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	남자	1,250	2.19	1.01	1.193	0.233	0.047
	여자	1,199	2.15	0.93			
3. 사교육 종사자(학원강사, 과외교사, 입시진로 컨설팅 등)와 상담	남자	1,250	2.25	1.04	0.659	0.510	0.027
	여자	1,199	2.22	0.98			
4. 부모님(친인척 포함)과의 대화	남자	1,250	3.45	1.14	-0.892	0.373	-0.041
	여자	1,199	3.49	1.12			
5. 진로 관련 검사 실시	남자	1,250	2.44	1.04	1.558	0.119	0.064
	여자	1,199	2.37	0.99			
6. 상급 학교 방문 및 입시 설명회 참석	남자	1,250	2.23	1.06	0.272	0.785	0.011
	여자	1,199	2.22	0.98			
7. 대중 매체(TV, 신문 등)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수집	남자	1,250	2.52	1.12	2.531	0.011	0.109
	여자	1,199	2.41	1.01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전체)	남자	1,250	2.49	0.81	0.993	0.321	0.031
	여자	1,199	2.46	0.75			

그림 3-34 성별에 따른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 수준



❖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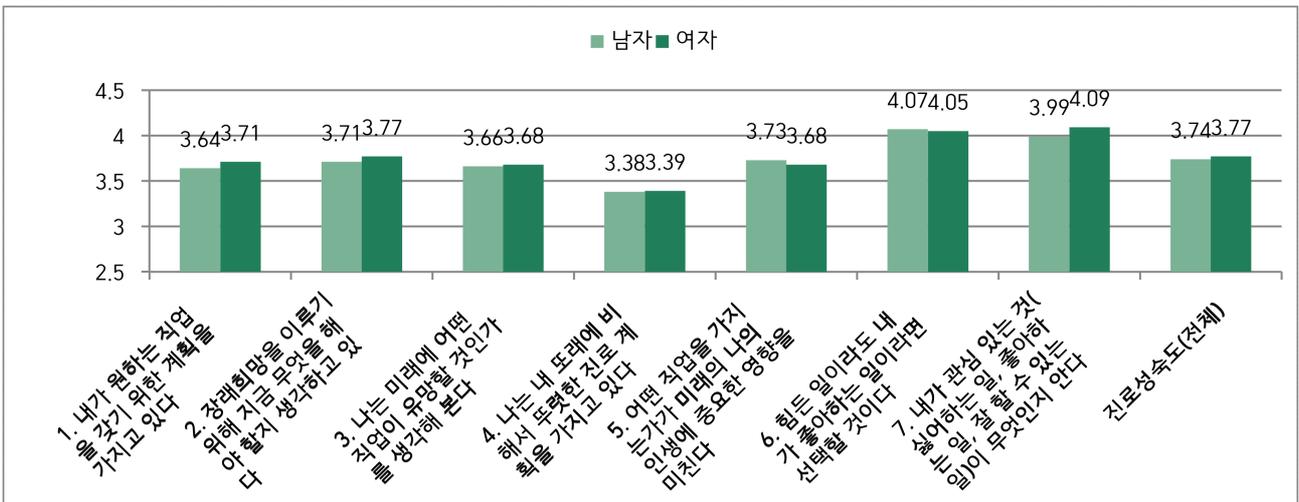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설문 문항 결과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녀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남자 3.64점, 여자 3.71점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559$, $p=0.119$). 또한,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는 남자 3.71점, 여자 3.77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369$, $p=0.171$). '3.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남자 3.66점, 여자 3.68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352$, $p=0.725$). '4.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남자 3.38점, 여자 3.39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t=-0.234$, $p=0.815$), '5.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남자 3.73점, 여자 3.68점으로 남학생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t=1.086$, $p=0.277$). '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는 남자 4.07점, 여자 4.05점으로 평균 차이가 없었다($t=0.596$, $p=0.551$). 반면, '7. 내가 관심 있는 것(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남자 3.99점, 여자 4.09점으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585$, $p=0.010$). 진로성숙도(전체)는 남자 3.74점, 여자 3.77점으로, 여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0.790$, $p=0.430$).

표 3-35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자	1,250	3.64	1.20	-1.559	0.119	-0.072
	여자	1,199	3.71	1.09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남자	1,250	3.71	1.16	-1.369	0.171	-0.062
	여자	1,199	3.77	1.07			
3.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남자	1,250	3.66	1.16	-0.352	0.725	-0.016
	여자	1,199	3.68	1.0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4.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자	1,250	3.38	1.15	-0.234	0.815	-0.010
	여자	1,199	3.39	1.06			
5.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남자	1,250	3.73	1.08	1.086	0.277	0.047
	여자	1,199	3.68	1.04			
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남자	1,250	4.07	0.99	0.596	0.551	0.023
	여자	1,199	4.05	0.91			
7. 내가 관심 있는 것(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남자	1,250	3.99	1.05	-2.585	0.010	-0.103
	여자	1,199	4.09	0.92			
진로성숙도(전체)	남자	1,250	3.74	0.92	-0.790	0.430	-0.028
	여자	1,199	3.77	0.81			

그림 3-35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수준



IV

학부모 조사결과



제 IV 장

학부모 조사결과

인구학적 배경

- 이 단락에서는 학부모 설문 응답자의 구성, 성별, 직업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비율과 응답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부모 응답자의 전반적인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 응답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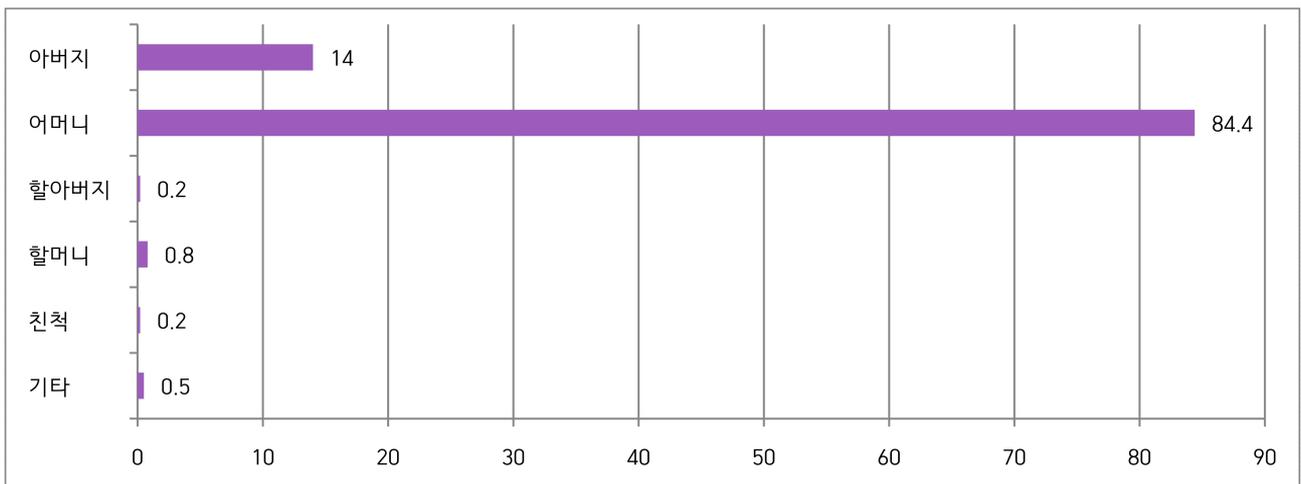
- 학부모 설문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수는 2,61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머니가 2,205명(8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아버지는 365명(14.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응답자는 각각 5명(0.2%)과 20명(0.8%)으로 소수에 불과했으며, 친척은 4명(0.2%), 기타는 14명(0.5%)으로 나타났다.

표 4-1 학부모_응답자 구성

단위: 명, (비율: %)

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기타	총계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365 (14.0)	2,205 (84.4)	5 (0.2)	20 (0.8)	4 (0.2)	14 (0.5)	2,613 (100.0)

그림 4-1 학부모_응답자 구성 비율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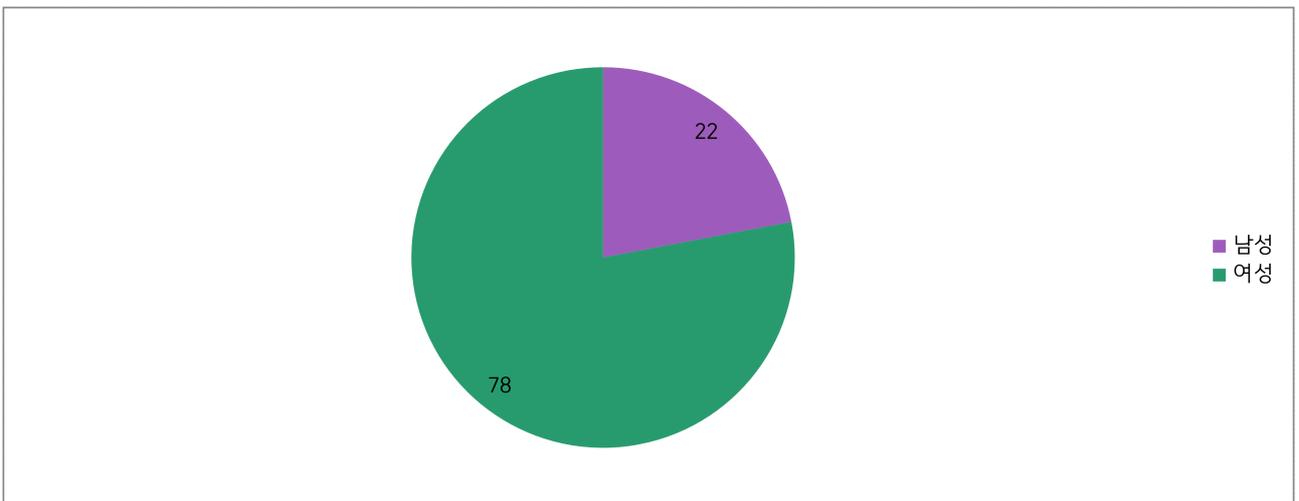
○ 학부모 설문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여성이 2,037명(7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576명(22.0%)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3.5배 더 높아, 설문 참여가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표 4-2 학부모_성별

단위: 명, (비율: %)

구분	남성	여성	총계
성별은 무엇입니까?	576 (22.0)	2,037 (78.0)	2,613 (100.0)

그림 4-2 학부모_성별 비율



❖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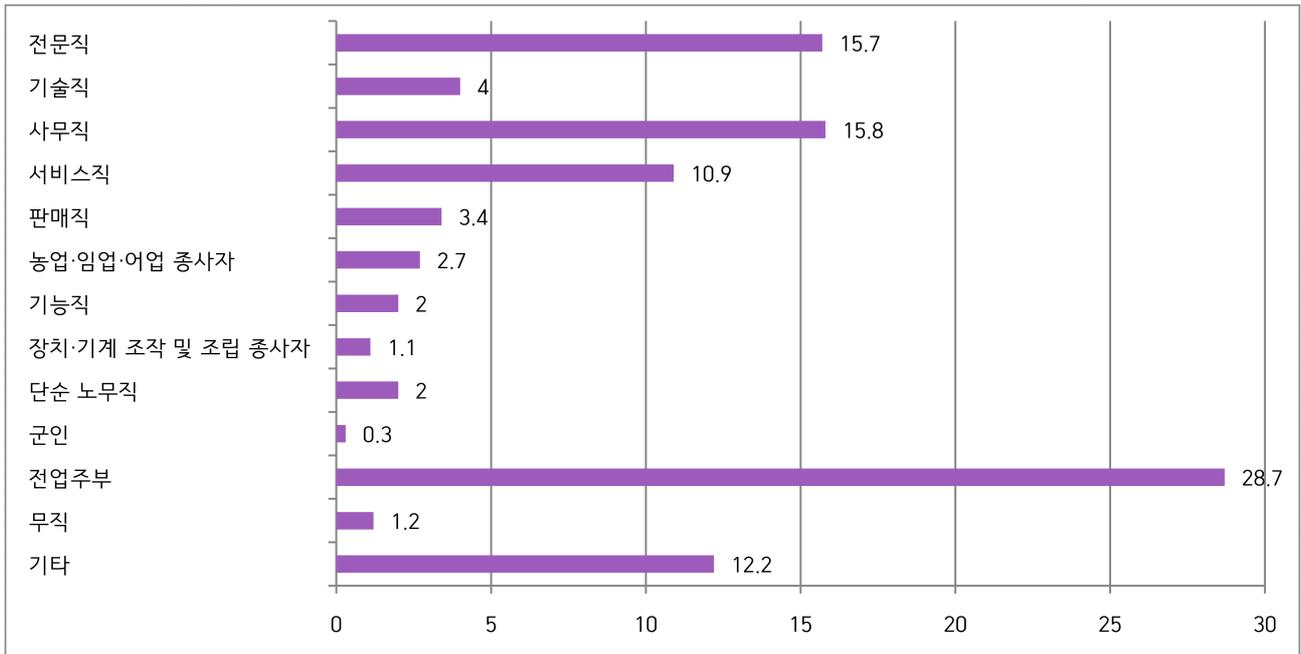
○ 설문 응답자의 직업 구성을 살펴본 결과, 전업주부가 750명(28.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무직은 413명(15.8%), 전문직은 411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직 응답자는 286명(10.9%), 기타 응답자는 319명(12.2%)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술직은 104명(4.0%), 판매직은 88명(3.4%),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는 70명(2.7%)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직과 단순 노무직은 각각 52명(2.0%)과 53명(2.0%)이었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29명(1.1%), 군인은 7명(0.3%)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3 학부모_직업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직	군인	전업 주부	무직	기타	총계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411 (15.7)	104 (4.0)	413 (15.8)	286 (10.9)	88 (3.4)	70 (2.7)	52 (2.0)	29 (1.1)	53 (2.0)	7 (0.3)	750 (28.7)	31 (1.2)	319 (12.2)	2,613 (100.0)

그림 4-3 학부모_직업 비율



사교육 및 교육비

- 이 단락에서는 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와 교육비 지출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에 대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응답 비율과 인원을 살펴보았다, 과목별 참여 경향성 파악과 더불어, 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와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을 함께 분석하여 사교육 및 교육비 지출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 특히,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요 과목에서의 사교육 참여 현황과 교육비 지출 패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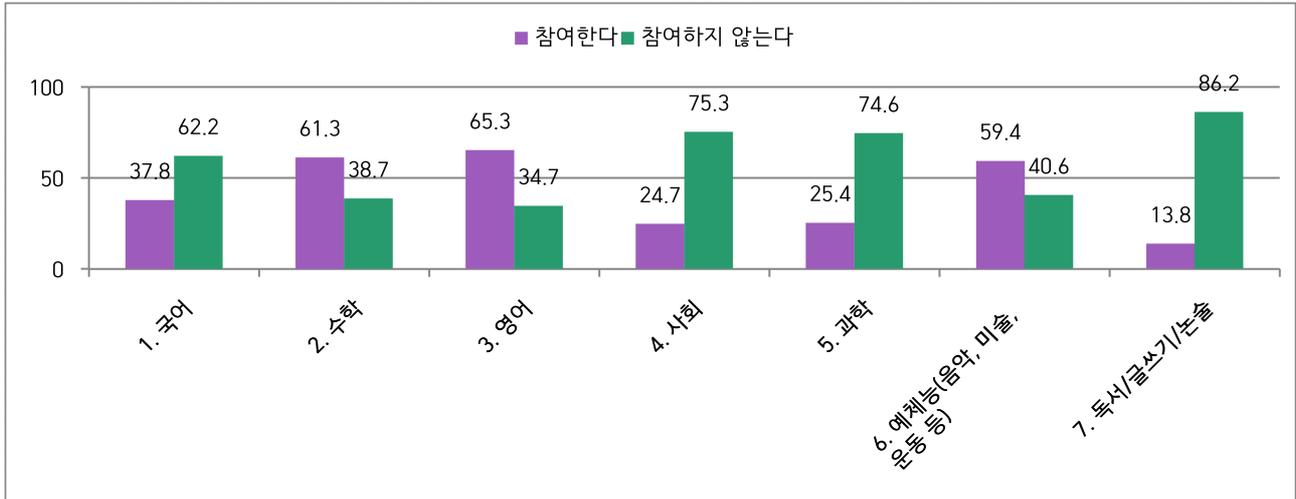
- 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주요 과목 중 영어와 수학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각각 65.3%(1,707명)와 61.3%(1,60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 과목은 37.8%(989명)의 응답자가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사회와 과학 과목의 경우 각각 24.7%(645명)와 25.4%(664명)로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주요 과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반면 예체능 과목은 59.4%(1,553명)가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해, 주요 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에서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독서, 글쓰기, 논술과 관련된 사교육은 13.8%(360명)의 참여율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사교육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와 수학에서의 사교육 집중도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예체능 과목에서의 높은 참여율도 확인되었다.

표 4-4 학부모_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

단위: 명, (비율: %)

구분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총계
1. 국어	989 (37.8)	1,624 (62.2)	2,613 (100.0)
2. 수학	1,603 (61.3)	1,010 (38.7)	2,613 (100.0)
3. 영어	1,707 (65.3)	906 (34.7)	2,613 (100.0)
4. 사회	645 (24.7)	1,968 (75.3)	2,613 (100.0)
5. 과학	664 (25.4)	1,949 (74.6)	2,613 (100.0)
6.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	1,553 (59.4)	1,060 (40.6)	2,613 (100.0)
7. 독서/글쓰기/논술	360 (13.8)	2,253 (86.2)	2,613 (100.0)

그림 4-4 학부모_과목별 사교육 참여 여부



❖ 과목별 사교육 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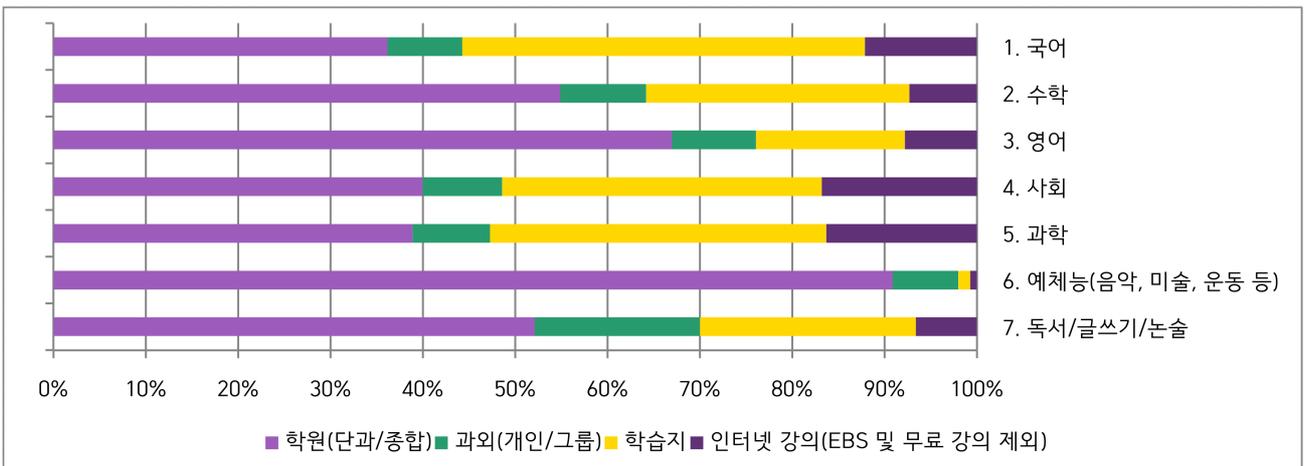
- 과목별 사교육 참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주요 과목별로 학원, 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참여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어 과목은 전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학습지의 비율이 43.6%(449명)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참여는 36.2%, 인터넷 강의와 과외는 각각 12.1%, 8.1%로 나타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과목은 전체 사교육 참여자 중 학원 참여율이 67.0%(1,193명)로 가장 높았으며, 과외와 학습지, 인터넷 강의의 비율이 각각 9.1%, 16.1%, 7.8%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사교육이 주로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학 과목 역시 학원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참여율은 54.9%(925명)로 영어에 이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학습지가 28.5%, 과외가 9.3%, 인터넷 강의를 7.3%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은 영어에 비해 학습지의 활용도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사회와 과학 과목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사회에서는 학원이 40.0%(266명), 학습지가 34.6%로 나타났으며, 과학 역시 학원 참여율이 38.9%(269명), 학습지가 36.4%로 주요 참여 유형을 차지했다.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학원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90.9%(1,440명)를 기록했다. 반면, 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의 비율은 각각 7.1%, 1.3%, 0.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예체능 과목이 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글쓰기/논술 과목의 경우, 학원 참여율이 52.2%(190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학습지가 23.4%, 과외가 17.9%, 인터넷 강의를 6.6%로 나타났다. 학원은 모든 과목에서 가장 주요한 사교육 참여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어, 수학, 예체능 과목에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인터넷 강의는 일부 과목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4-5 학부모_과목별 사교육 참여 유형

단위: 명, (비율: %)

구분	학원(단과/종합)	과외(개인/그룹)	학습지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전체
1. 국어	373 (36.2)	83 (8.1)	449 (43.6)	124 (12.1)	1,029 (100.0)
2. 수학	925 (54.9)	156 (9.3)	480 (28.5)	123 (7.3)	1,684 (100.0)
3. 영어	1,193 (67.0)	162 (9.1)	287 (16.1)	138 (7.8)	1,780 (100.0)
4. 사회	266 (40.0)	57 (8.6)	230 (34.6)	112 (16.8)	665 (100.0)
5. 과학	269 (38.9)	58 (8.4)	252 (36.4)	113 (16.3)	692 (100.0)
6.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	1,440 (90.9)	113 (7.1)	21 (1.3)	11 (0.7)	1,585 (100.0)
7. 독서/글쓰기/논술	190 (52.2)	65 (17.9)	85 (23.4)	24 (6.6)	364 (100.0)

그림 4-5 학부모_과목별 사교육 참여 유형 비율



❖ 총 교육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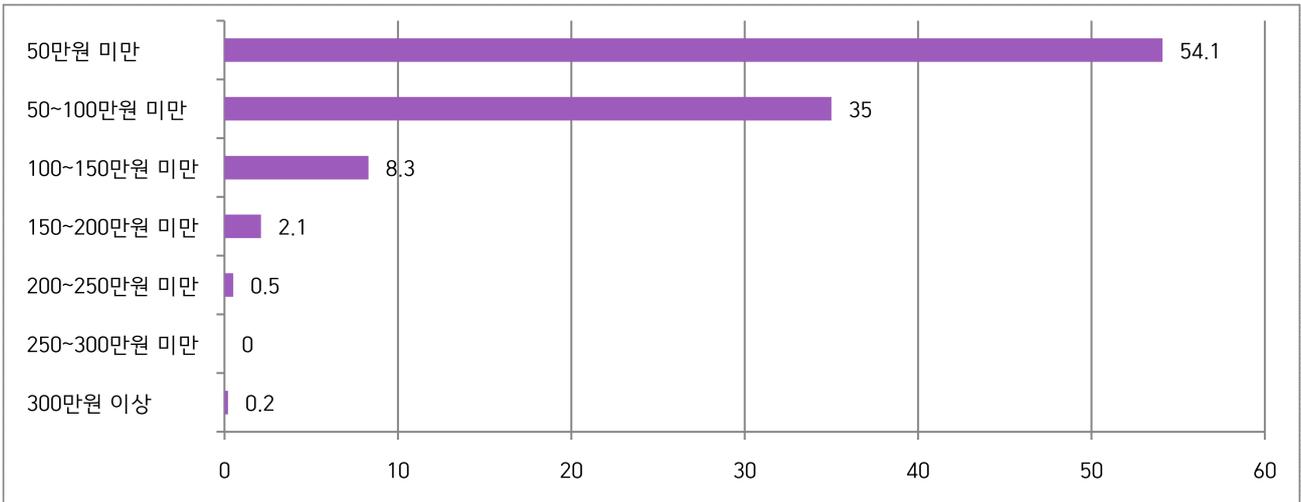
○ 총 교육비 지출 현황을 확인하면, 전체 2,613명 중 1,413명(54.1%)이 월 교육비 지출을 50만 원 미만으로 보고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914명(35.0%)이 해당한다고 응답해 두 구간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를 이루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의 지출을 보고한 응답자는 216명(8.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15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54명(2.1%),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미만이 12명(0.5%)으로 극히 적은 수준이었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보고한 응답자는 4명(0.2%)으로 확인되었다.

표 4-6 학부모_총 교육비 지출

단위: 명, (비율: %)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총계
귀 닥에서는 사교육 및 공교육을 포함한 총 교육비 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1,413 (54.1)	914 (35.0)	216 (8.3)	54 (2.1)	12 (0.5)	0 (0.0)	4 (0.2)	2,613 (100.0)

그림 4-6 학부모_총 교육비 지출 비율



❖ 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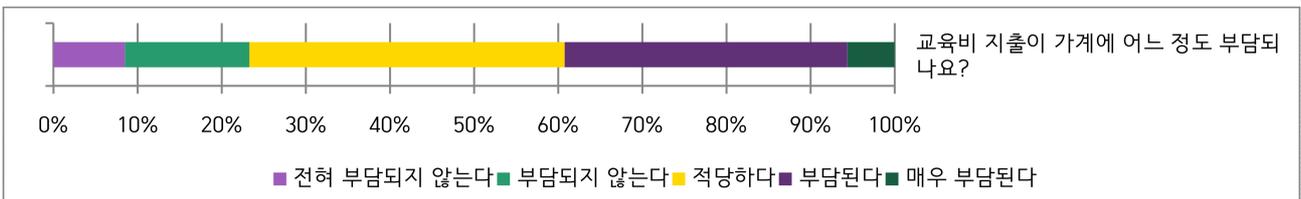
○ 학부모 설문 응답에서 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97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879명),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5.6%(147명)로 전체의 약 5분의 2를 차지하여 상당한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담되지 않는다"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4.8%(387명)와 8.5%(221명)로 확인되었다. 응답의 평균값은 3.13으로, 전체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보통 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4-7 학부모_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적당하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되나요?	221 (8.5)	387 (14.8)	979 (37.5)	879 (33.6)	147 (5.6)	2,613 (100.0)	3.13 (1.02)

그림 4-7 학부모_교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비율



❖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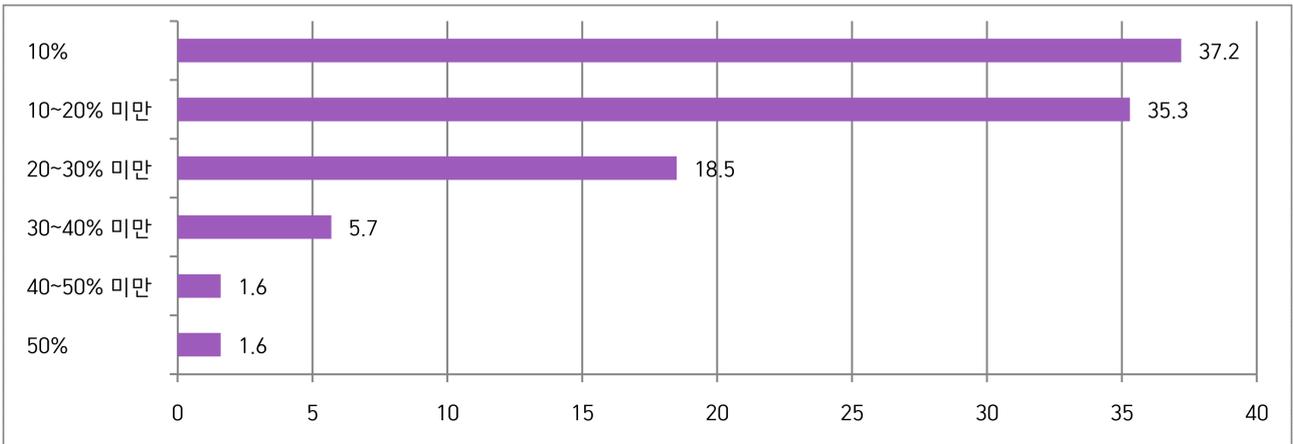
○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2%(97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0~20% 미만" 구간이 35.3%(923명)로 뒤를 이었으며, 이 두 구간이 전체 응답자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득의 20% 미만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8.5%(484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30~40% 미만"은 5.7%(149명), "40~50% 미만"과 "50% 이상"은 각각 1.6%(43명)와 1.6%(41명)로 나타나 고비율 지출은 소수에 해당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교육비 지출이 소득 대비 낮거나 중간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었다.

표 4-8 학부모_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단위: 명, (비율: %)

구분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총계
교육비 지출이 가계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나요?	973 (37.2)	923 (35.3)	484 (18.5)	149 (5.7)	43 (1.6)	41 (1.6)	2,613 (100.0)

그림 4-8 학부모_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보호자의 지원

-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과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녀 교육 지원은 학습 분위기 조성, 학교 공부와 숙제 확인, 공부 방법 조언, 성적 관리, 사교육 정보 수집, 학습 자료 제공 등 항목을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항목에서는 외식, 운동, 공연 관람, 전시 관람, 도서관 방문, 여행 등의 활동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 및 여가 지원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자녀의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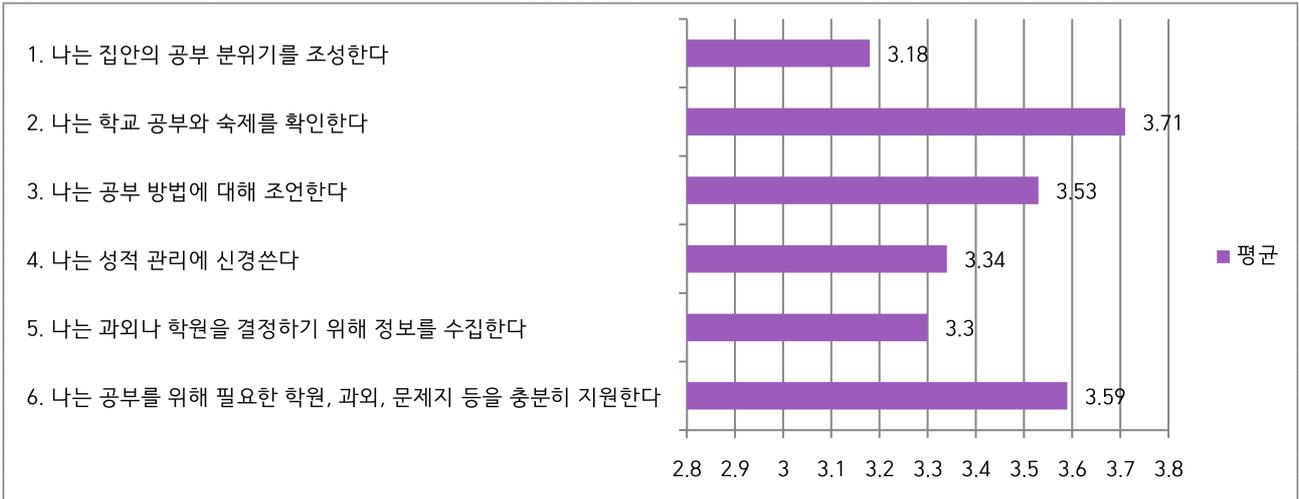
- 학부모의 자녀의 교육 지원은 6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자녀의 교육 지원(전체)의 평균은 3.44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나는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는 3.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1. 나는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3.1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지원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공부와 숙제 확인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9 학부모_자녀의 교육지원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84 (3.2)	352 (13.5)	1,352 (51.7)	663 (25.4)	162 (6.2)	2,613 (100.0)	3.18 (0.86)
2. 나는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32 (1.2)	171 (6.5)	765 (29.3)	1,188 (45.5)	457 (17.5)	2,613 (100.0)	3.71 (0.87)
3. 나는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39 (1.5)	201 (7.7)	947 (36.2)	1,192 (45.6)	234 (9.0)	2,613 (100.0)	3.53 (0.82)
4. 나는 성적 관리에 신경쓴다	81 (3.1)	279 (10.7)	1,136 (43.5)	900 (34.4)	217 (8.3)	2,613 (100.0)	3.34 (0.89)
5. 나는 과외나 학원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120 (4.6)	380 (14.5)	959 (36.7)	915 (35.0)	239 (9.1)	2,613 (100.0)	3.30 (0.98)
6. 나는 공부를 위해 필요한 학원, 과외, 문제지 등을 충분히 지원한다	41 (1.6)	190 (7.3)	956 (36.6)	1,042 (39.9)	384 (14.7)	2,613 (100.0)	3.59 (0.88)
자녀의 교육지원(전체)							3.44 (0.65)

그림 4-9 학부모_자녀의 교육지원 평균



❖ 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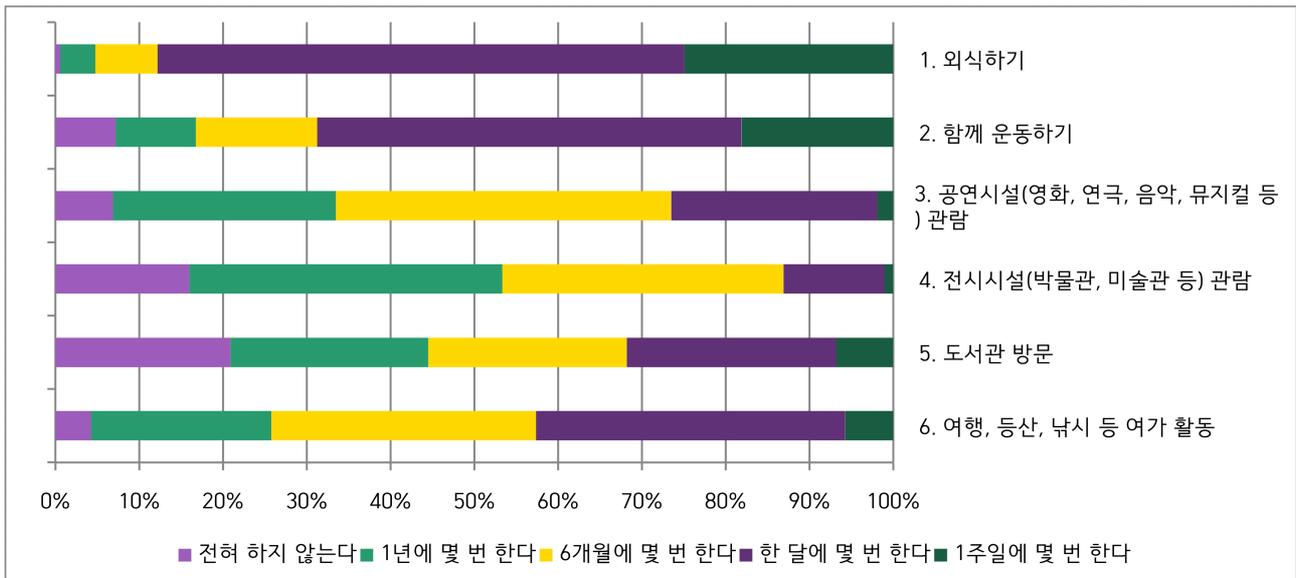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은 6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하지 않는다 ~ 5점: 1주일에 몇 번 한다)로 측정되었다.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활동은 외식하기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9%(1,643명)가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응답했으며, 24.9%(650명)는 "1주일에 몇 번 한다"고 답해, 외식이 가족 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이루어지는 활동은 함께 운동하기로, 50.7%(1,324명)가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답했고, 18.1%(474명)는 "1주일에 몇 번 한다"고 응답하여 가족 간 신체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연 관람(영화, 연극, 음악, 뮤지컬 등)은 "6개월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40.0%(1,046명)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은 24.6%(643명)로 나타나, 문화 활동 참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전시 관람(박물관, 미술관 등)은 "1년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37.4%(976명)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은 12.1%(316명), "1주일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은 1.0%(27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도서관 방문의 경우,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25.0%(654명), "6개월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23.7%(620명)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1주일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은 6.8%(177명)로 나타나 정기적인 방문보다는 간헐적인 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행 및 여가 활동(등산, 낚시 등)은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36.9%(964명)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31.6%(826명)로 뒤를 이어 가족 단위의 여행이 주로 월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식 및 운동과 같은 활동에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전시 관람이나 도서관 방문과 같은 문화 활동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연 관람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전시 관람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 방문 또한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학부모_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몇 번 한다	6개월에 몇 번 한다	한 달에 몇 번 한다	1주일에 몇 번 한다	총계
1. 외식하기	16 (0.6)	110 (4.2)	194 (7.4)	1,643 (62.9)	650 (24.9)	2,613 (100.0)
2. 함께 운동하기	187 (7.2)	250 (9.6)	378 (14.5)	1,324 (50.7)	474 (18.1)	2,613 (100.0)
3. 공연시설(영화, 연극, 음악, 뮤지컬 등) 관람	179 (6.9)	696 (26.6)	1,046 (40.0)	643 (24.6)	49 (1.9)	2,613 (100.0)
4.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관람	417 (16.0)	976 (37.4)	877 (33.6)	316 (12.1)	27 (1.0)	2,613 (100.0)
5. 도서관 방문	545 (20.9)	617 (23.6)	620 (23.7)	654 (25.0)	177 (6.8)	2,613 (100.0)
6. 여행, 등산, 낚시 등 여가 활동	112 (4.3)	561 (21.5)	826 (31.6)	964 (36.9)	150 (5.7)	2,613 (100.0)

그림 4-10 학부모_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비율



부모자녀관계

- 이 단락에서는 학부모의 양육행동과 초등학생의 생활 특성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양육행동은 자녀의 방과 후 활동 파악, 외출 시 귀가 시간 확인, 화를 내는 이유 설명 등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응답 비율과 평균 점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 및 생활에 어느 정도 관심과 관여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 양육행동 조사는 자녀의 행동 및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과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자녀의 학업 및 행동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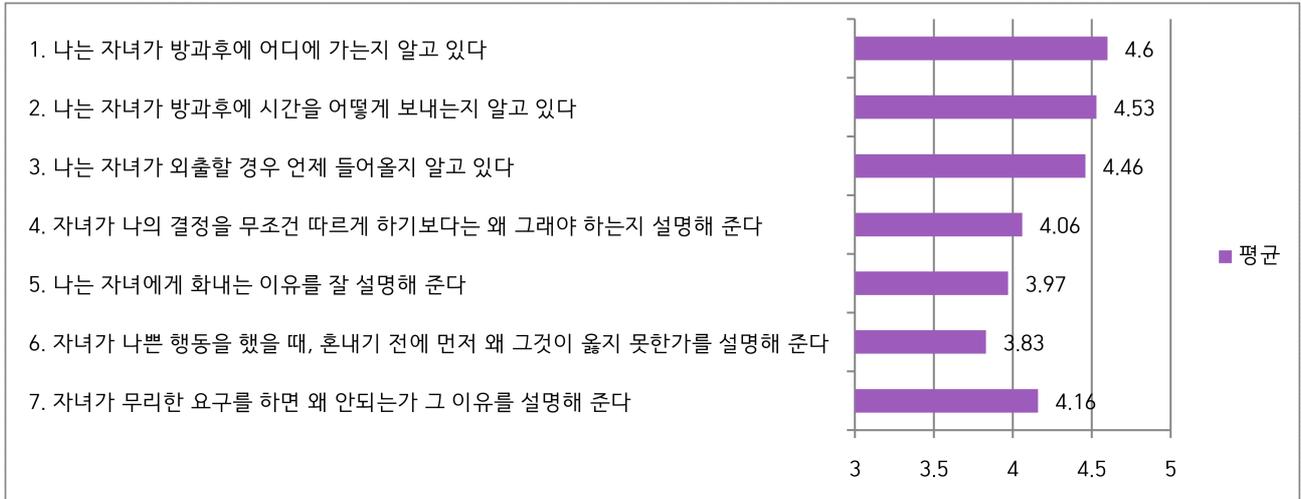
- 학부모의 양육행동은 7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양육행동(전체)의 평균은 4.23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자녀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다’는 4.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6.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준다’는 3.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활동이나 외출과 관련된 정보에 높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를 중시하며 무리한 요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설명하려는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자녀의 행동 지도와 관련된 설명의 빈도는 다른 양육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표 4-11 학부모_양육행동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자녀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다	2 (0.1)	11 (0.4)	63 (2.4)	869 (33.3)	1,668 (63.8)	2,613 (100.0)	4.60 (0.57)
2. 나는 자녀가 방과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	3 (0.1)	5 (0.2)	112 (4.3)	986 (37.7)	1,507 (57.7)	2,613 (100.0)	4.53 (0.60)
3. 나는 자녀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다	5 (0.2)	14 (0.5)	150 (5.7)	1,039 (39.8)	1,405 (53.8)	2,613 (100.0)	4.46 (0.65)
4. 자녀가 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5 (0.2)	31 (1.2)	478 (18.3)	1,377 (52.7)	722 (27.6)	2,613 (100.0)	4.06 (0.72)
5. 나는 자녀에게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7 (0.3)	51 (2.0)	585 (22.4)	1,328 (50.8)	642 (24.6)	2,613 (100.0)	3.97 (0.76)
6.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준다	10 (0.4)	125 (4.8)	712 (27.2)	1,218 (46.6)	548 (21.0)	2,613 (100.0)	3.83 (0.82)
7.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3 (0.1)	22 (0.8)	331 (12.7)	1,462 (56.0)	795 (30.4)	2,613 (100.0)	4.16 (0.67)
양육행동(전체)							4.23 (0.51)

그림 4-11 학부모_양육행동 평균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 학부모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희망 대학 지역,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 및 해당 경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적용하여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와 학교생활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당 조사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주요 경향성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별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학부모가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하는 채널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은 학부모의 기대와 지원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교육 정책 및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자녀 희망 교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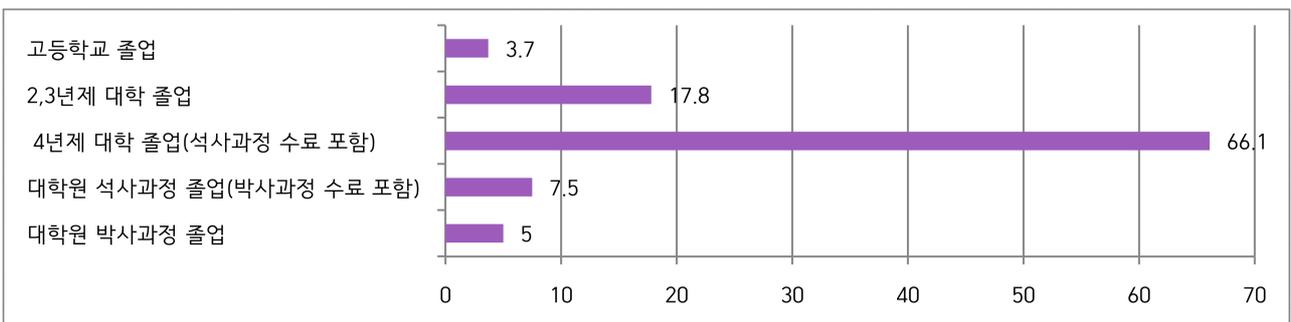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조사 결과, '4년제 대학 졸업(석사과정 수료 포함)'을 희망하는 비율이 66.1%(1,72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최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2,3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17.8%(465명)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3.7%(97명)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박사과정 수료 포함)'을 희망하는 비율은 7.5%(195명),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5.0%(130명)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78.6%에 해당하여,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표 4-12 학부모_자녀 희망 교육 수준

단위: 명, (비율: %)

구분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석사과정 수료 포함)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박사과정 수료 포함)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총계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길 희망하십니까?	97 (3.7)	465 (17.8)	1,726 (66.1)	195 (7.5)	130 (5.0)	2,613 (100.0)

그림 4-12 학부모_자녀 희망 교육 수준 비율



❖ 희망 대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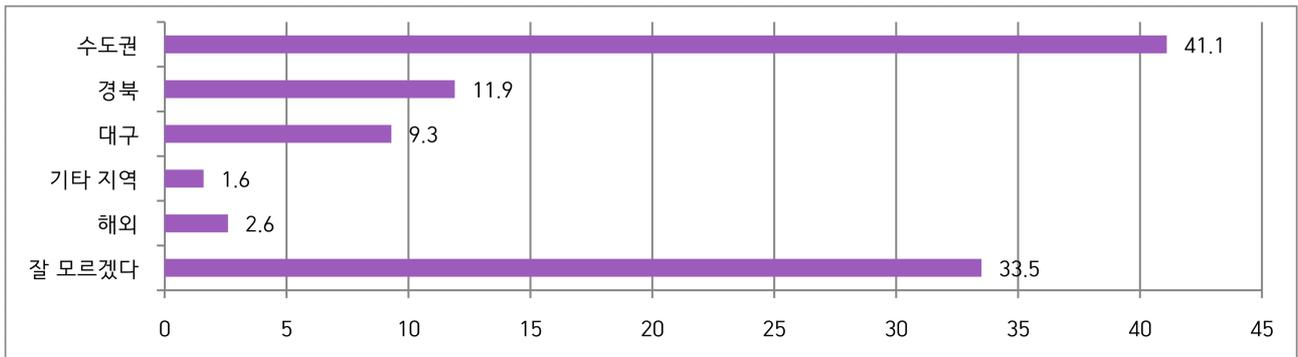
-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 지역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을 희망하는 비율이 41.1%(1,07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학부모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선호하거나 자녀의 진학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5%(875명)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상당수의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을 뜻한다. 경북 지역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11.9%(310명), 대구는 9.3%(244명)로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은 1.6%(43명), 해외는 2.6%(67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표 4-13 학부모_희망 대학 지역

단위: 명, (비율: %)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경북	대구	기타 지역	해외	잘 모르겠다	총계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교 지역	1,074 (41.1)	310 (11.9)	244 (9.3)	43 (1.6)	67 (2.6)	875 (33.5)	2,613 (100.0)

그림 4-13 학부모_희망 대학 지역 비율



❖ 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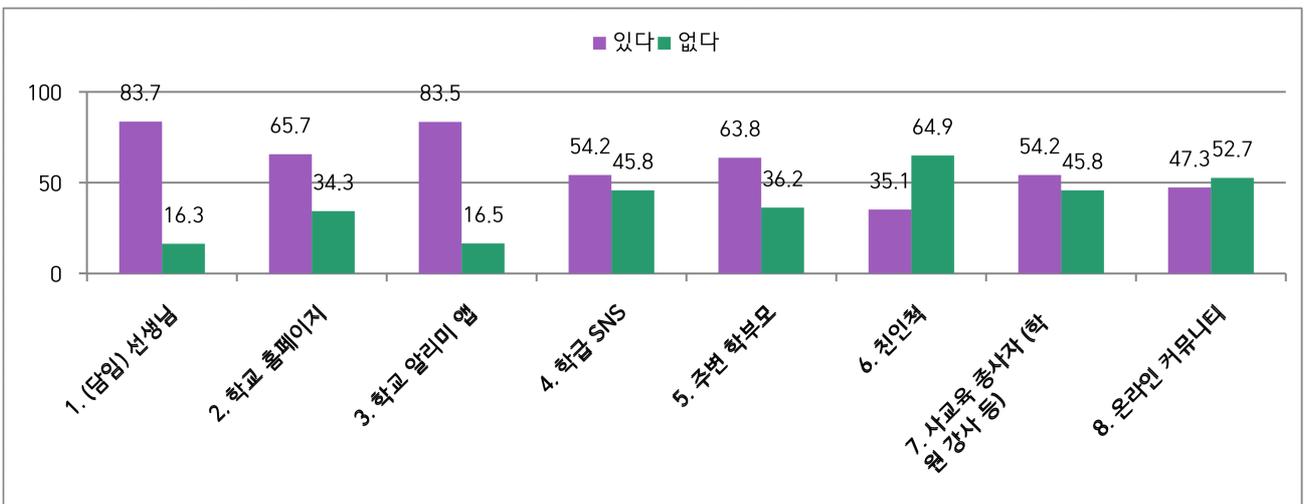
-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는 8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를 분석한 결과, '(담임) 선생님'이 83.7%(2,18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로 교사를 통해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학교 알리미 앱'을 통한 정보 취득 비율이 83.5%(2,183명), '학교 홈페이지'는 65.7%(1,717명), '주변 학부모'는 63.8%(1,666명)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급 SNS'와 '사교육 종사자(학원 강사 등)'는 각각 54.2%(1,415명, 1,417명)로 응답이 분포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47.3%(1,237명)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친인척'을 통한 정보 취득 비율은 35.1%(918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부모들이 주로 담임교사나 학교의 공식적 경로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부모_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

단위: 명, (비율: %)

구분	있다	없다	총계
1. (담임) 선생님	2,187 (83.7)	426 (16.3)	2,613 (100.0)
2. 학교 홈페이지	1,717 (65.7)	896 (34.3)	2,613 (100.0)
3. 학교 알리미 앱	2,183 (83.5)	430 (16.5)	2,613 (100.0)
4. 학급 SNS	1,415 (54.2)	1,198 (45.8)	2,613 (100.0)
5. 주변 학부모	1,666 (63.8)	947 (36.2)	2,613 (100.0)
6. 친인척	918 (35.1)	1,695 (64.9)	2,613 (100.0)
7. 사교육 종사자 (학원 강사 등)	1,417 (54.2)	1,196 (45.8)	2,613 (100.0)
8. 온라인 커뮤니티	1,237 (47.3)	1,376 (52.7)	2,613 (100.0)

그림 4-14 학부모_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



❖ 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에 따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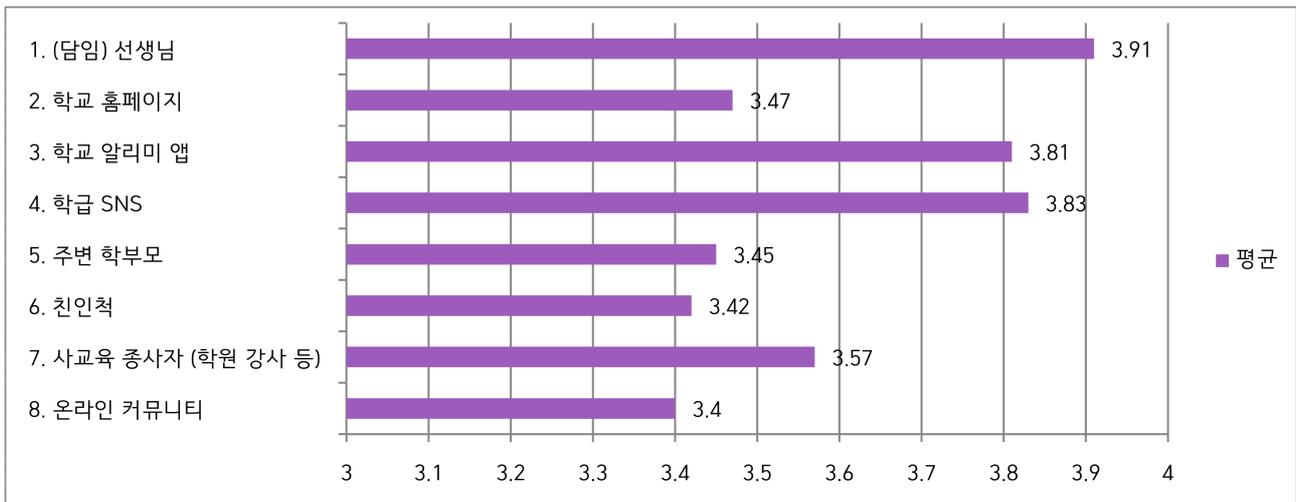
○ 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에 따른 만족도는 8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전체)의 평균은 3.64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담임) 선생님’은 3.9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8. 온라인 커뮤니티’는 3.4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얻는 데 있어 교사를 가장 신뢰하며, 만족감도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학교 알리미 앱과 학급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가 정보 제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친인척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5 학부모_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에 따른 만족도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담임) 선생님	4 (0.2)	11 (0.5)	713 (32.6)	918 (42.0)	541 (24.7)	2,187 (100.0)	3.91 (0.78)
2. 학교 홈페이지	12 (0.7)	53 (3.1)	952 (55.4)	521 (30.3)	179 (10.4)	1,717 (100.0)	3.47 (0.75)
3. 학교 알리미 앱	13 (0.6)	24 (1.1)	819 (37.5)	844 (38.7)	483 (22.1)	2,183 (100.0)	3.81 (0.81)
4. 학급 SNS	15 (1.1)	15 (1.1)	498 (35.2)	553 (39.1)	334 (23.6)	1,415 (100.0)	3.83 (0.84)
5. 주변 학부모	18 (1.1)	56 (3.4)	904 (54.3)	540 (32.4)	148 (8.9)	1,666 (100.0)	3.45 (0.75)
6. 친인척	19 (2.1)	40 (4.4)	486 (52.9)	283 (30.8)	90 (9.8)	918 (100.0)	3.42 (0.81)
7. 사교육 종사자 (학원 강사 등)	10 (0.7)	39 (2.8)	667 (47.1)	533 (37.6)	168 (11.9)	1,417 (100.0)	3.57 (0.76)
8. 온라인 커뮤니티	13 (1.1)	42 (3.4)	720 (58.2)	356 (28.8)	106 (8.6)	1,237 (100.0)	3.40 (0.74)
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에 따른 만족도(전체)							3.64 (0.57)

그림 4-15 학부모_자녀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에 따른 만족도 평균



학부모 참여 및 학교만족

- 이 단락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경험과 학교 만족도를 분석하여,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교 참여 경험은 7개의 주요 활동(예: 공개수업 참관, 자녀 관련 상담, 학부모 단체 참여 등)에 대해 빈도분석을 적용하여 학부모의 참여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 양상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학교 활동과의 연계성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학부모들의 학교 만족과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교와 가정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 개선 및 안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참여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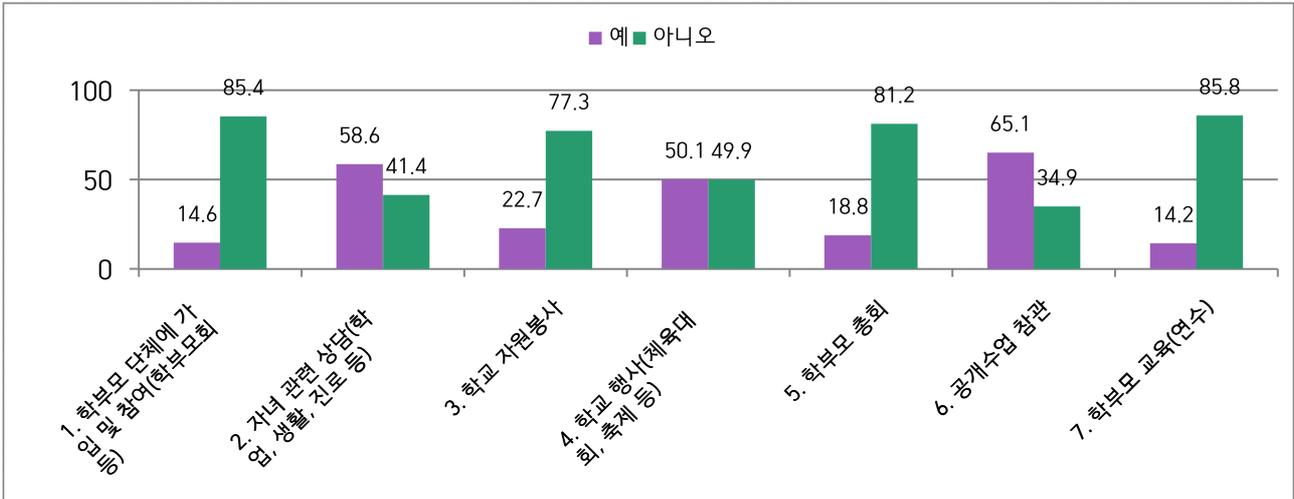
- 학교 참여 경험 여부는 7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공개수업 참관'에 참여한 학부모가 65.1%(1,70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 참여와 학습 과정을 참여가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자녀 관련 상담(학업, 생활, 진로 등)' 참여율이 58.6%(1,531명), '학부모 단체에 가입 및 참여'와 '학부모 교육(연수)'은 각각 14.6%(381명)와 14.2%(372명)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학부모 단체나 교육 연수와 같은 조직적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 행사(체육대회, 축제 등)'는 50.1%(1,310명)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학부모들의 이벤트 참여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자원봉사' 참여율은 22.7%(594명)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부모 총회'에 참여한 비율은 18.8%(492명)로 학부모들이 공식적인 회의 참여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6 학부모_학교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비율: %)

구분	예	아니오	총계
1. 학부모 단체에 가입 및 참여(학부모회 등)	381 (14.6)	2,232 (85.4)	2,613 (100.0)
2. 자녀 관련 상담(학업, 생활, 진로 등)	1,531 (58.6)	1,082 (41.4)	2,613 (100.0)
3. 학교 자원봉사	594 (22.7)	2,019 (77.3)	2,613 (100.0)
4. 학교 행사(체육대회, 축제 등)	1,310 (50.1)	1,303 (49.9)	2,613 (100.0)
5. 학부모 총회	492 (18.8)	2,121 (81.2)	2,613 (100.0)
6. 공개수업 참관	1,702 (65.1)	911 (34.9)	2,613 (100.0)
7. 학부모 교육(연수)	372 (14.2)	2,241 (85.8)	2,613 (100.0)

그림 4-16 학부모_학교 참여 경험 여부



❖ 학교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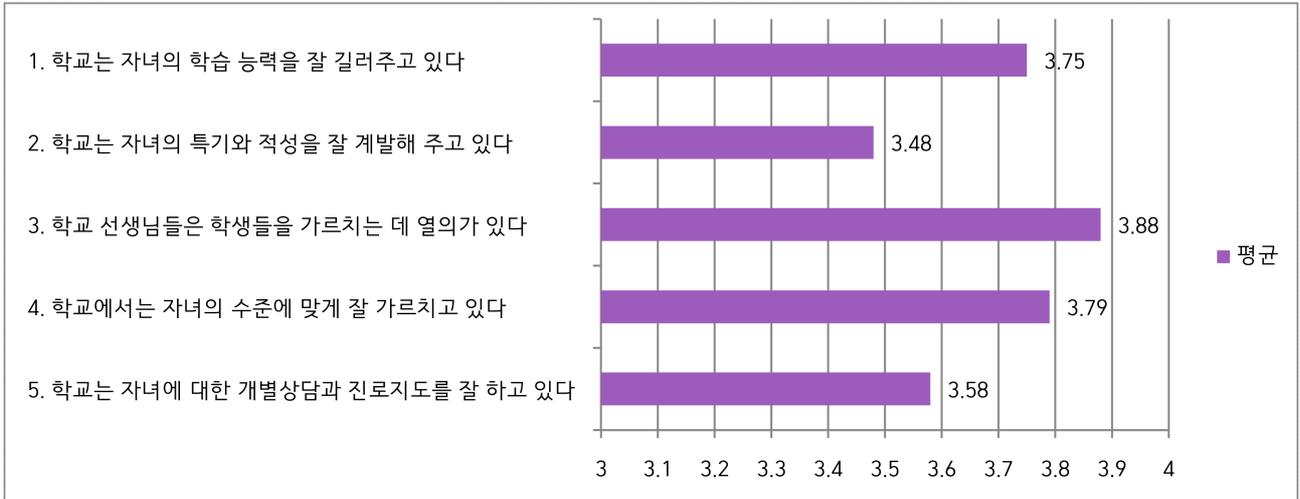
- 학교교육 만족도는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학교교육 만족도(전체)의 평균은 3.70점으로, 이는 '보통이다' 수준을 넘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3.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로, 평균 3.88점을 보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 열정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2. 학교는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로,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기와 적성 계발에 대해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17 학부모_학교교육 만족도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학교는 자녀의 학습 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13 (0.5)	62 (2.4)	861 (33.0)	1,308 (50.1)	369 (14.1)	2,613 (100.0)	3.75 (0.74)
2. 학교는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35 (1.3)	173 (6.6)	1,180 (45.2)	944 (36.1)	281 (10.8)	2,613 (100.0)	3.48 (0.82)
3.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	17 (0.7)	75 (2.9)	688 (26.3)	1,255 (48.0)	578 (22.1)	2,613 (100.0)	3.88 (0.80)
4. 학교에서는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	15 (0.6)	77 (2.9)	793 (30.3)	1,289 (49.3)	439 (16.8)	2,613 (100.0)	3.79 (0.77)
5. 학교는 자녀에 대한 개별상담과 진로지도를 잘 하고 있다	48 (1.8)	161 (6.2)	1,009 (38.6)	1,029 (39.4)	366 (14.0)	2,613 (100.0)	3.58 (0.87)
학교교육 만족도(전체)							3.70 (0.69)

그림 4-17 학부모_학교교육 만족도 평균



❖ 학교안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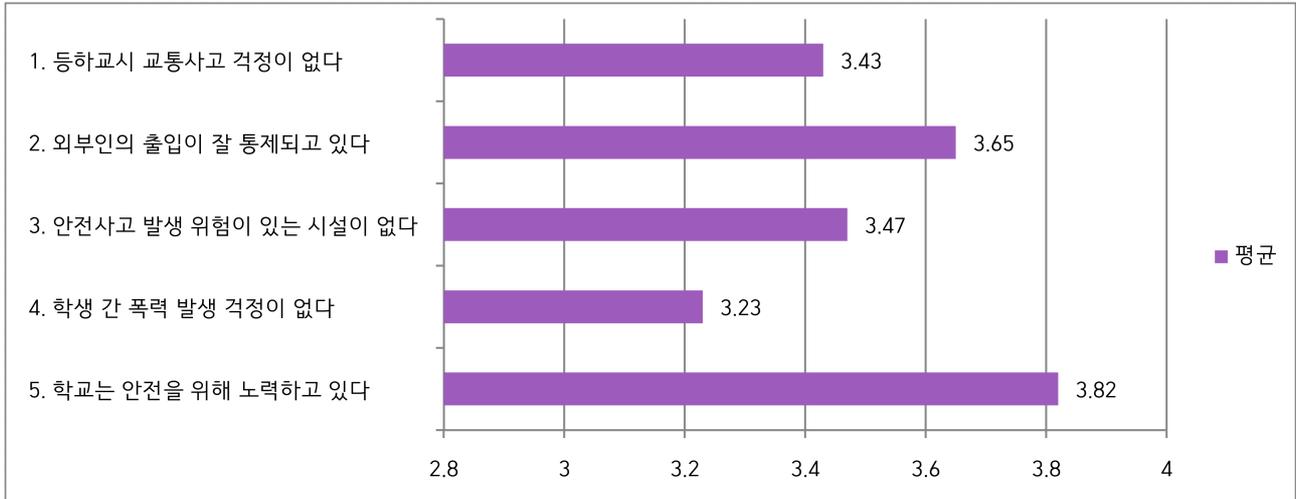
○ 학교안전 만족도는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학교안전 만족도(전체)의 평균은 3.52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서 '5. 학교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3.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안전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4. 학생 간 폭력 발생 걱정이 없다'는 3.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학생 간 폭력에 대한 우려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학부모_학교안전 만족도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등하교시 교통사고 걱정이 없다	122 (4.7)	355 (13.6)	826 (31.6)	901 (34.5)	409 (15.7)	2,613 (100.0)	3.43 (1.05)
2. 외부인의 출입이 잘 통제되고 있다	51 (2.0)	181 (6.9)	821 (31.4)	1,136 (43.5)	424 (16.2)	2,613 (100.0)	3.65 (0.90)
3.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이 없다	66 (2.5)	263 (10.1)	974 (37.3)	1,005 (38.5)	305 (11.7)	2,613 (100.0)	3.47 (0.91)
4. 학생 간 폭력 발생 걱정이 없다	116 (4.4)	417 (16.0)	1,044 (40.0)	814 (31.2)	222 (8.5)	2,613 (100.0)	3.23 (0.97)
5. 학교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 (0.7)	59 (2.3)	758 (29.0)	1,303 (49.9)	474 (18.1)	2,613 (100.0)	3.82 (0.77)
학교안전 만족도(전체)							3.52 (0.73)

그림 4-18 학부모_학교안전 만족도 평균



보호자 및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

- 이 단락에서는 보호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을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끈기라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각 항목별 평균 점수와 응답 경향을 분석 및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자기인식 및 자녀에 대한 심리적 평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보호자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중심으로, 자녀는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끈기 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자는 자녀의 심리 특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특성별로 세부 문항 간 점수 차이를 통해 보호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호자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에 대한 인식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및 자녀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호자 심리특성 -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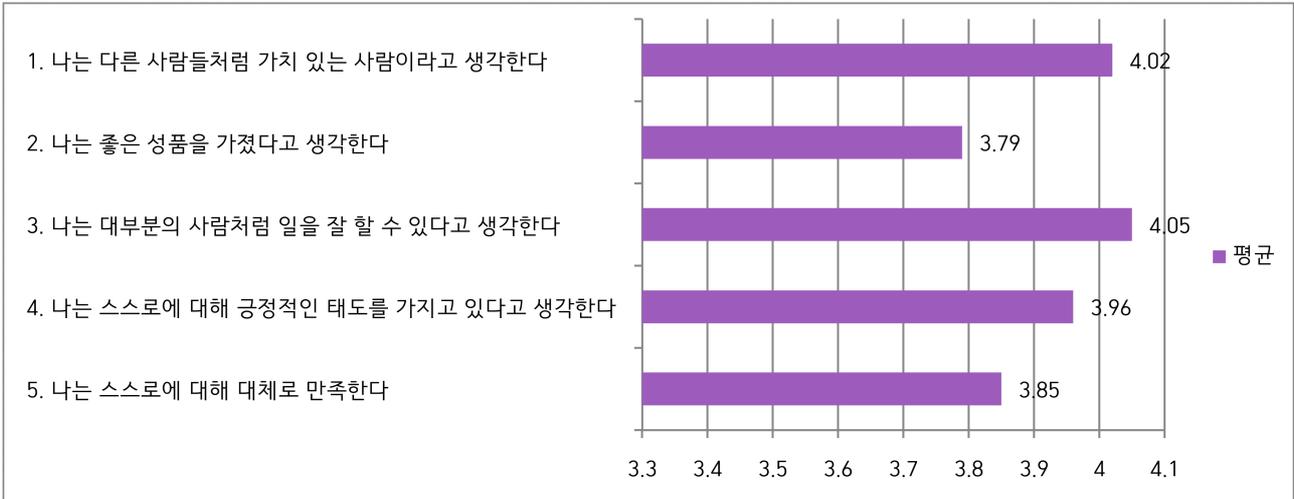
- 보호자의 심리특성인 자아존중감은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전체)의 평균은 3.93점으로 확인되어, 보호자들이 대체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문항 중에서 '3. 나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4.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반면,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3.7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보통이다' 이상의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1.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4.02점, '4.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3.96점, '5. 나는 스스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3.85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호자들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19 학부모_보호자 심리특성 - 자아존중감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0.1)	27 (1.0)	508 (19.4)	1,459 (55.8)	616 (23.6)	2,613 (100.0)	4.02 (0.69)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5 (0.2)	68 (2.6)	808 (30.9)	1,329 (50.9)	403 (15.4)	2,613 (100.0)	3.79 (0.73)
3. 나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0.1)	34 (1.3)	459 (17.6)	1,459 (55.8)	658 (25.2)	2,613 (100.0)	4.05 (0.70)
4.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8 (0.3)	46 (1.8)	600 (23.0)	1,347 (51.5)	612 (23.4)	2,613 (100.0)	3.96 (0.75)
5. 나는 스스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13 (0.5)	80 (3.1)	681 (26.1)	1,363 (52.2)	476 (18.2)	2,613 (100.0)	3.85 (0.77)
보호자 심리특성 - 자아존중감(전체)							3.93 (0.62)

그림 4-19 학부모_보호자 심리특성 - 자아존중감 평균



❖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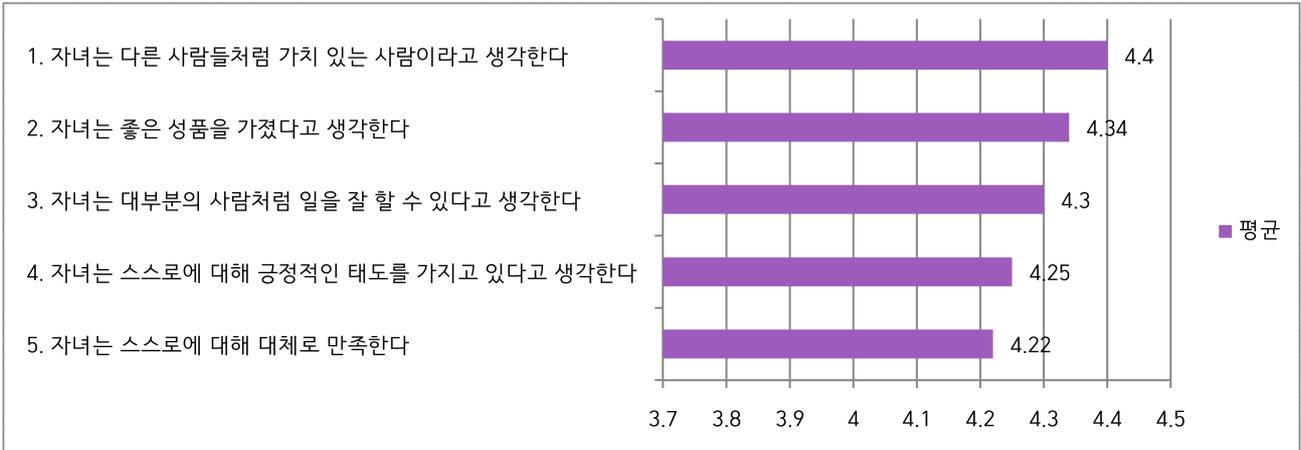
○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전체)의 평균은 4.30점으로 나타나, 보호자들은 자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1. 자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4.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반면, '5. 자녀는 스스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4.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 자녀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4.34점, '3. 자녀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4.30점으로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보호자들이 자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자녀의 능력과 성품, 자기 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4-20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자아존중감)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자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0.0)	6 (0.2)	167 (6.4)	1,207 (46.2)	1,232 (47.1)	2,613 (100.0)	4.40 (0.62)
2. 자녀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0.0)	4 (0.2)	222 (8.5)	1,266 (48.5)	1,120 (42.9)	2,613 (100.0)	4.34 (0.64)
3. 자녀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0.0)	12 (0.5)	241 (9.2)	1,299 (49.7)	1,060 (40.6)	2,613 (100.0)	4.30 (0.65)
4. 자녀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0.0)	15 (0.6)	304 (11.6)	1,305 (49.9)	988 (37.8)	2,613 (100.0)	4.25 (0.68)
5. 자녀는 스스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0 (0.0)	18 (0.7)	301 (11.5)	1,393 (53.3)	901 (34.5)	2,613 (100.0)	4.22 (0.66)
자아존중감(전체)							4.30 (0.54)

그림 4-20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자아존중감) 평균



❖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회복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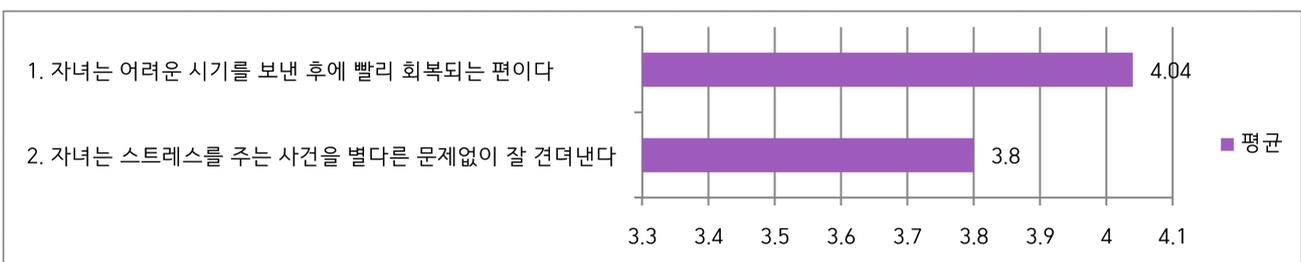
○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 중 회복탄력성은 2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분석되었다. 회복탄력성(전체)의 평균은 3.92점으로 드러나, 보호자들이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1. 자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낸 후에 빨리 회복되는 편이다’는 4.0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보호자들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자녀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별다른 문제없이 잘 견뎌낸다’는 3.80점으로 보여,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보호자들이 자녀의 어려운 상황 대처와 회복 능력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빠른 회복력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표 4-21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회복탄력성)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자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낸 후에 빨리 회복되는 편이다	3 (0.1)	51 (2.0)	486 (18.6)	1,380 (52.8)	693 (26.5)	2,613 (100.0)	4.04 (0.73)
2. 자녀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별다른 문제없이 잘 견뎌낸다	13 (0.5)	129 (4.9)	706 (27.0)	1,289 (49.3)	476 (18.2)	2,613 (100.0)	3.80 (0.81)
회복탄력성(전체)							3.92 (0.71)

그림 4-21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회복탄력성) 평균



❖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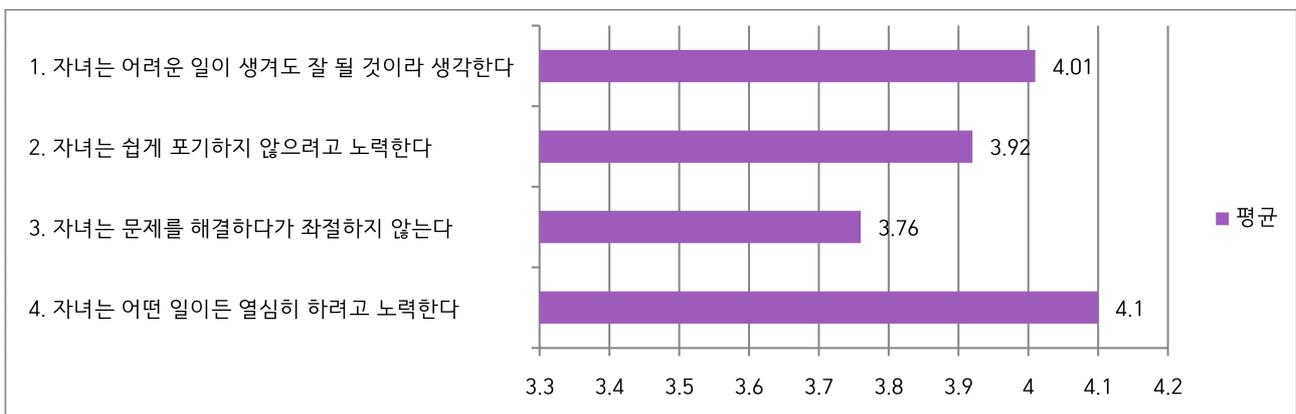
○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 중 끈기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끈기(전체)의 평균은 3.95점으로, 보호자들이 자녀의 끈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였다. 세부 문항 중에서 '4. 자녀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4.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1. 자녀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4.01점으로,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반면, '3. 자녀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3.7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보호자들이 자녀의 끈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22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끈기)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자녀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0.1)	73 (2.8)	502 (19.2)	1,354 (51.8)	681 (26.1)	2,613 (100.0)	4.01 (0.76)
2. 자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8 (0.3)	90 (3.4)	647 (24.8)	1,230 (47.1)	638 (24.4)	2,613 (100.0)	3.92 (0.81)
3. 자녀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좌절하지 않는다	8 (0.3)	120 (4.6)	819 (31.3)	1,214 (46.5)	452 (17.3)	2,613 (100.0)	3.76 (0.80)
4. 자녀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4 (0.2)	41 (1.6)	475 (18.2)	1,260 (48.2)	833 (31.9)	2,613 (100.0)	4.10 (0.75)
끈기(전체)							3.95 (0.65)

그림 4-22 학부모_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 심리특성(끈기) 평균



교육 현안

- 이 단락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지원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방과후학교 교육, 진로 지도 및 교육 등 10개의 세부 주제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빈도분석을 통해 각 문항별 수준과 응답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항목별 응답 수준 확인을 통해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적 지원 요소와 기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부모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인식에 기반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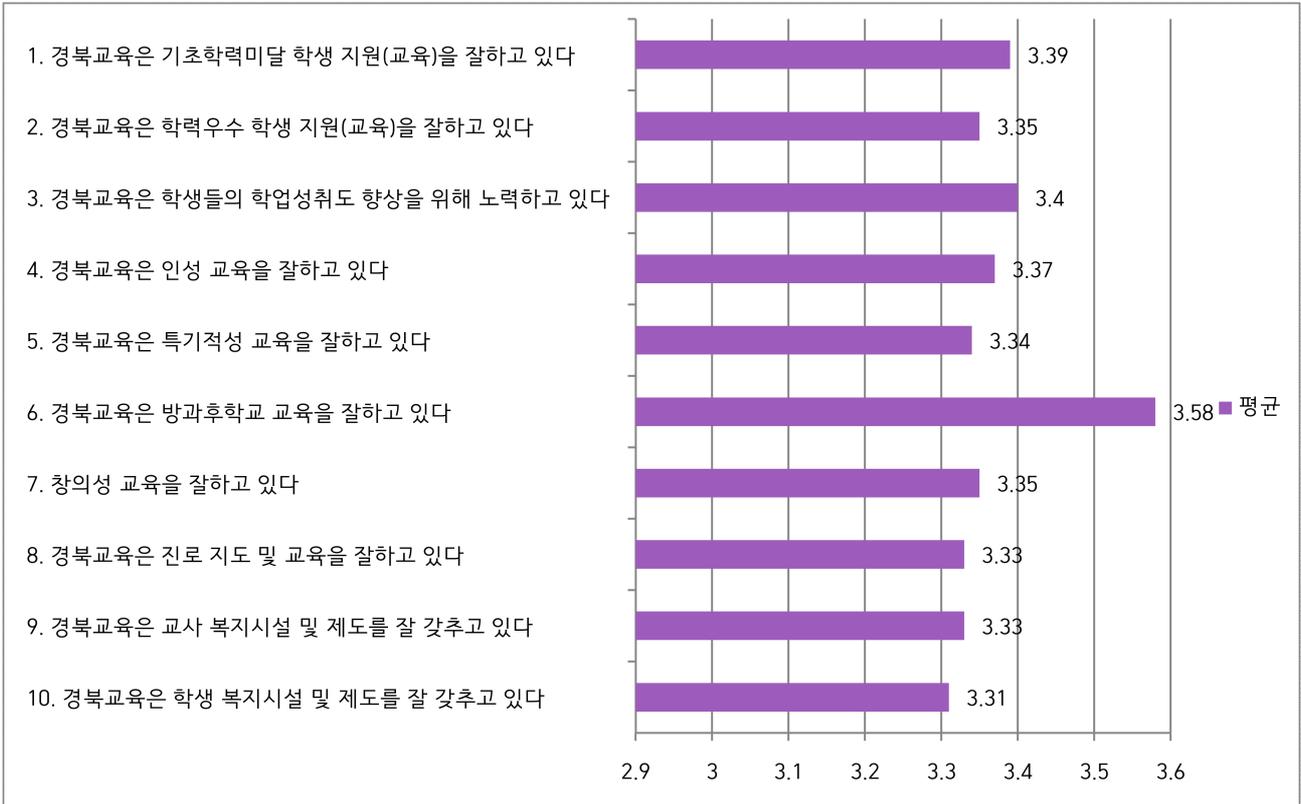
-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은 10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전체)의 평균은 3.37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지원에 대해 대체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문항 중에서 '6.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3.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을 잘하고 있다'는 3.39점, '3.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3.40점으로 나타났다.

표 4-23 학부모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경북교육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45 (1.7)	165 (6.3)	1,315 (50.3)	900 (34.4)	188 (7.2)	2,613 (100.0)	3.39 (0.78)
2. 경북교육은 학력우수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36 (1.4)	176 (6.7)	1,404 (53.7)	835 (32.0)	162 (6.2)	2,613 (100.0)	3.35 (0.75)
3. 경북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9 (1.5)	148 (5.7)	1,337 (51.2)	906 (34.7)	183 (7.0)	2,613 (100.0)	3.40 (0.76)
4. 경북교육은 인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38 (1.5)	189 (7.2)	1,339 (51.2)	869 (33.3)	178 (6.8)	2,613 (100.0)	3.37 (0.78)
5. 경북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43 (1.6)	214 (8.2)	1,343 (51.4)	830 (31.8)	183 (7.0)	2,613 (100.0)	3.34 (0.79)
6. 경북교육은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	36 (1.4)	142 (5.4)	1,010 (38.7)	1,128 (43.2)	297 (11.4)	2,613 (100.0)	3.58 (0.81)
7. 경북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45 (1.7)	208 (8.0)	1,346 (51.5)	823 (31.5)	191 (7.3)	2,613 (100.0)	3.35 (0.80)
8. 경북교육은 진로 지도 및 교육을 잘하고 있다	49 (1.9)	209 (8.0)	1,382 (52.9)	785 (30.0)	188 (7.2)	2,613 (100.0)	3.33 (0.80)
9. 경북교육은 교사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40 (1.5)	176 (6.7)	1,466 (56.1)	756 (28.9)	175 (6.7)	2,613 (100.0)	3.33 (0.76)
10. 경북교육은 학생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55 (2.1)	218 (8.3)	1,384 (53.0)	787 (30.1)	169 (6.5)	2,613 (100.0)	3.31 (0.80)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전체)							3.37 (0.68)

그림 4-23 학부모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평균



V

교사 조사결과



제 V 장

교사 조사결과

인구학적 배경

- 이 단락에서는 교사의 성별과 교직 경력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성별과 교직 경력은 교사의 직무 경험 및 역할 분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교직 내 성별 및 경력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통해 각 항목의 응답 분포와 주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 분석 결과를 통해, 교사들의 성별 및 경력별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인력 배치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경력 단계와 성별 분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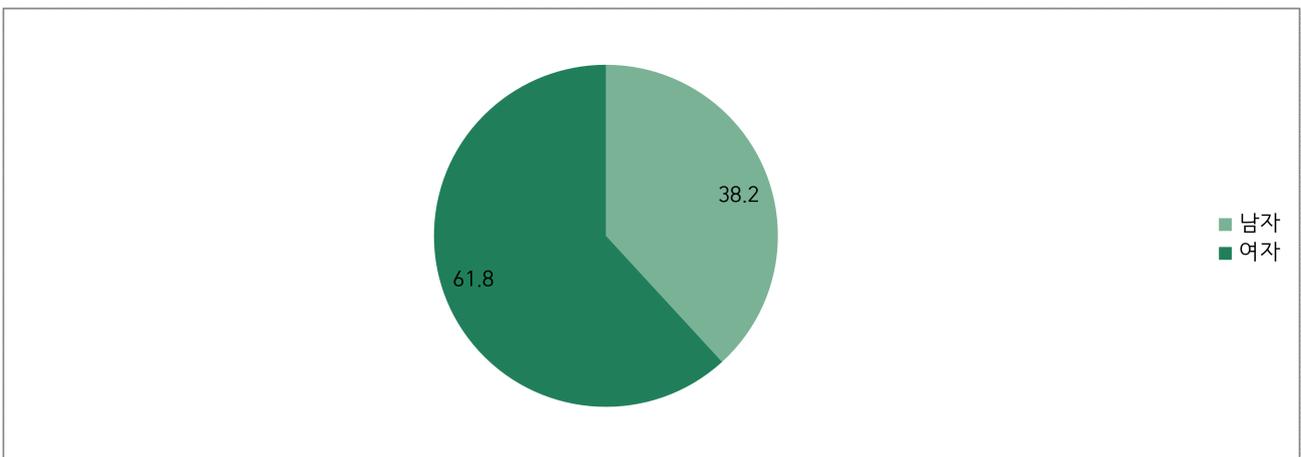
❖ 성별

- 교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성별은 총 16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61.8%(102명)가 여성, 38.2%(63명)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사들 중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1 교사_성별

구분	단위: 명, (비율: %)		
	남자	여자	총계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63 (38.2)	102 (61.8)	165 (100.0)

그림 5-1 교사_성별 비율



○ 교사의 교직 경력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165명 중 33.9%(56명)가 10~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5년 미만 경력은 24.8%(41명), 5~10년 미만은 19.4%(32명), 20~30년 미만은 14.5%(24명), 30년 이상 경력은 7.3%(12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 중 상당수가 10~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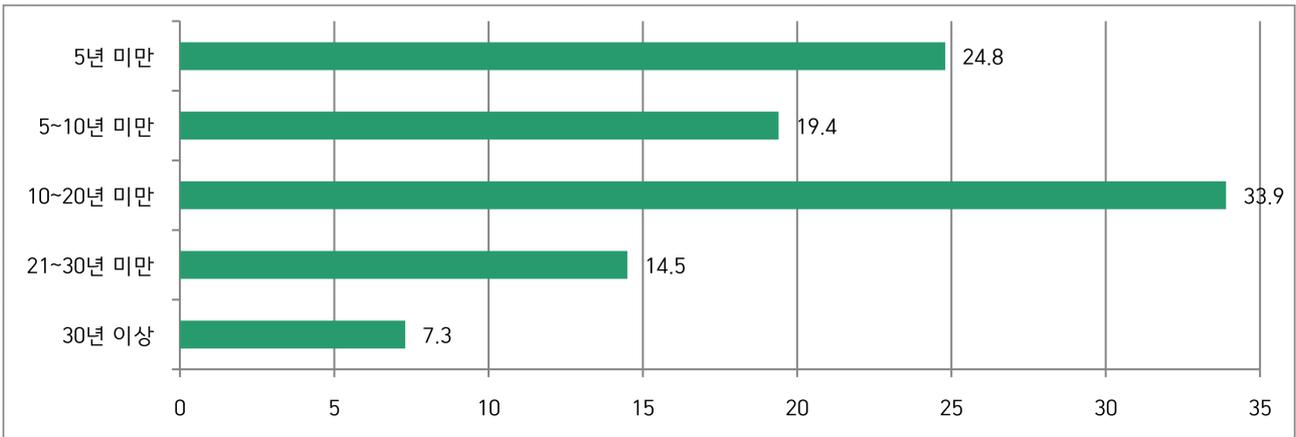
❖ 교직 경력

표 5-2 교사_교직 경력

단위: 명, (비율: %)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총계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 시점 기준)	41 (24.8)	32 (19.4)	56 (33.9)	24 (14.5)	12 (7.3)	165 (100.0)

그림 5-2 교사_교직 경력 평균



교수자 특성

- 이 단락에서는 교사효능감, 교사의 사기/열의,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등의 세부 주제로 교사들의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각 특성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각 항목별 평균 점수와 응답 경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 역량과 직무 만족도, 업무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교사효능감은 교육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중심으로, 교사의 사기/열의는 직무 의욕과 열의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교직만족도는 교사들의 직업적 만족과 발전 가능성을 반영하며, 교사소진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평가하였다. 각 특성별로 세부 문항 간 점수 차이를 통해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업무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사들의 교육 역량과 직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소진을 완화하고 열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교사효능감

- 교사효능감은 8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측정되었다. 교사효능감(전체)의 평균은 4.20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 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3. 나는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4.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반면, '5. 나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분석해 낼 수 있다'는 3.9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 나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4.32점, '4. 나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4.41점으로 높은 교사효능감을 보였다. 이 결과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수업 참여도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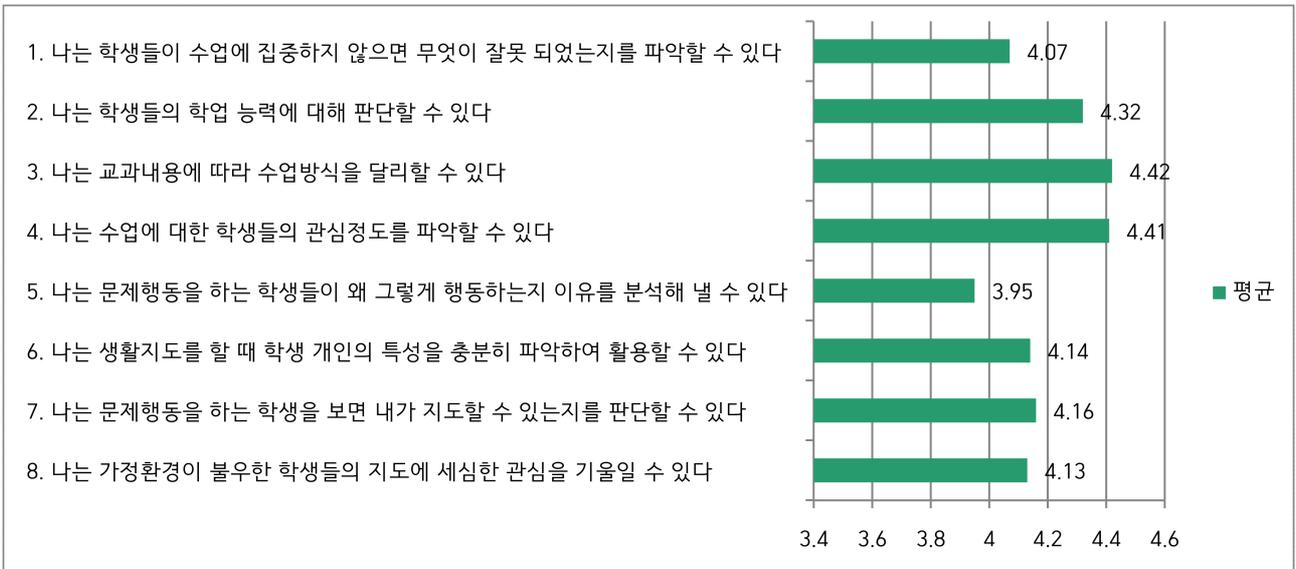
표 5-3 교사_교사효능감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0 (0.0)	6 (3.6)	28 (17.0)	80 (48.5)	51 (30.9)	165 (100.0)	4.07 (0.79)
2. 나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0 (0.0)	2 (1.2)	17 (10.3)	73 (44.2)	73 (44.2)	165 (100.0)	4.32 (0.71)
3. 나는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0 (0.0)	4 (2.4)	10 (6.1)	64 (38.8)	87 (52.7)	165 (100.0)	4.42 (0.7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4. 나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0 (0.0)	3 (1.8)	14 (8.5)	61 (37.0)	87 (52.7)	165 (100.0)	4.41 (0.72)
5. 나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분석해 낼 수 있다	1 (0.6)	8 (4.8)	35 (21.2)	76 (46.1)	45 (27.3)	165 (100.0)	3.95 (0.86)
6. 나는 생활지도할 때 학생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0.6)	5 (3.0)	21 (12.7)	81 (49.1)	57 (34.5)	165 (100.0)	4.14 (0.80)
7. 나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면 내가 지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1 (0.6)	4 (2.4)	20 (12.1)	83 (50.3)	57 (34.5)	165 (100.0)	4.16 (0.77)
8. 나는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의 지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0 (0.0)	4 (2.4)	34 (20.6)	63 (38.2)	64 (38.8)	165 (100.0)	4.13 (0.82)
교사효능감(전체)							4.20 (0.60)

그림 5-3 교사_교사효능감 평균



❖ 교사의 사기/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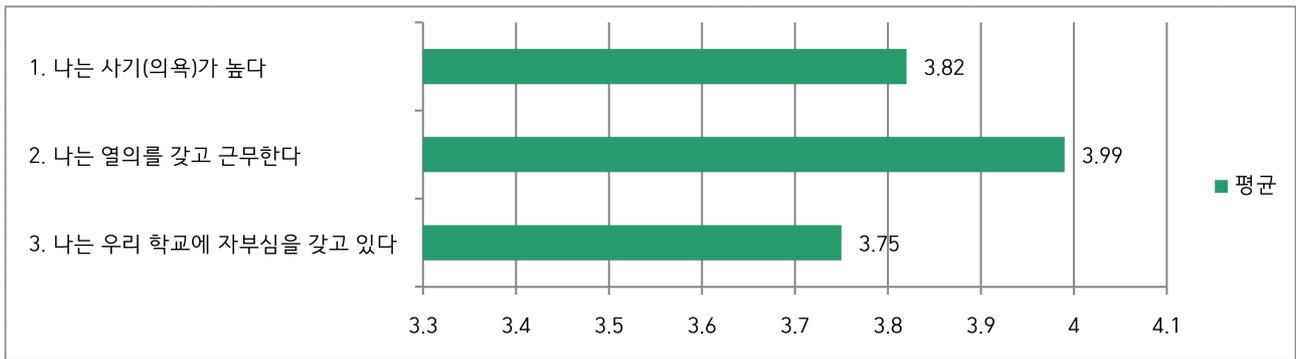
○ 교사의 사기와 열의는 3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교사의 사기와 열의(전체)의 평균은 3.85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자신의 사기와 열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2. 나는 열의를 갖고 근무한다'는 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교사들이 근무에 있어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어서 '1. 나는 사기(의욕)가 높다'는 3.82점으로, 교사들이 자신의 사기 수준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3.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3.7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교사들이 근무에 대한 의욕과 열정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4 교사_교사의 사기/열의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사기(의욕)가 높다	3 (1.8)	12 (7.3)	44 (26.7)	58 (35.2)	48 (29.1)	165 (100.0)	3.82 (0.99)
2. 나는 열의를 갖고 근무한다	2 (1.2)	8 (4.8)	39 (23.6)	56 (33.9)	60 (36.4)	165 (100.0)	3.99 (0.95)
3.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6 (3.6)	10 (6.1)	52 (31.5)	49 (29.7)	48 (29.1)	165 (100.0)	3.75 (1.06)
교사의 사기/열의(전체)							3.85 (0.92)

그림 5-4 교사_교사의 사기/열의 평균



❖ 교직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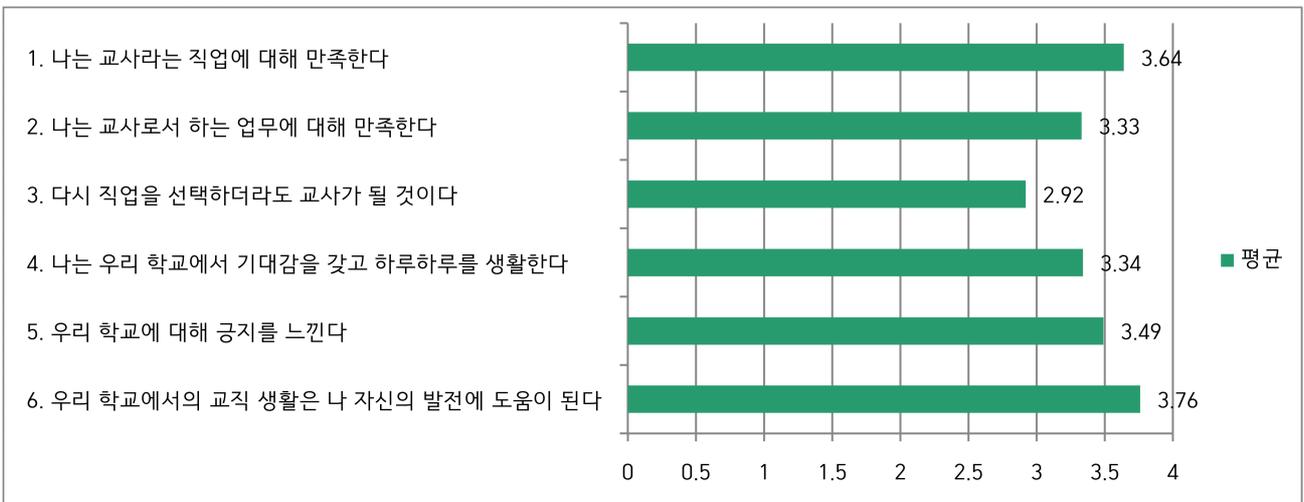
- 교직만족도는 6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교직만족도(전체)의 평균은 3.41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교직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6. 우리 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3.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교사들이 교직 생활이 자신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3. 다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교사가 될 것이다'는 2.9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교사들이 다시 직업을 선택할 때 교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 나는 교사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3.33점, '4. 나는 우리 학교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생활한다'는 3.34점,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대한 기대와 긍지,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교직 생활이 자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며,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나, 직업 선택에 대해 다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교직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의문을 나타내며,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5-5 교사_교직만족도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	7 (4.2)	15 (9.1)	48 (29.1)	55 (33.3)	40 (24.2)	165 (100.0)	3.64 (1.08)
2. 나는 교사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	13 (7.9)	23 (13.9)	54 (32.7)	47 (28.5)	28 (17.0)	165 (100.0)	3.33 (1.15)
3. 다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교사가 될 것이다	29 (17.6)	36 (21.8)	43 (26.1)	34 (20.6)	23 (13.9)	165 (100.0)	2.92 (1.30)
4. 나는 우리 학교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생활한다	10 (6.1)	24 (14.5)	59 (35.8)	44 (26.7)	28 (17.0)	165 (100.0)	3.34 (1.11)
5. 우리 학교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11 (6.7)	15 (9.1)	60 (36.4)	40 (24.2)	39 (23.6)	165 (100.0)	3.49 (1.15)
6. 우리 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4 (2.4)	13 (7.9)	48 (29.1)	53 (32.1)	47 (28.5)	165 (100.0)	3.76 (1.03)
교직만족도(전체)							3.41 (0.96)

그림 5-5 교사_교직만족도 평균



❖ 교사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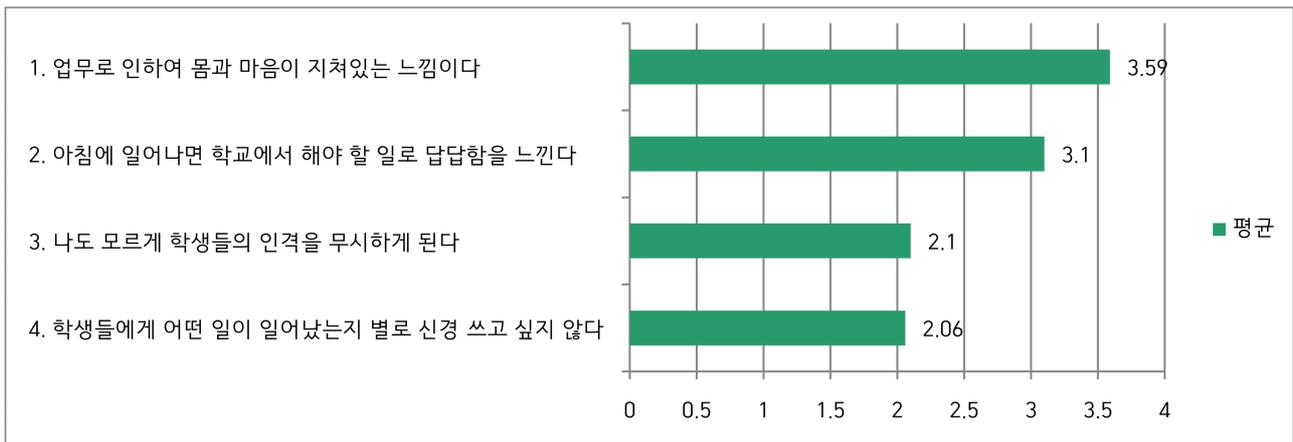
○ 교사소진은 4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교사소진(전체)의 평균은 2.71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소진 상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1.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는 3.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교사들이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2.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서 해야 할 일로 답답함을 느낀다'는 3.10점으로, 일부 교사들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4.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2.0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교사들이 감정적으로 무관심하거나 학생들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6 교사_교사소진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4 (2.4)	25 (15.2)	47 (28.5)	48 (29.1)	41 (24.8)	165 (100.0)	3.59 (1.09)
2.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서 해야 할 일로 답답함을 느낀다	14 (8.5)	45 (27.3)	44 (26.7)	34 (20.6)	28 (17.0)	165 (100.0)	3.10 (1.22)
3. 나도 모르게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된다	54 (32.7)	60 (36.4)	34 (20.6)	14 (8.5)	3 (1.8)	165 (100.0)	2.10 (1.02)
4.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55 (33.3)	64 (38.8)	32 (19.4)	9 (5.5)	5 (3.0)	165 (100.0)	2.06 (1.01)
교사소진(전체)							2.71 (0.85)

그림 5-6 교사_교사소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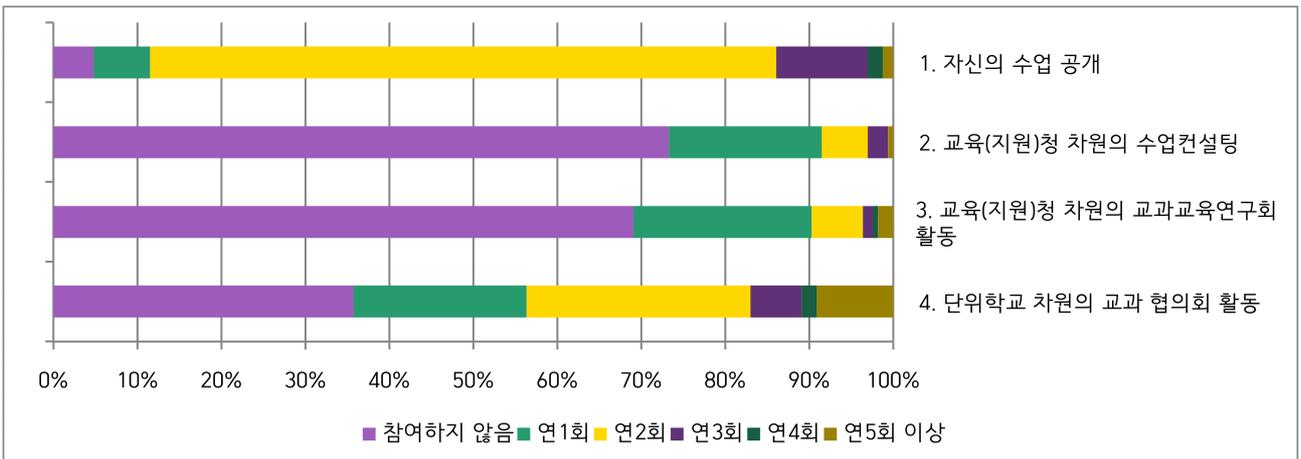
❖ 수업개선활동

- 자신의 수업 공개는 교사들의 수업개선 활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항목으로, 연 2회 참여 응답이 74.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학교 차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수업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참여하지 않음' 응답은 4.8%로 나타나, 대다수 교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 공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수업컨설팅에서는 '참여하지 않음' 응답이 7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반면, '연 1회' 참여 비율은 18.2% 상대적으로 높아, 일부 교사들이 수업컨설팅을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에서도 '참여하지 않음' 응답이 6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 1회' 참여 비율은 21.2%였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과 협의회 활동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으로, '참여하지 않음' 비율은 35.8%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특히, '연 1회'와 '연 2회' 참여 비율이 각각 20.6%와 26.7%로 나타나,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과 협의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5-7 교사_수업개선활동

구분	참여하지 않음	연1회	연2회	연3회	연4회	연5회 이상	총계
1. 자신의 수업 공개	8 (4.8)	11 (6.7)	123 (74.5)	18 (10.9)	3 (1.8)	2 (1.2)	165 (100.0)
2. 교육(지원)청 차원의 수업컨설팅	121 (73.3)	30 (18.2)	9 (5.5)	4 (2.4)	0 (0.0)	1 (0.6)	165 (100.0)
3.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114 (69.1)	35 (21.2)	10 (6.1)	2 (1.2)	1 (0.6)	3 (1.8)	165 (100.0)
4. 단위학교 차원의 교과 협의회 활동	59 (35.8)	34 (20.6)	44 (26.7)	10 (6.1)	3 (1.8)	15 (9.1)	165 (100.0)

그림 5-7 교사_수업개선활동



❖ 연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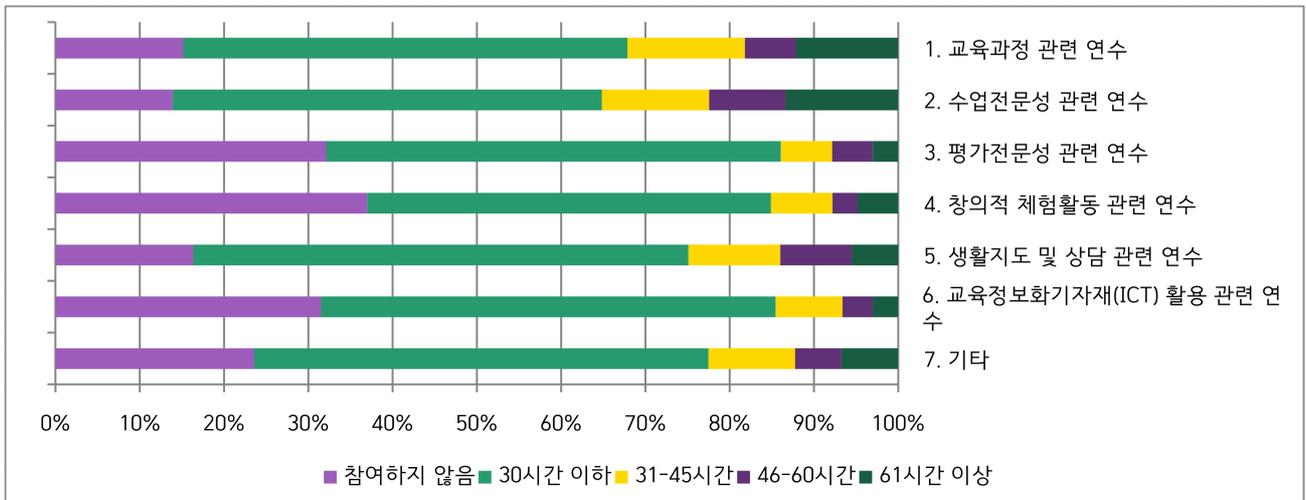
○ 교육과정 관련 연수와 수업전문성 관련 연수는 대부분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30시간 이하'의 단기 연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교사의 수업 설계와 전문성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영역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평가전문성 관련 연수는 '참여하지 않음' 응답이 32.1%로 나타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이 영역에서의 연수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연수는 '참여하지 않음'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일부 교사들에게 선택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연수에서는 '30시간 이하' 비율이 58.8%로 나타나, 학생 상담 및 지도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연수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정보화기자재(ICT) 활용 관련 연수는 '참여하지 않음' 비율이 31.5%로 나타나, 여전히 일부 교사들이 ICT 활용 연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연수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기타 연수 항목에서도 '30시간 이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심화 연수 참여(46시간 이상) 비율이 12.2%로 나타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연수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8 교사_연수시간

단위: 명, (비율: %)

구분	참여하지 않음	30시간 이하	31-45시간	46-60시간	61시간 이상	총계
1. 교육과정 관련 연수	25 (15.2)	87 (52.7)	23 (13.9)	10 (6.1)	20 (12.1)	165 (100.0)
2. 수업전문성 관련 연수	23 (13.9)	84 (50.9)	21 (12.7)	15 (9.1)	22 (13.3)	165 (100.0)
3. 평가전문성 관련 연수	53 (32.1)	89 (53.9)	10 (6.1)	8 (4.8)	5 (3.0)	165 (100.0)
4.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연수	61 (37.0)	79 (47.9)	12 (7.3)	5 (3.0)	8 (4.8)	165 (100.0)
5.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연수	27 (16.4)	97 (58.8)	18 (10.9)	14 (8.5)	9 (5.5)	165 (100.0)
6. 교육정보화기자재(ICT) 활용 관련 연수	52 (31.5)	89 (53.9)	13 (7.9)	6 (3.6)	5 (3.0)	165 (100.0)
7. 기타	39 (23.6)	89 (53.9)	17 (10.3)	9 (5.5)	11 (6.7)	165 (100.0)

그림 5-8 교사_연수시간 비율



학교운영 일반

-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민주성), 교장의 리더십, 학교풍토,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교 조직의 특성과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학교 운영은 교사들의 참여와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협력적인 분위기는 학교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결정권한(민주성)은 교사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학교 내 의사소통과 책임 공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교장의 리더십은 교사들의 역량 개발과 협력을 촉진하며,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학교풍토는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창의적인 협력 문화를 반영하며, 교사들이 학교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계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의 운영과 교육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명한다.

❖ 학교 내 주당 유형별 업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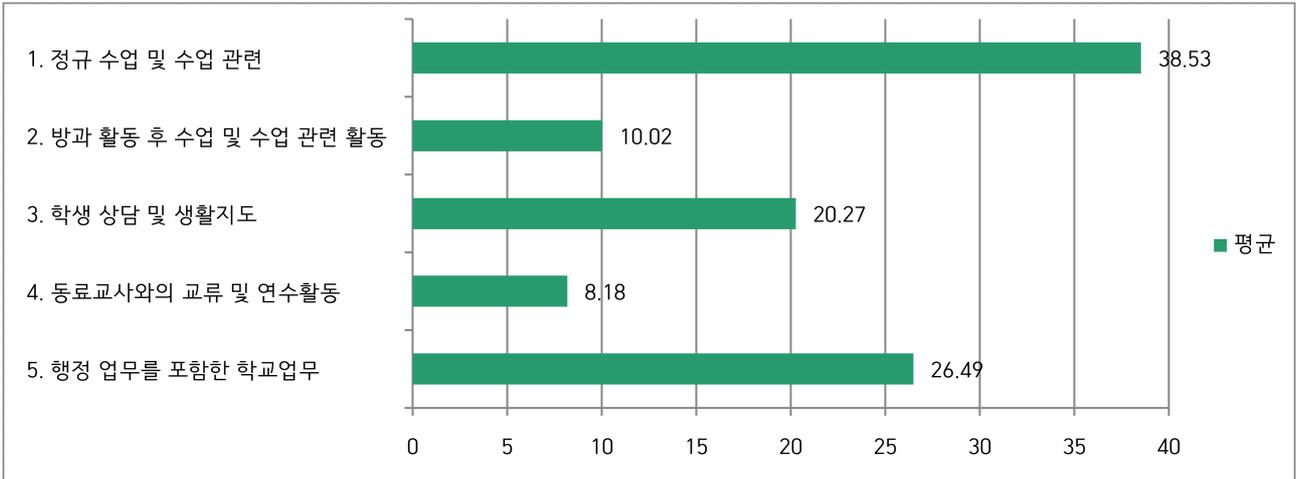
- 교사의 학교 내 주당 유형별 업무시간은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으며, 각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업무시간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전체 평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1. 정규 수업 및 수업 관련'으로, 평균 38.53%를 기록했다. 이는 교사들이 주당 업무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정규 수업 및 수업 준비에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행정 업무를 포함한 학교업무'로, 평균 26.49%를 나타냈고, '3.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는 평균 20.27%로 나타나, 학생과의 상담 및 생활지도 활동도 교사의 중요한 업무 영역임을 보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인 항목은 '4. 동료교사와의 교류 및 연수활동'으로, 평균 8.18%를 기록했다. 이는 교사들이 동료 교사와의 교류나 연수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음을 보여준다.

표 5-9 교사_학교 내 주당 유형별 업무시간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정규 수업 및 수업 관련	38.53 (16.22)
2. 방과 활동 후 수업 및 수업 관련 활동	10.02 (5.93)
3.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20.27 (10.66)
4. 동료교사와의 교류 및 연수활동	8.18 (5.70)
5. 행정 업무를 포함한 학교업무	26.49 (16.07)

그림 5-9 교사_학교 내 주당 유형별 업무시간 비율



❖ 의사결정권한(민주성)

○ 의사결정권한(민주성)은 12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반영 안함 ~ 5점: 매우 많이 반영됨)로 측정되었다. 의사결정권한(전체)의 평균은 3.63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에서 일정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2. 수업 운영 방식 결정'이 4.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교사들이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이어서 '1.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결정'은 4.01점으로, 교사들이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결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10. 용역 및 입찰 결정'은 3.2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교사들이 용역 및 입찰 결정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교사들이 주요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참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업 운영과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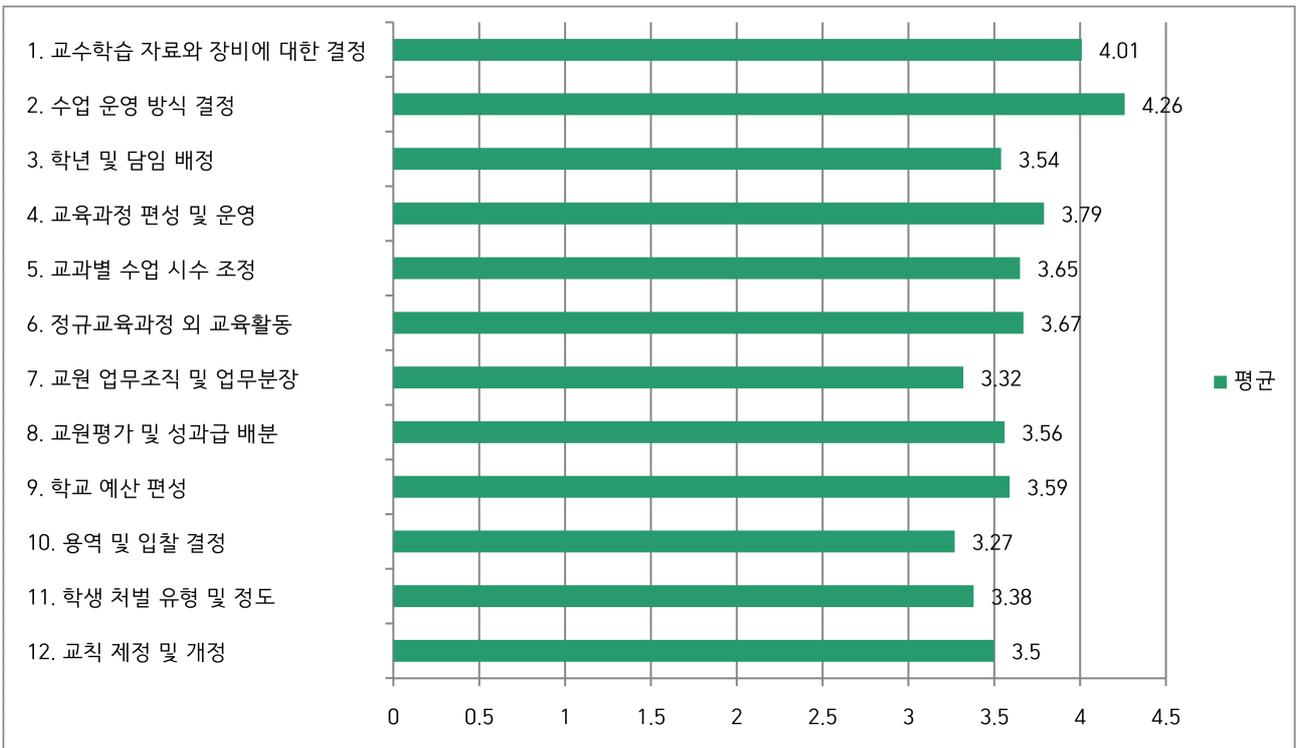
표 5-10 교사_의사결정권한(민주성)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반영 안함	대체로 반영 안함	보통	대체로 반영됨	매우 많이 반영됨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결정	1 (0.6)	5 (3.0)	34 (20.6)	77 (46.7)	48 (29.1)	165 (100.0)	4.01 (0.82)
2. 수업 운영 방식 결정	1 (0.6)	3 (1.8)	19 (11.5)	71 (43.0)	71 (43.0)	165 (100.0)	4.26 (0.78)
3. 학년 및 담임 배정	4 (2.4)	14 (8.5)	51 (30.9)	81 (49.1)	15 (9.1)	165 (100.0)	3.54 (0.87)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4 (2.4)	6 (3.6)	41 (24.8)	83 (50.3)	31 (18.8)	165 (100.0)	3.79 (0.87)
5. 교과별 수업 시수 조정	6 (3.6)	9 (5.5)	45 (27.3)	81 (49.1)	24 (14.5)	165 (100.0)	3.65 (0.92)
6.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5 (3.0)	8 (4.8)	51 (30.9)	73 (44.2)	28 (17.0)	165 (100.0)	3.67 (0.92)

구분	전혀 반영 안함	대체로 반영 안함	보통	대체로 반영됨	매우 많이 반영됨	총계	평균 (표준편차)
7. 교원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	14 (8.5)	16 (9.7)	53 (32.1)	68 (41.2)	14 (8.5)	165 (100.0)	3.32 (1.05)
8. 교원평가 및 성과급 배분	8 (4.8)	10 (6.1)	52 (31.5)	72 (43.6)	23 (13.9)	165 (100.0)	3.56 (0.97)
9. 학교 예산 편성	7 (4.2)	12 (7.3)	43 (26.1)	82 (49.7)	21 (12.7)	165 (100.0)	3.59 (0.95)
10. 용역 및 입찰 결정	17 (10.3)	13 (7.9)	60 (36.4)	58 (35.2)	17 (10.3)	165 (100.0)	3.27 (1.09)
11.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12 (7.3)	17 (10.3)	53 (32.1)	63 (38.2)	20 (12.1)	165 (100.0)	3.38 (1.06)
12. 교칙 제정 및 개정	7 (4.2)	12 (7.3)	55 (33.3)	73 (44.2)	18 (10.9)	165 (100.0)	3.50 (0.94)
의사결정권한(민주성)(전체)							3.63 (0.71)

그림 5-10 교사_의사결정권한(민주성) 평균



❖ 교장의 리더십

○ 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설문은 12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교장의 리더십(전체)의 평균은 4.21점으로, 교사들이 교장의 리더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1.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 목표를 공유한다'는 4.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교사 및 학부모와 이를 공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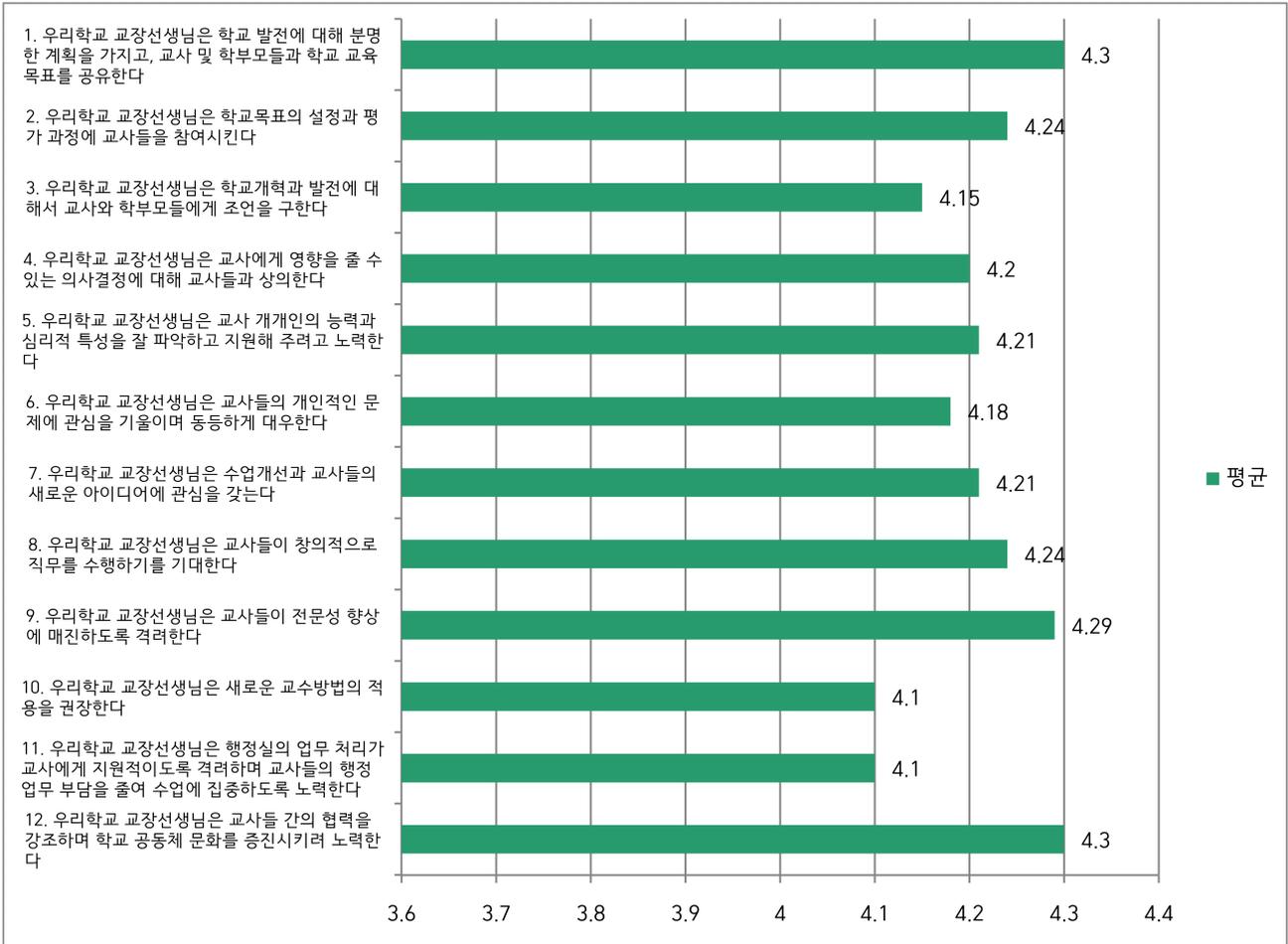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9.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한다'는 4.29점, '12.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는 4.30점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뜻한다. 10.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는 4.1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해 교사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1 교사_교장의 리더십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1 (0.6)	5 (3.0)	21 (12.7)	54 (32.7)	84 (50.9)	165 (100.0)	4.30 (0.85)
2.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3 (1.8)	6 (3.6)	23 (13.9)	49 (29.7)	84 (50.9)	165 (100.0)	4.24 (0.95)
3.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2 (1.2)	11 (6.7)	24 (14.5)	51 (30.9)	77 (46.7)	165 (100.0)	4.15 (0.99)
4.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2 (1.2)	12 (7.3)	22 (13.3)	44 (26.7)	85 (51.5)	165 (100.0)	4.20 (1.01)
5.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 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5 (3.0)	5 (3.0)	26 (15.8)	44 (26.7)	85 (51.5)	165 (100.0)	4.21 (1.02)
6.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한다	5 (3.0)	7 (4.2)	25 (15.2)	45 (27.3)	83 (50.3)	165 (100.0)	4.18 (1.04)
7.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3 (1.8)	8 (4.8)	24 (14.5)	47 (28.5)	83 (50.3)	165 (100.0)	4.21 (0.98)
8.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2 (1.2)	6 (3.6)	25 (15.2)	49 (29.7)	83 (50.3)	165 (100.0)	4.24 (0.92)
9.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한다	2 (1.2)	4 (2.4)	23 (13.9)	51 (30.9)	85 (51.5)	165 (100.0)	4.29 (0.88)
10.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1 (0.6)	8 (4.8)	37 (22.4)	47 (28.5)	72 (43.6)	165 (100.0)	4.10 (0.95)
11.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게 지원적하도록 격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3 (1.8)	10 (6.1)	31 (18.8)	45 (27.3)	76 (46.1)	165 (100.0)	4.10 (1.03)
12.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1 (0.6)	4 (2.4)	27 (16.4)	46 (27.9)	87 (52.7)	165 (100.0)	4.30 (0.87)
교장의 리더십(전체)							4.21 (0.86)

그림 5-11 교사_교장의 리더십 평균



❖ 학교풍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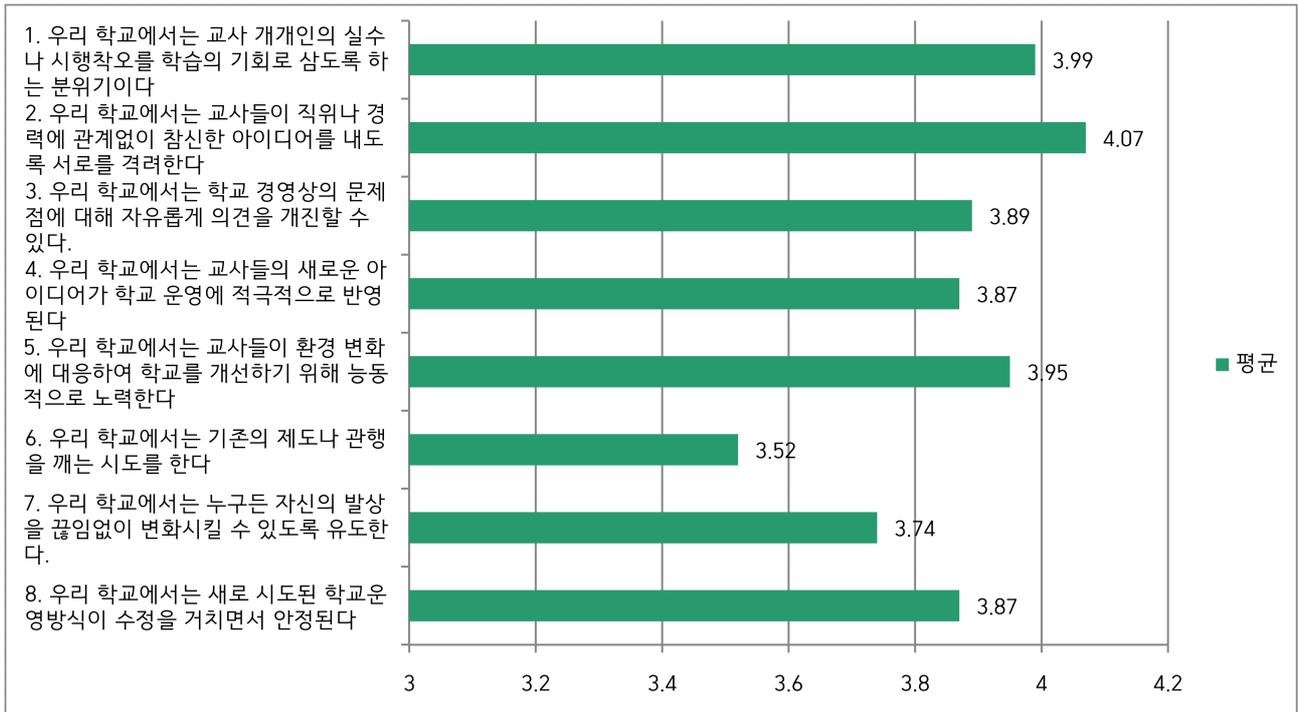
○ 학교풍토는 8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측정되었다. 학교풍토(전체)의 평균은 3.86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2.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는 4.0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1.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 개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분위기이다'는 3.99점으로,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또한, '5.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는 3.95점으로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학교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6.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는 3.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제도나 관행에 대한 변화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뜻한다.

표 5-12 교사_학교풍토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분위기이다	2 (1.2)	7 (4.2)	35 (21.2)	68 (41.2)	53 (32.1)	165 (100.0)	3.99 (0.90)
2.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3 (1.8)	5 (3.0)	34 (20.6)	59 (35.8)	64 (38.8)	165 (100.0)	4.07 (0.94)
3.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3.0)	11 (6.7)	36 (21.8)	58 (35.2)	55 (33.3)	165 (100.0)	3.89 (1.04)
4.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5 (3.0)	9 (5.5)	42 (25.5)	55 (33.3)	54 (32.7)	165 (100.0)	3.87 (1.03)
5.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	3 (1.8)	7 (4.2)	43 (26.1)	54 (32.7)	58 (35.2)	165 (100.0)	3.95 (0.97)
6.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	10 (6.1)	18 (10.9)	52 (31.5)	47 (28.5)	38 (23.0)	165 (100.0)	3.52 (1.14)
7.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발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3.0)	17 (10.3)	43 (26.1)	51 (30.9)	49 (29.7)	165 (100.0)	3.74 (1.09)
8.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된 학교운영방식이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된다	5 (3.0)	3 (1.8)	48 (29.1)	62 (37.6)	47 (28.5)	165 (100.0)	3.87 (0.95)
학교풍토(전체)							3.86 (0.90)

그림 5-12 교사_학교풍토 평균



❖ 지역사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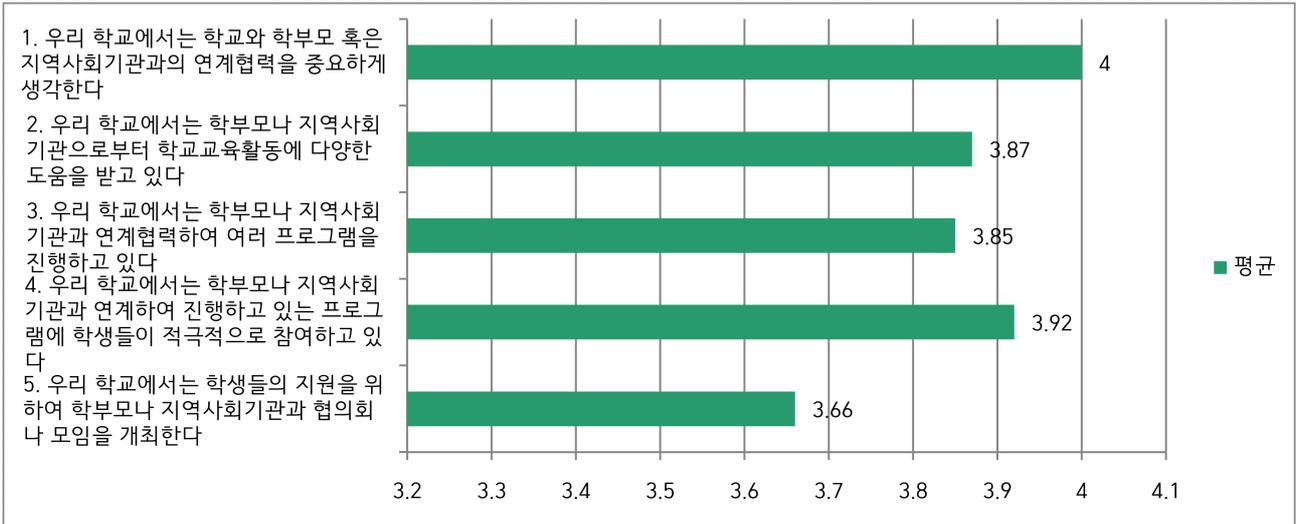
○ 학교와 지역사회 간 관계에 대한 설문은 5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해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관계(전체)의 평균은 3.86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로, 평균 4.01점이었다. 이는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는 '2.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학교교육활동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로, 평균 3.87점으로 나타나, 학교교육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의 지원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로, 평균 3.66점이었다. 이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회나 모임 개최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13 교사_지역사회 관계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 (0.0)	4 (2.4)	42 (25.5)	67 (40.6)	52 (31.5)	165 (100.0)	4.01 (0.82)
2.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학교교육활동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0 (0.0)	4 (2.4)	50 (30.3)	74 (44.8)	37 (22.4)	165 (100.0)	3.87 (0.78)
3.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0 (0.0)	7 (4.2)	51 (30.9)	67 (40.6)	40 (24.2)	165 (100.0)	3.85 (0.84)
4.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0 (0.0)	8 (4.8)	44 (26.7)	67 (40.6)	46 (27.9)	165 (100.0)	3.92 (0.86)
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	1 (0.6)	14 (8.5)	61 (37.0)	53 (32.1)	36 (21.8)	165 (100.0)	3.66 (0.93)
지역사회 관계(전체)							3.86 (0.75)

그림 5-13 교사_지역사회 관계 평균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는 수업의 이해도, 과제 피드백, 교수자 중심 및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학습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파악하고, 과제를 통해 학습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교수법의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학습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 교수자 중심 수업 활동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을 이끌며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하며, 교사들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본 분석은 교사들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여주는 활동과 평가 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 교사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학생의 수업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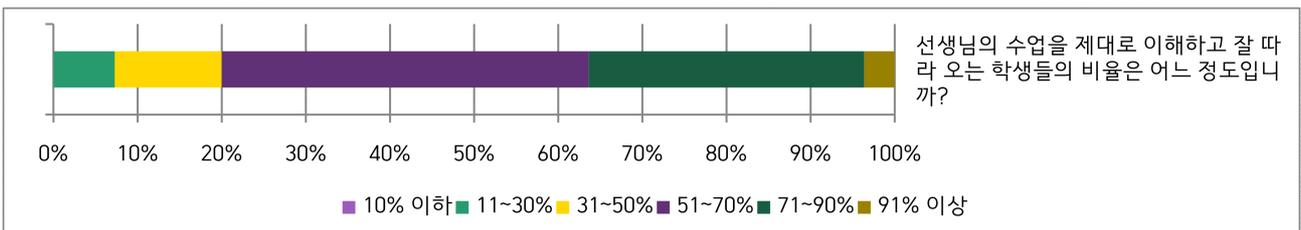
- 학생들의 수업이해도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10%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는 없었으며, 11~30% 수준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2명(7.3%)이었다. 31~50% 수준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21명(12.7%)이었으며, 51~70% 수준이라는 응답이 72명(4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71~90% 수준이라는 응답이 54명(32.7%)으로 나타났으며, 91%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6명(3.6%)으로 가장 적었다.

표 5-14 교사_학생의 수업이해도

단위: 명, (비율: %)

구분	10% 이하	11~30%	31~50%	51~70%	71~90%	91% 이상	총계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따라오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0 (0.0)	12 (7.3)	21 (12.7)	72 (43.6)	54 (32.7)	6 (3.6)	165 (100.0)

그림 5-14 교사_학생의 수업이해도 비율



❖ 과제에 대한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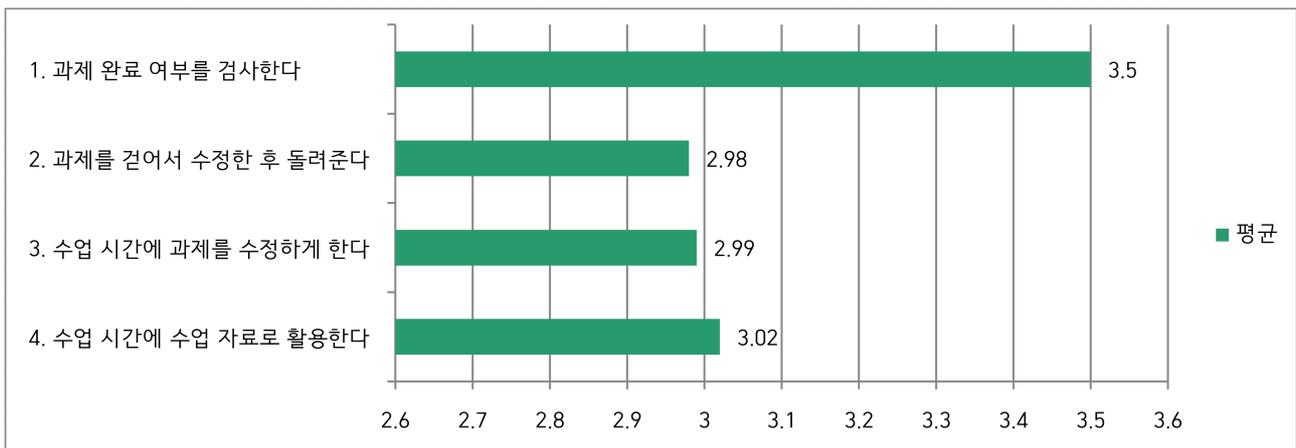
○ 교사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하지 않음 ~ 4점: 항상)로 조사되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전체)의 평균은 3.12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서 '1. 과제 완료 여부를 검사한다'는 3.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과제 수행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4.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는 3.02점, '3. 수업 시간에 과제를 수정하게 한다'는 2.99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2. 과제를 걸어서 수정한 후 돌려준다'는 2.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정한 후 돌려주는 방식의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만큼, 피드백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15 교사_과제에 대한 피드백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하지 않음	기름	자주	항상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과제 완료 여부를 검사한다	1 (0.6)	17 (10.3)	46 (27.9)	101 (61.2)	165 (100.0)	3.50 (0.70)
2. 과제를 걸어서 수정한 후 돌려준다	6 (3.6)	50 (30.3)	51 (30.9)	58 (35.2)	165 (100.0)	2.98 (0.90)
3. 수업 시간에 과제를 수정하게 한다	5 (3.0)	41 (24.8)	69 (41.8)	50 (30.3)	165 (100.0)	2.99 (0.82)
4.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	2 (1.2)	43 (26.1)	70 (42.4)	50 (30.3)	165 (100.0)	3.02 (0.78)
과제에 대한 피드백(전체)						3.12 (0.58)

그림 5-15 교사_과제에 대한 피드백 평균



❖ 수업활동: 교수자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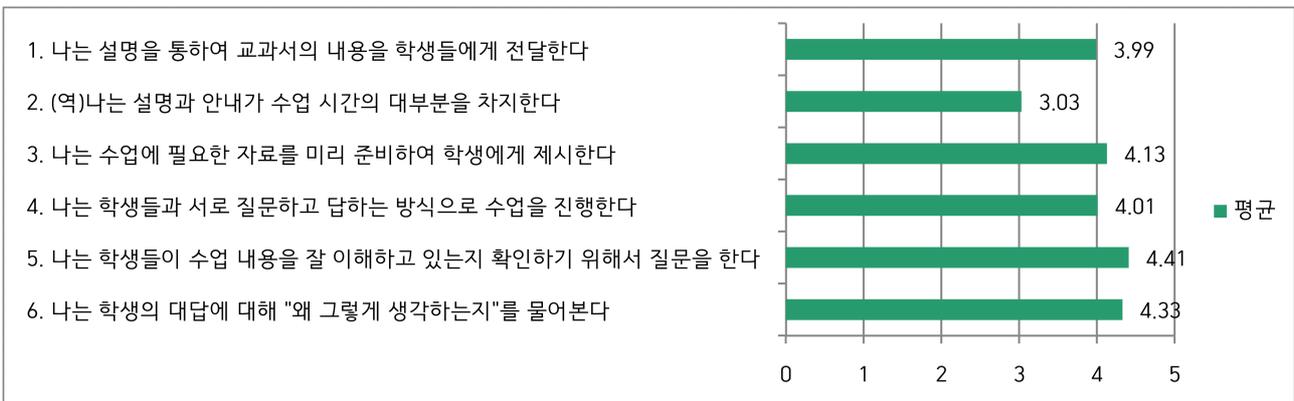
○ 수업활동: 교수자 중심은 6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수업활동: 교수자 중심(전체)의 평균은 3.98점으로 나타나, 교수자 중심의 수업 활동이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5. 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4.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6. 나는 학생의 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는 4.33점, '3. 나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학생에게 제시한다'는 4.1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교수자들이 수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2. (역)나는 설명과 안내가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3.0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수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질문을 활용한 상호작용이 교수자 중심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16 교사_수업활동: 교수자 중심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설명을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0 (0.0)	3 (1.8)	30 (18.2)	97 (58.8)	35 (21.2)	165 (100.0)	3.99 (0.69)
2. (역)나는 설명과 안내가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6 (3.6)	35 (21.2)	77 (46.7)	42 (25.5)	5 (3.0)	165 (100.0)	3.03 (0.86)
3. 나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학생에게 제시한다	2 (1.2)	5 (3.0)	19 (11.5)	82 (49.7)	57 (34.5)	165 (100.0)	4.13 (0.82)
4. 나는 학생들과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0 (0.0)	4 (2.4)	36 (21.8)	80 (48.5)	45 (27.3)	165 (100.0)	4.01 (0.77)
5. 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0 (0.0)	0 (0.0)	10 (6.1)	77 (46.7)	78 (47.3)	165 (100.0)	4.41 (0.61)
6. 나는 학생의 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	0 (0.0)	0 (0.0)	19 (11.5)	72 (43.6)	74 (44.8)	165 (100.0)	4.33 (0.68)
수업활동: 교수자 중심(전체)							3.98 (0.43)

그림 5-16 교사_수업활동: 교수자 중심 평균



❖ 수업활동: 학습자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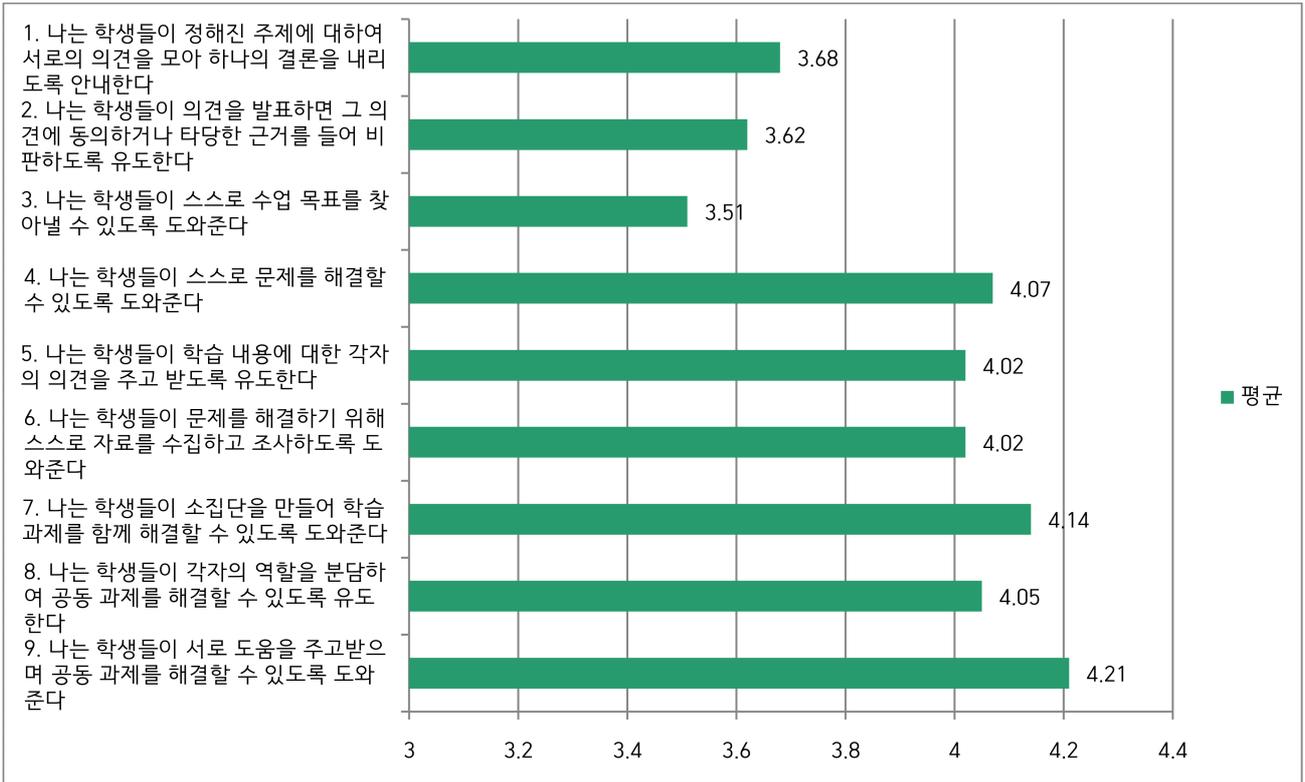
○ 수업활동: 학습자 중심은 9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수업활동: 학습자 중심(전체)의 평균은 3.93점으로,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잘 실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9. 나는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4.2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 간의 협동 학습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어서 '7. 나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4.14점, '4.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4.07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1. 나는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는 3.6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유도와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다.

표 5-17 교사_수업활동: 학습자 중심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2 (1.2)	13 (7.9)	49 (29.7)	72 (43.6)	29 (17.6)	165 (100.0)	3.68 (0.90)
2. 나는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면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1 (0.6)	16 (9.7)	54 (32.7)	67 (40.6)	27 (16.4)	165 (100.0)	3.62 (0.89)
3.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목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1.8)	21 (12.7)	57 (34.5)	57 (34.5)	27 (16.4)	165 (100.0)	3.51 (0.97)
4.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0 (0.0)	3 (1.8)	28 (17.0)	88 (53.3)	46 (27.9)	165 (100.0)	4.07 (0.72)
5. 나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도록 유도한다	0 (0.0)	3 (1.8)	35 (21.2)	83 (50.3)	44 (26.7)	165 (100.0)	4.02 (0.74)
6. 나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도록 도와준다	2 (1.2)	3 (1.8)	32 (19.4)	80 (48.5)	48 (29.1)	165 (100.0)	4.02 (0.82)
7. 나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0.6)	3 (1.8)	26 (15.8)	77 (46.7)	58 (35.2)	165 (100.0)	4.14 (0.79)
8. 나는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 (0.6)	7 (4.2)	25 (15.2)	82 (49.7)	50 (30.3)	165 (100.0)	4.05 (0.82)
9. 나는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0.6)	0 (0.0)	23 (13.9)	80 (48.5)	61 (37.0)	165 (100.0)	4.21 (0.72)
수업활동: 학습자 중심(전체)							3.93 (0.60)

그림 5-17 교사_수업활동: 학습자 중심 평균



교육 현안

- 이 단락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지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사들의 인식과 피드백은 정책의 강점과 단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은 10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전체)의 평균은 3.5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들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지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 문항 중에서 '6. 경북교육은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3.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 지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1. 경북교육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3.68점으로 나타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3. 경북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 결과는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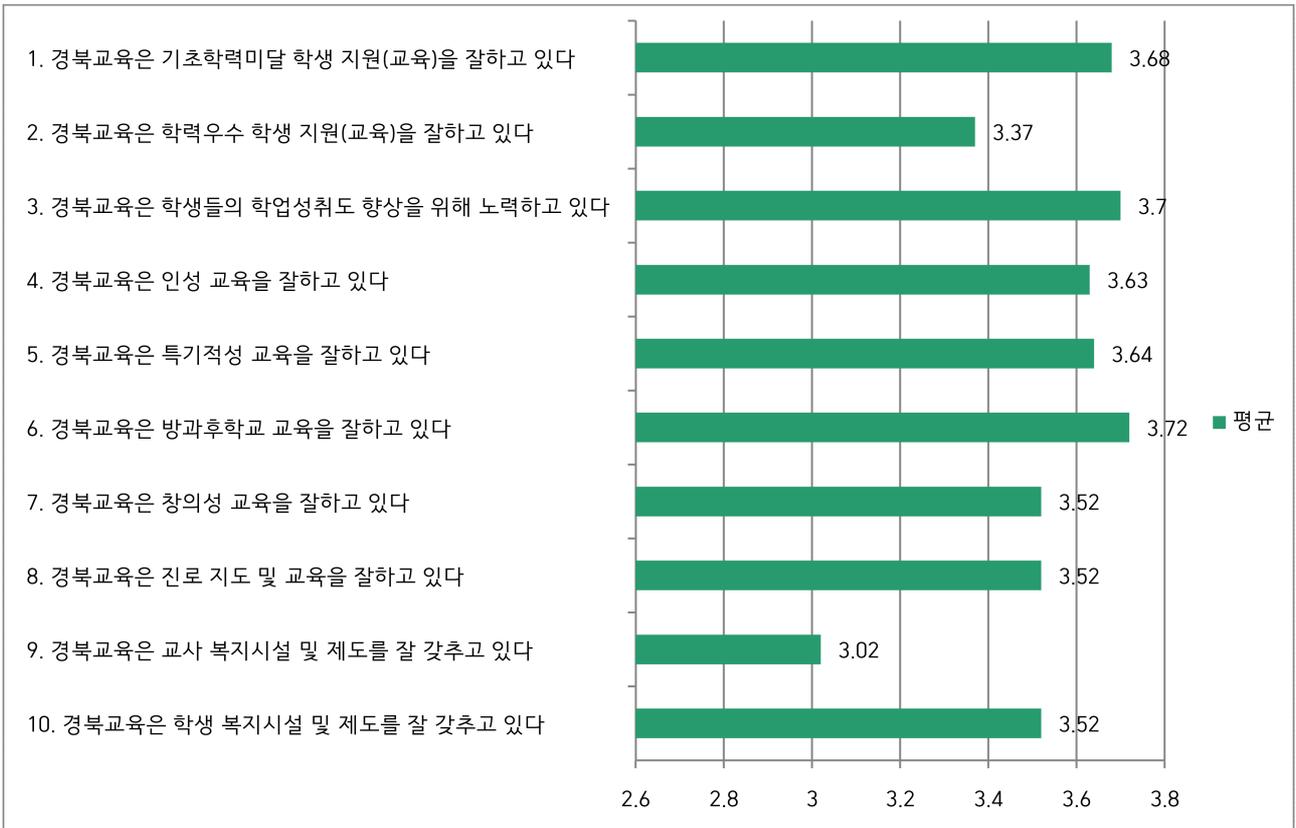
표 5-18 교사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경북교육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7 (4.2)	8 (4.8)	48 (29.1)	69 (41.8)	33 (20.0)	165 (100.0)	3.68 (0.99)
2. 경북교육은 학력우수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7 (4.2)	17 (10.3)	70 (42.4)	50 (30.3)	21 (12.7)	165 (100.0)	3.37 (0.98)
3. 경북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3.0)	11 (6.7)	46 (27.9)	69 (41.8)	34 (20.6)	165 (100.0)	3.70 (0.97)
4. 경북교육은 인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4 (2.4)	8 (4.8)	61 (37.0)	64 (38.8)	28 (17.0)	165 (100.0)	3.63 (0.91)
5. 경북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4 (2.4)	11 (6.7)	55 (33.3)	65 (39.4)	30 (18.2)	165 (100.0)	3.64 (0.94)
6. 경북교육은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	6 (3.6)	8 (4.8)	43 (26.1)	78 (47.3)	30 (18.2)	165 (100.0)	3.72 (0.94)
7. 경북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6 (3.6)	10 (6.1)	68 (41.2)	55 (33.3)	26 (15.8)	165 (100.0)	3.52 (0.95)
8. 경북교육은 진로 지도 및 교육을 잘하고 있다	5 (3.0)	15 (9.1)	59 (35.8)	61 (37.0)	25 (15.2)	165 (100.0)	3.52 (0.96)
9. 경북교육은 교사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27 (16.4)	26 (15.8)	46 (27.9)	49 (29.7)	17 (10.3)	165 (100.0)	3.02 (1.2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0. 경북교육은 학생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7 (4.2)	13 (7.9)	59 (35.8)	60 (36.4)	26 (15.8)	165 (100.0)	3.52 (0.99)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전체)							3.53 (0.84)

그림 5-18 교사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평균



VI

학교장 조사결과



제 VI 장

학교장 조사결과

인구학적 배경

- 학교장의 인구학적 배경인 성별 분포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학교장 인구학적 구성의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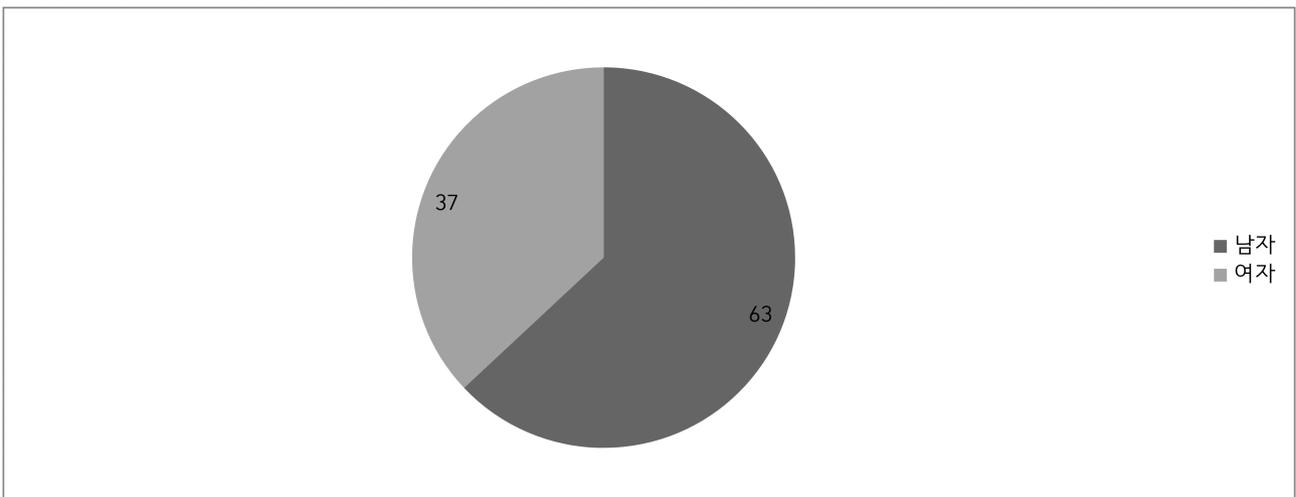
- 학교장의 성별은 남성 58명(63.0%)과 여성 34명(37.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2명이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남성 학교장이 전체 응답자 중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1 학교장_성별

단위: 명, (비율: %)

구분	남자	여자	총계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58 (63.0)	34 (37.0)	92 (100.0)

그림 6-1 학교장_성별 비율



학교경영 일반

- 이 단락에서는 학교장의 교육목표, 의사결정권한(민주성), 학교장 리더십, 학교풍토,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주제별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응답 경향과 평균 점수를 도출하고, 학교장의 운영 철학과 조직 관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각 항목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학교장의 리더십이 학교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장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리더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학교 내 신뢰 및 협력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장이 교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학교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을 다각도로 조망하였다.
- 이 분석 결과는 학교장의 운영 방향성과 리더십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의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학교 교육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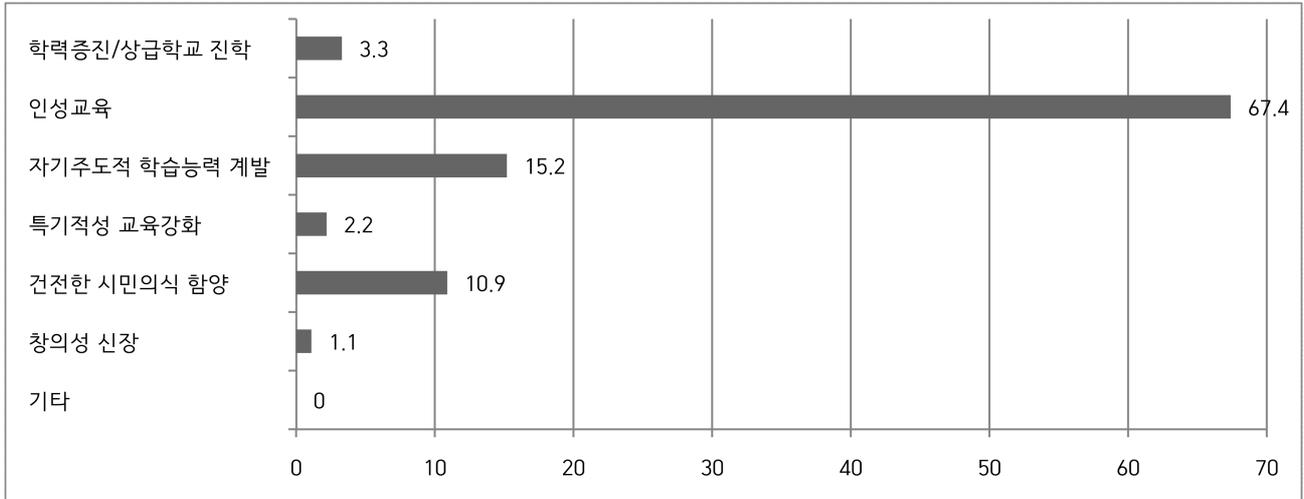
-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운영하실 때 학생의 교육 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목표는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는 '인성교육'으로, 62명(67.4%)이 이를 선택하였다. 이는 학교장들이 학생의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중요한 교육목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발'로, 14명(15.2%)이 이를 선택하였다. 이어서 '학력증진/상급학교 진학'이 3명(3.3%)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기적성 교육강화'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은 각각 2명(2.2%)과 10명(10.9%)이 선택하였다. 또한, '창의성 신장'은 1명(1.1%)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항목에는 응답이 없었다. 학교장들이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발을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6-2 학교장_학교 교육 목표

단위: 명, (비율: %)

구분	학력증진/ 상급학교 진학	인성교육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발	특기적성 교육강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창의성 신장	기타	총계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운영하실 때 학생의 교육 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	3 (3.3)	62 (67.4)	14 (15.2)	2 (2.2)	10 (10.9)	1 (1.1)	0 (0.0)	92 (100.0)

그림 6-2 학교장_학교 교육 목표 비율



❖ 의사결정권한(민주성)

○ 학교장의 의사결정권한(민주성)은 12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반영 안함 ~ 5점: 매우 많이 반영됨)로 조사되었다. 의사결정권한(전체)의 평균은 4.63점으로 나타나, 학교장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 문항 중에서 '1.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결정'이 4.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학교장이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결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2. 수업 운영 방식 결정'은 4.76점,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4.73점으로, 수업 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도 학교장의 높은 의사결정 권한이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 외에도 '5. 교과별 수업 시수 조정'은 4.75점, '6.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은 4.61점, '9. 학교 예산 편성'은 4.64점으로 학교장의 의사결정 권한이 교육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10. 용역 및 입찰 결정'은 4.2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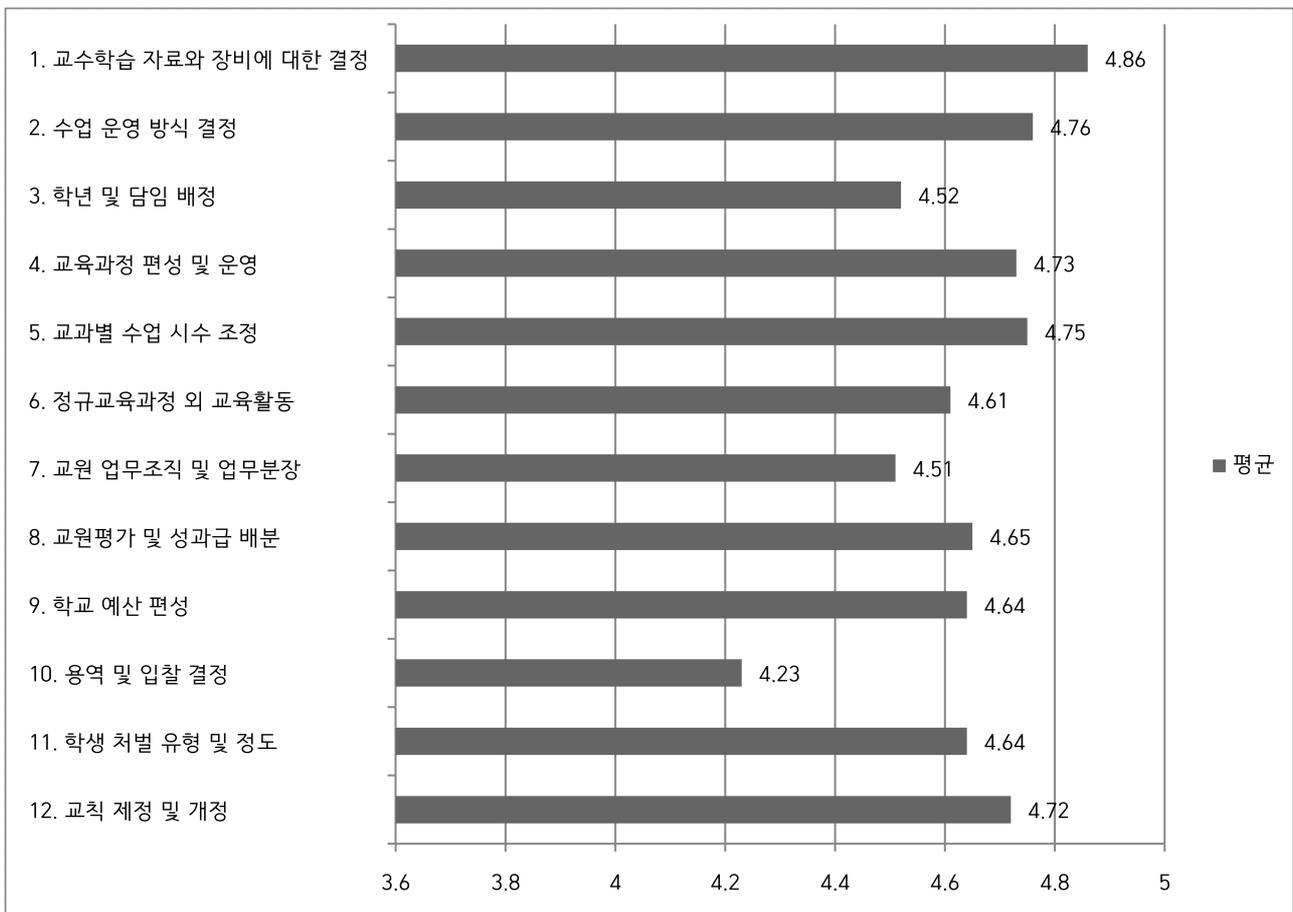
표 6-3 학교장_의사결정권한(민주성)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반영 안함	대체로 반영 안함	보통이다	대체로 반영됨	매우 많이 반영됨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결정	0 (0.0)	0 (0.0)	0 (0.0)	13 (14.1)	79 (85.9)	92 (100.0)	4.86 (0.35)
2. 수업 운영 방식 결정	0 (0.0)	0 (0.0)	0 (0.0)	22 (23.9)	70 (76.1)	92 (100.0)	4.76 (0.43)
3. 학년 및 담임 배정	0 (0.0)	0 (0.0)	2 (2.2)	40 (43.5)	50 (54.3)	92 (100.0)	4.52 (0.54)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0 (0.0)	0 (0.0)	1 (1.1)	23 (25.0)	68 (73.9)	92 (100.0)	4.73 (0.47)
5. 교과별 수업 시수 조정	0 (0.0)	0 (0.0)	2 (2.2)	19 (20.7)	71 (77.2)	92 (100.0)	4.75 (0.48)

구분	전혀 반영 안함	대체로 반영 안함	보통이다	대체로 반영됨	매우 많이 반영됨	총계	평균 (표준편차)
6.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0 (0.0)	0 (0.0)	5 (5.4)	26 (28.3)	61 (66.3)	92 (100.0)	4.61 (0.59)
7. 교원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	0 (0.0)	0 (0.0)	2 (2.2)	41 (44.6)	49 (53.3)	92 (100.0)	4.51 (0.54)
8. 교원평가 및 성과급 배분	0 (0.0)	2 (2.2)	4 (4.3)	18 (19.6)	68 (73.9)	92 (100.0)	4.65 (0.67)
9. 학교 예산 편성	0 (0.0)	0 (0.0)	3 (3.3)	27 (29.3)	62 (67.4)	92 (100.0)	4.64 (0.55)
10. 용역 및 입찰 결정	2 (2.2)	3 (3.3)	14 (15.2)	26 (28.3)	47 (51.1)	92 (100.0)	4.23 (0.97)
11.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0 (0.0)	0 (0.0)	6 (6.5)	21 (22.8)	65 (70.7)	92 (100.0)	4.64 (0.60)
12. 교칙 제정 및 개정	0 (0.0)	0 (0.0)	3 (3.3)	20 (21.7)	69 (75.0)	92 (100.0)	4.72 (0.52)
의사결정권한(민주성)(전체)			-				4.63 (0.37)

그림 6-3 학교장_의사결정권한(민주성) 평균



❖ 학교장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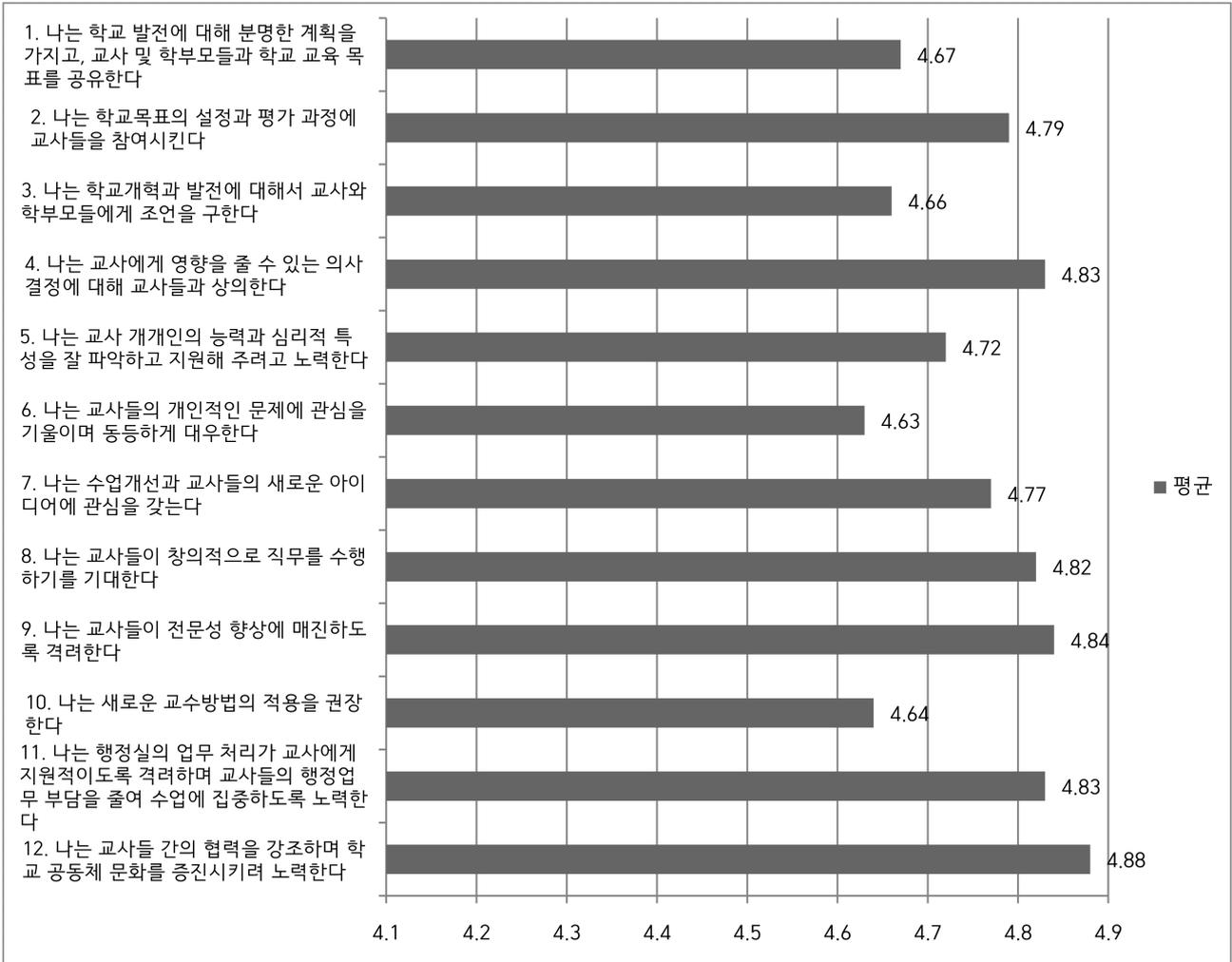
- 학교장 리더십은 12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학교장 리더십(전체)의 평균은 4.76점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학교장들이 매우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뜻한다. 세부 문항 중에서 '12. 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는 4.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학교장이 교사들 간의 협력과 학교 공동체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9. 나는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한다'는 4.84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10. 나는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는 4.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여전히 좋은 평가를 나타냈다. 또한, '6. 나는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4.63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6-4 학교장_학교장 리더십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0 (0.0)	0 (0.0)	1 (1.1)	28 (30.4)	63 (68.5)	92 (100.0)	4.67 (0.49)
2. 나는 학교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0 (0.0)	0 (0.0)	1 (1.1)	17 (18.5)	74 (80.4)	92 (100.0)	4.79 (0.43)
3. 나는 학교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0 (0.0)	0 (0.0)	1 (1.1)	29 (31.5)	62 (67.4)	92 (100.0)	4.66 (0.50)
4. 나는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0 (0.0)	0 (0.0)	1 (1.1)	14 (15.2)	77 (83.7)	92 (100.0)	4.83 (0.41)
5. 나는 교사 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0 (0.0)	0 (0.0)	1 (1.1)	24 (26.1)	67 (72.8)	92 (100.0)	4.72 (0.48)
6. 나는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한다	0 (0.0)	0 (0.0)	4 (4.3)	26 (28.3)	62 (67.4)	92 (100.0)	4.63 (0.57)
7. 나는 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0 (0.0)	0 (0.0)	0 (0.0)	21 (22.8)	71 (77.2)	92 (100.0)	4.77 (0.42)
8. 나는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0 (0.0)	0 (0.0)	0 (0.0)	17 (18.5)	75 (81.5)	92 (100.0)	4.82 (0.39)
9. 나는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한다	0 (0.0)	0 (0.0)	0 (0.0)	15 (16.3)	77 (83.7)	92 (100.0)	4.84 (0.37)
10. 나는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0 (0.0)	0 (0.0)	3 (3.3)	27 (29.3)	62 (67.4)	92 (100.0)	4.64 (0.55)
11. 나는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게 지원적하도록 격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0 (0.0)	0 (0.0)	0 (0.0)	16 (17.4)	76 (82.6)	92 (100.0)	4.83 (0.38)
12. 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0 (0.0)	0 (0.0)	0 (0.0)	11 (12.0)	81 (88.0)	92 (100.0)	4.88 (0.33)
학교장 리더십(전체)				-			4.76 (0.30)

그림 6-4 학교장_학교장 리더십 평균



❖ 학교풍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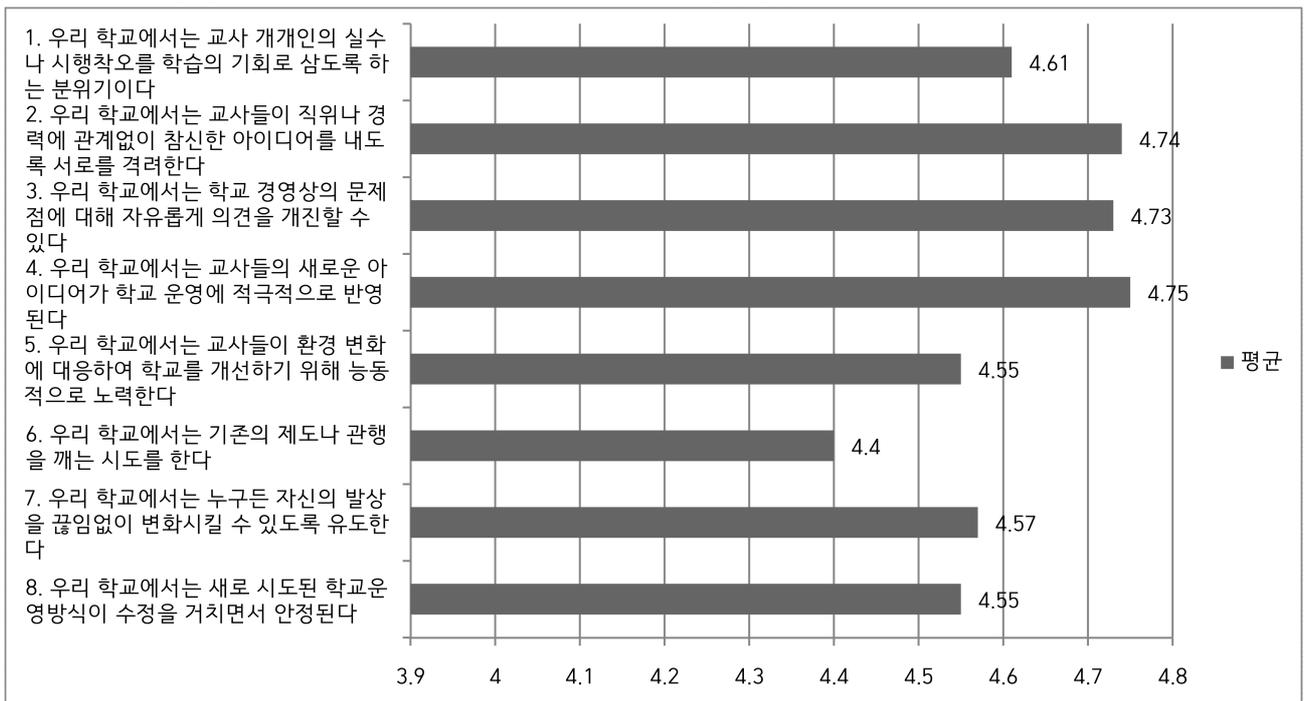
○ 학교풍토는 8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학교풍토(전체)의 평균은 4.61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학교의 분위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 문항 중에서 '4.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4.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로 학교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2.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는 4.74점, '3.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4.73점으로 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6.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는 4.4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5 학교장_학교풍토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분위기이다	0 (0.0)	1 (1.1)	3 (3.3)	27 (29.3)	61 (66.3)	92 (100.0)	4.61 (0.61)
2.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0 (0.0)	1 (1.1)	2 (2.2)	17 (18.5)	72 (78.3)	92 (100.0)	4.74 (0.55)
3.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0 (0.0)	0 (0.0)	3 (3.3)	19 (20.7)	70 (76.1)	92 (100.0)	4.73 (0.52)
4.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0 (0.0)	0 (0.0)	2 (2.2)	19 (20.7)	71 (77.2)	92 (100.0)	4.75 (0.48)
5.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	1 (1.1)	1 (1.1)	4 (4.3)	26 (28.3)	60 (65.2)	92 (100.0)	4.55 (0.73)
6.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	0 (0.0)	1 (1.1)	9 (9.8)	34 (37.0)	48 (52.2)	92 (100.0)	4.40 (0.71)
7.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발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0 (0.0)	1 (1.1)	5 (5.4)	27 (29.3)	59 (64.1)	92 (100.0)	4.57 (0.65)
8.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된 학교운영방식이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된다	0 (0.0)	1 (1.1)	3 (3.3)	32 (34.8)	56 (60.9)	92 (100.0)	4.55 (0.62)
학교풍토(전체)	-						4.61 (0.50)

그림 6-5 학교장_학교풍토 평균



❖ 지역사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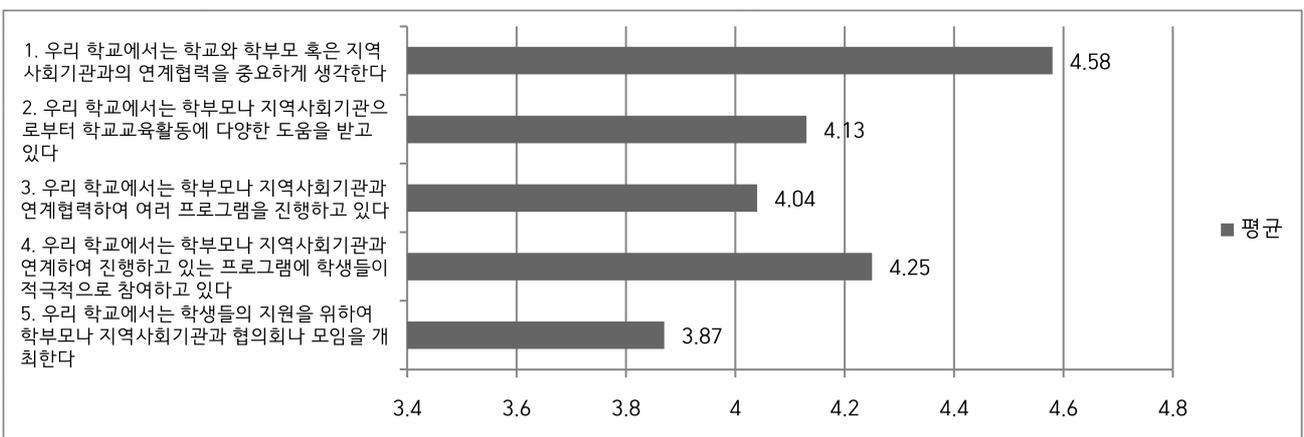
○ 지역사회 관계는 5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지역사회 관계(전체)의 평균은 4.17점으로 나타나,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에 대해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세부 문항 중에서 '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4.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뜻한다. 이어서 '2.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학교교육활동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4.13점을 보였다. 반면, '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는 3.8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의회나 모임 개최가 다른 항목보다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6-6 학교장_지역사회 관계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 (0.0)	0 (0.0)	2 (2.2)	35 (38.0)	55 (59.8)	92 (100.0)	4.58 (0.54)
2.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학교교육활동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0 (0.0)	1 (1.1)	17 (18.5)	43 (46.7)	31 (33.7)	92 (100.0)	4.13 (0.74)
3.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0 (0.0)	7 (7.6)	18 (19.6)	31 (33.7)	36 (39.1)	92 (100.0)	4.04 (0.95)
4.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0 (0.0)	3 (3.3)	12 (13.0)	36 (39.1)	41 (44.6)	92 (100.0)	4.25 (0.81)
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	1 (1.1)	10 (10.9)	20 (21.7)	30 (32.6)	31 (33.7)	92 (100.0)	3.87 (1.04)
지역사회 관계(전체)	-						4.17 (0.70)

그림 6-6 학교장_지역사회 관계 평균



❖ 업무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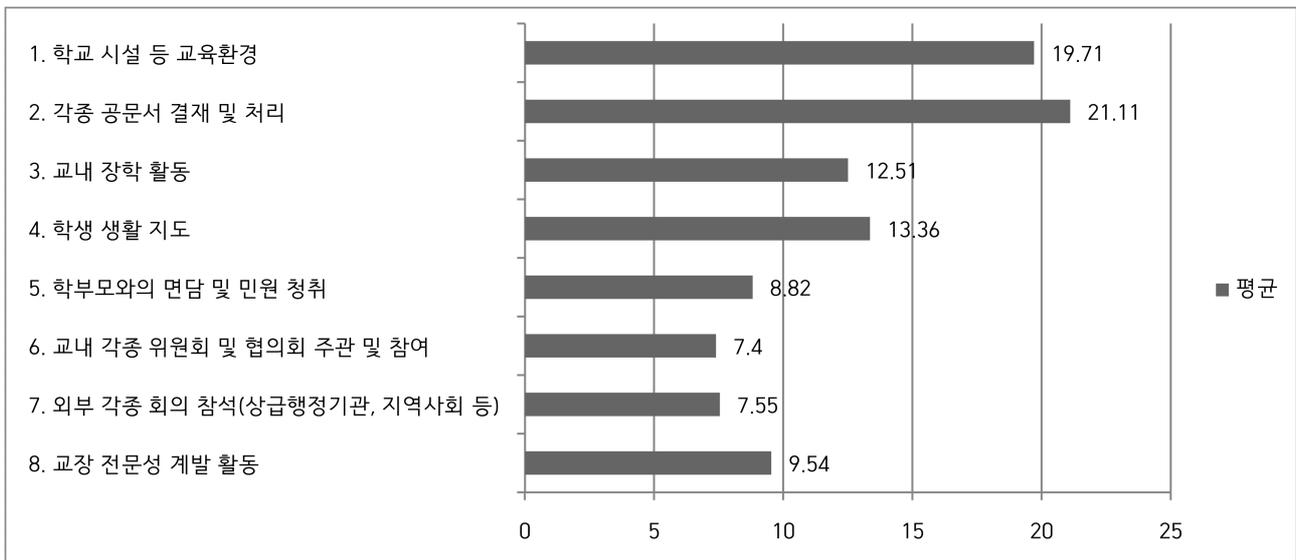
- 학교장의 업무비중은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으며, 각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업무비중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2. 각종 공문서 결재 및 처리'로, 평균 21.11%를 기록하였다. 이는 학교장이 공문서 처리와 결재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1.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으로, 평균 19.71%로 나타나, 교육환경 관리가 중요한 업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냈다. '4. 학생 생활 지도'는 평균 13.36%를 기록하였으며, '3. 교내 장학 활동'도 평균 12.5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6. 교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주관 및 참여'로 평균 7.40%를 나타냈다.

표 6-7 학교장_업무비중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19.71 (9.57)
2. 각종 공문서 결재 및 처리	21.11 (11.19)
3. 교내 장학 활동	12.51 (5.44)
4. 학생 생활 지도	13.36 (6.87)
5. 학부모와의 면담 및 민원 청취	8.82 (4.48)
6. 교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주관 및 참여	7.40 (3.20)
7. 외부 각종 회의 참석(상급행정기관, 지역사회 등)	7.55 (4.27)
8. 교장 전문성 계발 활동	9.54 (4.24)

그림 6-7 학교장_업무비중 비율



교육 현안

- 이 단락에서는 학교장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학업성취도 향상, 방과후학교 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 분석을 통해, 학교장의 시각에서 교육청의 정책적 효과성을 점검하는 데 유용하며, 향후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력 강화 및 정책적 보완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학교장이 교육청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은 10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전체)의 평균은 4.29점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문항 중에서 '1. 경북교육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4.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교육청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이어서 '6. 경북교육은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4.59점, '3. 경북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4.49점으로, 학업 성취도와 방과후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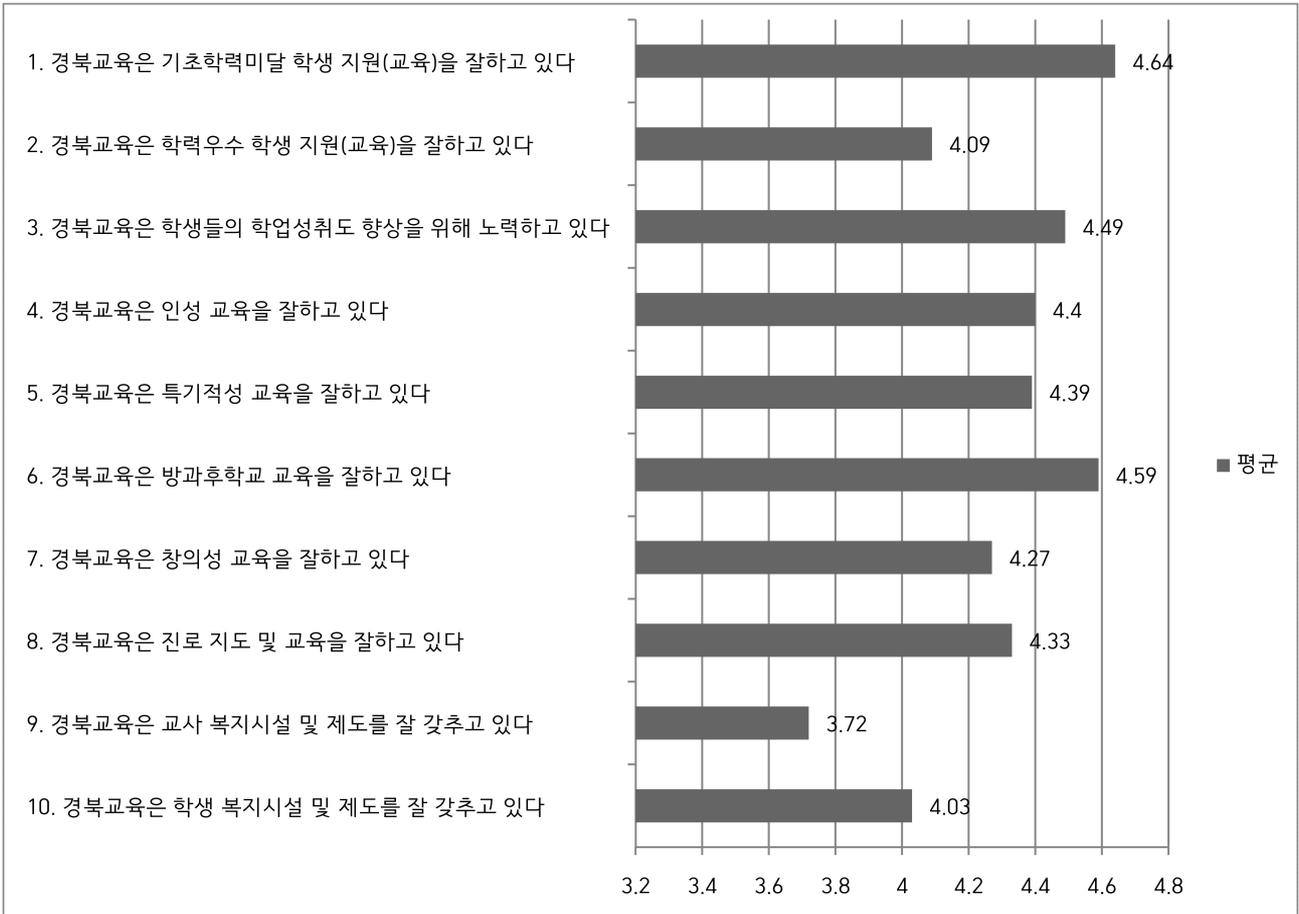
표 6-8 학교장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비율: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 경북교육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0 (0.0)	0 (0.0)	2 (2.2)	29 (31.5)	61 (66.3)	92 (100.0)	4.64 (0.53)
2. 경북교육은 학력우수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0 (0.0)	3 (3.3)	18 (19.6)	39 (42.4)	32 (34.8)	92 (100.0)	4.09 (0.82)
3. 경북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 (0.0)	1 (1.1)	6 (6.5)	32 (34.8)	53 (57.6)	92 (100.0)	4.49 (0.67)
4. 경북교육은 인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0 (0.0)	2 (2.2)	7 (7.6)	35 (38.0)	48 (52.2)	92 (100.0)	4.40 (0.73)
5. 경북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0 (0.0)	1 (1.1)	6 (6.5)	41 (44.6)	44 (47.8)	92 (100.0)	4.39 (0.66)
6. 경북교육은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	0 (0.0)	0 (0.0)	3 (3.3)	32 (34.8)	57 (62.0)	92 (100.0)	4.59 (0.56)
7. 경북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0 (0.0)	2 (2.2)	9 (9.8)	43 (46.7)	38 (41.3)	92 (100.0)	4.27 (0.73)
8. 경북교육은 진로 지도 및 교육을 잘하고 있다	0 (0.0)	1 (1.1)	7 (7.6)	45 (48.9)	39 (42.4)	92 (100.0)	4.33 (0.66)
9. 경북교육은 교사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2 (2.2)	7 (7.6)	28 (30.4)	33 (35.9)	22 (23.9)	92 (100.0)	3.72 (0.9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평균 (표준편차)
10. 경북교육은 학생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1 (1.1)	5 (5.4)	15 (16.3)	40 (43.5)	31 (33.7)	92 (100.0)	4.03 (0.91)
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전체)	-						4.29 (0.57)

그림 6-8 학교장_교육청 주요 교육에 대한 인식 평균



VII

심화 분석: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제 VII 장

심화 분석: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림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서론

❖ 연구 필요성

- 행복은 인간 삶의 보편적 목표이자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확산과 함께, 행복은 단순한 정서적 만족이나 쾌락적 상태를 넘어,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Seligman, 2011; Keyes, 2014; Goldman, 2017). 즉, 행복은 단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느끼고, 긍정적 정서와 성취, 관계적 만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은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과 학업 수행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Diener et al., 2018; Seligman, 2011).
- 특히 아동기의 행복은 성장 이후의 삶의 만족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어린 시절의 정서적 안정감은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 학업 성취,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resilience) 형성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Diener & Seligman, 2004; Lyubomirsky et al., 2005; Diener et al., 2018). 즉, 행복은 단순히 결과적 정서 상태가 아니라, 학습과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초역량으로서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도 직결되며, 따라서 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현대 교육에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Rahardjo, 2009; Sundriyal & Kumar, 2014; Ng, 2021).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국제 비교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21)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79.5점으로 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세이브더칠드런(2021)의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35개국 중 31위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복지와 학교생활 만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더욱이 교육 경쟁이 심화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학업과 성적 중심의 환경은 아동기부터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압박을 유발하고 있다. 교육부·질병관리청(2024)의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12.7%가 최근 1년 이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 중 다수가 학업 관련 스트레스였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5)의 ‘청소년 마음기록’에 따르면,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학업 부담’(39.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업 압박과 경쟁 구조에서 비롯된 심리적 긴장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는 단기적 불안이나 피로를 넘어, 자기효능감 저하, 우울감, 학습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심리·정서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는 아동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생은 학업 수행 과정에서 시험, 성적, 교사의 기대, 부모의 기대 등 다양한 압박을 경험하며, 이러한 지속적 긴장은 학습 동기와 정서적 안녕감을 동시에 약화시킨다(Torsheim & Wold, 2001; Wilks, 2008). 반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 내면의 긍정적 심리자원, 특히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그릿(grit)은 학업스트레스를 완충하고 행복감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Duckworth et al., 2007; Orth & Robins, 2014).
-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심리적 평가 체계로, 긍정적 자기 인식이 강할수록 실패나 평가 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지각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Orth & Robins, 2014; Diener & Diener, 1995; 유경훈·손유선, 2022).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학업 실패를 개인의 무가치함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학업스트레스의 인지적 부담을 증폭시켜 행복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허미경·도미향, 2025; Pinki & Kaushik, 2020; 이선정, 2019; Zogmaister & Maricutoiu, 2022; Singh & Jha, 2008; Datu et al., 2019).
- 한편, 그릿(grit)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며, 단기적인 실패나 좌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는 능력이다(Duckworth, 2016). 그릿이 높은 학생은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며, 학업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Duckworth & Quinn, 2009;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2016). 이는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동시에 학업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Datu et al., 2019; Jiang et al., 2020).
-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아존중감과 그릿은 모두 행복감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행복감을 높이는 매개 경로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초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 초기 단계의 아동들이 어떤 심리적 구조를 통해 행복감을 형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PLS-SEM)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의적 교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연구의 학문적 및 실천적 의의가 있다.

❖ 연구문제

○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것이 행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과 일상 생활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긍정적 심리상태로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것은 행복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것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는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자아존중감(Self-esteem)

○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심리적 평가 체계를 뜻한다(Rosenberg, 1965; Coopersmith, 1967). 로젠버그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자기수용과 자기 가치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Rosenberg, 1965). 마슬로 역시 인간의 기본 욕구 위계에서 존중 욕구(esteem needs)를 상위 단계로 제시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성장과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심리 요인임을 강조하였다(Maslow, 1970). 자아존중감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이나 자신감의 수준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평가하는 인지적·정서적 태도를 포함한다(Blascovich & Tomaka, 1991). 즉,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이 달라지며, 이는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 행복감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Duari, 2012; Eromo, 2015; Eromo & Levy, 2017; Hunagund & Hangal, 2014).

○ 특히 청소년기나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복원력(resilience), 스트레스 대처 능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smith, 1967; Harter, 1999). 실제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행복감과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은 낮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Diener & Diener, 1995; Orth & Robins, 2014).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실패나 비판적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수용과 확신을 보이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비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Brown & Dutton, 1995).

○ 초등학생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시기는 학업 성취, 또래 관계,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평가 경험을 통해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확립될 경우 학업동기와 행복감도 함께 향상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나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Kernis, 2005; Spyropoulou & Giovazolias, 2024; De Apodaca & Cowen, 1982).

❖ 그릿(Grit)

-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하며, 개인의 열정(passion)과 끈기(perseverance)를 동시에 내포하는 성격 특성이다(Duckworth et al., 2007). 즉, 단기적인 흥미나 즉각적인 보상보다 장기적 성취를 중시하면서, 어려움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목표 추구에 매진하려는 내적 동기와 태도를 가리킨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2016; Duckworth & Quinn, 2009). 이러한 개념은 단순한 노력이나 성실성과는 구별되며, 목표지향성과 인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장기적 성장과 성취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Muenks et al., 2017; Duckworth, 2016; Schmidt et al., 2018). 덕워스는 그릿을 “재능보다 꾸준함이 성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소개하면서, 지능이나 환경적 조건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학업·직업·사회적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Duckworth, 2016). 또한 Credé et al.(2017)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그릿은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들 심리변인 중에서도 특히 장기적 몰입을 유지시키는 정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되었다.
-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릿은 학업 성취, 학습 몰입, 자기조절학습뿐 아니라 정서적 안녕감 등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ckworth & Quinn, 2009; Hodge et al., 2018). 그릿 수준이 높은 학생은 학업 과정에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심리적 회복력이 강하며, 자기효능감 또한 높은 경향이 있다. 반대로 그릿이 낮은 학생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좌절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는 특성을 보인다(Buvana & Talwar, 2023; Wang et al., 2017; DiMenichi & Richmond, 2015). 여러 연구들에서도 그릿이 학업스트레스 감소와 행복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강문희, 2022; 조선화, 2019; 서미옥, 2019; 박진주 외, 2020; 박상미·박응임, 2020).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높을수록 과제 수행 만족도와 자기조절력은 향상되고, 학업 불안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어(김민정, 2021; 김진철·김성천, 2023; 홍은비·노성향, 2022; Holtby, 2018; Clark & Malecki, 2019), 이는 그릿이 단순한 인내심 이상의 개념으로서, 학습 태도와 정서적 안정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복합적인 심리 자원임을 의미한다.

❖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

- 학업스트레스는 학생이 학업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긴장과 불안, 압박감 및 부담감을 말한다(Torsheim & Wold, 2001; Wilks, 2008).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이 환경적 요구를 자신의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각할 때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를 학업 맥락에 적용하면 곧 학습 과제, 성적 평가, 경쟁적 분위기, 교사 및 부모의 기대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 압박을 의미한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개인 내적 요인(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동기)과 환경적 요인(예: 가정, 학교, 또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Saini & Saini, 2013; Harahap et al., 2022; Saini & Punia, 2013).
- 학업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첫째, 학업 성취 및 성적 평가에 대

한 부담으로서, 학생은 시험 결과나 성적 비교에서 오는 압박감과 불안을 경험한다. 둘째, 시간 및 과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인데, 과도한 학습량과 경쟁으로 인해 피로와 긴장을 느끼게 된다. 셋째, 부모 및 교사의 기대와 같은 외부 압력도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Putwain, 2007; Lovin & Bernardeau-Moreau, 2022; Tripathi & Sharma, 2013).

- 여러 선행연구들은 학업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정서적·인지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Misra와 Castillo(2004)는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수면 장애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킨다고 밝혔으며, Ang와 Huan(2006)은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 만족도와 행복감 저하의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 자아존중감, 학업동기, 학교적응 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Lew & Son, 2022; Nikitha et al., 2014; Pinki & Priyanka, 2020).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본격적인 학업 경쟁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시험 평가에 따른 불안과 학습 부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효능감 저하와 부정적 정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Galla & Wood, 2012; Safiyah, 2022; Yang & Kwon, 2012). 그러나 반대로 자아존중감이나 그릿과 같은 긍정적 심리 요인은 이러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거나 학습 동기를 유지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된다(Duckworth et al., 2007).

❖ 행복도(Happiness)

- 행복감(happiness)은 인간이 삶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Goldman, 2017; Keyes, 2014; Yadav, 2012). Diener(1984)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으로 정의하며, 빈번한 긍정 정서, 드문 부정 정서, 그리고 삶에 대한 인지적 만족이 결합된 상태로 설명하였다. 즉 행복은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과 삶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지속적 심리 상태라 할 수 있다. Seligman(2002)은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행복을 쾌락(pleasure), 몰입(engagement), 의미(meaning)의 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개념화하였으며, 행복한 사람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서 목표의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였다. Ryff(1989)은 행복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확장하여, 자율성, 긍정적 관계,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기수용의 여섯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강조하였다.
- 행복감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행복감이 높은 경우 학업 동기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지만, 행복감이 낮은 경우 우울, 불안, 무기력 등 부정적 정서와 깊은 관련을 보인다(Diener & Seligman, 2004; Lyubomirsky et al., 2005). 특히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정서적 소진과 피로감을 겪기 쉬우나, 자아존중감이나 그릿이 높은 학생은 학업 상황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복감을 비교적 잘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Teuber et al., 2021; Kim, 2022; Park et al., 2020).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이 자아존중감과 강한 정적 상

관을 보이며, 스트레스 수준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학생의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Yap et al., 2022; Hwang et al., 2019; Salsabila et al., 2024).

❖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 행복도와와의 관계

-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와 행복도의 핵심적인 심리적 예측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상황에서의 긴장이나 압박감을 덜 느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한다(Baumeister et al., 2003; Misra & Castillo, 2004; Pinki & Kaushik, 2020).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학업 실패를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높고, 이로 인해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이선정, 2019; 허미경·도미향, 2025).
- 국제적 비교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Misra와 Castillo(2004)는 미국과 국제 학생을 비교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업스트레스와 높은 정서적 안정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Pinki와 Kaushik(2020)은 농촌·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내의 대규모 패널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허미경과 도미향(2025)은 한국아동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선정(2019)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동시에 부모의 학습참여 효과를 매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학업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완충하고,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핵심 변인임을 보여준다.
- 한편 자아존중감은 행복도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도 확인되어, Diener(1984)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하며, 긍정적 자기평가가 삶의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Seligman(2002) 역시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자기 수용(self-acceptance)과 긍정적 자기인식이 행복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행복감과 학교적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서혜전·노성향, 201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동시에 행복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직접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유경훈·손유선, 2022). 또한 최내리와 조혜진(2014)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며, 긍정적 자기개념이 조기 발달 단계에서도 행복의 기반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행복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H1]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자아존중감은 행복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그릿(Grit)과 학업스트레스, 행복도와의 관계

- 그릿이 높은 학생은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이나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인식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Duckworth & Quinn, 2009). 반면 그릿이 낮은 학생은 단기적 실패에 쉽게 좌절하고 학업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조선화, 2022; 김대명, 2022).
-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를 가진다(유계환·서상숙, 2024; 김대명, 2022; 조선화, 2022). Duckworth et al.(2007)은 그릿이 높은 학생이 어려운 학업 상황에서도 꾸준히 과제를 수행하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고 있어, 조선화(2022)는 청소년의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와 소진 수준이 낮다고 밝혔고, 김대명(2022)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이 학업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완화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계환과 서상숙(2024)은 그릿이 부모의 과잉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그릿은 학업 압박감에 대한 내적 통제력과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 그릿은 개인의 행복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Duckworth(2016)는 꾸준함과 열정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긍정·부정 정서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릿이 행복과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Singh & Jha, 2008). Jiang et al.(202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릿이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욕구 충족을 매개로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도 김진철과 김성천(2023)은 아동의 그릿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행복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그릿은 학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행복도를 높이는 중요한 정의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학업스트레스와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H3]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H4] 그릿은 행복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학업스트레스와 행복도와의 관계

- 학업스트레스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불안, 압박감, 피로감 등의 정서적 긴장을 의미하며, 행복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다(Lazarus & Folkman, 1984; Yuni et al., 2025; Achmad & Wahyudi, 2021; 유경훈·손유선, 2022). 학업 과제, 성적 경쟁, 교사나 부모의 기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강희주, 2024; 유경훈·손유선, 2022; 서현주·최형아, 2017).
-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변인임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Achmad와 Wahyudi(2021)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보고하였으며, Yuni와 Wilani(2025)는 학업 관련 압박이 정서적 불안을 높이고 삶의 만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강희주(2024)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애착과 학교환경이 이를 완화한다고 하였고, 유경훈와 손유선(2022)은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직접적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서현주와 최형아(2017)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급에 관계없이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Kim(2020)은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행복감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생의 정서적 안녕과 행복 수준을 저하시키는 핵심 예측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H5] : 학업스트레스는 행복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자아존중감과 행복도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학업 실패나 평가 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즉,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안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 긍정 정서를 유지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동시에 행복감을 높이는 간접적 효과를 가진다(Orth & Robins, 2014; Zogmaister & Maricutoiu, 2022; Singh & Jha, 2008; Datu et al., 2019).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직접 효과에 그치지 않고, 학업스트레스의 감소를 매개로 한 간접 경로를 통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Zogmaister와 Maricutoiu(2022)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인식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주관적 행복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고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연은모와 최효식(2022)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학업성취압력의 영향에서 자율성과 학업스트레스가 연속적인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밝혀, 학업스트레스가 행복에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그릿과 행복도의 관계에서도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어, 그릿이 높은 학생은 장기적 목표에 대한 몰입과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 학업 중의 압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Singh & Jha, 2008; Datu et al., 2019; Jiang et al., 2020). Datu et al.(2019)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스트레스 인식을 낮추고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고하였으며, Jiang et al.(2020)은 청소년의 그릿이 욕구충족을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되, 이 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즉,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이러한 완화 효과가 궁극적으로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주요 심리적 경로로 작용한다. 즉,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관련 스트레

스 수준이 낮고, 그 결과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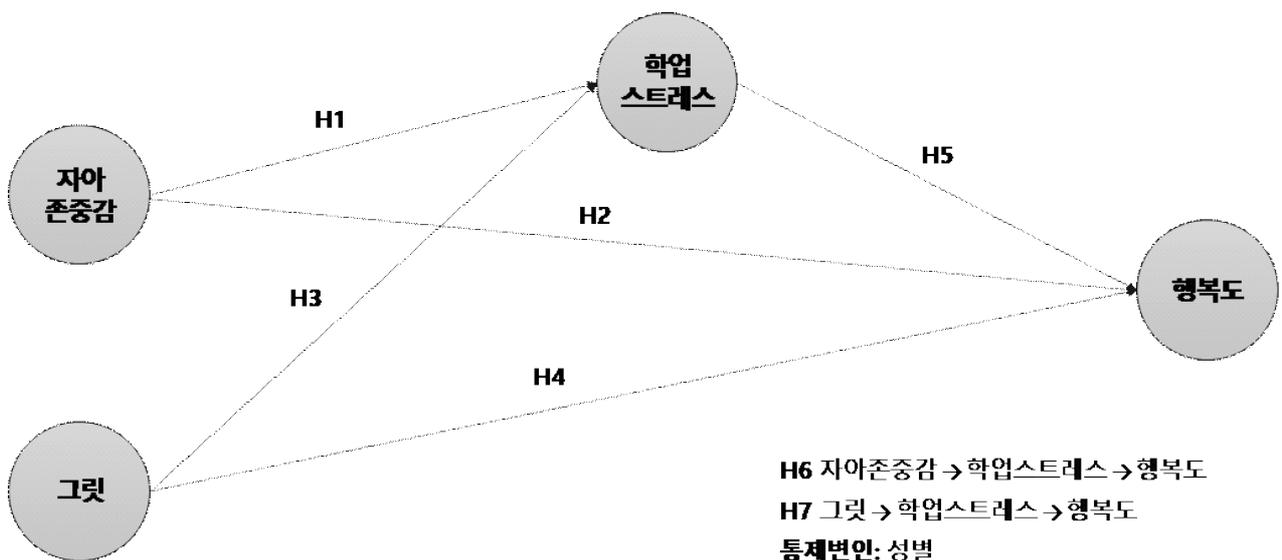
[가설6/H6]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H7] 그릿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모델

-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긍정적 자기인식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반면,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속적 노력은 학업적 좌절을 극복하고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이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독립변인으로, 행복도를 종속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구조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초등학생의 학업 및 정서적 적응 과정을 하나의 통합적 체계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이르는 직접 경로와 학업스트레스를 통한 간접 경로를 함께 검증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7-1 연구 모델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

-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수행한 「2024 경북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조사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경북교육종단연구」는 경북 지역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경북교육 정책 수립 및 학교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장기 종단 연구이다.
- 연구 표본의 경우,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군집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총 106개 초등학교 4학년 2,449명의 학생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 1,250명(51.0%), 여학생 1,199명(49.0%)으로,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였다.
- 자료 수집은 웹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 학생들은 연구원에서 제공한 개별 QR코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문항은 「경북교육종단연구」의 학생용 설문 중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에서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 관련 항목을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각 학교의 협조를 받아 일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 2,449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 연구 측정도구

-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Grit)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수행한 「2024 경북교육종단연구」의 학생용 설문 문항 중 관련 변인을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인은 행복도, 외생변인은 자아존중감과 그릿, 매개변인은 학업스트레스로 설정하였다. 각 변인은 「경북교육종단연구」의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 또한 각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0.5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5문항, 그릿 3문항, 학업스트레스 7문항, 행복도 5문항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항 정제 과정을 통해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이 향상되었으며, 이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Hair et al., 2017).

■ 자아존중감(Self-esteem)

-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2024)에서 활용한 「경북교육종단연구」의 학생용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5개로 구성되었

으며,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기 신뢰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0.884$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초등학생의 자기 인식과 정서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로운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 그릿(Grit)

- 그릿(Grit)을 측정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2024)에서 사용한 「경북교육종단연구」의 학생용 설문 문항을 기초로 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3개로 구성되었으며,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가 포함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력과 꾸준함이 강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0.747$ 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

- 학업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2024)의 「경북교육종단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반으로,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7개로 구성되었으며,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 “시험 직전에는 더 떨린다”, “나는 시험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 “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학생이 시험이나 과제와 같은 학업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높은 점수는 학습 및 평가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을 자주 경험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0.876$ 으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초등학생의 학업 관련 정서적 부담과 심리적 긴장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도구로 판단된다.

■ 행복도(Happiness)

- 행복도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2024)의 「경북교육종단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로,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과 정서적 특성에 맞게 구성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

다”,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나는 잘 웃는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정 문항으로 “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다”를 포함하여 응답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지각하는 행복감과 정서적 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높은 행복도 점수는 일상 속에서 긍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하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활력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0.851$ 로 나타나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복도 척도가 초등학생의 긍정적 정서 경험과 주관적 안녕 수준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로운 도구임을 뜻한다.

❖ 자료 분석

-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6.0, Stata 16.0, 그리고 SmartPLS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표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독립·매개·종속변수)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 이어, 주요 변인 간의 이론적 관련성과 상호 관계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후, 변수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s; PLS)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PLS-SEM은 표본 수가 비교적 적거나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수를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내생 변수의 설명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신건권, 2018).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적용하였다.
- 측정모형 평가 단계에서는 각 잠재변수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평가 단계에서는 내부 분산팽창지수(VIF)를 통해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점검하였으며, 효과크기(f^2)와 경로계수(path coefficient)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적용하여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수로서 가지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신건권, 2018; 이동욱, 2024).

연구결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연구의 분석 대상 학생은 2,449명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1,250명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은 1,199명으로 49.0%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

이 남녀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편향 없이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러한 성별 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7-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449)

일반적 특성		N	%
성별	남자	1,250	51.0
	여자	1,199	49.0

-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그릿, 행복도의 각 문항의 평균은 전반적으로 3점 중후반에서 4점 초반에 분포하였다. 이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높은 수준의 그릿,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 문항의 평균은 3.819~4.064 범위로,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릿은 3.583~4.115 수준으로, 목표 지속성과 자기 조절적 노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2.421~3.430 수준으로, 다른 심리적 변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 학업 상황에서의 불안이나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행복도의 평균은 4.022~4.399 범위로, 측정된 주요 변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연구대상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성 검증 결과, 왜도 절댓값은 0.208~1.742, 첨도 값은 0.007~2.879 범위로 나타났다. Kline(1998)이 제시한 기준(왜도 절댓값<3, 첨도 절댓값<8)에 따라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므로, PLS-SEM 분석을 위한 통계적 전제조건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그릿($r=.261\sim.439$) 및 행복도($r=.293\sim.500$)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r=-.248\sim-.06$)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그릿은 행복도($r=.195\sim.353$)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학업스트레스($r=-.229\sim-.053$)와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학업스트레스와 행복도 간의 상관계수 역시 전반적으로 음의 값을 보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r=-.218\sim-.046$).

표 7-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N=2,449)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자아존중감	①																				
	②	.726***																			
	③	.561***	.616***																		
	④	.565***	.584***	.589***																	
	⑤	.580***	.580***	.573***	.667***																
그릿	①	.300***	.307***	.357***	.386***	.360***															
	②	.261***	.282***	.346***	.344***	.315***	.466***														
	③	.290***	.318***	.405***	.439***	.376***	.608***	.414***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학업스트레스	①	-.063**	-.074***	-.113***	-.060***	-.091***	-.008	-.157***	.011												
	②	-.083***	-.081***	-.121***	-.079***	-.105***	-.039	-.160***	-.016	.793***											
	③	-.155***	-.157***	-.248***	-.213***	-.201***	-.149***	-.229***	-.159***	.430***	.458***										
	④	-.118***	-.112***	-.143***	-.149***	-.174***	-.136***	-.165***	-.167***	.304***	.307***	.429***									
	⑤	-.140***	-.137***	-.154***	-.155***	-.181***	-.053**	-.191***	-.035	.582***	.574***	.408***	.363***								
	⑥	-.154***	-.163***	-.209***	-.185***	-.218***	-.164***	-.200***	-.184***	.378***	.392***	.477***	.719***	.486***							
	⑦	-.157***	-.164***	-.203***	-.175***	-.186***	-.111***	-.217***	-.100***	.602***	.629***	.507***	.465***	.642***	.595***						
행복도	①	.301***	.293***	.317***	.309***	.336***	.207***	.195***	.221***	-.060**	-.068***	-.218***	-.167***	-.120***	-.208***	-.166***					
	②	.354***	.347***	.361***	.419***	.455***	.313***	.275***	.353***	-.050*	-.066***	-.201***	-.142***	-.126***	-.174***	-.146***	.434***				
	③	.344***	.350***	.376***	.408***	.421***	.337***	.278***	.343***	-.037	-.053**	-.158***	-.089***	-.096***	-.123***	-.107***	.311***	.634***			
	④	.341***	.353***	.374***	.428***	.418***	.319***	.248***	.341***	-.026	-.021	-.158***	-.090***	-.090***	-.120***	-.119***	.380***	.617***	.573***		
	⑤	.368***	.370***	.384***	.438***	.500***	.321***	.272***	.338***	-.046*	-.062**	-.186***	-.150***	-.142***	-.180***	-.150***	.465***	.695***	.548***	.672***	
평균	3.934	3.819	3.918	3.981	4.064	4.028	3.583	4.115	3.430	3.194	2.421	2.693	3.242	2.697	2.772	4.399	4.127	4.022	4.100	4.168	
표준편차	1.076	1.014	0.931	0.956	0.969	0.928	1.038	0.858	1.245	1.313	1.223	1.341	1.333	1.315	1.351	0.915	0.959	1.042	0.971	1.000	
왜도	-0.788	-0.574	-0.578	-0.682	-0.836	-0.782	-0.382	-0.692	-0.512	-0.208	0.567	0.338	-0.257	0.321	0.220	-1.742	-0.980	-0.881	-0.860	-1.055	
첨도	-0.044	-0.116	0.014	0.007	0.148	0.319	-0.318	0.048	-0.670	-1.052	-0.605	-0.992	-1.055	-0.964	-1.100	2.879	0.522	0.149	0.130	0.458	

※ *p<.05, **p<.01, ***p<.001 /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은 각 잠재변인별 하위의 관측변인들

❖ 전체 측정모형 평가

- 본 연구에서는 반영적(reflective)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 집중타당도, 그리고 판별타당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Hair et al., 2017; 신건권, 2018).
- 먼저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α 값은 0.747~0.884, rho_A 계수는 0.749~0.895로 모두 기준치인 0.7을 상회하였다. 또한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는 0.856~0.915로 나타나 각 잠재변수의 문항들이 개념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측정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 다음으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적재치(outer loading)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을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의 외부적재치는 0.621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범위를 충족하였으며, 각 잠재변수의 AVE는 0.561~0.682로 기준치인 0.5를 상회하였다(Chin, 1998; Henseler et al., 2009). 이는 각 잠재변수가 해당 문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자아존중감(AVE=0.682)과 그릿(AVE=0.665)은 높은 수렴타당도를 보였다. 행복도(AVE=0.633) 역시 기준을 상회하여 전체적으로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의 합성신뢰도(CR)가 0.85 이상(자아존중감=0.915, 그릿=0.856, 학업스트레스=0.899, 행복도=0.895)으로 나타나, 각 구성요인이 문항 간 응집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 잠재변수가 동일한 개념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PLS-SEM의 권장 기준(Hair et al., 2017)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모두에서 통계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측정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7-3 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확인

잠재변인/관측변인		외부 적재치	Cronbach's α	rho_A	CR	AVE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0.817	0.884	0.888	0.915	0.682
	자아존중감2	0.835				
	자아존중감3	0.807				
	자아존중감4	0.833				
	자아존중감5	0.838				
그림	그림1	0.847	0.747	0.749	0.856	0.665
	그림2	0.762				
	그림3	0.835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1	0.676	0.876	0.895	0.899	0.561
	학업스트레스2	0.697				
	학업스트레스3	0.746				
	학업스트레스4	0.724				
	학업스트레스5	0.736				
	학업스트레스6	0.818				
	학업스트레스7	0.833				
행복도	행복도1	0.621	0.851	0.862	0.895	0.633
	행복도2	0.861				
	행복도3	0.783				
	행복도4	0.825				
	행복도5	0.863				

○ 본 연구에서는 Fornell-Larcker 기준을 적용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이 해당 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Fornell et al., 1981; 이동욱, 2024).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의 AVE 제곱근은 0.826으로, 그림(0.508), 학업스트레스(-0.258), 행복도(0.577)와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의 AVE 제곱근은 0.816으로, 자아존중감(0.508), 학업스트레스(-0.227), 행복도(0.453)보다 높았으며, 학업스트레스의 AVE 제곱근은 0.749로 자아존중감(-0.258), 그림(-0.227), 행복도(-0.2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의 AVE 제곱근은 0.796으로, 자아존중감(0.577), 그림(0.453), 학업스트레스(-0.220) 보다 높게 확인되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각 잠재변수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4 Fornell-Larcker 판별타당도 검증

잠재변인	자아존중감	그림	학업스트레스	행복도
자아존중감	0.826	-	-	-
그림	0.508	0.816	-	-
학업스트레스	-0.258	-0.227	0.749	-
행복도	0.577	0.453	-0.220	0.796

- 판별타당도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Henseler 등(2015)이 제안한 이질-동질 특성비율 (HTMT, Heterotrait-Monotrait Ratio) 값을 산출하였다. HTMT 값은 두 잠재변수 간 상관된 특성 간 비율로, 개념 간 중복 여부를 판별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HTMT 값이 0.85 미만일 경우 엄격한(보수적) 기준, 0.90 미만일 경우 표준적 기준으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해석된다(Kline, 2023; Henseler et al., 2015).
- 본 연구의 HTMT 분석 결과, 잠재변수 간 HTMT 계수는 0.228~0.660의 범위로 산출되어 모든 값이 두 기준(0.85 및 0.90)을 모두 만족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그릿(0.620)은 중간 수준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개념적 중복은 없었고, 자아존중감-학업스트레스(0.266), 자아존중감-행복도(0.660), 그릿-학업스트레스(0.253), 그릿-행복도(0.565), 학업스트레스-행복도(0.228) 역시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가 서로 독립된 구성개념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판별타당도의 통계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함을 의미한다.

표 7-5 HTMT_{.90} 판별타당도 검증

변인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
자아존중감	-	-	-	-
그릿	0.620	-	-	-
학업스트레스	0.266	0.253	-	-
행복도	0.660	0.565	0.228	-

❖ 구조모형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내적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각 잠재변인의 VIF 값은 1.086~1.388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기준치인 5 미만(Hair et al., 2017)을 충족하였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경로의 효과크기(f^2)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0.030,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는 0.239로 나타나 각각 작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그릿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f^2 값은 0.014, 행복도에 대한 값은 0.051로 산출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0.004로 나타났다(Cohen, 2013; 신건권, 2018).
-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각 변수 간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193$, $t=7.915$, $p<.001$). 즉,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행복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0.457$, $t=20.072$, $p<.001$), 이는 학생의 긍정적 자기인식이 정서적 안녕감 향상에 기여함을 뜻한다. 그릿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행복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구체적으로 그릿은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beta=-0.127$, $t=5.048$, $p<.001$), 동시에 행복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beta=0.209$, $t=9.149$, $p<.001$). 이러한 결과는 학업 과정에서의 끈기와 열정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스트레스는 행복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0.054$, $t=2.769$, $p=.006$). 즉, 학업 관련 부담이 높을수록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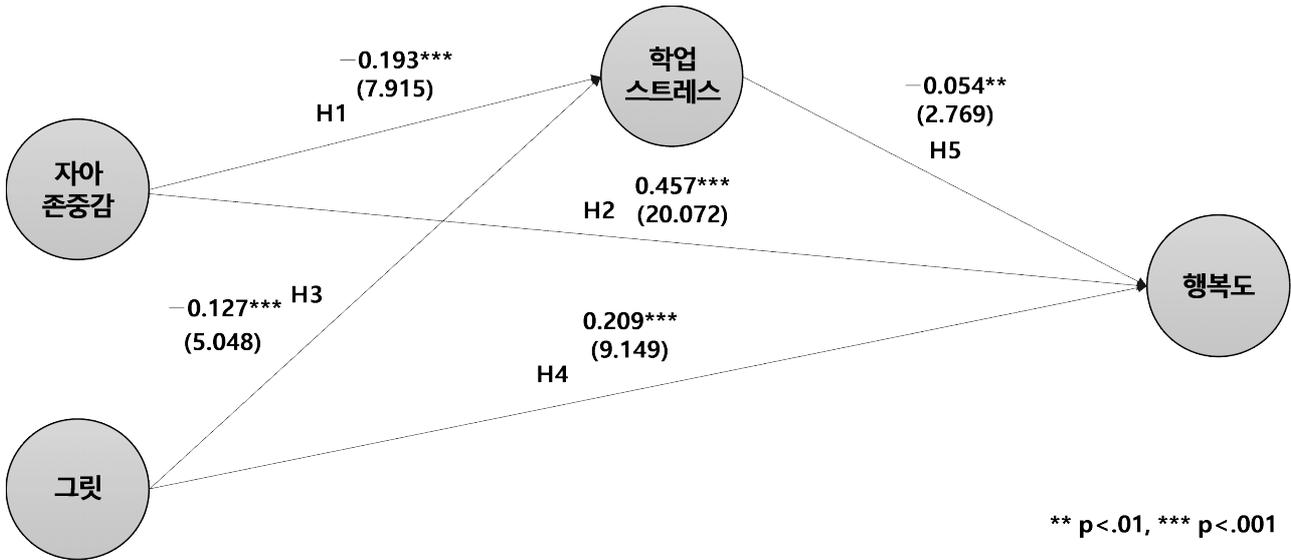
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정서적 안녕감의 주요 저해요인임을 시사한다.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성별의 경우, 학업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beta = 0.116, t = 2.828, p = .005$), 행복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beta = 0.001, t = 0.016, p = .987$). 즉, 남녀 간 스트레스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 행복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그릿은 모두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를 경유하여 행복도에 긍정적 간접효과를 보였으며($\beta = 0.010, t = 2.597, p = .009, 95\% \text{ CI } [0.003, 0.019]$), 그릿 또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으며($\beta = 0.007, t = 2.453, p = .014, 95\% \text{ CI } [0.002, 0.013]$), 이는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모두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높인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성별은 학업스트레스를 통한 간접경로에서도 부적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beta = -0.006, t = 1.971, p = .049, 95\% \text{ CI } [-0.014, -0.001]$),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고, 그로 인해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간접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과 그릿은 직접적으로 행복도를 높일 뿐 아니라,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증진시키는 이중 경로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행복도의 직접 차이는 없지만, 스트레스 경험의 정도가 간접적으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구조모형의 가설 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β)	t (p)	BCa 95% CI	결과
직접 효과					
H1	자아존중감 → 학업스트레스	-0.193	7.915 (<.001)	[-0.241, -0.145]	채택
H2	자아존중감 → 행복도	0.457	20.072 (<.001)	[0.410, 0.499]	채택
H3	그릿 → 학업스트레스	-0.127	5.048 (<.001)	[-0.174, -0.076]	채택
H4	그릿 → 행복도	0.209	9.149 (<.001)	[0.164, 0.253]	채택
H5	학업스트레스 → 행복도	-0.054	2.769 (.006)	[-0.091, -0.014]	채택
통제변인	성별 → 학업스트레스	0.116	2.828 (.005)	[0.035, 0.195]	채택
	성별 → 행복도	0.001	0.016 (.987)	[-0.063, 0.067]	기각
간접 효과					
H8	자아존중감 → 학업스트레스 → 행복도	0.010	2.597 (.009)	[0.003, 0.019]	채택
H9	그릿 → 학업스트레스 → 행복도	0.007	2.453 (.014)	[0.002, 0.013]	채택
통제변인	성별 → 학업스트레스 → 행복도	-0.006	1.971 (.049)	[-0.014, -0.001]	채택

그림 7-2 구조모델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



결론 및 논의

-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수행한 「2024 경북교육중단연구」 1차년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44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분최소자승 구조방정식모형(PLS-SEM)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구조모형의 경로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 간의 인과적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 첫째,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beta = -0.193$, $p < .001$), 행복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0.457$, $p < .001$). 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학업 상황에서의 부정적 자극을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며, 학업 실패나 평가로 인한 불안감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완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Misra와 Castillo(2004)의 연구 및 자아존중감이 행복의 주요 예측요인임을 확인한 Orth와 Robins(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Pinki와 Kaushik(2020), 허미경·도미향(2025), 유경훈·손유선(2022) 등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도를 높이는 주요 심리적 변인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단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학업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 교육적으로는 학업성취 중심의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회정서역량(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정서적 역량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학업 부담으로 인한 부정 정서를 완화하고 학습 과정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SEL 기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은 자아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조절과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도록 돕는다(CASEL, 2015; Durlak et al., 2011).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SEL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면, 학생은 학업 실패를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는 행복감과 학습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학업 성취만을 강조하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 친화적 학습 환경(emotion-friendly classroom)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 학습태도와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핵심 교육 전략이 될 것이다.
- 둘째,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beta=-0.127, p<.001$), 행복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209, p<.001$). 즉,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적 좌절에 덜 위축되며, 학업 과정에서 성취감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Duckworth et al.(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릿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장기적 목표를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Datu et al.(2019)과 Wolters & Hussain(2015)의 연구에서도 그릿이 정서적 완충 요인으로서 학업 스트레스와 부정 정서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김진철·김성천(2023), 유계환·서상숙(2024), 강문희(2022) 등의 연구에서 그릿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업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 따라서 그릿은 단순히 성취지향적 태도를 넘어, 학습자가 도전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는 정서적 회복력(emotional resilience)과 자기통제력(self-control)을 강화하는 교육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릿이 높은 학생은 실패를 개인의 한계로 받아들이기보다 성장의 일부로 해석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학습 동기와 만족감을 유지한다(Duckworth & Quinn, 2009; Hodge et al., 2018).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인내심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동기를 재구성하고 긍정적 정서를 회복하는 심리적 능력과 깊이 연관된다.
-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그릿의 특성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이 반복적인 실패와 도전을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도전적 학습경험(challenging learning experiences)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프로젝트 수행, 협동적 문제 해결, 단계적 목표 설정 등은 학생에게 꾸준함과 자기통제를 학습할 수 있는 실제적 기회를 제공이 요구된다. 교사는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노력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노력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학업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장기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의 행복감과 학습 몰입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셋째, 학업스트레스는 행복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54, p=.006$). 이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업 부담이 정서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학업과제, 평가, 경쟁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피로와 행복감 저하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Wilks(2008), Torsheim과 Wold(2001), 그리고 국내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고 보고한 박성희·이경민(2020)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히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이나 일시적 긴장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안녕과 학습동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초등학생은 학습 요구에 대한 조절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학업 부담은 자아존중감 저하와 부정 정서 누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교과부담의 조절뿐 아니라, 평가 방식의 개선과 휴식·놀이 중심의 정서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등 학습 환경의 구조적 개편이 요구된다. 더불어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학생의 정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심리 상담과 정서 코칭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또한 학습 부담의 조절과 정서 안정 지원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업 요구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정서 교육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예컨대, 학생이 자신의 학업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성취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교사 피드백, 학급 내 감정표현·공감 대화 활동, 스트레스 대처 훈련 등은 학습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완충력을 형성한다. 이러한 학습부담의 균형 조절과 정서안정 지원의 병행적 접근은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행복 수준과 학습 몰입도를 함께 높이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넷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그릿 모두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높였으며($\beta=0.010, p=.009$), 그릿 역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어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007, p=.014$).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리적 전달 통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그릿이 강한 학생은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적 안녕감과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간접적 영향 경로(indirect effect)가 형성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데, Zogmaister와 Maricutoiu(2022)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인식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주관적 행복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학업스트레스-행복도의 경로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연은모와 최효식(2022)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학업성취압력의 영향에서 자율성과 학업스트레스가 연속적인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밝혀, 학업스트레스가 행복에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단순한 부정적 요인이 아니라, 정의적 특성과 행복을 연결하는 심리적 매개 변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학생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지닐수록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이를 통해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회복 구조가 형성된다. 교육적으로는 이러한 매개 효과를 고려하여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행복, 그릿과 행복 사이의 매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단순히 성취 수준을 높이는 접근보다는 학업 부담을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학교는 교과 성취 중심의 환경 속에서도 학생이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교사는 평가 과정에서 결과보다 정서 조절과 학습 지속성을 강화하는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정서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긍정적 효과가 행복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통로를 공고히 해야 한다.

-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은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학업스트레스 완화라는 간접 경로를 통해 학생의 정서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념과 회복탄력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학업 성취와 행복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핵심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다섯째, 성별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beta=0.116$, $p=.005$), 행복도에는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beta=0.001$, $p=.987$).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경험하지만,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도에 간접적 부정 효과($\beta=-0.006$, $p=.049$)를 보여, 여학생의 높은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여학생이 학업 평가나 경쟁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행복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학업 관련 정서적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김미경 외(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향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여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인식 방식을 고려한 정서 교육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평가 불안 완화, 자기수용(self-acceptance) 증진, 긍정적 자기대화 훈련 등의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은 여학생이 학업 상황을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여학생이 보이는 과도한 자기비판이나 완벽주의적 경향을 단순한 성취 의욕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서적 지원의 신호로 인식하여 개별 피드백과 감정 코칭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 수준을 높이는 교육적 기반이 될 것이다.
-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감을 높이는 주요 심리적 자원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이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 즉, 자아존중감과 그릿은 직접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학업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행복감을 강화하는 이중 경로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정서적 자기개념 형성, 자기조절적 학습 태도, 회복탄력성 교육이 학생 행복 증진의 핵심 요인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업성취 중심의 교육환경을 넘어,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자원을 함께 강화하는 행복기반 교육으로의 강화가 요구된다.
- 본 연구는 횡단적 단면자료를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지니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경북교육중단 연구」의 후속연차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LGM)이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을

적용하여 변인 간의 인과구조를 장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을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로 한정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의 변인을 포함한 확장된 심리사회적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정의적 발달 구조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III

요약 및 제언



제 VIII 장

요약 및 제언

연구 개요 요약

- 경북교육중단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북 지역 교육의 현주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주요 교육 주체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지역 교육 발전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북 지역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단적 연구는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개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산어촌 교육 환경 악화 등 경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및 정의적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조사 모형은 경북 지역의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학교효과 모형을 기반으로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의 3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먼저, 투입 단계에서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 환경, 교사 및 학교의 특성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학습과 발달을 시작하는 초기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 부모의 직업과 교육적 지원 수준 등 가정 환경,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 경력, 학교의 자원과 시설 등이 포함된다. 과정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서 경험하는 활동과 관계를 분석하며, 이는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활동, 동아리 및 사회봉사와 같은 학교 및 사회 활동, 학교 운영 및 경영, 그리고 부모·교사·친구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학생들이 교육과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과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출 단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의적 발달, 진로 준비 상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정책과 활동이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격차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경북교육중단연구의 학생 대상 설문은 학생들의 생활, 학습 경험, 심리적 특성, 대인관계, 진

로 및 사교육 참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총 10개 영역(학생 생활, 컴퓨터/스마트기기,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학교 수업(학습 일반),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학교 및 사회생활, 부모자녀관계, 사교육, 학교 선택/진로, 학업성취도)으로 구성된다. 학생 생활 영역에서는 학습 및 여가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비행 행동, 독서 활동 등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생활 습관과 사회적 경험을 분석하며,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사용 영역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기 의존도, 사용 시간 및 게임 활동 여부를 측정하여 디지털 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성장신념, 끈기, 다문화 수용성, 우울, 행복도 등의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학습 태도를 파악한다. 학교 수업(학습 일반) 영역에서는 학습 동기, 자기주도 학습, 학업 스트레스를 조사하며, 교사의 사기와 열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포함하여 교사의 역할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집중도, 수강 태도, 교수법, 교사와의 상호작용, 평가 방식 등을 조사하여 교과 학습 환경을 진단한다. 학교 및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학교 만족도, 교사 및 친구 관계, 방과후학교 참여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교 경험을 측정한다.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의사소통, 관계의 질, 대화 시간을 측정하여 가정 환경이 학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교육 영역에서는 사교육 참여 여부, 시간,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정 외 학습 환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학교 선택 및 진로 영역에서는 교육 포부, 진로 경험, 진로 성숙도를 측정하여 학생들의 진로 계획 과정에서의 영향을 분석하며, 학업성취도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여 학업 성장과 발전을 확인한다.

- 학부모 대상 설문은 학부모의 교육 지원 실태와 가정 내 교육 환경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사교육 및 교육비, 보호자의 지원, 부모자녀 관계,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학부모 참여 및 학교 만족, 보호자 및 보호자가 인식하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 교육 현안의 7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교육 및 교육비 영역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참여 여부와 유형을 조사하고,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의 수준과 부담 정도를 분석하여 가정의 교육비 구조와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 성취 및 학습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보호자의 지원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여가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조사하며,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부모자녀 관계 영역에서는 학부모의 양육 방식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학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고 양육하는지를 측정하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영역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지원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며, 희망 교육 수준과 대학 진학 계획, 그리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측정한다. 학부모 참여 및 학교 만족 영역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수준과 학교 운영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며,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경험과 학교 교육 및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개선 필요성을 파악한다. 보호자 및 보호자가 인식하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 영역에서는 학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보호자가 자녀의 정서적 상

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학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자녀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끈기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호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경북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 교사 대상 설문은 교사들이 학교 교육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가지는 인식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교수자 특성, 학교 운영 일반,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교육 현안의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수자 특성 영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환경을 측정하며, 교사효능감 문항을 통해 교사의 지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고, 교직 만족도 및 교사소진 문항을 통해 직업적 만족 수준과 업무 스트레스 및 탈진 정도를 분석한다. 또한, 교사의 사기와 열의를 평가하여 교직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며, 연수 참여도와 수업 개선 활동을 조사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다. 학교 운영 일반 영역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주당 업무시간 분포를 파악하고, 교사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과 참여도를 분석한다. 또한, 교장의 리더십과 학교풍토를 평가하여 조직 문화와 개선 노력 수준을 측정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영역에서는 교사의 수업 운영 방식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며,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교사 피드백 빈도와 질을 진단한다. 교수자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을 비교하여 교사의 교수법이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와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영역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대한 조사이다.
- 학교장 대상 설문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학교경영 일반과 교육 현안의 두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학교경영 일반 영역에서는 학교장의 조직 운영 방식과 학교 운영 정책을 분석한다. 학교 교육 목표 문항을 통해 학교장이 설정한 교육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고, 의사결정권한 문항을 통해 학교장이 교직원 및 교육 공동체와 협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장 리더십 문항을 통해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휘하는 지도력을 평가하며, 학교풍토 문항을 통해 조직문화와 개선 노력 수준을 진단한다. 지역사회 관계 문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정도를 분석하여, 학교장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공동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파악한다. 업무 비중 문항은 학교장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의 분포와 주요 역할을 분석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교육 현안 영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 실행의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 경북교육종단연구는 경북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조사 대상을 통해 교육 환경과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106개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4학년 학생 3,895명 중 최종 분석 대상자는 학생 2,449명이며, 모든 조사는 2024년 8월말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진행되었다.

- 중단연구를 위해 SPSS 26.0, Stata 16.0, Mplus 8.3을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학생 설문은 학습활동, 여가시간, 봉사활동, 디지털 기기 사용, 건강 및 심리정서, 학교 수업, 사회생활, 부모자녀 관계, 사교육, 진로 등을 포함하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α)를 통해 응답 경향을 파악하고, 성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취도 진단 결과 분석에는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 CTT)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이 적용되었으며, 데이터 분석 도구로는 jMetrik 4.1.1이 활용되었다. 학부모 설문은 사교육 및 교육비, 자녀 지원, 부모자녀 관계, 진로 및 학교생활, 심리특성, 교육 현안을 다루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지원 방식과 사교육 참여 패턴을 분석하였다. 교사 설문은 교수자 특성, 학교 운영,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교육 현안을 포함하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설문은 학교 경영과 교육 현안에 초점을 맞춰 학교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수행하여 학교장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 본 심화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단계 통계 절차를 적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 Stata 16.0, SmartPLS 4.0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수행되었으며, 각 단계별 분석 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표본의 전반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주요 변수(독립·매개·종속변수)의 분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지표를 활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의 기초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의 이론적 관련성과 관계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 간의 구조적 인과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s; PLS)에 기반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PLS-SEM은 표본 규모가 다소 제한적이거나 자료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계수 추정이 가능하며,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신건권, 2018).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 자료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접근법으로 판단되어 채택되었다. 측정모형 검증 단계에서는 각 잠재변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평가하였으며, 구조모형 검증 단계에서는 내부분산팽창지수(VIF)를 활용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효과크기(f^2)와 경로계수(path coefficient)의 유의성을 산출하여 각 변수 간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 단계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및 그릿과 행복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가지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신건권, 2018; 이동욱, 2024).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 학생 조사결과

- **학생생활 영역:** 이 영역에서는 초등학생의 자발적 학습활동, 여가시간,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비행활동 경험, 독서활동을 분석하였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및 학원(과외) 수업과 과제 외에 하루 평균 1시간을 스스로 공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5.2%), 시간이 증가할수록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19.3%), 여가시간이 많아질수록 응답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보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전체의 63.0%를 차지하였으며,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특히,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3.74점)를 보였고, ‘봉사활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편이다’는 가장 낮은 점수(3.25점)를 기록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참여한 학생이 47.4%로 절반에 가까웠다. 비행활동 경험은 전체 평균 1.10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수준에 가까웠으며, 모든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남을 심하게 때린다’(1.16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독서활동에서는 한 달 동안 10권 이상의 책을 읽는 학생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고, ‘전혀 읽지 않는다’(8.9%)와 ‘5권 읽는다’(10.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은 일정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가 및 독서활동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원봉사는 도덕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도덕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v et al., 2024), 특히 문화 자원봉사는 지역 문화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키우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vnaya & Drozdova, 2022). 그러나 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율이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비행 행동의 전체 수준은 낮지만, 언어적 비행이나 온라인상 부적절한 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서활동의 경우 다수의 학생이 꾸준히 책을 읽고 있으나, 독서에 소극적인 학생도 일정 비율 존재하는 만큼,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독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컴퓨터/스마트기기 영역:** 초등학생들의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분석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디지털 기기 의존도, 사용시간, 게임활동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평균 3.42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글,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을 이용할 수 있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3.64점)를 보였고,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3.05점)를 나타냈다. 디지털 기기 의존도는 평균 2.32점으로 분석되었으며,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3.06점)를 보였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손에 쥐고 잠을 잔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1.76점)를 보였다.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하루 평균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1.1%), 학습 이외의 활동에서도 ‘30분 미만’ 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4.0%). 문자, 채팅, 메신저 등의 사용시간은 대부분 ‘30분 미만’이었으며(51.7%), 게임 및 오락의 경우 ‘1~2시간 미만’(25.3%)과 ‘[30분~1시간 미만’(22.5%)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게임활동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99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2.48점)를 보였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한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1.69점)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효과적인 소통과 협업 능력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Eshet-Alkalai, 2004; Sodik et al., 2024; 박하나 외, 2021; Pandor et al., 2024; 임희수 외, 2022). 또한, 디지털 기기 의존도는 낮은 편이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사용 습관(예: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 일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게임활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과몰입 수준이 높지 않지만, 일부 학생들은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게임 중독은 청소년의 불안, 우울증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Sharma et al., 2015), 과몰입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권진 외, 2016),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개입이 요구된다.

-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 영역:** 초등학생들의 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성장신념, 끈기, 다문화 수용성, 우울, 행복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초등학생들의 건강 평균은 4.00점으로 ‘그렇다’ 수준에 가까웠다. ‘나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4.08점)를 보였고, ‘나는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3.91점)를 기록하였다. 자아존중감 평균은 3.68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4.06점)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평균은 3.55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3.75점)를 보였고,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3.36점)로 조사 분석되었다. 성장신념 평균은 2.18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가 역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장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2.35점)를 보였고,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2.00점)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장신념은 적정 수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끈기 평균은 3.87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4.12점)를 보였고,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3.58점)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수용성 평균은 3.93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4.14점)를 보였고,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3.64점)를 나타냈다. 우울 평균은 2.58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는 자주 피곤하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3.00점)를 보였고,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1.95점)를 기록하였다. 행복도 평균은 4.18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역)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4.40점)를 보였고,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4.02점)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장신념과 끈기 또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학습 및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 높은 편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다문화 교육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우울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생의 우울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김혜옥 외, 2015),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김명식, 2009; 이혜순 외, 2012), 나아가 비행 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경님, 2003). 행복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활력과 에너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회정서역량 기반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긍정 심리 교육이 요구된다.

- **학교 수업(학습일반) 영역:**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 학업 스트레스, 교사의 사기 및 열의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 평균은 3.92점으로 ‘그렇다’ 수준에 가까웠다.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4.08점)를 보였고,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3.67점)를 나타냈다. 자기주도학습 평균은 3.71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3.92점)를 보였고,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해야 할지 알고 있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3.57점)를 보였다. 학업 스트레스 평균은 2.92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3.43점)를 보였고, ‘나는 시험 때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2.42점)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사기 및 열의 평균은 3.6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4.04점)를 보였고, ‘우리 학교 선생님은 사기(의욕)가 높다’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3.23점)를 나타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대체로 학습동기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며, 특히 학습의 실용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 학습에 대한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낮아,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법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학업 스트레스는 보통 수준이지만,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비율이 높아 적절한 시험 불안 완화 전략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켜 우울 등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신체적 불편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와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비행 행동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현 외, 2014; 권선경 외, 2015; 강명희 외, 2013; Harahap, 2024; 김재엽 외, 2013). 교사의 사기 및 열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나, 의욕적인 태도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 수업(교과별 교수학습) 영역:** 이 영역은 수업이해도, 수업집중도, 수강태도(국어·영어·수학), 수업방식(국어·영어·수학),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국어·영어·수학), 그리고 학교 내 평가활동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수업이해도의 경우 국어는 [81% 이상 이해]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 49.5%, 영어 45.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 이하 이해] 응답은 국어 2.3%, 영어 5.0%, 수학 3.7%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업집중도에서는 국어(55.9%), 영어(55.2%), 수학(58.8%)에서 '31~40분 이하 집중'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0분 이하 집중' 응답은 국어 3.3%, 영어 4.3%, 수학 3.6%로 확인되었다. 수강태도의 평균 점수는 국어 3.72점, 영어 3.72점, 수학 3.81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을 상회하였다. 국어에서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4.06점)가 가장 높았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와 '배운 것을 복습한다'(각각 3.22점)가 가장 낮았다. 영어에서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4.04점)가 가장 높았으며,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3.25점)가 가장 낮았다. 수학에서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4.10점)가 가장 높았고,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3.36점)가 가장 낮았다. 수업방식의 평균 점수는 국어 4.37점, 영어 4.30점, 수학 4.37점으로 모두 '그렇다' 수준 이상이었다. 국어에서는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4.42점)가 가장 높았고, '학생들이 수업 중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4.29점)가 가장 낮았다. 영어에서는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4.36점)가 가장 높았으며, '학생들이 수업 중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4.19점)가 가장 낮았다. 수학에서는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4.41점)가 가장 높았고, '학생들이 수업 중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4.30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생님과 학생 간 활동의 평균 점수는 국어 3.63점, 영어 3.52점, 수학 3.57점으로 확인되었다. 국어에서는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3.80점)가 가장 높았고,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3.36점)가 가장 낮았다. 영어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3.69점)가 가장 높았으며,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3.29점)가 가장 낮았다. 수학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3.71점)가 가장 높았고,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3.32점)가 가장 낮았다. 학교 내 평가활동의 평균 점수는 4.06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이었으며,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4.08점)가 가장 높았고, '선생님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공부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신다'(4.04점)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과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약 30분 이상 집중할 수 있는 학습 지속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높으며, 국어·영어·수학 모두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지도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예습과 복습 등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학습은 학업 성취와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실습과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이찬주 외, 2013; Çelik et al., 2024). 협력적 문제 해결은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능력을 높이고 학습 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최서경 외, 2012; Suhendi et al., 2024). 그러나 협력활동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 만큼,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 방식이 요구된다. 평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개별 피드백을 강화하여 학습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학교 및 사회생활 영역:** 해당 영역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만족도는 평균 4.28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매우 만족한다(50.4%)와 만족한다(32.9%)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교에 관한 인식은 평균 4.15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3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잘 하고 있다’(3.95점)는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교사관계 인식의 평균은 3.96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4.24점)가 가장 높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자주 칭찬하신다’(3.75점)는 가장 낮았다. 친구관계 인식의 평균은 3.75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이었으며,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4.07점)가 가장 높은 반면,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다’(3.37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9.9%로 참여 학생이 비참여 학생보다 많았으며,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평균 4.31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과목별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 과정보다 과학(실험, 로봇, 코딩, 컴퓨터 등)과 예체능, 특기적성(댄스, 마술, 요리, 바둑 등)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는 학업 중심의 교육보다는 창의적·체험형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은 학교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환경과 교사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진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흥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정철영, 2011; 송인발 외, 2016; 정익중 외, 2011; Vail, 2023). 또한, 초등 시기부터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는 것은 학업과 진로의 연계를 이해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Elliott et al., 2025; 정윤경 외, 2017; 박장희, 2015).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진로 탐색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 **부모자녀관계 영역:** 초등학생들의 부모애착관계 평균은 4.21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을 보였다. 세부 문항 중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가 4.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하신다’는 3.9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부모의사소통 평균은 4.02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하는 편이다’는 3.64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자녀관계 평균은 4.38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는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가 4.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헌신적이다’가 4.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하루 평균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1~2시간 미만’(29.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1시간 미만’(28.8%), ‘2~3시간 미만’(17.6%) 순이었다. ‘4시간 이상’ 대화하는 학생은 1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애착관계, 부모의사소통, 부모자녀관계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특히 부모에 대한 자부심과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존중

해 준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부모의 공감과 이해를 기대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부모의 사소통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정도는 높지만,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고, 4시간 이상 대화하는 학생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해 질적·양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아존중감 형성과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며,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 학교생활과 사회적 적응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최지은 외, 2003; 이동욱, 2024; 한성희 외, 1996; 정은선 외, 2009). 따라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며,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공감적 대화를 촉진하는 부모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 **사교육 영역:**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활동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사교육 참여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학(66.0%)과 영어(65.5%)는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예체능(61.4%)과 국어(52.9%) 역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43.1%)와 과학(45.2%)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고, 독서·글쓰기·논술(36.2%)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시간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과목에서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어(53.6%), 수학(44.0%), 영어(42.2%), 사회(58.0%), 과학(56.3%), 독서·글쓰기·논술(52.5%) 등 주요 교과목에서 1시간 미만 학습이 가장 많았으며, 1~2시간 미만 응답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의 경우, 1시간 미만(32.1%)과 1~2시간 미만(35.3%)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2~3시간 미만(14.3%) 응답이 다른 과목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시간(7시간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3% 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과목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수학과 영어 중심의 높은 참여율은 학부모의 관심과 교육 투자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회, 과학, 독서·논술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아, 학부모와 학생이 해당 과목의 추가 학습 필요성을 다른 과목보다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1~2시간 이내의 단기형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시간 사교육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즉, 초등학교 단계의 사교육은 학습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체능 분야는 창의적 활동과 신체 활동 중심의 비교적 긴 시간 학습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한 사교육 활용 방식이 필요하며, 향후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과목별 균형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학교선택/진로 영역:** 초등학생들의 학교 선택과 진로 관련 영역을 조사한 결과, 희망 최종 교육 수준에 대해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39.2%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원 졸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12.1%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7.1%로 가장 낮았다.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의 평균은 2.48점으로 '보통이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 중에서는 '부모님(친인척 포함)과의 대화'(3.47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2.17

점)은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진로성숙도 평균은 3.75점으로 ‘보통이다’ 수준 이상이었으며,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4.06점)와 ‘내가 관심 있는 것(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4.04점)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3.39점)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주로 부모님과 대화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많은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이며, 최종 교육 수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로 및 진학 관련 경험의 평균이 낮은 점은 실질적인 진로 탐색 활동의 기회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 상담에서 부모님과 대화의 중심이 되는 반면, 학교의 진로지도 기능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진로 인식과 준비가 주로 개인적 경험이나 가정 내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진로 교육 강화와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체험관 방문, 진로 적성검사(예: 홀랜드 검사), 창업 체험 활동, 진로 전문가 초청 특강, 교과 연계 진로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 **학업성취도 영역:**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기기입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73점으로 ‘보통이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가 평균 3.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은 3.74점, 영어는 3.6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국어 과목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9%, [높은 편이다] 39.9%, [보통이다] 34.3%로 나타났다. 수학 과목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28.0%, [높은 편이다] 31.4%, [보통이다] 29.8%였으며, 영어 과목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27.9%, [높은 편이다] 29.1%, [보통이다] 30.6%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학업성취도에서 국어 과목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영어 과목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균이 ‘보통이다’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과목별 점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별 학습 태도와 자신감 수준이 다소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목별 맞춤형 학습 지도와 보충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 **성취도 진단 영역:**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문학, 문법, 읽기, 쓰기 영역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정 학습 요소가 확인된다. 우선, 문학 영역에서는 국어1(52.7%)과 국어17(50.2%)의 정답률이 낮아, 작품 감상 능력과 감정 표현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국어1은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문학적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감각적 표현을 직접 찾아보고 감상을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감상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국어17은 작품을 감상하며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정답률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감상보다는 단순한 내용 이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문학 감상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감정을 표

현하는 활동을 추가하여 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3(55.6%)과 국어6(54.0%)의 정답률이 낮아, 기본적인 국어 사용 능력과 문법 개념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국어3은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국어사전 활용법과 낱말의 의미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어사전 사용법을 실습하고 다양한 유형의 낱말 분류 활동을 제공하여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6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정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글을 분석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습을 반복하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활동을 추가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읽기 영역에서는 국어4(68.4%)와 국어13(60.9%)의 정답률이 낮아, 중심 내용 요약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이 필요하다. 국어4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글에서 주요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요약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어13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문항으로, 국어6과 유사하게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글을 분석하는 연습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글을 제공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반복하여 사고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쓰기 영역에서는 국어16(30.7%)의 정답률이 가장 낮아,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국어16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짧은 글을 써보며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어7(59.2%) 역시 정답률이 낮아,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글쓰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문학 감상 능력, 문법 개념 이해, 비판적 읽기, 논리적 글쓰기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학 감상 활동을 강화하고, 문법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읽기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글쓰기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을 강화해야 할 영역을 살펴보면, 수와 연산, 도형,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눗셈, 그래프 해석,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개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수학2(48.8%), 수학8(25.9%), 수학9(52.1%), 수학14(47.5%)의 정답률이 낮아, 나눗셈 개념과 계산 과정의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수학2는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나눗셈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눗셈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구체물을 활용한

학습이 필요하다. 수학8과 수학9는 실생활에서 나눗셈이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수학8의 정답률이 특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추가하고,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학14의 경우, 두 자리 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다루는 문항으로, 높은 자리수의 계산 과정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나눗셈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연습과 더불어, 어렵 계산을 활용하는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형 영역에서는 수학10(65.6%), 수학19(65.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도형의 이동과 변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학10은 평면도형의 이동을 활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드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도형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도형을 움직여 보거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도형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학19는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해 도형의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도형의 성질과 이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수학20(46.1%)의 정답률이 낮아,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수학20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해석하는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막대그래프, 그림그래프 등 다양한 그래프 유형을 비교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로 표현해보는 프로젝트형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료 분석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나눗셈의 개념과 활용, 도형의 이동과 변형, 그래프 해석과 자료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눗셈과 곱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을 강화하고, 도형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며, 실생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보완해야 한다.

❖ 학부모 조사결과

- **인구학적 배경 영역:** 학부모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어머니(84.4%)이며, 여성 응답자(78.0%)가 압도적으로 많아 학부모 설문 조사가 주로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전업주부(28.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직(15.8%)과 전문직(15.7%)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직(10.9%), 기타 직업(12.2%)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기능직(2.0%), 단순 노무직(2.0%), 군인(0.3%)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 **사교육 및 교육비 영역:** 학부모들은 영어(65.3%)와 수학(61.3%)을 중심으로 사교육을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예체능(59.4%)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24.7%)와 과학(25.4%), 독서·논술(13.8%)과 같은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교육 참여 유형별로는 학원이 모든 과목에서 가장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영어(67.0%), 수학(54.9%), 예체능(90.9%) 과목에서 학원 중심의 교육이 두드러졌다. 학습지는 국어(43.6%)와 수학(28.5%)에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과외와 인터넷 강의는 일부 과목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비 지출 측면에서는 월 5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학부모가 54.1%로 가장 많았으며, 50~100만 원 미만 구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89.1%가 여기에 해당하여, 대다수 가정이 100만 원 미만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계 부담 정도를 보면, "적당하다"(37.5%)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부담된다"(33.6%)+ "매우 부담된다"(5.6%)고 응답한 학부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교육비가 가계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분석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소득의 20% 미만을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3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정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어·수학·영어 중심의 학습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원이 사교육의 핵심 경로로 작용하는 가운데, 인터넷 강의나 과외 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대다수 가정이 월 100만 원 미만의 교육비를 지출하지만,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비율도 상당하여, 교육비 지원 정책과 공교육 내 학습 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한 가계 부담 완화 방안이 요구된다.
- **보호자의 지원 영역:**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지원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체 평균 3.44점으로 '보통이다'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학교 공부와 숙제 확인(3.71점) 및 학원, 과외, 문제지 등을 충분히 지원(3.59점)하는 데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3.18점)이나 사교육 정보 수집(3.30점)에는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별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활동은 외식하기로, 응답자의 62.9%(1,643명)가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응답했으며, 24.9%(650명)는 "1주일에 몇 번 한다"고 답해, 외식이 가족 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운동하기 활동도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50.7%(1,324명), "1주일에 몇 번 한다"는 18.1%(474명)로 나타나, 가족 간 신체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연 관람(영화, 연극, 음악, 뮤지컬 등)의 경우, "6개월에 몇 번 한다"는 응

답이 40.0%(1,046명)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24.6%(643명)로 나타나 비교적 정기적인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시 관람(박물관, 미술관 등)은 "1년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37.4%(976명)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 몇 번 한다"는 33.6%(877명),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12.1%(316명)로 조사되어 공연 관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방문 역시 "한 달에 몇 번 한다"가 25.0%(654명)로 가장 많았지만, "1년에 몇 번 한다" 23.6%(617명), "6개월에 몇 번 한다" 23.7%(620명)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정기적인 방문보다는 간헐적인 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행 및 여가 활동(등산, 낚시 등)은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응답이 36.9%(964명)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 몇 번 한다"는 31.6%(826명)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야외 활동이 월 단위 혹은 반기 단위로 계획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부모자녀관계 영역:** 학부모들은 자녀의 방과 후 활동과 외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양육행동 평균 점수가 4.23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을 나타냈다. 특히, 자녀가 방과 후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다(4.60점), 자녀가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4.53점), 자녀가 외출할 경우 귀가 시간을 알고 있다(4.46점) 등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이유를 설명해 준다(3.83점),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3.97점) 등의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자녀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적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방과 후 활동과 귀가 시간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은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 전반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훈육 과정에서 감정적 소통보다는 통제 중심의 접근이 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훈육 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감정적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보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부모들이 단순한 통제나 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류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 영역:** 학부모들은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에 대해 4년제 대학 졸업(66.1%)을 가장 선호하며, 2·3년제 대학 졸업(17.8%)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12.5%)에 대한 기대도 일부 확인되었다. 수도권 대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잘 모르겠다'(33.5%)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해 자녀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학부모들도 많았다.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취득하는 주요 경로로는 담임교사(83.7%), 학교 알리미 앱(83.5%), 학교 홈페이지(65.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인 학교 채널이 가장 신뢰받는 정보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47.3%)나 친인척(35.1%)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학교생활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담임교사(3.91점)와 학급 SNS(3.83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학부모들이 학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3.40점)와 친인척(3.42점)을 통한 정보 제공은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이는 비공식적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정보 제공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 간 소통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진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학부모 참여 및 학교만족 영역:**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참여 경험에서 ‘공개수업 참관’(65.1%) 과 ‘자녀 관련 상담’(58.6%)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학부모 단체 가입 및 참여’(14.6%)와 ‘학부모 교육(연수)’(14.2%)는 참여율이 낮아 조직적 활동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학교 자원봉사 참여율(22.7%)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및 개별 상담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학교 운영 및 공동체 활동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되었다. 학교교육 만족도는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열의’(3.88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학교가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준다’(3.48점)는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학생 개별 특성과 진로 지도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안전 만족도는 평균 3.52점으로, 학부모들은 학교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3.82점)했으나, ‘학생 간 폭력 발생 걱정이 없다’(3.23점)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교 시 교통사고 걱정(3.43점)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3.47점)에 대한 답변도 비교적 낮아, 교통 및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답변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학교와의 개별적인 소통(공개수업 참관, 상담 등)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공동체 활동(학부모 단체, 자원봉사, 연수 등)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자녀 개인의 학업 및 생활 관리에 보다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부모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가 학생 개별 특성과 적성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부 존재하며, 이는 맞춤형 교육 및 진로 지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 열의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개별화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학교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며, 등·하교 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과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안전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학교가 시행하는 안전 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 **보호자 및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 영역:** 학부모들은 자신과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보호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93점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4.02점). 특히, ‘나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4.05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3.79점)는 상

대적으로 낮았다. 보호자가 평가하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4.30점으로, 학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특히, ‘자녀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4.40점)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회복탄력성 평균은 3.92점으로, ‘자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낸 후 빨리 회복된다’(4.04점)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별다른 문제 없이 견뎌낸다’(3.80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끈기 평균은 3.95점으로, ‘자녀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4.10점)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다가 좌절하지 않는다’(3.76점)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보호자들이 자신과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임을 뜻한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보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정서적 지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회복탄력성과 끈기의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자녀가 문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교재 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자들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특정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보호자 역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자녀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연계한 사회정서 기반의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교육 현안:** 학부모들은 경북교육청의 주요 교육 지원에 대해 대체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평균 3.37점). 방과후학교 교육(3.58점)이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3.39점)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3.40점)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성 교육(3.35점), 특기적성 교육(3.34점), 진로 지도 및 교육(3.33점), 학생 복지시설 및 제도(3.31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생 복지 및 진로 교육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학습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인정하는 한편, 창의성 교육과 진로 지도, 학생 복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외적인 학습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반면, 학생 복지시설과 제도, 진로 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적 환경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창의성과 개별 맞춤형 진로 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교사 조사결과

- **인구학적 배경 영역:** 교사의 성별과 교직 경력을 중심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교사가 61.8%(102명)로 남성 교사 38.2%(63명)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직 경력별로는 10~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33.9%(56명)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 24.8%(41명), 5~10년 미만 19.4%(32명), 20~30년 미만 14.5%(24명), 30년 이상 7.3%(12명)로 나타났다.
- **교수자 특성 영역:** 교사 조사결과에서는 교사효능감, 사기/열의,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교사효능감 평균은 4.20점으로,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역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 내용에 따른 수업 방식 조정(4.42점)과 학생들의 관심도 파악(4.41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문제행동 학생의 행동 원인 분석(3.9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의 사기와 열의 평균은 3.85점으로, 열의를 갖고 근무한다(3.99점)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3.75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직만족도는 평균 3.41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교직 생활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3.76점)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다시 직업을 선택해도 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2.92점)은 가장 낮아, 직업 만족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소진 평균은 2.7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3.59점)는 가장 높았고, 학생들에게 무관심하다는 응답(2.06점)은 가장 낮았다. 이는 교사들이 직무 피로를 느끼지만, 여전히 학생 지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업개선 활동에서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 2회 이상 공개하는 교사가 74.5%에 달했다. 연수시간 분석에서는 교육과정 및 수업전문성 관련 연수 참여율이 높았으며, 대부분 '30시간 이하'의 단기 연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평가전문성 연수(32.1% 미참여) 및 교육정보화기자재 활용 연수(31.5% 미참여)는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교육 역량과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심층적인 지도 역량 강화와 평가전문성 및 교육정보화 연수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정서적 지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학교운영 일반 영역:**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민주성), 교장의 리더십, 학교풍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교 조직의 특성과 운영 방향을 분석하였다. 교사들의 학교 내 주당 업무시간 분석 결과, 정규 수업 및 수업 준비가 평균 38.53%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였으며, 행정업무(26.49%),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20.27%)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동료 교사와의 교류 및 연수활동(8.18%)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차지하였다. 의사결정권한(민주성) 평균은 3.63점으로,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업 운영 방식 결정(4.26점)과 교수학습 자료 및 장비 결정(4.01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교장의 리더십

평균은 4.21점으로, 교사들은 교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고(4.30점), 교사 간 협력을 강조하며(4.30점), 전문성 향상을 격려하는(4.29점)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평가하였다. 학교풍토 평균은 3.86점으로, 교사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4.07점)와 실수를 학습 기회로 삼는 문화(3.99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제도나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3.52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관계 평균은 3.86점으로,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4.01점)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학부모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의회나 모임 개최(3.66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장의 리더십과 학교의 협력적 분위기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업무 비중이 높아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동료 교사와의 교류 및 연수활동 시간이 적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운영에서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제한적이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이 다소 미흡한 점은 학교의 개방성과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교사 협업 시간을 확대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영역:**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과제 피드백, 교수자 중심 및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을 분석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학습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에 대한 교사 응답 결과, 51~70% 수준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71~90% 수준이라는 응답이 32.7%로 뒤를 이었다. 10% 이하로 이해하는 학생이 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91% 이상이라는 응답은 3.6%로 가장 적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 평균은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과제 완료 여부를 검사한다(3.50점)는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과제를 견어서 수정한 후 돌려준다(2.98점)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개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교수자 중심 수업 활동 평균은 3.98점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4.41점)과 학생 대담에 대한 추가 질문(4.33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 평균은 3.93점으로,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4.21점)는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학생들이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4.14점)하거나,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도록 돕는 활동(4.02점)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3.68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협력적 토론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제 피드백 방식에서는 개별 맞춤형 피드백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적 토론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심화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토론식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개별 피드백 제공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사의 교수법 개선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 현안 영역:** 교육 현안 영역: 교사들은 교육청의 주요 교육 지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전체 평균은 3.5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의 정책이 일정 수준 이상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과후학교 교육 지원(3.72점)’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3.70점)’,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3.68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교육청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사 복지시설 및 제도(3.02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교사들이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 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 복지시설 및 제도(3.52점)’, ‘진로 지도 및 교육(3.52점)’, ‘창의성 교육(3.52점)’ 등은 비교적 보통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및 창의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경북교육 학생 전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단도구, 조기 선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 학교장 조사결과

- **인구학적 배경 영역:** 학교장의 인구학적 배경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92명 중 남성 학교장이 58명(63.0%), 여성 학교장 34명(37.0%)으로 구성되었다.
- **학교경영 일반 영역:** 이 영역에서는 학교장의 교육목표, 의사결정권한(민주성), 리더십, 학교풍토, 지역사회 관계, 그리고 업무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목표는 ‘인성교육’(67.4%)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발’(15.2%)이 주요한 교육 목표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장이 단순한 학업 성취보다는 학생들의 인성과 자율적인 학습 태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장의 의사결정권한(민주성) 평균은 4.63점으로,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 결정(4.86점), 수업 운영 방식 결정(4.76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4.73점) 등에서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서 학교장의 의사결정권한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장의 리더십 평균은 4.76점으로, 교사 간 협력 문화 증진(4.88점),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4.84점), 교사와의 의사결정 협의(4.83점) 등의 항목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새로운 교수방법 적용 권장(4.64점)과 교사 개인 문제에 대한 관심(4.63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풍토 평균은 4.61점으로, 교사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4.75점),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4.74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기존 제도나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4.40점)는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 내 혁신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행력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지역사회 관계 평균은 4.17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4.58점)는 응답이 높았으나, 학생 지원을 위한 협의회나 모임 개최(3.87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학교장의 업무 비중 분석에서는 공문서 결재 및 처리(21.11%)와 교육환경 관리(19.7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생 생활 지도(13.36%)와 교내 장학 활동(12.51%)도 중요한 업무로 나타났다. 반면, 교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주관(7.40%)과 외부 회의 참석(7.55%)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장이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보다는 내부 운영과 환경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 현안 영역:** 학교장이 교육청의 주요 교육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교육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평균 4.29점). 특히,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4.64점), 방과후학교 교육(4.59점),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노력(4.49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학교장이 해당 정책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성교육(4.40점), 특기적성 교육(4.39점), 창의성 교육(4.27점)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심화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그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수행한 「2024 경북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449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는 부분최소자승 구조방정식모형(PLS-SE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고,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자아존중감, 그릿, 학업스트레스, 행복도 간의 인과적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 첫째,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beta=-0.193$, $p<.001$), 행복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57$, $p<.001$).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학업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며, 평가나 실패를 위협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Misra와 Castillo(2004)의 결과 및 행복의 핵심 예측요인임을 확인한 Orth와 Robins(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 Pinki와 Kaushik(2020), 허미경·도미향(2025), 유경훈·손유선(2022)의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을 높이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 둘째, 그릿(grit)은 학업스트레스에 부적($\beta=-0.127$, $p<.001$), 행복도에는 정적($\beta=0.209$, $p<.001$) 영향을 미쳤다. 목표를 향한 끈기와 열정이 강한 학생일수록 학업 과정에서의 불안이나 긴장에 덜 흔들리고, 학습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긍정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는

Duckworth et al.(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그릿의 장기적 목표 유지 효과와, Datu et al.(2019), Wolters와 Hussain(2015)의 연구에서 보고된 정서적 회복력 강화 효과와 일관된다. 국내에서도 김진철·김성천(2023), 유계환·서상숙(2024), 강문희(2022)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셋째, 학업스트레스는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054$, $p=.006$). 즉, 학업 과제와 평가 압박이 심할수록 정서적 안정감과 주관적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Wilks(2008), Torsheim과 Wold(2001), 박성희·이경민(2020)의 연구와 일관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한 학습 부담이 아니라 정서적 안녕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아존중감과 그릿 모두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높였으며($\beta=0.010$, $p=.009$), 그릿 역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어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007$, $p=.014$).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두 정의적 특성과 행복 간의 연결고리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Zogmaister와 Maricutoiu(2022)는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인식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고하였으며, 연은모·최효식(2022) 또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학업성취압력의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연속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맥락을 공유하며, 학업스트레스가 행복 형성의 심리적 전달 경로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 다섯째,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beta=0.116$, $p=.005$), 행복도에는 직접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beta=0.001$, $p=.987$). 또한 성별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도에 부정적 간접효과를 보였다($\beta=-0.006$, $p=.049$). 이는 여학생이 학업 평가나 경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서적 압박을 경험함을 의미하며, 여학생이 학업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김미경 외(2012)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여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스트레스 인식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기수용(self-acceptance) 증진, 평가 불안 완화, 긍정적 자기대화 훈련 등의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은 여학생이 학업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재구성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교사는 여학생의 완벽주의적 경향이나 자기비판을 성취의지로만 해석하지 않고 정서 지원 신호로 인식하여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 교육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기반의 정서·학습 통합 환경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아존중감은 단순한 개인 성향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인식과 자기조절을 통해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사회정서적 역량의 핵심이다. 따라서 학업 부담으로 인한 부정 정서를 완화하고 학습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SEL 기반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교실 현장에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정서학습은 자아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다섯 핵심 영역을 통해 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조절과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도록 돕는다(CASEL, 2015; Durlak et al., 2011).

-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교사 주도의 감정 성찰 활동, 협동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 감정 일기 쓰기, 또래 간 공감 대화 훈련 등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의 정서 조절력과 자기통제력을 높이고,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 학습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특히 교사는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노력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성취의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나아가 학교 차원에서는 정서적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담임교사·상담교사·학부모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정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습 부담의 조절과 정서 지원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업 성취만을 강조하는 환경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그것의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교실 단위에서 정서 친화적 환경(emotion-friendly classroom)을 조성하고, 학생이 도전적 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행복 기반 교육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그것이 초등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자원임을 확인하였고, 학업스트레스가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 안녕의 문제를 넘어,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자기개념 확립과 회복탄력성 교육이 장기적인 학업 몰입과 행복 증진을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록]

경북교육종단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남을 심하게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담배를 피운다	①	②	③	④	⑤
8.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각 문항별로 경험 유무에 체크표(✓)하여 주십시오.

구분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1. 시험 볼 때 컨닝을 한다	①	②
2. 친구를 집단 따돌림시킨다	①	②
3. 무단으로 결석을 한다	①	②
4. 가출 경험이 있다.	①	②

◎ 보통 한 달 동안 책을 몇 권 읽습니까? (교과서, 참고서 제외)

- ① 읽지 않음 ① 1권 ② 2권 ③ 3권
 ④ 4권 ⑤ 5권 ⑥ 6권 ⑦ 7권
 ⑧ 8권 ⑧ 9권 ⑩ 10권 이상

다음은 '컴퓨터/스마트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학습자료(동영상 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인터넷/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글,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심스러울 경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의도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인터넷에서 제시된 정보가 궁금하면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접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더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소셜네트워크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필요한 일상정보를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찾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에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와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손에 쥐고 잠을 잔다	①	②	③	④	⑤
7.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하루 평균 몇 시간 사용합니까?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2 시간 미만	2~3 시간 미만	3시간 이상
1. 공부 및 과제(숙제)(학습 관련 자료 검색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2.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 이용 (음악, 동영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문자, 채팅, 메신저, 이메일, 통화	①	②	③	④	⑤	⑥
4. 게임 및 오락	①	②	③	④	⑤	⑥
5.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 다음은 게임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그런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과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 생각을 하며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건강 및 의식/심리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스스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7.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성장신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그릿(끈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가급적 끝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다문화수용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우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주 슬퍼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주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잘못된 일들은 내 탓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행복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나는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잘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학교수업(학습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학습동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알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공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언제 보충 해야 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업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시험을 앞에 두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시험 직전에 더 떨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시험 때면 아는 것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시험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험이라면 그냥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교사의 사기/열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 선생님은 사기(의욕)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근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학교수업(교과별 교수학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질문들은 학생이 현재 학교에서 받고 있는 수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내용을 잘 읽고 대답해 주세요.

◎ 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받고 있는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목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 이상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아래 각 과목의 수업시간에 평균 몇 분 정도 집중하고 있습니까?

과목	10분 이하	11~20분 이하	21~30분 이하	31~40분 이하
1. 국어	①	②	③	④
2. 영어	①	②	③	④
3. 수학	①	②	③	④

◎ 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어떤 태도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각 과목(국어, 영어, 수학)별로 대답해 주세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미리 예습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각 과목(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나요? 현재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대답해 주세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알기 쉽게 잘 가르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각 과목 수업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합니까? 현재 해당 과목 수업을 떠올리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우리 학교에서의 평가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나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학교 및 사회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교생활 중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올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아래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아래 문항은 체크하지 않고 통과함)

◎ 최근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은 각 과목별 참여시간(각 과목별로 “일주일”에 평균 참여시간)을 해당하는 곳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참여시간								
	참여 안함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1. 국어(독서, 논술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수학(주산암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영어(영어 회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과학(실험, 로봇, 코딩, 컴퓨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기타교과(미술, 공예, 악기, 축구, 농구, 줄넘기, 스포츠, 외국어, 한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특기적성(댄스, 마술, 요리 십자수, 바둑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방과후학교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났을 때 이해하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모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항상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챙기시는 분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에게 헌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 하루 중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각 과목별로 사교육에 참여유무와 참여시간(각 과목별로 "일주일"에 평균 참여시간)을 해당하는 곳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 사교육이란 학원, 과외, 학습지, 비용을 지불한 인터넷 강의 등을 말합니다(EBS, 방과후학교, 무료 인터넷 강의 등 제외).)

구분	참여시간								
	참여 안함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1. 국어(독서, 논술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수학(주산암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영어(영어 회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과학(실험, 로봇, 코딩, 컴퓨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기타교과(미술, 공예, 악기, 축구, 농구, 줄넘기, 스포츠, 외국어, 한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특기적성(댄스, 미술, 요리 십자수, 바둑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사교육이 자신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학교선택/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이 희망하는 최종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④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다음은 진로 및 진학 관련 활동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	①	②	③	④	⑤
3. 사교육 종사자(학원강사, 과외교사, 입시진로 컨설팅 등)와 상담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친인척 포함)과의 대화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검사 실시	①	②	③	④	⑤
6. 상급 학교 방문 및 입시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7. 대중 매체(TV, 신문 등)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진로성숙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도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6.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관심 있는 것(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학기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교육종단연구를 위한 설문(학부모용)

- ◎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친척 ⑥ 기타()
- ◎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 ◎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친척 ⑥ 형제자매 ⑦ 기타()
- ◎ 귀댁의 자녀(피보호자) 수는 몇 명입니까? 남 ()명, 여 ()명
- ◎ 설문에 응답하시는 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기술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직 ⑩ 군인 ⑪ 전업주부 ⑫ 무직 ⑬ 기타
- ◎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3년제 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석사과정 수료 포함) ⑥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박사과정 수료 포함)
⑦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⑧ 안 계심
- ◎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3년제 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석사과정 수료 포함) ⑥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박사과정 수료 포함)
⑦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⑧ 안 계심

다음은 '사교육 및 교육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 대상 자녀 기준)현재 각 과목별로 사교육에 참여 여부 및 유형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종합반 수강의 경우 각 과목으로 나누어 답해주세요. (※ 사교육이란 학원, 과외, 학습지, 비용을 지불한 인터넷 강의 등을 말합니다(EBS, 방과후학교, 무료 인터넷 강의 등 제외).

구분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사교육 유형(중복응답)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만)	비용(단위: 만원) (1개월 기준)
국어	①	②	① 학원(단과/종합) ② 과외(개인/그룹) ③ 학습지 ④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1개월 ()만원
수학	①	②	① 학원(단과/종합) ② 과외(개인/그룹) ③ 학습지 ④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1개월 ()만원
영어	①	②	① 학원(단과/종합) ② 과외(개인/그룹) ③ 학습지 ④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1개월 ()만원
사회	①	②	① 학원(단과/종합) ② 과외(개인/그룹) ③ 학습지 ④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1개월 ()만원
과학	①	②	① 학원(단과/종합) ② 과외(개인/그룹) ③ 학습지 ④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1개월 ()만원
예체능(음악, 미술, 운동 등)	①	②	① 학원(단과/종합) ② 과외(개인/그룹) ③ 학습지 ④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1개월 ()만원
독서/글쓰기/논술	①	②	① 학원(단과/종합) ② 과외(개인/그룹) ③ 학습지 ④ 인터넷 강의(EBS 및 무료 강의 제외)	1개월 ()만원

㉔ 귀 댁에서는 사교육 및 공교육을 포함한 총 교육비 지출은 어느 정도 입니까?(월 기준)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㉕ 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되나요?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부담되지 않는다. ③ 적당하다.
 ④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㉖ 교육비 지출이 가계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나요?(월 기준)

- ① 월 소득 10% 미만 ② 월 소득 10% 이상 ~ 20% 미만 ③ 월 소득 20% 이상 ~ 30% 미만
 ④ 월 소득 30% 이상 ~ 40% 미만 ⑤ 월 소득 40% 이상 ~ 50% 미만 ⑥ 월 소득 50% 이상

다음은 '보호자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㉗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성적 관리에 신경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과외나 학원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공부를 위해 필요한 학원, 과외, 문제지 등을 충분히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㉘ 자녀와 함께 다음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몇 번 한다.	6개월에 몇 번 한다.	한 달에 몇 번 한다.	1주일에 몇 번 한다.
1. 외식하기	①	②	③	④	⑤
2. 함께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3. 공연시설(영화, 연극, 음악, 뮤지컬 등) 관람	①	②	③	④	⑤
4.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관람	①	②	③	④	⑤
5. 도서관 방문	①	②	③	④	⑤
6. 여행, 등산, 낚시 등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㉙ 다음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녀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녀가 방과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자녀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녀에게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자녀 진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2,3년제 대학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석사과정 수료 포함)
 - ④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박사과정 수료 포함)
 - ⑤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 ◎ 자녀가 어느 지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② 경북 ③ 대구 ④ 수도권 및 대구경북 제외 지역
 - ⑤ 해외 ⑥ 잘 모르겠다(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취득 유형 및 도움 정도에 따라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경험 여부		도움 정도				
	있다	없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임) 선생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홈페이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알리미 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학급 SNS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주변 학부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친인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사교육 종사자(학원 강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온라인 커뮤니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학부모 참여 및 학교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예	아니오
1. 학부모 단체에 가입 및 참여(학부모회 등)	①	②
2. 자녀 관련 상담(학업, 생활, 진로 등)	①	②
3. 학교 자원봉사	①	②
4. 학교 행사(체육대회, 축제 등)	①	②
5. 학부모 총회	①	②
6. 공개수업 참관	①	②
7. 학부모 교육(연수)	①	②

◎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자녀의 학습 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는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는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는 자녀에 대한 개별상담과 진로지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학교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등하교시 교통사고 걱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외부인의 출입이 잘 통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 간 폭력 발생 걱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보호자 및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호자의 심리상태를 묻는 문항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스스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녀의 심리상태를 묻는 문항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는 스스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낸 후에 빨리 회복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별다른 문제없이 잘 견뎌낸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북의 주요 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북교육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경북교육은 학력우수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북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북교육은 인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경북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경북교육은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경북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경북교육은 진로 지도 및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경북교육은 교사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경북교육은 학생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은 교사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서 해야 할 일로 답답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도 모르게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선생님은 2023학년도 한 해동안(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다음과 같은 수업개선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구분	참여하지 않음	연 1회	연 2회	연 3회	연 4회	연5회 이상
1. 자신의 수업 공개	①	②	③	④	⑤	⑥
2. 교육(지원)청 차원의 수업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⑥
3.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4. 단위학교 차원의 교과 협의회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 선생님은 2023학년도 한 해 동안(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다음과 같은 연수(온라인 연수 포함)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구분	참여하지 않음	30시간 이하	31-45 시간	46-60 시간	61시간 이상
1. 교육과정 관련 연수	①	②	③	④	⑤
2. 수업전문성 관련 연수	①	②	③	④	⑤
3. 평가전문성 관련 연수	①	②	③	④	⑤
4.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연수	①	②	③	④	⑤
5.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연수	①	②	③	④	⑤
6. 교육정보화기자재(ICT) 활용 관련 연수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다음은 '학교운영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선생님의 업무 비중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업무 시간을 100%라고 할 때 다음 활동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무시간비중(%)
1. 정규 수업 및 수업 관련	□□%
2. 방과 활동 후 수업 및 수업 관련 활동	□□%
3.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
4. 동료교사와의 교류 및 연수활동	□□%
5. 행정 업무를 포함한 학교업무	□□%

◎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교사의 의사결정 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반영 안함	대체로 반영 안함	보통	대체로 반영됨	매우 많이 반영됨
1.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결정	①	②	③	④	⑤
2. 수업 운영 방식 결정	①	②	③	④	⑤
3. 학년 및 담임 배정	①	②	③	④	⑤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5. 교과별 수업 시수 조정	①	②	③	④	⑤
6.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 반영 안함	대체로 반영 안함	보통	대체로 반영됨	매우 많이 반영됨
7. 교원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	①	②	③	④	⑤
8. 교원평가 및 성과급 배분	①	②	③	④	⑤
9. 학교 예산 편성	①	②	③	④	⑤
10. 용역 및 입찰 결정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 교칙 제정 및 개정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교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게 지원적이도록 격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교의 학교 풍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 개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분위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발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된 학교운영방식이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교의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학교교육활동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따라 오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 이하 ② 11~30% ③ 31~50%
 ④ 51~70% ⑤ 71~90% ⑥ 91% 이상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내준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자주	항상
1. 과제 완료 여부를 검사한다	①	②	③	④
2. 과제를 건어서 수정한 후 돌려준다	①	②	③	④
3. 수업 시간에 과제를 수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전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설명을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설명과 안내가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학생에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생들과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생의 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면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목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북교육 주요 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북교육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경북교육은 학력우수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북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북교육은 인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경북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경북교육은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경북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경북교육은 진로 지도 및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경북교육은 교사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경북교육은 학생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교육중단연구를 위한 설문(학교장용)

◎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다음은 '학교경영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운영하실 때 학생의 교육 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

- ① 학력증진/상급학교 진학 ② 인성교육 ③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개발
- ④ 특기적성 교육강화 ⑤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⑥ 창의성 신장
- ⑦ 기타

◎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교사의 의사결정 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반영 안함	대체로 반영 안함	보통	대체로 반영됨	매우 많이 반영됨
1.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결정	①	②	③	④	⑤
2. 수업 운영 방식 결정	①	②	③	④	⑤
3. 학년 및 담임 배정	①	②	③	④	⑤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5. 교과별 수업 시수 조정	①	②	③	④	⑤
6.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7. 교원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	①	②	③	④	⑤
8. 교원평가 및 성과급 배분	①	②	③	④	⑤
9. 학교 예산 편성	①	②	③	④	⑤
10. 용역 및 입찰 결정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 교칙 제정 및 개정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장선생님의 경영 방식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교사 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게 지원적일도록 격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교의 학교 풍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발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된 학교운영방식이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교의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학교교육활동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교장선생님의 업무 비중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업무 시간을 100%라고 할 때 다음 활동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시간을 할애하셨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무시간비중(%)
1.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
2. 각종 공문서 결재 및 처리	□□%
3. 교내 장학 활동	□□%
4. 학생 생활 지도	□□%
5. 학부모와의 면담 및 민원 청취	□□%
6. 교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주관 및 참여	□□%
7. 외부 각종 회의 참석(상급행정기관, 지역사회 등)	□□%
8. 교장 전문성 개발 활동	□□%

다음은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북교육 주요 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북교육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경북교육은 학력우수 학생 지원(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북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북교육은 인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경북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경북교육은 방과후학교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경북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경북교육은 진로 지도 및 교육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경북교육은 교사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경북교육은 학생 복지시설 및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 ◆강명희, 이수연. (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265-293.
- ◆강순화, 이은경, 양난미. (2000). 학업우수 및 학업부진 학생의 학업실태 분석을 통한 대학에서의 학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221-242.
- ◆강이화. (2019).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미래-국내·외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9(1), 279-297.
- ◆강정삼. (1995). 학교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3(3), 281-308.
- ◆경북교육청. (2024). 보도자료_공동 교육과정 운영...교육 격차 해소.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42214140278202>
- ◆경북교육청. (2022). K-에듀 소식(경북교육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https://blog.naver.com/2mcool/222881542052>
- ◆경북일보. (2024). 다문화 학생 2만명 시대...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급하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286>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3). 경북교육중단연구 기초설계 연구. 안동: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a). 경북교육중단연구 기본계획. 안동: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b). 경북교육중단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안동: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c). 2024년 1차년도 경북교육중단연구 조사 시행 안내. 안동: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024d). 경북교육중단연구 1차년도(2024) 초4 성취도검사 문항 개발 연구. 안동: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곽병선. (1998).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방안. 교육과정연구, 16(2), 227-245.
- ◆교육플러스. (2024). [수업혁신 실천 교수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 교수법 혁신.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2>
- ◆권선경, 이지연, 장진이. (2015).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3), 87-106.
- ◆권영욱. (2013).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 지능정보연구, 19(2), 87-100.
- ◆권진, 박지은, 오지영. (2016). 남자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2), 75-86.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5.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애. (2015).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 (RR2015-04). KEDI 연구보고서, 1-264.
- ◆김난옥, 박민애, 이빛나, 손원숙. (2018). 교사의 특성과 피드백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평가연구*, 21(2), 129-151.
- ◆김남희, 김종백.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5(4), 763-789.
- ◆김명식. (2009).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53-67.
- ◆김민성, 신택수. (2010).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자기결정성 학습노력, 학업성취, 학교만족도의 인과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3), 43-70.
- ◆김민성, 신택수, 허유성. (2012). 중·고등학교 시기 교사-학생 관계, 교우 관계의 종단적 변화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6(2), 429-459.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 ◆김소영, 김지은. (2013). 고등교육에서 학습성과에 대한 학교참여의 영향과 관련 요인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4(4), 73-96.
- ◆김신일. (2000). *교육사회학* (제3판). 교육과학사.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양분, 신혜진, 강호수. (2016).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변화 관련 변인 비교 분석. *한국교육*, 43(2), 33-66.
- ◆김영희, 서정아. (2007).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63-70.
- ◆김은비, 유성창, 박기범, 백영선, 박선민, 조대연. (201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초등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역량개발학습연구*, 14(3), 193-221.
-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1), 101-123.
- ◆김정현, 김성벽, 정인경.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241-269.
- ◆김종백, 김남희. (2014).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의 변화가 학생의 학교행복과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285-315.
- ◆김지윤, 김오석. (2021).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 *한국지역지리학회*

- 지, 27(1), 55-69.
- ◆김지현, 도남희, 배운진, 김혜진, 강규돈, 장현진. (202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 ◆김현미, 이수정, 최항섭, 변희현, 정은주, 주형미. (2024).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 탐색: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7(1), 1-28.
 - ◆김현진, 박정호, 홍선주, 박연정, 김은영, 최정윤, 김유리. (2020). 학교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공학연구*, 36(스페셜), 905-930.
 - ◆김혜옥, 구윤정, 박은아. (201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완벽주의,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2), 257-266.
 - ◆김효선, 박상욱. (2017). 다문화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지심리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7(2), 1-30.
 - ◆나승일, 정철영, 구자역, 박행모, 김진구, 마상진, 조단비. (2007).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유형별 교육혁신 추진과제 탐색.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35-57.
 - ◆노수림, 배성아. (2017).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4(12), 121-142.
 - ◆박경호, 권희경, 김정아, 남궁지영, 최인희, 송승원, 김위정, 최유리, 정민주, 최은아, 이희조, 이수현. (2020). 2020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개요보고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박남기. (2017). 제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개혁 새 패러다임 탐색. *교육학연구*, 55(1), 211-240.
 - ◆박장희. (2015).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이 수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의 매개 작용. *청소년학연구*, 22(6), 187-203.
 - ◆박정. (2020). 머신러닝을 활용한 서울시 중학생 진로성숙도 예측 요인 탐색. *한국빅데이터학회지*, 5(2), 155-170.
 - ◆박종순, 조득환. (2011). 대구·경북지역의 인구추이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국토지리학회지*, 45(1), 1-9.
 - ◆박주호, 백종면. (2019).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213-238.
 - ◆박하나, 진명화, 박지우, 임규연. (2021).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분석. *교육문화연구*, 27(5), 75-101.
 - ◆박혜원, 이사라. (2005). 부모, 또래 및 교사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적 비교 연구: 한국과 중국 심양 조선족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169-182.
 - ◆선미정, 전종철. (2018). 생태체계 요인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가구소득수준별 집단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175-194.
 - ◆성기선, 김준엽, 박소영, 민병철. (2012). 경기교육종단연구 연구설계 및 문항개발 연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성태제. (2009). 문항반응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손수경. (2022). 청소년활동의 사회적지지가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3(3), 77-102.
- ◆손영주, 송영아. (2012).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 학습에 대한 PBL과 S-PBL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43-52.
-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 ◆송연주, 이상수, 김대현, 함경애, 이동훈. (2014). 학업성취 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차이. 교육종합연구, 12(1), 29-50.
- ◆송인발, 강혜영. (2016).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140-149.
- ◆안병영. (2010). 한국 교육정책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위하여. 사회과학논집, 41(2), 1-13.
- ◆안성조, 김순양, 박은선, 고수정. (2019). 대구경북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포용성 확보 방안. 대구경북연구, 18(2), 41-66.
- ◆안영은, 정송, 민경석, 천주영, 김지훈. (2021). 서울학생중단연구 2020 조사설계 및 시행 기반 구축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과 부모의 중재 행위, 아동의 이용조절 인식 간의 상관관계. 언론과학연구, 13(2), 161-192.
-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증장기 정책방안 연구 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성배, 김성식. (2018).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 실태와 영향 요인 탐색.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8(2), 215-234.
- ◆오희정, 김갑성. (2020). 학생의 시험 및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관계의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8(2), 107-131.
- ◆우연경, 이인태. (2024).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초등교육연구, 37(1), 1-24.
- ◆유성경, 박승리, 황매향. (2010). 한국 초·중·고등학생용 부모애착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등상담연구, 9(1), 21-39.
- ◆윤수경, 이윤희, 임소현, 김은영. (2018).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2), 353-374.
- ◆윤형식. (2020). 부산교육중단연구 개선 연구: 조사내용의 타당도 개선을 중심으로.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이경님. (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 ◆이광성. (2022).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단계와 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30(4),

97-109.

- ◆이동욱. (2024a).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 탐색: 사회정서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6), 5-46.
- ◆이동욱. (2024b).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영향관계 탐색: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 한국과 세계, 6(3), 201-237.
- ◆이두휴. (2011). 도시와 농촌 간 교육양극화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2), 121-148.
- ◆이미숙, 김진숙, 이수정, 조기희, 김미식, 송창용. (20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교육 개선 방향 탐색: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0(3), 49-73.
- ◆이미옥. (2009). 영어 학습 태도, 동기, 불안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규, 이영호, 정한용, 최종현, 김승현, 김용구, 이수경. (1995). 한국판 Beck 우울증 척도 표준화 연구 2: 타당화 연구. 정신병리학, 4(1), 96-104.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숙정. (2006). 중·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 간의 관계 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이영희, 윤지현, 홍섭근, 임재일, 백병부. (2018). 미래교육 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4(5), 127-153.
- ◆이재분. (2000).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 연구(I) (RR2000-09). 한국교육개발원.
- ◆이찬주, 이병욱, 강경균, 임유화. (2013). '발명·특허 기초'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실태 및 요구 조사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8(1), 105-124.
- ◆이춘재, 광금주. (1994).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 (1):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 ◆이혜순, 옥지원. (2012).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 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438-446.
- ◆인효연, 김훈호, 김용남, 박민호, 이진권. (2022). 세종교육 중단연구 학교혁신과 학생성장 II: 2차연도 기초분석 및 구조모형 검증.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 ◆임지현. (2009).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수, 오혜정, 이정아. (2022).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9(8), 219-245.
- ◆장상호. (2004).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평가의 재구성. 교육원리연구, 9(1), 83-176.
- ◆장영수, 변숙자, 박종찬. (2022). 충북 학생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청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충북교육정책연구소.

- ◆장인실, 우라미. (2022).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S 교육 지원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3), 95-112.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정근혜, 노진형. (2020).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 7(2), 119-144.
- ◆정민희. (2020).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2, 63-87.
- ◆정병삼. (2012). 부모, 교사, 친구관계에서 지각하는 지지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2), 131-159.
- ◆정운경, 이지수, 안현선. (2017).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와 학업참여 및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진로교육연구*, 30(3), 1-24.
-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24(3), 169-194.
- ◆정주원, 김은정, 최진희. (2024).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32(3), 1-13.
- ◆정지나, 손승희. (2020).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직렬매개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6), 105-122.
- ◆정철영. (2011).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과교육연구*, 17(4), 1-30.
- ◆조윤오. (2020). 청소년 게임중독과 비행행위와의 관계.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0(3), 67-81.
- ◆조철기. (2013).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위한 지도학습의 활용 방안. *사회과교육*, 52(1), 71-84.
- ◆조현국. (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초·중등 과학교육의 과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2), 289-308.
- ◆최경화, 박경, 정숙정. (2021). 경상북도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모색. *대구 경북연구*, 20(3), 115-138.
- ◆최명구, 성소연. (2012).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간의 구조관계. *청소년학연구*, 19(11), 357-373.
- ◆최서경, 김영식. (2012). 앵커드 수업을 통한 알고리즘 학습이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5(3), 1-10.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추경모. (2012). 교육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 중학교 교육현황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1), 33-52.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23). 교사·학생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방안 연구: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으로. 청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충청투데이. (2024). 필연적 혁신 '에듀테크'... 즐거움 커지니 교육 효과도 쑥.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242>
- ◆한동규, 이소정, 김수미, 서예중, 이지민, 위진경, 조주영. (2024).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 유능성,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9(1), 145-152.
- ◆한성희, 이현만.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167-178.
- ◆황매향. (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7(3), 187-203.
-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X: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deret-German, T., & Ben-Peretz, M. (2020). Using data on school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school improvement. *Studies in Educational Evaluation*, 64, 100831.
- ◆Ainsworth, J. W. (2002). Why does it take a village? The mediation of neighborhood effects on educational achievement. *Social Forces*, 81(1), 117-152.
- ◆Balmer, D. F., Varpio, L., Bennett, D., & Teunissen, P. W. (2021).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in medical education: Time to conceptualize time. *Medical Education*, 55(11), 1253-1260.
- ◆Banks, J. A.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Wiley.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ennett, D., Kajamaa, A., & Johnston, J. (2020). How to... do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The Clinical Teacher*, 17(5), 489-492.
- ◆Bhattacharya, N. (2022). A longitudinal study to understand university students' searching as a learning proces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 404-409.
- ◆Bilyalova, A. A., Salimova, D. A., & Zelenina, T. I. (2020). Digital transformation in education. In *Integrated science in digital age: ICIS 2019* (pp. 265-276).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Bo, N. S. W. (2024). OECD digital education outlook 2023: Towards an effective

- education ecosystem. *Hungari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6.
- ◆Cardona, M. A., Rodríguez, R. J., & Ishmael, K.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 ◆CASEL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2015). What is SEL? Retrieved from <https://casel.org>
 - ◆Çelik, İ., & Bati, K. (2024). The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on academic performances and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in the computational problem-solving approach. *Informatics in Education*.
 - ◆Compas, B. E., Jaser, S. S., Bettis, A. H., Watson, K. H., Gruhn, M. A., & Dunbar, J. P. (2017). Coping,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sis and nar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3(9), 939-991.
 - ◆Demakova, I. (2023). Longitudinal method of researching the results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a teacher. *Siberian Pedagogical Journal*, 2023, 7-16.
 - ◆Deng, Q. (2024). The impa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Edu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9, 49-55.
 - ◆Devonald, M., & Jones, N. (2023). Analyzing adolescent education and health trajectories in crisis contexts: Examples from a multi-year longitudinal cross-count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22, 16094069231153611.
 - ◆Dhawas, P., Ramteke, M. A., Thakur, A., Polshetwar, P. V., Salunkhe, R. V., & Bhagat, D. (2024).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Data preprocessing techniques, data mining techniques, machine learning algorithm, visualization. In *Big Data Analytics Techniques for Market Intelligence* (pp. 183-208). IGI Global.
 - ◆Elias, M. J., Zins, J. E., Weissberg, R. P., Frey, K. S., Greenberg, M. T., Haynes, N. M., & Shriver, T. P. (199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uidelines for educators. ASCD.
 - ◆Evans, G. W., & English, K. (2002). The environment of poverty: Multiple stressor exposure, psychophysiological stres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3(4), 1238-1248.
 - ◆Farooq, S., & Mishra, P. (2024). Future trends and innov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wards Teaching and Learning* (pp. 265-287). Bentham Science Publishers.
 - ◆Fu, L., Wang, Y. G., & Wu, J. (2024). Recent advances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 Modeling and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50, 173.
- ◆Grammer, J. K., Coffman, J. L., Ornstein, P. A., & Morrison, F. J. (2013). Change over time: Conducting longitudinal studies of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4(4), 515-528.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Gustiani, F., Barus, I. C., & Elfrianto, E. (2023). Monitoring and evaluation to improve school quality. *Indonesian Journal Education*, 2(4), 99-103.
 - ◆Harahap, A. P. (2024). Peran konselor dalam membantu siswa mengatasi stres akademik: Pendekatan bimbingan konseling. *Reslaj: Religion Education Social Laa Roiba Journal*, 6(10), 4615-4619.
 - ◆Hattie, J., & Timperley, H. (2007). The power of feedback.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1), 81-112.
 - ◆Hill, N. E., & Tyson, D. F.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740.
 - ◆Holmes, W.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 ◆Hutt, E. (2018). Taking the long view: Longitudinal surveys and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in America. In *Educational Research: Ethics, Social Justice, and Funding Dynamics* (pp. 121-141).
 - ◆Iqbal, M. S. (2012). A bouquet of development interventions to achieve academic success. *IOSR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3(1), 1-5.
 - ◆Juliangkary, E., Suparta, I. N., Ardana, I. M., & Mahayukti, G. A. (2024). Development of learning models to enhance students' creative think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 ◆Khan, E. A., Abbas, A., Khan, S., & Shoqat, I. (2024). Investigating trends in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analysis of grade fluctuations among students. *The Critical Review of Social Sciences Studies*, 2(2), 783-798.
 - ◆Kobylnyk, V. (2024). Comprehensive approach to analyzing regional policies.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Ukraine Journal: Political Science, Sociology, Law*, 37, 42.
 - ◆Kutscher, T., Sengewald, M. A., Gnambs, T., Carstensen, C. H., & ABmann, C. (2024). The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NEPS) and methodological innovations in longitudinal large-scale assessments. *Large-scale Assessments in*

Education, 12(1), 1-11.

- ◆Kyriakides, L., & Creemers, B. P. (2008). A longitudinal study on the stability over time of school and teacher effects on student outcome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4(5), 521-545.
- ◆Laird, N. M. (2022). Statistical 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90, S2-S16.
- ◆Lanza, S. T., Tan, X., & Bray, B. C. (2013). Latent class analysis with distal outcomes: A flexible model-based 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1), 1-26.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 ◆Lv, Z., Ying, C., & Chen, J. (2024). The impact of volunteer service on moral education performance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LOS One*, 19(4), e0294586.
- ◆Mann, M., Hosman, C. M., Schaalma, H. P., & de Vries, N. K. (2004).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19(4), 357-372.
- ◆Mertens, S. B., Caskey, M. M., & Flowers, N. (2016). The need for large-scale, longitudinal empirical studies in middle level education research. *Middle Grades Review*, 2(2), 1-11.
- ◆Özbağcı, D., Breetzke, J., & Bohndick, C. (2023). How do social and academic integration develop over time? Longitudinal analyses of differences based on students' sociodemographic background. *Europ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21.
- ◆Pandor, P., Wijanarko, R., Nirwana, A., Ton, S. S. P., & Dagur, O. (2024). Literasi digital: Upaya meningkatkan kompetensi berkomunikasi frater passionis melalui media digital. *Prima Abdika: Jurnal Pengabdian Masyarakat*, 4(3), 562-570.
- ◆Parker, J. G., & Asher, S. R. (2006).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evnaya, M. V., & Drozdova, A. (2022). Cultural volunteering of university students: Assessment of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potential for development. *Vysshee Obrazovanie v Rossii = Higher Education in Russia*, 31, 41-57.
- ◆Pinquart, M. (2017).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ex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 updated meta-analysis.

-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873.
- ◆Pomerantz, E. M., Moorman, E. A., & Litwack, S. D. (2007). The how, whom, and why of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academic lives: More is not always better.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3), 373-410.
 - ◆Pretsch, J., Ehrhardt, N., Engl, L., Risch, B., Roth, J., Schumacher, S., & Schmitt, M. (2016). Injustice in school and students' emotions, well-being, and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Social Justice Research*, 29, 119-138.
 - ◆Pu, X., Gao, G., Fan, Y., & Wang, M. (2016). Parameter estimation in stratified cluster sampling under randomized response models for sensitive question survey. *PLOS One*, 11(2), e0148267.
 - ◆Queiroga, E. M., Siqueira, E. S., dos Santos Portela, C., Cordeiro, T. D., Bittencourt, I. I., Isotani, S., & Cechinel, C. (2024). Data-driven strategies for achieving school equity: Insights from Brazil and policy recommendations. *IEEE Access*.
 - ◆Rao, M. M., Sabat, R. R., & Sharma, A. V. N. L. (2016). Strategic plan for academic excellence through critical thinking for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Transformations*, 29(Special Issue).
 - ◆Sakız, H., Özdaş, F., Göksu, İ., & Ekinci, A. (2021). A longitudin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correlates in higher education. *SAGE Open*, 11(1), 1-13.
 - ◆Scholes, L. (201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academic achievement. In *The encyclopedia of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12).
 - ◆Schwab, K.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own Currency.
 - ◆Septiani, A. N., Pratiwi, D., & Rossy, R. (2023). Evaluasi pembelajaran dalam meningkatkan mutu pendidikan di sekolah dasar. *MASALIQ*, 3(5), 824-832.
 - ◆Sharma, M. K., & Mahindru, P. (2015). Video game addiction: Impact on teenagers' lifestyle. *The National Medical Journal of India*, 28(6), 282-283.
 - ◆Shute, V. J. (2008). Focus on formative feedback.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8(1), 153-189.
 - ◆Sodik, M., Syayidah, L. N., & Isma, L. N. (2024). Peningkatan kapasitas pembelajaran santri melalui literasi digital dan pemanfaatan media sosial di pondok pesantren. *Jurnal Pengabdian kepada Masyarakat Desa (JPMD)*, 5(2), 127-139.
 - ◆Suhendi, H. Y., Mulhayatiah, D., Nasrudin, D., Agustina, R. D., Malik, A., Putra, R. P., & Ardiansyah, R. (2024).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problem solving on energy concept in physics learning for improving students' creative thinking

- skills. *KnE Social Sciences*, 2024, 877-886.
- ◆Tezer, M. (2024). Cognition and metacognition in education.
 - ◆Thomas, S. M. (2001). Dimensions of secondary school effectiveness: Comparative analyses across regions.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2(3), 285-322.
 - ◆Thomas, S. M., Salim, M., & Peng, W. J. (2013). Monitoring and evaluating school effectiveness: The case for longitudinal datasets. In *Education Quality and Social Justice in the Global South* (pp. 59-74). Routledge.
 - ◆UNESCO. (202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roadmap.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Vail, K. (2023). Advantages of career learning in the early grades: A conversation with Ed Hidalgo. *Phi Delta Kappan*, 104(6), 29-33.
 - ◆Vigentini, L., Swibel, B., & Hasler, G. (2022). Developing a growth learning data mindset: A secondary school approach to creating a culture of data-driven improvement. *Journal of Learning Analytics*, 9(2), 87-104.
 - ◆Vonitsanos, G., Moustaka, I., Doukakis, S., & Mylonas, P. (2024, May). Transforming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Exploring the dimensions of Education 4.0. In *2024 IEEE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 (EDUCON)* (pp. 01-10). IEEE.
 - ◆Wagner, L., Hohenstein, M., Wepf, H., & Ruch, W. (2020). Character strengths are related to students' achievement, flow experiences, and enjoyment in teacher-centered learning, individual, and group work beyond cognitive ability. *Frontiers in Psychology*, 11, 1324.
 - ◆Wentzel, K. R., & Caldwell, K. (1997). Friendships, peer acceptance, and group membership: Relations to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68(6), 1198-1209.
 - ◆Wesarg-Menzel, C., Ebbes, R., Hensums, M., Wagemaker, E., Zaharieva, M. S., Staaks, J. P., & Wiers, R. W. (2023).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of self-regulation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 meta-review differentiating between self-regulatory abilities, goals, and motivation. *Developmental Review*, 69, 101090.
 - ◆Willms, J. D. (2010). School composition and contextual effects on student outcomes. *Teachers College Record*, 112(4), 1008-1037.
 - ◆Yunus, M. (2018). Testing of stratified cluster sampling technique to produce unbiased estimator for parameter of population. *El-Ghiroh: Jurnal Studi Keislaman*, 15(2), 17-26.

【참고문헌 2_심화분석】

- ◆강문희. (2022).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과제가치의 매개효과. 디지털 융복합연구, 20(1), 471-479.
- ◆강희주. (2024).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애착, 창의적 학교환경, 시간사용 만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31(9), 283-308.
- ◆교육부·질병관리청. (2024).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질병관리청.
- ◆김대명. (2022). 전문대학생들의 부모애착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4), 63-78.
- ◆김미경, 김양희, 황사라, 정익중. (2012). 고등학생의 성적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65-187.
- ◆김진철, 김성천. (2023). 아동의 그릿과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구조 연구. 육아정책연구, 17(1), 99-120.
- ◆모상현, 이중섭. (2012).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가족관계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6(3), 23-40.
- ◆박상미, 박응임. (2020). 부모애착이 남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8(2), 29-49.
- ◆박진주, 김은정, 이슬이. (2020). 대학생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 인문사회21, 11(6), 3021-3036.
- ◆서미옥. (2019). 그릿(Grit)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7(1), 105-130.
- ◆서현주, 최형아. (2017). 중·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 또래, 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30(2), 51-78.
- ◆서혜전, 노성향. (2018). 아동의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분석. 열린 부모교육연구, 10(4), 55-70.
- ◆세이브더칠드런. (2021). 세이브더칠드런, 22일 한국 아동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https://www.sc.or.kr/news/noticeView.do?NO=71011>
- ◆신건권. (2018).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은모, 최효식. (2022).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313-328.
- ◆유경훈, 손유선. (2022).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학교적응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

- 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8), 496-505.
- ◆유계환, 서상숙. (2024). 전문대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과잉간섭, 그릿, 학업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 분석. 사고개발, 20(2), 1-23.
 - ◆유계환. (2025). 대학생의 내적동기와 무동기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의 매개효과: 운동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구조 차이의 탐색. 사고개발, 21(1), 193-209.
 - ◆이동욱. (2024). (통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 분야 Stata 통계분석 및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부크크.
 - ◆이선정. (2019).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 학습관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3-24.
 - ◆조선화. (2022).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청소년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이중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5(2), 145-161.
 - ◆조선화. (2019).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7, 145-169.
 - ◆최내리, 조혜진. (2014).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131-153.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5). ISSUE PAPER(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5년 청소년 마음기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허미경, 도미향. (2025).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1), 87-109.
 - ◆홍은비, 노성향. (2022).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 그릿(Grit)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34, 57-80.
 - ◆Achmad, H. R., & Wahyudi, H. (2021). Hubungan stres akademik dan subjective well-being pada anak dan remaja selama pembelajaran daring. Jurnal Riset Psikologi, 93-99.
 - ◆Ang, R. P., & Huan, V. S. (2006). Academic expectation stress inventory: Development,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3), 522-539.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pp. 115-160). Academic Press.
 - ◆Brown, J. D., & Dutton, K. A. (1995). The thrill of victory, the complexity of defeat: Self-esteem and people's emotional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712-722.
- ◆Buvana, R., & Talwar, P. (2023). Grit and self-efficacy on growth mindset: A review-base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Technology and Social Sciences*, 8(1), 37-52.
 - ◆CASEL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2015). *The CASEL guide: Effectiv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s*.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 ◆Chin, W. W. (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Ed.),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pp. 295-336). Psychology Press.
 - ◆Clark, K. N., & Malecki, C. K. (2019). Academic grit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associations with achievement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2, 49-66.
 - ◆Cohen, J. (2013).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Routledge.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W. H. Freeman and Company.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Datu, J. A. D., King, R. B., Valdez, J. P. M., & Eala, M. S. M. (2019). Grit is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on via meaning in life among Filipino high school students. *Youth & Society*, 51(6), 865-876.
 - ◆De Apodaca, R. F., & Cowen, E. L. (1982).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lf-esteem, sociometric status, and insight of referred and nonreferred school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19(3), 395-40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1), 1-31.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18). Advances and open questions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Collabra: Psychology*, 4(1), 1-49.
 - ◆DiMenichi, B. C., & Richmond, L. L. (2015). Reflecting on past failures leads to increased perseverance and sustained atten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 27(2), 180-193.
- ◆Duari, P. (2012). Importance of self-esteem among student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coping with stress.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4), 474-477.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Scribner.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Eromo, T. L., & Levy, D. A. (2017). The rise, fall, and resurgence of self-esteem: A critique, reconceptualization, and recommendation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9(2), 255-265.
 - ◆Eromo, T. S. L. (2015). *The rise and fall of self-esteem: A critical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recommendations* [Doctoral dissertation, Pepperdine University].
 - ◆Folkman, S. (2013). Stress: Appraisal and coping. In M. D. Gellman & J. R. Turner (Eds.), *Encyclopedia of behavioral medicine* (pp. 1913-1915). Springer.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lla, B. M., & Wood, J. J. (2012). Emotional self-efficacy moderates anxiety-related impairments in math performance in elementary school-age you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2), 118-122.
 - ◆Goldman, A. H. (2017). Happiness is an emotion. *The Journal of Ethics*, 21(1), 1-16.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17).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ge Publications.
 - ◆Harahap, N. R. A., Badrujaman, A., & Hidayat, D. R. (2022). Determinants of academic stress in students. *Bisma: The Journal of Counseling*, 6(3), 335-345.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Guilford Press.

-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1), 115-135.
- ◆Henseler, J., Ringle, C. M., & Sinkovics, R. R. (2009).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in international marketing. In R. R. Sinkovics & P. N. Ghauri (Eds.), *New challenges to international marketing* (pp. 277-319).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Hodge, B., Wright, B., & Bennett, P. (2018). The role of grit in determining engagement and academic outcomes for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9(4), 448-460.
- ◆Holtby, N. M. (2018). *Grit, coping, and math anxiety: Examining the pathways through which devotion to long-term goals may promote student well-being*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 ◆Hunagund, D. L., & Hangal, S. J. (2014). Self-efficacy and happiness in youth.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40(1), 70-73.
- ◆Hwang, Y. K., Jung, M. N., & Lee, C. S. (2019). The effect of employment stress and growth mindset on the happines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grit. *Medico-Legal Update*, 19(2), 487-493.
- ◆Jiang, W., Jiang, J., Du, X., Gu, D., Sun, Y., & Zhang, Y. (2020). Striving and happiness: Between- and within-person-level associations among grit, need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5(4), 543-555.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Keyes, C. L. (2014). Happiness, flourishing, and life satisfaction. In W. C. Cockerham (Ed.),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health, illness, behavior, and society* (pp. 747-751). Wiley Blackwell.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Kim, M. E. (2022). The moder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in high school students.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 4(2), 1-11.
- ◆Kim, S. (2020). A relationship study of adolescents' various stress, school-life adjustment, and happiness: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the Korea*

-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9), 161-169.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5th ed.). Guilford Publication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 ◆Lew, K. H., & Son, Y. S. (2022).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an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8), 496-505.
 - ◆Lovin, D., & Bernardeau-Moreau, D. (2022). Stress among students and difficulty with time management: A study at the University of Galati in Romania. *Social Sciences*, 11(12), 538.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Harper & Row.
 - ◆Misra, R., & Castillo, L. G. (2004). Academic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Comparison of Americ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1(2), 132-148.
 - ◆Muenks, K., Wigfield, A., Yang, J. S., & O'Neal, C. R. (2017). How true is grit? Assessing its relations to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regulation,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9(5), 599-620.
 - ◆Ng, Y. K. (2021). What is happiness? Why is happiness important? In Y. K. Ng (Ed.), *Happiness—Concept, measurement and promotion* (pp. 1-14). Springer Nature Singapore.
 - ◆Nikitha, S., Jose, T. T., & Valsaraj, B. P. (2014). A correlational study on academic stress and self-esteem among higher secondary students in selected schools of udupi district. *Journal of Health and Allied Sciences NU*, 4(1), 106-108.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 ◆Park, J. Y., Tandia, M. T., Idahosa, O., & Lee, C. S. (2020). Influence of human rights victimization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grit.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Multidisciplinary Research*, 4(3), 1-5.
 - ◆Pinki, & Priyanka. (2020). Academic stress and self-esteem among rural and urban adolescents. *Asian Journal of Home Science*, 15(1), 80-86.
 - ◆Putwain, D. W. (2007). Test anxiety in UK schoolchildren: Prevalence and

- demographic pattern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3), 579–593.
- ♦Rahardjo, W. (n.d.). Happiness as a learning process. *Jurnal Ilmiah Psikologi Gunadarma*, 12(2), 97–35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fiyah, S.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mathematics anxiety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a Open*, 7, 10–21070.
 - ♦Saini, S., & Punia, V. (2013). Academic stress in relation to self-efficacy and mindfulness among seni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4(1), 194–196.
 - ♦Saini, S., & Saini, D. S. (2013). Academic stress in relation to self-efficacy and peer pres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Management Studies*, 3(4), 518–519.
 - ♦Salsabila, Z., Gunawan, S. E., Verlantyno, R., Nugraha, T. K., & Wijaya, E. (2024). The role of grit on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Journal Edunity*, 3(12), 1249–1254.
 - ♦Schmidt, F. T. C., Nagy, G., Fleckenstein, J., Möller, J., & Retelsdorf, J. (2018). Same same, but different? Relations between facets of conscientiousness and grit.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2(6), 705–720.
 - ♦Seligman, M. E.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Simon & Schuster.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Free Press.
 -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2), 40–45.
 - ♦Spyropoulou, E., & Giovazolias, T. (2024). Cognitive reappraisal moderate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A latent interaction model.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1–13.
 - ♦Sundriyal, R., & Kumar, R. (2014). Happiness and well-be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1(4), 19–27.
 - ♦Teuber, Z., Nussbeck, F. W., & Wild, E. (2021). The bright side of grit in burnout

- prevention: Exploring grit in the context of demands-resources model among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2(3), 464-476.
- ◆Torsheim, T., & Wold, B. (2001). School-related stress, school support, and somatic complaints: A general population stud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3), 293-303.
 - ◆Tripathi, K., & Sharma, K. (2013). Causes of academic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and its management.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4(5), 1161-1164.
 - ◆Wang, S., Zhou, M., Chen, T., Yang, X., Chen, G., Wang, M., & Gong, Q. (2017). Grit and the brain: Spontaneous activity of the 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grit and academic performanc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2(3), 452-460.
 - ◆Wilks, S. E. (2008). Resilience amid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impact of social support among social work students. *Advances in Social Work*, 9(2), 106-125.
 - ◆Wolters, C. A., & Hussain, M. (2015).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10(3), 293-311.
 - ◆Yadav, V. N., Kumar, S., Kumar, S., & Nara, K. (2012).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 correlational study.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1), 62-65.
 - ◆Yang, Y. S., & Kwon, J. I. (2012). The interaction effects on test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academic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coping sty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1), 79-88.
 - ◆Yap, C. C., Mohamad Som, R. B., Sum, X. Y., Tan, S. A., & Yee, K. W. (2022).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among adolescents in Malaysia: The mediating role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ports*, 125(3), 1348-1362.
 - ◆Ying, S. U. N. (2003). What is happiness. *Studies in Ethics*, 63(3), 83-91.
 - ◆Yuni, I. G. A. S. M., & Wilani, N. M. A. (2025). Intervention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Psikostudia: Jurnal Psikologi*, 14(2), 152-158.
 - ◆Zogmaister, C., & Maricutoiu, L. P. (2022). Mirror, mirror on the wall, tell me that I have succeeded at it all: Self-esteem and the defensive mechanisms against failure.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5(5), 1221-1248.

경북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발 행 일 2025년 2월

발 행 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박용휘

발 행 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주 소 (367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전 화 번 호 054-840-2269

홈 페이지 <https://www.gbe.kr/gber/>
